

2020년도

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현황보고서

2020.11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ourism & Leisure Industrial Skills Council

연구결과 요약

1. 서론

■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관광·레저분야 산업의 업종별 인력수급 실태 및 기술 동향, 주요 이슈분석 등의 산업계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여 산업 내 관련 활동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산업별 인력자원 수급 현황자료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인력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현재 관광·레저산업 분야별 진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실태조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산업의 활성화 도모
- 관광·레저산업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협의적 해석과 현재 관광·레저산업(관광진흥법상) 현장담당자의 의견수렴 및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분야 선정과 인적자원 개발·관리·활용에 관한 정책적 대안 제시

■ 조사의 범위 및 방법

- 관광·레저산업의 산업인력현황 파악을 위하여 2010년~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2006년부터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25년까지의 업종별 수요를 예측하였음
- 종별 분류의 경우 NCS 대분류 「12.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중분류 「03.관광·레저」, 소분류 「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함
- 또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즉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설정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관광산업 특수분류, NCS분류체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7개 업종)의 분류체계 및 산업범위를 활용하였음
- 관광·레저산업 산업인력현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연구자료(지역별 훈련수급조사분석),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자료(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광사업체조사 등),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현

황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현황분석을 통해 관광·레저산업의 영향력 있는 산업 내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기업 담당자를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여 정량적(통계자료) 연구를 비롯한 정성적(FGI)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관광·레저산업 개념 및 산업범위 분류분석

■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고찰

- 사전적 관광산업 개념: 관광산업은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을 관광자원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함
- 레저산업 개념: 레저산업은 레저공급 요소의 일부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사람들이 레저시간에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하여 유형, 무형의 레저상품을 제공하거나 제조, 판매, 소비의 축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산업 총칭
- 관광·레저산업 개념: 관광·레저산업이란 “관광·레저행위자의 다양한 욕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광산업의 광범위적 접근을 통한 분야별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업종의 총칭” 이라고 정의함

■ 관광·레저분야 산업범위 분류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국제표준산업분류(ISC Rev.4) 관광산업 분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범위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관광산업 특수분류 활용
- NCS분류체계상 산업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7개 업종)과 이를 확대 표현한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중심으로 NCS 분류체계상 산업범위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연계하였음

3. 관광·레저분야 산업현황 분석

■ 국내외 관광동향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관광 급감

- 국제관광 환경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19년 기준 약 15억 명의 여행객 수와 1,478십억 달러의 관광수입이 창출되었지만 2020년 중국 우한 발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에 따라 국가별 이동제한 등으로 국제관광은 급감하에 따라 국내 관광·레저산업에도 심각한 경영난 초래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내수관광 불황

- 코로나19의 대확산에 따라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실내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행사개최가 제한됨에 따라 국내 관광·레저산업의 급격한 경영난이 초래됨에 따라 산업 내 신규 채용수요가 전문한 실정임
 - ❖ 관광·레저산업의 특별고용유지업종(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제외) 선정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 내 대량실직이 예상됨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관광트렌드의 변화

- 국내 관광트렌드는 코로나9 이후 기존의 관광트렌드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안전성, 소규모, 비대면, 청정지역 등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조사기관별 다양한 유형의 관광트렌드 도출)
 - ❖ 이러한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관광·레저산업 역시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상품 개발 및 시스템의 구축 필요
- 산업의 인적자원 역시 신규로 부상하는 업종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재직자 역시 새로운 시스템(비대면 등)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또한 이뤄져야 할 것임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현황

-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수는 최근 5년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의 관광레저분야 사업체 수는 33,452개로 전년 대비 1.1%가 증가함
- 업종별로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이 산업 전체의 63.2%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 또한 높은 비중(전체의 58.7%)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레저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신규채용률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높은 채용자 수가 높게 나타난 업종은 관광숙박업(14,419명)으로 나타났지만, 이직자 역시 관광숙박업(12,893명)으로 높게 나타나 종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직률 감소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 종사자 중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 수는 총 33,554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음
 - 업종별로 여행업, 카지노업 업종의 자격증 수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국제회의업과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종사자의 자격증 소지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2018년 기준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인력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0년의 관광·레저산업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다각적 지원 및 백신(치료제 등)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4.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및 인력양성 정책

- “관광·레저 관련 전문적 학위 및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광·레저에 관한 실질적 지식 및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말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국외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정책 사례 분석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의 자격제도, 산관학 연계 인력 양성, 지역관광 인재 양성, 관광 인력 양성 조직 등과 관련한 정책시행(4장 참고)
- 국내 부처별 전문인력 양성 정책 사례 분석을 위하여 2018년 기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양성 정책 시행(4장 참고)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은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기업을 대상으로 6개 부문 30개의 정부 지원정책 시행(지자체 별도 지원)(제4장 참고)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직업분석

- 여행서비스원: 여행사무원, 여행상품기획자(개발자), 여행안내원, 관광통역안내원
- 숙박시설 서비스원: 호텔컨시어지, 호텔객실청소원, 도어맨/벨맨, 호텔 지배인, 오더 테이커, 호텔세탁원
- 관광·레저서비스(카지노, 유원시설업): 카지노 딜러, 카지노 출납원 및 안전관리원, 놀이시설 종사원, 골프장 캐디

■ 정규 교육기관 인력양성 현황

- 국내에 관광레저분야 관련 고등학교 2019년 기준 전국에 100개교 약 2만여 명이 재학 중에 있음
- 관광레저 관련 대학 교육기관은 145개 학교에서 9,627명의 졸업생이 배출됨
 - 관광·레저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의 경우 총 49개소 운영 중 임
- 일학습병행 관련 운영기관 현황
 - 공동훈련센터형(전국 108개 기관·기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전국 66개), 유니테크 사업단(18개 기관), IPP형 일학습(39개 기관)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양성(향상)

- 정부에서는 관광·레저산업 분야 종사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종사원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왔으며, 또한 국내 인바운드 크루즈 관광시장 확대와 국적 선사 출범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의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업종별 협단체(관광협회 중앙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여행업협회, (사)한국MICE협회 등에서 전문 인력양성 및 향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자격현황

- 현재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국가전문자격인 여행업 분야의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호텔업 분야의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총 5종목으로 구성됨
 - 이 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국제회의업 분야의 컨벤션기획사, 의료관광 분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가 이에 해당함
 - 관광·레저산업 민간자격증을 살펴보면 관광분야(키워드: 관광) 민간자격의 경우 총 31개가 등록되어 운영 중이며, 호텔분야(키워드: 호텔) 민간자격은 3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여행분야(키워드: 여행) 민간자격은 30개 과정이 등록·운영 중임
 - 카지노분야(키워드: 카지노)는 10개 자격과정이 등록·운영 중이며, 크루즈분야(키워드: 크루즈) 민간자격은 7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캠핑(야영)분야(키워드: 캠핑, 야영) 민간자격은 9개 과정이 등록·운영 중이며, MICE분야(키워드: mice)는 1개 과정, 레저분야(키워드: 레저) 민간자격은 총 18개 과정이 등록·운영 중임

5.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 전망

■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전망

예측 연도	총 종사자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2019년	3,535,328	986,444	1,269,762	702,964
2020년	3,499,266	971,476	1,351,344	729,100
2021년	3,546,509	967,079	1,395,480	719,311
2022년	3,624,912	989,944	1,438,083	745,217
2023년	3,628,576	1,014,698	1,449,780	734,331
2024년	3,553,804	1,031,728	1,469,811	760,683
2025년	3,501,825	1,023,086	1,480,092	748,848

주1) 2020년 실제치는 전년 6월 동기 대비 감소(총 종사자수는 무급가족 및 기타 그룹 포함)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0), 투어고 인사이드(데이터인사이드 4호), 재인용.

-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종사자 수 전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 종사자 수는 2019년 3,535,328명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4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5년에는 3,501,825명으로 전망됨
 -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986,444명 → 2025년 1,023,086명 전망
 - 상용근로자는 2019년 1,269,762명 → 2025년 1,480,092명 전망
 -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는 2019년 702,964명 → 2025년 748,848명 전망
- 기업 및 교육기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업종별 향후 유망직종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업종별 협·단체와 연계한 교육을 통해 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신규 인력양성 필요
 -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크리에이터, 아웃도어형 관광산업 렌탈업체, 배달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운영자, 언택트 시스템 전문가, 카지노 머신관리, 안전관리자 등

6. 결 론(ISC역할)

- 인력양성기관 및 산업현장 연계 강화
- 산업 내 업종별 직무 및 직업분류체계 매칭
- 관광레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신규업종 및 직종 발굴
- 관광레저산업의 대대적인 인력수급 실태조사 실시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 관광레저산업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ISC의 역할 강화

목 차

연구결과 요약	
제 1 장 서 론	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조사의 범위와 방법	2
제 2 장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및 산업범위 분류	5
1.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5
2. 관광·레저분야 산업범위 분류	7
3. 소결	20
제 3 장 관광·레저분야 산업 현황 분석	21
1. 국내·외 관광환경분석	21
2. 관광·레저산업 현황	43
3.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현황	67
4. 관광·레저산업 인력 현황	134
제 4 장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165
1.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정책 및 직업분석	165
2. 정규 교육기관 인력양성 현황	182
3.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 양성(향상) 현황	198

4.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자격현황	211
5. 소 결	
제 5 장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 전망	233
1.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전망	233
2. 관광·레저산업 취업자 수 전망	244
3.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유망기술 및 직무	248
제 6 장 결 론	255
1. 관광·레저산업 종합 분석	255
2. 제 언	259
참고문헌	263
부록: 1 관광·레저산업 핵심업종 FGI 분석 결과	267
1. 개요	267
2. FGI 분석 결과	268
3. 시사점	288

표 목 차

[표 2-1]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에 대한 분류	8
[표 2-2] NCS 분류 체계상 관광·레저산업 범위	9
[표 2-3]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관광산업 특수분류	10
[표 2-4] 관광산업 특수분류와 산업범위 분류 연계표(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NCS, KSIC)	14
[표 3-1] 연도별 방한외래 관광객 현황(2014년~2020년 9월)	21
[표 3-2] 연도별/국가별 방한 외래관광객 현황	22
[표 3-3] 연도별/대륙별 방한 외래관광객 현황	22
[표 3-4] 연도별 국민해외관광객 현황(2014년~2020년 9월)	23
[표 3-5] 월별 여행 경험률(2019년)	24
[표 3-6] 국민 방북자	24
[표 3-7] 한국관광수지 현황(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등)	25
[표 3-8] 연도별/지역별 세계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현황	28
[표 3-9] 시나리오별 전세계 승객 수입 손실 추정	29
[표 3-10] 시나리오별 전세계 승객 수입 손실 추정	30
[표 3-11] 연도별 사업체 수 추이(2014년~2018년)	44
[표 3-12] 지역별 관광사업체 현황	45
[표 3-13] 업종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추이(2014년~2018년)	46
[표 3-14] 지역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현황	48
[표 3-15] 연도별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2014년~2018년)	49
[표 3-16] 지역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현황	51
[표 3-17] 업종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분포 현황	52

[표 3-18] 관광사업체 연령별 종사자 수 현황	53
[표 3-19]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54
[표 3-20] 관광사업체 업종별 신규 채용자 수 추이(2014년~2018년)	55
[표 3-21] 관광사업체 업종별·성별 신규 채용자 추이(2018년 기준)	56
[표 3-22] 관광사업체 업종별 이직자 수 추이(2014년~2018년)	57
[표 3-23] 관광사업체 업종별·성별 이직자 수(2018년 기준)	58
[표 3-24] 업종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2018년 기준)	60
[표 3-25] 사업체 업종별 영업 개월 수(2018년 기준)	61
[표 3-26] 사업체 업종별 1일 평균 영업시간	63
[표 3-27] 사업체 업종별 월평균 휴무일 수	65
[표 3-28] 전국 시·도별 여행업 등록현황	68
[표 3-29] 연도별 여행업 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69
[표 3-30] 연도별 여행업 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2014년~2018년)	69
[표 3-31] 여행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70
[표 3-32] 여행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71
[표 3-33] 여행업 분야 연령대 분포현황	72
[표 3-34] 여행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72
[표 3-35] 여행업 분야 종사자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73
[표 3-36] 여행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	74
[표 3-37] 여행업 분야 영업 개월 수 분포	74
[표 3-38] 여행업 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75
[표 3-39] 여행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76
[표 3-40] 전국 사·도별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78

[표 3-41] 관광숙박업 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79
[표 3-42] 관광숙박업 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2014년~2018년)	79
[표 3-43] 관광숙박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80
[표 3-44] 관광숙박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81
[표 3-45] 관광숙박업 분야 연령 분포현황	81
[표 3-46] 관광숙박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82
[표 3-47] 관광숙박업 분야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83
[표 3-48] 관광숙박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	83
[표 3-49] 관광숙박업 분야 영업 개월 수 분포	84
[표 3-50] 관광숙박업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85
[표 3-51] 관광숙박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85
[표 3-52] 전국 시도별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현황	86
[표 3-53]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87
[표 3-54]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4년~2018년)	88
[표 3-55]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4년~2018)	89
[표 3-56]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90
[표 3-57] 관광객 이용시설업 분야 연령 분포현황	91
[표 3-58]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92
[표 3-59]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신규채용 현황	93
[표 3-60]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94
[표 3-61]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영업 개월 수 분포	95
[표 3-62]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일평균 영업시간	96
[표 3-63]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97

[표 3-64] 전국 시·도별 국제회의업 등록현황	98
[표 3-65]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99
[표 3-66]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	99
[표 3-67]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	100
[표 3-68] 국제회의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101
[표 3-69] 국제회의업 분야 종사자 연령대 분포현황	101
[표 3-70] 국제회의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102
[표 3-71] 국제회의업 분야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102
[표 3-72] 국제회의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	103
[표 3-73] 국제회의업 분야 연평균 영업 개월 수 분포	103
[표 3-74] 국제회의업 분야 일평균 영업시간	104
[표 3-75] 국제회의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104
[표 3-76] 전국 시·도별 카지노업체 현황	105
[표 3-77] 카지노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106
[표 3-78] 카지노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4년~2018년)	106
[표 3-79] 카지노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107
[표 3-80] 카지노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107
[표 3-81] 카지노업 분야 연령 분포현황	108
[표 3-82] 카지노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108
[표 3-83] 카지노업 분야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108
[표 3-84] 카지노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	109
[표 3-85] 카지노업 분야 연간 영업 개월 수 분포	109
[표 3-86] 카지노업 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110

[표 3-87] 카지노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110
[표 3-88] 전국 시·도별 유원시설업체 현황	111
[표 3-89]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112
[표 3-90]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4년~2018년)	112
[표 3-91]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113
[표 3-92] 유원시설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114
[표 3-93] 유원시설업 분야 사업체별 연령대 분포 현황	114
[표 3-94] 유원시설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115
[표 3-95] 유원시설업 신규 채용 및 이직현황	115
[표 3-96] 유원시설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116
[표 3-97] 유원시설업 분야 연간 영업개월 수 분포	117
[표 3-98] 유원시설업 분야 일평균 영업시간	117
[표 3-99] 유원시설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118
[표 3-100] 전국 시·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현황	120
[표 3-101]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121
[표 3-102]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4년~2018년)	122
[표 3-103]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123
[표 3-104]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분포현황	124
[표 3-105]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령분포	125
[표 3-106]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126
[표 3-107]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127
[표 3-108]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종사자 자격 보유현황	128
[표 3-109]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간 영업개월 수 분포	129

[표 3-110]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1일 평균 영업시간	130
[표 3-111]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132
[표 3-112] 연도별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2014년~2018년)	134
[표 3-113] 관광·레저산업 신규채용 동향(2014년~2018년)	136
[표 3-114] 여행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37
[표 3-115]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38
[표 3-116]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39
[표 3-117]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40
[표 3-118]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41
[표 3-119]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42
[표 3-120]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43
[표 3-121] 고용보험 통계상 전국 직종별· 규모별·현원·구인인원·채용인원·미충원인원·부족인원·채용계획 인원·부족률 구인구직 동향(2020년 상반기 기준)	145
[표 3-122] 관광·레저산업 전체업종 연도별 이직자 현황(2014년~2018년)	147
[표 3-123] 여행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148
[표 3-124]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149
[표 3-125]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150
[표 3-126]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151
[표 3-127]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152
[표 3-128]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153
[표 3-129]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154
[표 3-130] 관광·레저산업 분야 종사자 수 동향(2020년 9월 기준)	156
[표 3-131] 관광·레저산업 분야 채용 동향(2020년 9월 중)	157

[표 3-132] 주요 관광·레저산업 관련 업종 피보험자 수 증감(전년 동월대비, 천명)	157
[표 3-133] 코로나19 피해 이후 주요여행사 근무형태	158
[표 3-134] 코로나19에 따른 호텔 휴관 현황(명동 및 동대문권)	159
[표 3-135]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추산 피해 규모	162
[표 4-1] 국외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정책 주요 사례	167
[표 4-2] 정부 부처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요 사례	168
[표 4-3] 정부부처별 관산학 협기반 사업의 주요 내용	169
[표 4-4] 정부부처별 재직자 역량강화 사업의 주요 내용	170
[표 4-5] 정부부처별 취업(창업)역량제고 사업의 주요 내용	171
[표 4-6]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분야별 관광기업 지원 대책(문체부)	172
[표 4-7]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 현황	173
[표 4-8] 관광·레저 분야 관련 직업 및 직업 예시	176
[표 4-9]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직업 현황	178
[표 4-10] 여행업 관련 직업 특성	179
[표 4-11] 관광숙박업 관련 직업 특성	180
[표 4-12]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관련 직업 특성	181
[표 4-13] 전국 관광 관련 고등학교 세부현황	182
[표 4-14] 관광·레저 관련 대학 교육기관 현황	186
[표 4-15]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현황	187
[표 4-16] 관광관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현황	188
[표 4-17] 전국 일학습 병행 공동훈련센터 현황	190
[표 4-18]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 현황	192
[표 4-19] 유니테크 사업단 현황	193

[표 4-20] IPP형 일학습 병행 사업단 현황	194
[표 4-21] 서울지역 직종별(KECO) 양성훈련 공급 현황	195
[표 4-22] 서울지역 직종별(KECO)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공급 현황	196
[표 4-23] 서울지역 직종별(KECO) (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공급현황	197
[표 4-24] 한국관광공사 관광중사원 교육실적	198
[표 4-25] 2020 해양수산부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과정표	199
[표 4-26]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및 취업 현황 제1차(`15년~`17년)	200
[표 4-27]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및 취업 현황 제2차 (`18년~`현재)	200
[표 4-28]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교육 프로그램	201
[표 4-29]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 프로그램	201
[표 4-30] 한국여행업협회 교육 프로그램	202
[표 4-31]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 안내	202
[표 4-32] 기타기관 교육 프로그램	203
[표 4-33]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자질 및 역량 교육프로그램	204
[표 4-34] 2019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 교육프로그램 종류	205
[표 4-35] 광주 의료통역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205
[표 4-36] 관광두레PD 역량강화를 위한 3단계 교육 과정	208
[표 4-37]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목 기본구성(안)	209
[표 4-38] 전국 사·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현황(최근 5년간)	210
[표 4-39] 관광중사원 자격제도 구성 체계	211
[표 4-40] 국내여행안내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212
[표 4-41] 최근 5년 간 여행업 분야 자격 합격률(2015년~2019년)	213
[표 4-42]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	214

[표 4-43]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취득 현황(1983-2020)	214
[표 4-44] 호텔경영사관리사서비스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216
[표 4-45] 관광숙박업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기준 점수	216
[표 4-46] 최근 5년 간 관광숙박업 관련 종사원 자격 합격률(2015년~2019년)	217
[표 4-47]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218
[표 4-48] 컨벤션기획사 자격 합격기준 점수	219
[표 4-49]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컨벤션기획사 1·2급 합격률	219
[표 4-50]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 검정과목	220
[표 4-51]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 합격기준 점수	221
[표 4-52] 최근 5년 간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합격률(2015년-2019년)	221
[표 4-53] 관광·레저분야 민간자격 등록현황(키워드별)	222
[표 4-54] 관광·레저산업 NCS 및 자격 개발 현황	226
[표 4-55] 여행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227
[표 4-56] 숙박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228
[표 4-57] 컨벤션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229
[표 4-58] 관광·레저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230
[표 4-59] 관광·레저산업 분야 NCS 기반자격 개발현황	230
[표 5-1] 연도별 전체 산업대비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종사자 수	234
[표 5-2] 관광·레저산업 중분류별 사업체 추이(증감율)	235
[표 5-3] 관광·레저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 추이(증감율)	236
[표 5-4] 연도별 전체 산업(관광·레저산업) 종사자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237
[표 5-5] 변수 정의 및 출처	239
[표 5-6] 단위근 검정결과	240

[표 5-7] Johansen 공적분 검정결과	240
[표 5-8]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수 전망	241
[표 5-9]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증가율 예측	242
[표 5-10] 관광·레저산업 소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245
[표 5-11] 관광·레저분야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246
[표 5-12] 여행업 분야 유망기술 교육과정	248
[표 5-13] 관광숙박업 분야 유망기술 교육과정	249
[표 5-14] MICE 분야 유망기술 교육과정	250
[표 6-1] 관광·레저ISC의 역할	26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 절차	3
[그림 3-1] 최근 3개년 방한 외래 관광객 수 추이	21
[그림 3-2] 최근 3개년 국민해외관광객 수 추이	23
[그림 3-3] 국제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최근 10년간)	26
[그림 3-4] 2030년 국제관광객 수 전망 그래프	27
[그림 3-5] 2020년 전망: 국제관광객 수(세계, 변경 %, 백만명)	29
[그림 3-6] 2019 여행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35
[그림 3-7] 2020년도 국내여행 트렌드 분석(REFORM)	36
[그림 3-1] 2020년도 국내여행 트렌드 분석(S.A.F.E.T.Y.)	37
[그림 3-8] 코로나 시대 여가 트렌드 ‘S.U.P.E.R.’	38
[그림 3-9] 2020-2024 관광트렌드 키워드, NEXT TRAVEL	41
[그림 3-10] 업종별 관광사업체 현황(2018년 기준)	43
[그림 3-11] 업종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현황(2018년 기준)	47
[그림 3-12] 업종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현황(2018년 기준)	50
[그림 3-13] 업종별·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구성비(2018년 기준)	54
[그림 3-14] 관광사업체 신규 채용자 수 추이(최근 3년)	55
[그림 3-15] 업종별·성별 신규채용자 수 구성비(2018년 기준)	56
[그림 3-16] 관광사업체 이직자 성별 구성비(최근 3년)	57
[그림 3-17] 업종별 이직자 수 구성비(2018년 기준)	58
[그림 3-18] 업종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2018년 기준)	59
[그림 3-19] 사업체 연간 영업 개월 수 구성 추이(최근 3년)	61

[그림 3-20] 업종별 연간 영업개월 수 구성비(2018년 기준)	62
[그림 3-21] 관광사업체 1일 평균 영업시간 구성비(최근 3년)	62
[그림 3-22] 업종별 1일 평균 영업시간 구성비(2018년 기준)	63
[그림 3-23] 사업체 월평균 휴무일 수 구성비 추이(최근 3년)	64
[그림 3-24] 업종별 월평균 휴무일 수 구성비(2018년 기준)	65
[그림 3-25]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종사자 변화 추이(2014-2018)	135
[그림 3-26]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종사자 비중 추세(2014-2018)	135
[그림 3-27]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신규채용 동향	136
[그림 3-28] 여행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37
[그림 3-29]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38
[그림 3-30]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39
[그림 3-31]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40
[그림 3-32]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41
[그림 3-33]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42
[그림 3-34]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43
[그림 3-35] 관광·레저산업 연도별 이직자 현황	147
[그림 3-36] 여행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148
[그림 3-37]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149
[그림 3-38]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150
[그림 3-39]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151
[그림 3-40]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152
[그림 3-41]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153
[그림 3-42]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154

[그림 3-43] 전년 동월대비 고용률/취업자 증감 현황	155
[그림 3-44] 전년 동월대비 일시휴직자 증감/실업자 증감 현황	156
[그림 5-1]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 추이	233
[그림 5-2]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감율 추이	236
[그림 5-3]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수 전망(2019-2025)	242
[그림 5-4]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증가율 예측	242
[그림 5-5] 거시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분야 영향분석	252

제 1 장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조사의 필요성

- 정부는 산업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의 개발·관리·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통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015년 제1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발족되어, 2020년 현재 18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운영 중임
- 이에 따라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관광·레저산업계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해당산업의 인적자원 관련 의사결정, 현장 맞춤형 인력수급 실태분석을 위한 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현황분석 실시
- 조사를 통하여 동 산업의 업종별 필요인력 수급을 비롯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광·레저산업의 고용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 활성화 도모

2) 조사의 목적

- 관광·레저분야 산업의 업종별 인력수급 실태 및 기술 동향, 주요 이슈분석 등의 산업계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여 산업 내 관련 활동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산업별 인력자원 수급 현황자료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인력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현재 관광·레저산업 분야별 진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실태조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산업의 활성화 도모
- 관광·레저산업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협의적 해석과 현재 관광·레저산업(관광진흥법상) 현장담당자의 의견수렴 및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분야 선정과 인적자원 개발·관리·활용에 관한 정책적 대안 제시

2. 조사의 범위와 방법

1) 조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관광·레저산업의 산업인력현황 파악을 위하여 2010년~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19년 기준) 및 관광사업체조사(2018년 기준) 자료를 최신자료로 활용함
- 2006년부터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25년까지의 산업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였음
 -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기준 및 직업의 세분류를 중심으로 2018년~2028년까지 취업자 수를 예측하였음

■ 내용적 범위

- 직종별 분류의 경우 NCS 대분류 「12.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중분류 「03.관광·레저」, 소분류 「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함
- 또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즉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설정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관광산업 특수분류, NCS분류체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7개 업종)의 분류체계 및 산업범위를 활용하였음

2) 조사의 방법

- 관광·레저산업 산업인력현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연구자료(지역별 훈련수급조사분석),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자료(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광사업체조사 등),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조사를 통한 문제점 도출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의 지역별 훈련 수요공급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지역별

관광·레저산업의 인력양성 및 향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2019년의 경우 서울지역과 대구 지역의 보고서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의 연도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관광사업체조사의 활용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현황 및 양성기관 현황, 자격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의 분류체계 및 산업범위를 제시하고자 함
- 또한 현황분석을 통해 관광·레저산업의 영향력 있는 산업 내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기업 담당자를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여 정량적(통계자료) 연구를 비롯한 정성적(FGI)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업종별 전문가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보고서 곳곳에 적용하여 분석함
- 관광·레저산업의 현황자료조사 및 산업현장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도출된 과제 및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학계, 연구원, 업계 등) 자문회의를 거쳐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

3) 연구 수행절차

- 본 연구는 크게 제1장 서론 - 제2장 관광·레저산업 개념과 산업범위 분류 - 제3장 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 현황분석 - 제4장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현황 - 제5장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 전망 - 제6장 결론으로 총6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의 수행 절차

제 2 장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및 산업범위 분류

1.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1)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도출

- NCS 분류체계의 중분류(1203.)인 관광·레저산업은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ISC 차원의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
 - NCS 분류의 관광·레저는 학문적인 개념의 관광산업과 레저산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관련한 정리가 필요함
-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도출을 위하여 관광산업과 레저산업에 대한 개념을 분석이 요구됨

가. 관광산업의 개념

- 관광이란 즐거움, 위락, 휴가, 스포츠, 사업·업무, 친구·친지 방문, 회의, 건강, 연구, 종교 등을 목적으로(이주, 취업 제외) 자국을 떠나 24시간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관광목적지를 방문·체재하는 행위”로 정의 함(세계관광기구)
- 사전적 의미의 관광산업은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을 관광자원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함

나. 레저산업의 개념

- 레저(leisure)의 어원은 ‘자유롭게 되다(to be free)’ 혹은 ‘허락하다(to be permitted)’ 뜻의 라틴어 ‘licerer’에서 유래되었으며 우리말 여가(餘暇)와 유사하여 놀이, 오락, 레크리에이션, 기분전환, 즐길, 휴식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님

- 레저산업은 “레저공급 요소의 일부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사람들이 레저 시간에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하여 유형, 무형의 레저상품을 제공하거나 제조, 판매, 소비의 축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산업”을 총칭 함

다. 관광·레저산업 개념

■ 개념도출 과정

-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도출을 위하여 관광·레저산업 분야 전문가(교수, 연구원, 기업 등)의 의견조사를 통하여 핵심키워드를 도출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였음
-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핵심키워드 도출
 - 행위자(내·외국인 관광객 및 일반 이용자 등)
 - 재화와 서비스(유·무형의 상품, 시설, 각종 서비스 등)
 - 욕구수요와 충족
 - 다양한 산업범위(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 관련업종 외 스포츠, 문화, 예술, 음식, 쇼핑, 운송, 교육 등)

■ 관광·레저산업 개념(ISC 차원)

- 관광·레저산업이란 “관광·레저행위자의 다양한 욕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광산업의 광범위적 접근을 통한 분야별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업종의 총칭”이라고 정의함
- 개념 설명
 - 행위자: 관광·레저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및 일반시설 이용자 등
 - 욕구수요와 충족: 행위자의 행위 목적에 대한 만족(삶의 질 제고, 자아실현, 소비축진 등)
 - 분야별 다양한 업종: NCS분류체계 상 업종(여행업, 숙박업, 컨벤션, 카지노, 크루즈, 유원시설업, 리조트)을 포함한 관광산업과 그 외 레저 관련 산업 등(각종스포츠, 문화예술, 음식, 쇼핑, 운송, 교육 등)
 -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시설, 제품, 각종 서비스, 이벤트 등
 - 제공: 공급·제조·판매·유통·축진·지원 등

- 이렇게 도출된 개념을 중심으로 관광·레저분야에 대한 산업범위 분류가 필요함

2. 관광·레저분야 산업범위 분류

- 관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산업범위 분류가 되어 있어 정리가 필요한데, NCS 분류체계상의 관광·레저분야 산업범위는 크게 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카지노업, 크루즈업, 유원시설업, 리조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모두 포함됨¹⁾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은 총 7개업종으로 구분되며, 여행업(여행서비스), 관광숙박업(숙박서비스, 리조트운영관리), 관광객이용시설업(크루즈운영관리), 국제회의업(컨벤션), 카지노업(관광·레저서비스),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관광·레저서비스)을 포함함
-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관광·레저분야 산업범위 분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학계, 연구원, 기업인 등) 의견조사를 통해 관광·레저산업의 광의적 접근에 부합하는 산업범위를 분류하고자하였음

1)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레저산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7가지로 분류함
 -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관광숙박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호텔업과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대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
 -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 NCS 분류상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외 영역(전시, 이벤트 등)이 있어 ISC는 향후 산업의 확대를 위한 산업범위의 분류가 요구됨

- 국제회의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카지노업은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유원시설업은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
- 관광편의시설업은 상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표 2-1]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에 대한 분류

산업 분류	세부 업종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휴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의 분류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임(자격기본법 제2조 2항)
-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

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함

- NCS분류체계에서의 관광·레저산업은 대분류(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중분류(03. 관광·레저), 소분류(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로 구분되고 그 이하 세분류로 구분됨
 - 여행서비스는 여행상품개발, 여행상품상담, 국내여행안내, 해외여행안내, 항공객실서비스 등으로 세분류됨
 - 숙박서비스는 숙박기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등으로 세분류됨
 - 컨벤션은 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 기획으로 분류됨
 - 관광·레저서비스는 카지노기획개발, 카지노운영관리, 크루즈운영관리, 유원시설운영관리, 리조트운영관리 등으로 세분화됨

[표 2-2] NCS 분류 체계상 관광·레저산업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NCS 세분류
12.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203. 관광·레저	1. 여행서비스	1. 여행상품개발 2. 여행상품상담 3. 국내여행안내 4. 해외여행안내 5. 항공객실서비스
		2. 숙박서비스	1. 숙박기획·개발 2. 객실관리 3. 부대시설 관리 4. 연회관리 5. 접객서비스
		3. 컨벤션	1. 회의기획 2. 전시기획 3. 이벤트 기획
		4. 관광·레저 서비스	1. 카지노기획개발 2. 카지노운영관리 3. 크루즈운영관리 4. 유원시설운영관리 5. 리조트운영관리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관광산업 특수분류

-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세계관광기구(UNWTO)와 유엔통계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국제관광표준을 기초로 하여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음
-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핵심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산업특수분류는 핵심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역할에 따라 상호의존, 부분적용, 지원산업으로 영역을 분류하였으며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함께 알 수 있도록 분류함

- 핵심 관광산업은 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숙박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카지노업을 포함하며,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산업을 포함함

[표 2-3]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관광산업 특수분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핵심 관광산업	관광 쇼핑업 (도매업 제외)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광 인증 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철도운송업	
		관광 도로운송업	시내순환 관광업*
			전세버스 운송업
			관광궤도업*
		관광 수상운송업	관광 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 항공운송업	관광 항공 정기운송업
			관광 항공 부정기운송업
	관광 숙박업	호텔업	관광 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 펜션업*	
		일반 관광 숙박업	산림휴양림업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 호텔
			관광 인증 모텔업
			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
			자동차 양영장업*
			한옥체험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음식점 및 주점업	관광 식당업	
		관광 주점업	관광 유흥음식점업*
			관광 극장유흥업*
			관광 공연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여행사 및 여행 보조 서비스업	여행업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
	국제회의업*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국제회의 기획업*	
		국제회의 기획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 산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미술관 포함)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관광지 운영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	
		관광 공연장업*	관광 공연시설 운영업
		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낙시장 운영업
			수상 오락 서비스업(유원시설 제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운영
	카지노업*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	
상호의존 관광 산업	관광 건설업	관광 건물 종합건설업	상업 및 휴양 건물 건설업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
			관광용지 개발조성공사
		관광 토목 건설업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 구 조경 건설업
			관광 관련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관광 및 레저 용품 소매업	레저용 의복 소매업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관광용 가방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업	
	관광 보험 및	여행자 보험업	

	금융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여행자 수표 발행 환전소
	레저 장비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레저 및 운송장비 임대업	레저장비 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캠핑카 임대업
			관광용 자동차 임대업
			일반 자동차 임대업
부분적용 관광 산업	관광 비인증 쇼핑업	관광 비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육상운송업	도시간 철도 운송업
			도시내 철도 운송업
			관광보조 버스 운송업
			시내·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부분관광 수상운송업	수상운송업 내항·내륙 여객선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청소년수련원	
		관광 비인증 모텔업	
	부분관광 음식점 업 및 주점업	부분관광 음식점업	관광 일반음식점업
		부분관광 주점업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기타 관광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일반 공연시설 운영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	관광 정보 서비스업	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관광지도 및 여행서적 출판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관광 사진업* 통역 서비스업
		기타 관광 서비스업	온천탕
			그 외 기타 관광서비스업
관광 지원산업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문화 및 관광행정	
		관세행정,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관광 교육서비스업	교육기관	관광 전문 교육기관(대학교 이상)
			관광 전문 교육기관(고등학교)

		기타 관광 레저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기타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관광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관광단체	회원단체	관광산업 및 전문가단체
			여행클럽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주) *는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사업체를 별도 표기함

자료: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https://kssc.kostat.go.kr>)

- 상호의존 관광산업은 원래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핵심 관광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으로 관광 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레저장비업을 포함함
- 부분적용 관광산업은 부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비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적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함
- 관광 지원산업은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으로 관광관련 관광 연구개발업, 관광 공공기관관광 교육서비스업, 관광단체를 포함함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모두 포함하며 관련 산업까지 포괄하는 산업범위 분류로 NCS 분류상의 관광·레저산업의 광범위한 개념의 접근으로 판단됨
 - 관광·레저분야의 산업범위 분류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1순위 88.2%)을 중심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광산업 특수분류(2순위 47.1%)의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의 높게 나타남(산업범위 분류 필요성: 86.4%)

4) 관광·레저분야 산업범위 분류 연계표

- 관광·레저분야의 산업범위 분류는 다양한 유형(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NCS분류체계, 관광산업 특수분류)으로 분류되고 있어 NCS 분류체계상 관광·레저산업을 포함하며 나아가 광범위적 접근을 통한 확대된 개념의 산업범위 분류가 필요함
- 이에 NCS분류체계상 산업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7개 업종)과 이를 확대 표현한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중심으로 NCS 분류체계상 산업범위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연계하였음

[표 2-4] 관광산업 특수분류와 산업범위 분류 연계표(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NCS,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포함)				관광레저분야 NCS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소분류	세분류	산업분류명
핵심 관광 산업	관광 쇼핑업 (도매업 제외)	면세점	관광면세업*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관광 인증 쇼핑업	1st 인증상점			종합소매업
	관광 운수업	관광 철도운송업				철도 여객운송업
		관광 도로운송업	시내순환 관광업*			시내버스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관광궤도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관광 수상운송업	관광 유람선업*			내항 여객운송업 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
			크루즈업*	관광레저 서비스	크루즈 운영관리	외항 여객 운송업
		관광 항공운송업	관광 항공 정기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관광 항공 부정기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관광 숙박업	호텔업	관광 호텔업*	숙박서비스		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텔업
			호스텔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레저 서비스	리조트 운영관리	휴양 콘도 운영업

	일반 관광 숙박업	관광 펜션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산림휴양림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게스트하우스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레지던스 호텔	숙박서비스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관광 인증 모텔업			여관업
		민박업			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			민박업
		자동차 야영장업*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한옥체험업*			민박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온천랜드, 관광농원, 템플스테이 등)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관광음식점 및 주점업	관광 식당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관광 주점업	관광 유흥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관광 극장유흥업*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 공연장업*		주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주점업
	여행사 및 여 행보조 서비스 업	여행업	일반 여행업*	여행서비스	여행사업
			국외 여행업*		여행사업
			국내 여행업*		여행사업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관광안내소, 안내서비스, 숙박예약 등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 기획업*		컨벤션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국제회의 시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 산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미술관 포함) (시관, 과학관, 천문관 등)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궁, 전적지, 사적지 등)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휴양림 등)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관광지 운영업 (천연동굴 등)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레저 서비스	리조트운 영관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일반유원시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타유원시설업*			기타 오락중 운영업
		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	농어촌 체험학습 등 제공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관광 공연장업*	관광 공연시설 운영업 (극장, 음악당, 연극장 등)			공연시설 운영업
		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자동차, 투우장, 경륜, 경마)			경주장 및 동물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연습장 제외)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스키장, 강습, 장비임대 등)			스키장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실내 낚시장 제외)			낚시장 운영업
			수상 오락 서비스업(유원시설 제외)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분류 안 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운영 (전망탑, 산악오토바이체험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카지노업*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관광레저 서비스	카지노기 획·개발/ 카지노운 영관리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상호 의존	관광 건설업	관광 건물 종합건설업	상업 및 휴양 건물 건설업 (관광객 이용시설 건설업)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기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관광 산업		관광 토목 건설업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관광용지 개발조성공사			지반조성 건설업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조경 건설업			조경 건설업
			관광 관련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관광 및 레저 용품 소매업	레저용 의복 소매업	골프의류, 등산복, 수영복 등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기타의복 소매업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등산장비 소매, 골프장비 소매 등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관광용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여행용 악세서리, 가방, 트렁크 등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여행자 보험업	여행자 보험			손해 보험업
		금융서비스업	여행자 수표 발행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환전소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나
	레저 장비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카메라 소매, 필름소매 등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레저 및 운송장비 임대업	레저장비 임대업 (스키 임대, 자전거 임대 등)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상업용 보트, 경비행 기, 선박 등)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캠핑카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관광용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일반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부분 적용	관광 비인증 쇼핑업	관광 비인증 쇼핑업	면세점, 인증 관광쇼핑업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관광 산업	부분관광 운송 업	부분관광 육상운송업	도시간 철도 운송업			철도 여객 운송업
			도시내 철도 운송업(지하철)			도시철도 운송업
			관광보조 버스 운송업 (공항버스, 리무진 등)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외 버스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택시 운송업
		부분관광 수상운송업	수상운송업(낚시선박 임대, 잠수선 운 영 등)			항만 내 여객 운송업
			내항·내륙 여객선 운송업 (유람선 등)			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 업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 갖춘 수련원 및 자연학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관광 비인증 모텔업				여관업
	부분관광 음식 점업 및 주점 업	부분관광 음식점업	관광 일반음식점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부분관광 주점업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관광지, 관광단지내 커피숍 등)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기타 관광 주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분관광 공연 장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일반 공연시설 운영업 (나이트클럽, 카바레 제외)			공연시설 운영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	관광 정보 서비스업	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관광지도 및 여행서적 출판업 (여행지도, 가이드북)			일반서적 출판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관광 사진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통역 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기타 관광 서비스업	온천탕(사우나, 찜질방 등)			욕탕업
			그 외 기타 관광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

			(도어맨, 발렛 주차서비스 등)			비스업
관광 지원 산업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현상 연구소 및 연구원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문화 및 관광행정	문화 및 오락시설 관리 등			문화 및 관광행정 기타 산업진흥 행정
		관세행정	관광객들의 관세업무 관련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비자발급, 관광관련 영사업무			외무행정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경찰
	관광 교육서비스업	교육기관	관광 전문 교육기관(대학교 이상)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관광 전문 교육기관(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기타 관광 레저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기타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기관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관광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관광단체	회원단체	관광산업 및 전문가단체 (관광관련 학회, 협회 등)			산업단체 전문가 단체
			여행클럽(레저활동 동호회 등)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주한외국대사관, 주안외국관광청			주한 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주) *는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사업체를 별도 표기함

자료 : KSIC 분류, KECO분류, NCS분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3. 소결

- 위의 표의 내용과 같이 관광·레저산업의 산업범위는 분류체계의 특성에 따라 달리 분류되고 있어 분류된 업종별 범위가 다소 상이하여 적용하는데 어려운 현실임
 -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업종별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통계청의 각종 자료(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의 분류체계를 활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음
 - 이를 위해 2019년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학계, 연구원, 기업 등) 의견조사를 통한 ISC차원의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산업범위 분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음²⁾
- 위 표의 기준으로 활용한 관광산업 특수분류의 핵심관광사업 외 다른 분류의 경우 관광·레저산업 개념과 다소 동떨어진 산업이 분류되어 있어, 전문가 의견조사를 비롯한 관련 연구를 통하여 재분류가 요구됨
 -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산업특수분류 개정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산업 범위 재분류 진행 필요
- 그렇게 재분류된 산업범위의 수치화(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가 요구됨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과 연계하여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교육기관 등)의 가독성 제고가 필요함
 - 현재 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현황보고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체조사’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
- 향후 ISC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를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산업현장 및 교육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한 통일된 개념 및 산업범위 분류에 대한 통계조사 작업의 시행이 필요함

2) 하지만 도출된 산업의 범위의 경우 다소 광범위하게 분류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통계현황의 파악이 어려워 통계파악이 가능한 기준(KSIC, KECO 등)을 적용과 그를 바탕으로한 통계현황 조사가 필요함

제 3 장

관광·레저분야 산업 현황 분석

1. 국내외 관광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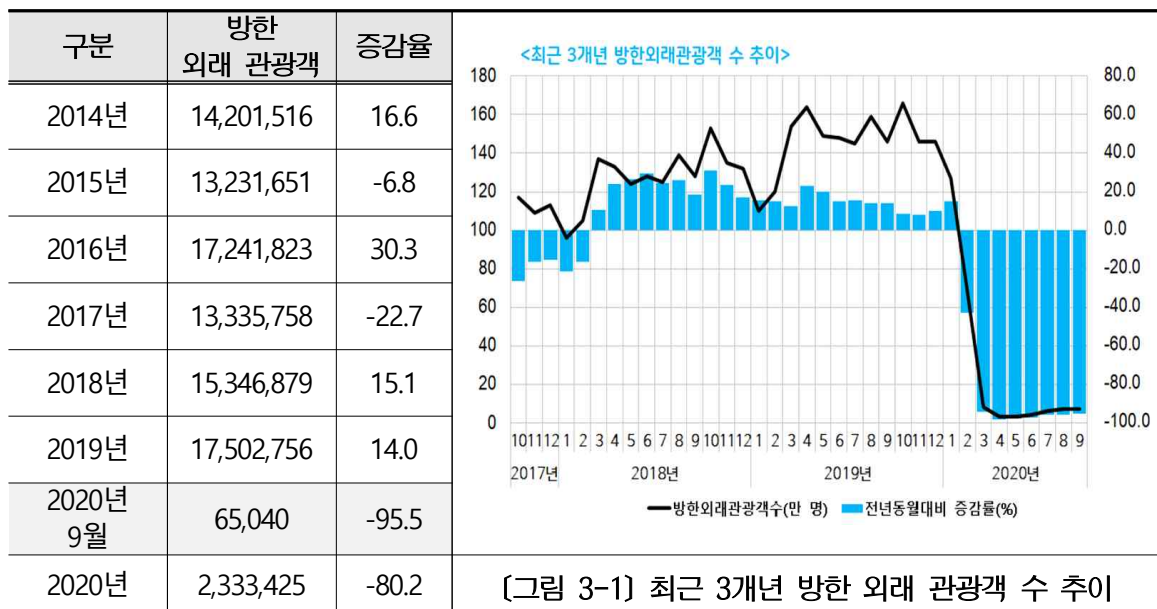
1) 국내관광 환경분석

■ 방한 외래관광객 입국 동향

- 2020년 9월 기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82.0%(동월 95.5%) 감소한 2,333,425명으로 집계됨

[표 3-1] 연도별 방한외래 관광객 현황(2014년~2020년 9월)

(단위 : 명,%)



주1: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11). 2020년 9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재인용







- 국가별로는 중국 15천 명(-97.2%), 미국 12천 명(-86.3%), 러시아 2천 명, 일본 0.8천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방한 외국인의 경우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대폭 감소하였으며, 방한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역시 전년대비 각각

- 85.2%, -83.0%의 증가폭을 나타남

[표 3-2] 연도별/국가별 방한 외래관광객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20년 9월	0.8(-99.7)	15(97.2)	12(-86.3)	0.3(-99.7)	0.1(-99.7)	2(-94.4)
2020년	428(-83.0)	658(-85.2)	183(-76.7)	166(-82.4)	89(-82.2)	67(-73.8)







주1: 증감률은 전년동원(기) 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11). 2020년 9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재인용

- 대륙별로는 아시아의 경우 1,774천 명(전년대비 81.1% 감소)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79.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주지역 214천 명(전년대비 75.9% 감소), 구주지역 179천 명(전년대비 75.0% 감소) 순으로 나타남

[표 3-3] 연도별/대륙별 방한 외래관광객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20년 9월	39(-96.6)	1(-93.9)	14(-88.1)	8(-91.9)	0.3(-97.7)	0.7(-89.5)
2020년	1,813(-82.8)	40(-79.2)	228(-77.3)	187(-77.1)	29(-81.2)	12(-73.6)

주1: 증감률은 전년동원(기) 대비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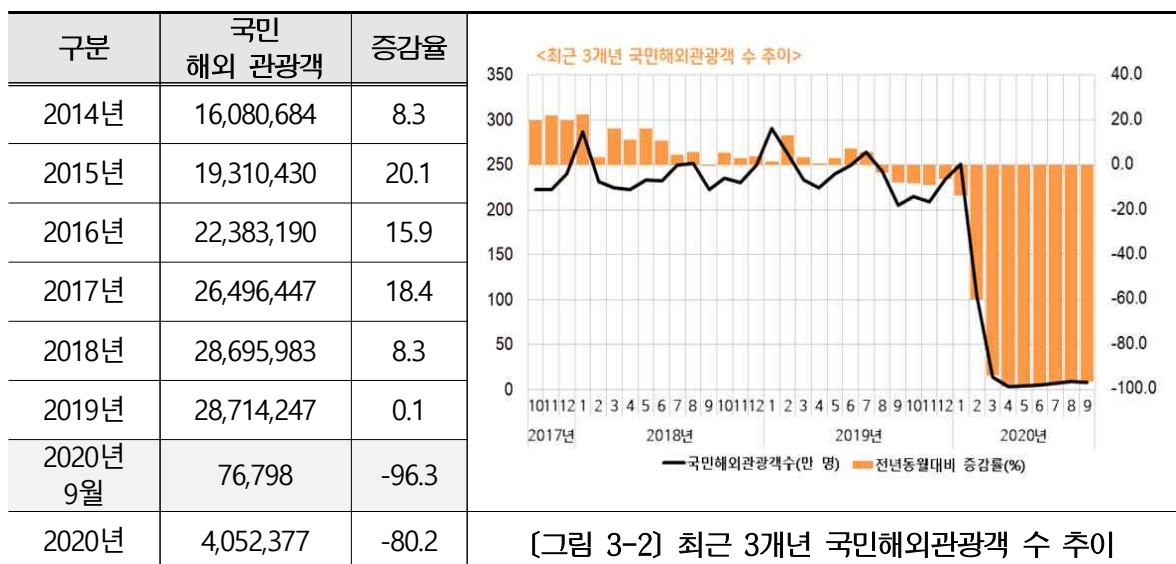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11). 2020년 9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재인용

■ 내국인 해외여행 동향³⁾

- 국민 해외여행객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2017년까지는 두자리 성장률을 보였음
- 2019년의 경우 국내 관광객 방문율이 높은 일본과의 관계 악화(수출규제 등)에 따른 방문율 대폭 감소에 따라 전체적인 국민 해외관광객의 성장률이 낮게 나타남
- 하지만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출입국 금지 및 제재 조치 등으로 인해 국민의 해외여행은 사실이 어려운 상황으로 2020년 9월까지 4,052,377명으로 전년대비 8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9월 한달동안 국민해외관광객 76,798명으로, 전년동월(2,049,830명) 대비 96.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 연도별 국민해외관광객 현황(2014년~2020년 9월)

(단위 : 명,%)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11). 2020년 9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재인용

■ 내국인 국내여행 동향

- 2019년 내국인 국내여행 경험률은 92.4%로 나타났으며, 관광여행은 85.4%, 기타여행은 69.5%로 조사되었음

3) 문화체육관광부(2020)의 2019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험률은 23.2%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으며, 1회 평균 여행일 수는 4.79일, 여행시기 평일(95.8%), 여행동반자는 친구/연인(45.3%), 동반자 수는 4.3명으로 나타남

■ 월별 여행 경험률

[표 3-5] 월별 여행 경험률(2019년)

(단위 : %, %p)

구분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2019년	증감율	2019년	증감율	2019년	증감율
1월	48.1	-0.8	36.1	-1.4	13.9	-1.7
2월	62.8	8.4	42.1	3.3	27.9	4.9
3월	49.1	-1.7	40.2	-2.3	10.9	-0.7
4월	53.5	2.9	44.9	2.2	10.5	0.1
5월	55.3	3.9	47.4	2.5	10.4	1.4
6월	49.7	-1.1	41.9	-1.2	8.8	-1.8
7월	56.6	4.6	51.8	6.0	8.3	-0.5
8월	57.7	4.4	52.3	3.9	8.1	0.6
9월	62.4	4.6	42.3	4.2	26.7	0.9
10월	56.8	3.5	49.4	4.0	10.0	0.0
11월	53.7	2.0	45.8	2.3	10.7	-0.3
12월	60.8	3.0	53.1	3.9	12.0	2.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재인용.

- 2019년도 월별 국내여행 경험률은 2월(62.8%), 9월(62.4%), 12월(60.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관광여행 경험률은 12월(53.1%)이 가장 높았고, 기타여행 경험률은 2월(27.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남북왕래 현황

- 2019년도 남북왕래자 수는 4,815명으로 전년대비(2018년도 19,199명) 14,384명이 감소하였고, 북한을 방문한 남한 주민은 2,229명이며,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없었음⁴⁾

[표 3-6] 국민 방북자

구분	입경	출경	계
방북자 수	2,407	2,444	4,851

주1) 법무부, 2019년12월 31일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4)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금강산과 개성 관광이 전면 중단되었고,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2013년 4~5월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출경 제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교류는 중단된 상태였으며, 2018. 4. 27.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총 3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남북 교류 활성화가 진전이 있었으나, 2019.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남북왕래가 또다시 교착 국면에 빠져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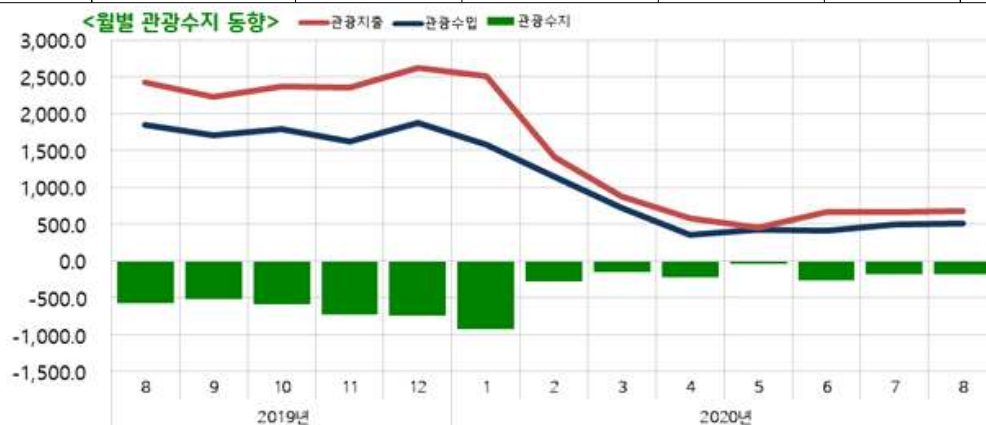
■ 관광수지

-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지출에 의한 관광수입은 2019년에는 전년대비 16.3% 증가한 21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관광수입은 12억 달러로 나타남
 - 2020년의 8월 기준(1~8월) 관광수입은 56.5억달러(-61.0%)로 나타났고, 관광지출은 78.6억 달러(-72.1%)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의 활동이 대폭 감소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예상됨
- 2020년 8월(1개월) 기준 관광수입은 5.0억달러(-72.7%)로 나타났고, 관광지출은 6.8억달러(-72.1%)로 나타남

[표 3-7] 한국관광수지 현황(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등)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 수입(\$1)	관광지출	1인당 관광 지출(\$1)	관광수지	유학수지
2016년	16,754(14.2)	972	23,689(10.0)	1,058	-6,935	-3,423
2017년	13,264(20.8)	995	27,960(18.0)	1,055	-14,696	-3,628
2018년	18,462(39.2)	1,203	31,528(12.8)	1,099	-13,066	-3,500
2019년 ^P	21,506(16.5)	1,229	28,855(-8.5)	1,005	-7,349	-3,326
2020년 8월 ^P	506(-72.7)	7,349	677(-72.1)	7,616	-171	-303
2020년 ^P	5,652(-61.0)	2,492	7,861(-59.2)	1,977	-2,209	-1,734



주: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름 의미

2020년 관광수입 및 지출은 자료반영의 시차 관계로 전월/전전월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관광객 감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됨(차후 한국은행 확정치 발표시 수정 예정)

1) 1인당 관광수입 = 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 = 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2020년 1인당 지출액은 상기의 이유로 데이터 사용시 주의를 요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10). 2020년 8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재인용

2) 국제관광 환경분석

가. 전체 관광동향

- 세계관광기구(UNWTO)의 통계에 따르면, 국제관광객 수가 2012년 최초로 10억 명을 돌파한 이래 2019년에는 전년대비(2018년도 기준) 3.5% 증가한 14억 600만 명으로 집계되었음(최근 10년간 63.6% 증가)
- 또한 2019년 국제관광 수입은 전년대비(2018년도 기준) 2.6% 증가한 1조 4,78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최근 10년간 61.2% 증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여행객 수(백만 명)	956	997	1,043	1,095	1,142	1,197	1,243	1,333	1,409	1,460
관광수입(US\$십 억)	979	1,080	1,117	1,204	1,274	1,222	1,254	1,347	1,457	1,478

주1) 2019년은 잠정치 임

주2)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세계관광지표(원자료: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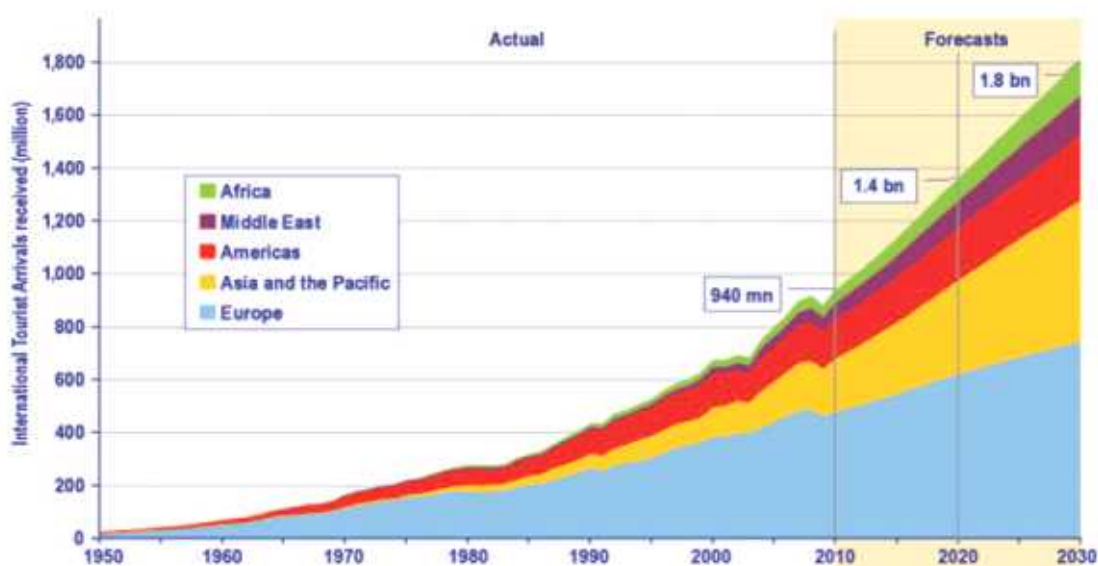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그림 3-3] 국제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최근 10년간)

- 세계여행관광협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WTTC)에 따르면 2018년 여행 및 관광분야의 세계 GDP에 대한 직접적 기여도는 2.8억 달러로 전체 GDP의 약 3.2%를 차지하였고 일자리에 대한 직접적 기여도는 1억 2,289만 개로 전체 고용의 약 3.8%를 차지하였음
- 좀 더 광범위하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경우 여행 및 관광 분야의 GDP에 대한 총 기여도는 8.8조 달러로 세계 GDP의 10.4%에 해당하며 고용에 대한 총 기여도는 3억 1,881

만 개로 나타남

- Tourism 2030 Vision(세계관광기구, UNWTO)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2020년도까지 국제 관광시장의 성장세가 연평균 약 4.2%로 전망되었으나, 2010년부터 약 3.3% 수준으로 감소, 2030년 1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⁵⁾
- 2020년 14억 명, 2030년 18억 명 등 국제 관광수요는 지속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등 신흥관광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2020년 3억 5,500만 명, 2030년에 5억 3,500백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됨



자료 : UNWTO Tourism Highlights(2016 Edition), p. 14; 박상곤(2016), 2016년 관광수요 전망, 재인용

[그림 3-4] 2030년 국제관광객 수 전망 그래프

나. 대륙별 동향

- 대륙별 국제관광객 유치 동향을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 유럽지역이 전년 대비(2018년 기준) 4.0%가 증가한 7억 4,52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전체 대륙 중 1위를 차지함(문화체육관광부, 2020)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19년도 기준 전년 대비(2018년 기준) 3.7% 증가한 3억 6,0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미주대륙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억 1,94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
- 아프리카는 7,310만 명(2018년도 대비 6.4% 증가)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중동지역의 외국인 관광객은 6,140만 명(2018년도 대비 2.1%)으로 집계됨

5) 박상곤(2016), 2016년 관광수요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 3-8] 연도별/지역별 세계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현황

(단위: 백만 명,십억달러(US\$), %)

구분		연도별		성장률		구성비
		2018년	2019년	18/17	19/18	2018년
전세계	관광객 수	1,409	1,460	5.7	3.6	100.0
	관광수입	1457	1478	4.8	2.6	100.0
유럽	관광객 수	716.4	745.2	5.8	4.0	51.1
	관광수입	569.2	572.9	4.6	4.4	38.8
아시아·태평양	관광객 수	347.7	360.7	7.3	3.7	24.7
	관광수입	436.4	443.1	8.8	1.2	30.0
미주	관광객 수	215.9	219.4	2.4	1.6	15.0
	관광수입	338.2	341.7	0.4	-0.1	23.1
아프리카	관광객 수	68.7	73.1	8.4	6.4	5.0
	관광수입	38.4	38.4	1.1	2.2	2.6
중동	관광객 수	60.1	61.4	4.3	2.1	4.2
	관광수입	74.5	82.2	6.0	9.3	5.6

주1) 성장률은 자국화폐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2019년 잠정치)

주2) 원자료: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Vol.18, July 20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다. 코로나19와 국제관광

- 2020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corona virus disease 19, 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가간 이동과 여행이 제한되면서 관광업계에 큰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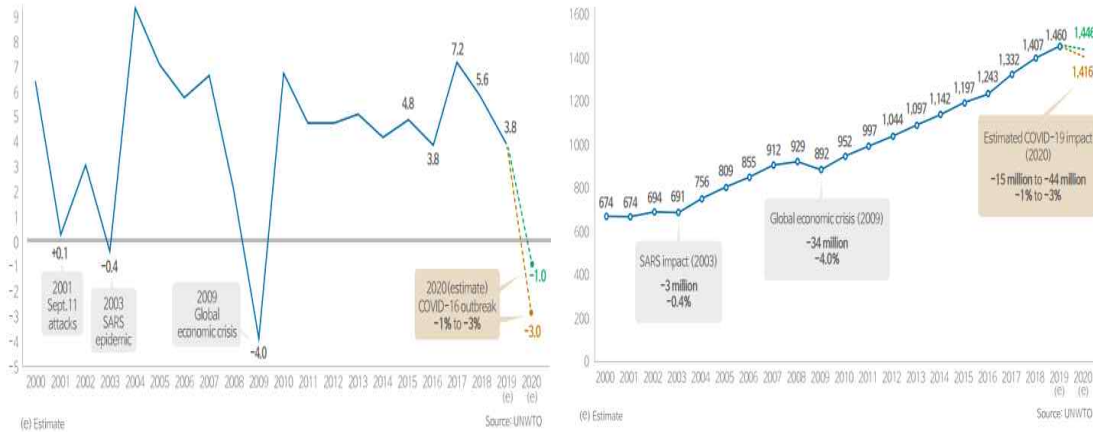
- 2020년 7월 1일 09시 기준 전 세계 전체 10,369,195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의 경우 2020년 7월 1일 00시 기준 12,850명(격리해제-11,6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관광 영향에 대한 세계 관련 기관(UNWTO, IATA, McKinsey) 전망⁶⁾

- UNWTO: 2020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제관광 규모 감소 전망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의 자료로 세계 관련 기구(관)에서 전망한 발표 내용을 재정리한 자료로, 코로나19 상황이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어 세부 내용 및 영향은 달라지고 있음을 밝혀 둠

- 관광 분야 전반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세계 아웃 바운드 진출 시장인 중국과 기타 주요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목적지 등 각국에서 여행수요 및 공급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자료 : UNWTO(2020.3.5.), Impact assessment of the COVID-19 outbreak on international tourism,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문화관광인사이트(제143호), 재인용

[그림 3-5] 2020년 전망: 국제관광객 수(세계, 변경 %, 백만명)

- 여행 제한 및 항공편 취소 및 빈도 감소로 인해 여행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유엔세계관광기구는 SARS 시나리오, 세계 관광시장의 규모, 최근 여행중단, 코로나 19 확산 및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 국제 관광객이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음⁷⁾
- 다만 이러한 예측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상황에 맞는 재예측이 필요함

○ IATA의 항공업계 전망: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승객 규모 및 수입감소 전망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코로나19가 SARS 발생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경우 2020년 아시아 태평양지역 여객 수송실적((RPK: Revenue passenger kilometers) 손실은 약 13% 정도로 추정함
- 코로나19 확산정도에 따라 1)제한적 확산(limited spread) 시나리오, 2)광범위한 확산(extensive spread)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함

[표 3-9] 시나리오별 전세계 승객 수입 손실 추정

구분	제한적 확산 시나리오	광범위한 확산 시나리오
전체	630억 달러	1,130억 달러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문화관광인사이트(제143호), 재인용

7)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20년 관광객은 9~12% 감소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제한적 확산 시나리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승객 수입은 약 630억 달러(한국 - 28억 달러) 감소를 전망하였고, 광범위한 확산 시나리오의 경우 1,130억 달러(아시아 일부⁸⁾ -497억 달러)로 추정함

○ McKinsey의 경제 성장 및 관광부문 영향 전망

- McKinsey는 코로나19 발생이 2020년 GDP 성장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1)빠른 회복 시나리오(세계 GDP 성장률 2.5%~2.0% 감소) 2)세계적 경기침체 시나리오(세계 GDP 성장률 1.0~1.5% 감소), 3)세계적 팬데믹 시나리오(세계 GDP 성장률 -1.5~0.5% 감소) 구분하여 전망함
- 맥킨지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산 관광산업은 4분기까지 진행할 것으로 추정함(항공 늦은 3분기~이른 4분기)

[표 3-10] 시나리오별 전세계 승객 수입 손실 추정

부문	관광	항공
영향기간(추정)	4분기	늦은 3분기/이른 4분기
세계적 경기침체 시나리오	-심각한 파급효과(예: 베트남 관광 50% 감소 등) -전염병 재발시, 겨울까지 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 -지역화된 영향 가능성	-세계 관광에 급격한 영향 -3-4월 예약 감소 -국내여행 회복 속도(~2분기)가 해외여행(~3-4분기)에 비해 빠를 것으로 예상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문화관광인사이트(제143호), 재인용

3) 국내외 관광 트렌드

가. 국제 관광트렌드

가) 2016년 국제관광트렌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투어고포커스(제195호)에는 키워드로 보는 2016년 국제 관광트렌드를 제시하였음
- 국제 관광 트렌드를 BLeisure, 온라인과 모바일, 공유경제(Sharing Economics), 도시여행(City Trips), 나홀로 여행족, 밀레니엄 세대/베이비붐 세대를 제시하였음

■ 비즈니스(Business)와 레저(Leisure)가 결합된 BLeisure 트렌드

- BLeisure란 업무차 타국타 지역을 방문하면서 개인시간을 이용하여 관광까지 즐기는 현

8) 한국을 비롯한 호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포함함

상을 뜻함

-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밀레니엄세대(10명중 9명)에게 각광받고 있으며, 종종 업무시간외 개인시간을 연장하여 가족과 함께 관광을 즐기기도 함

■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한 관광 정보 활용

- 모바일 기술은 현재 관광 시장에서 고객서비스 및 고객행동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광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관광업계의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필수가 되고 있음
- 관광객 및 상품구매자들은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에서 리뷰 등을 통해 관광정보를 얻고, 관광사업체(호텔, 항공사 등)는 온라인을 통해 고객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3년 약 1억 3천만 명에서 2018년 약 2억 6천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관광 시장으로 전망 됨

■ 공유경제(Sharing Economies)의 활성화

- 공유경제란 물품을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 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관광산업에서도 에어비엔비(Airbnb)나 우버 등이 이를 도입하고 있음
- 공동의 소비 또는 협력소비로도 통용되는 공유경제는 북미와 서유럽국가에서 시작하여 최근 몇 년간은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급성장함
- 공유경제는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업부문에 급격히 성장했으며 숙박, 교통, 식사, 여행가이드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함
- 이러한 공유경제는 방문하는 지역에서 관광객이 아닌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숙박 또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또 다른 세계적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음

■ 도시여행(City Trips)

- 도시여행은 말 그대로 도시 또는 높은 인구밀도를 지닌 곳을 짧은 기간 동안(보통 1~3일) 여행하는 관광형태를 의미함
- 도시여행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약 82%가 성장하였고, 전체 휴일

(휴가)에 행해지는 관광활동 중 약 22%의 점유율이 상승함(2014년 기준 인기 여행지 Top 3: 홍콩, 파리, 뉴욕)

■ 나홀로 여행족의 증가

- 2015년 미국의 여행사 OAT에 따르면 OAT를 이용한 45,909명의 관광객 중 44%인 20,288명은 개인여행을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세계여행신문 2015.3.2.) 여성관광객은 80%로 남성보다 여성의 나홀로 여행 비중이 더 높음
- 나홀로 여행족이 증가하는 이유는 싱글족의 증가와 글루미족(솔로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지칭한 용어) 출현, 고령 인구의 증가 등이 있음
- 점차 증가하는 나홀로 여행족을 공략하기 위해 여행업계에서는 나홀로 여행객을 위한 전용 사이트, 솔로 전용 상품 룸메이트 매칭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 중임
 - 영국의 101 Single Holidays, OAT Solo-friendly Program 등

■ 밀레니얼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관광 구매력 성장

- 2016년에 5명중 2명의 밀레니얼세대가 전 년 대비하여 관광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음
- 밀레니얼세대의 구매력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낮지만 자신들의 재정상황에 낙관적이며 경험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행은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영역임
 - 2015~2020년 사이 국제관광객의 절반이 밀레니얼 세대
- 밀레니얼세대는 경험, 저렴한 가격, 셀프서비스, 높은 기술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현지인처럼 체험할 수 있는 Peer-to-peer 플랫폼이 성장할 전망임

나) OECD 미래관광 메가트렌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관광 인사이트(제130호)는 OECD에서 2년마다 발간하는 “Tourism Trends and Policies”의 내용을 토대로 미래관광 메가트렌드를 제시함
- OECD분석은 인간(Human), 지구(Planet), 생산성(Productivity), 정치(Polity)의 네 가지 범주에 초점을 두고 트렌드 분석을 실시함⁹⁾

9) 인간은 인구학적 변화 및 노동사회와 연동된 방문객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며, 지구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 생산성은 기술발전에 따른 여행형태의 변화, 정치는 여행 이동성을 나타냄

■ 인간(Human) 메가트렌드

- 고령화에 따른 접근가능한 관광 중요
- BRICs 중산층의 성장과 여행수요 변화
- 신흥세대(밀레니엄 세대, Z세대)의 성장
 - 절약형 관광객의 부상: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구매력 감소(은퇴 연기, 고용불안)와 관광산업 침체
 - 퓨처리стик 여행자의 시대: 세계 경제 번영으로 관광수요 급증, 다양한 여행수요 등장 및 유니버설 디자인 발전
 - 점진적 혁신의 지속: 관광수요 다양화 및 업계경쟁 격화(신흥세대, 기술과 가격 민감, 현지 경험 선호), 인기관광지 오버투어리즘 과제 심화

■ 지구(Planet) 메가 트렌드

- 기후변화 및 지역사회 양립 등 과제 심화
- 지속가능한 관광 기대 증가
 - 사회적 환경적 무책임의 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의 비용 증가로 관광수요 급감 및 관광산업 투자 저조→ 기후변화로 해안 관광지 파괴 및 항공권 가격 급등으로 관광 침체
 - 녹색성장(여행에 내재된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관광 인기로 비용 감소, 관광산업의 저탄소적 운영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양극화된 발전(지속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 둔화, 국가간 규제 환경 양극화로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 지속

■ 생산성(Productivity) 메가트렌드

-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한 관광시스템 변화
-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관광 급변
 - 기술적 유토피아 수용: 기술발전으로 여행경험 향상(VR,AR,AI 등)
 - 하이테크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와의 전쟁: 관광은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전유물
 - 기술 근시의 함정에 빠지다: 기술발전으로 관광산업 발달

■ 정치(Polity) 메가트렌드

- 항공여행 급성장 및 도로·철도·크루즈증가 전망
- 출입국 등 이동성은 불확실성 시대로 진입

- 세계시민의식(연결성, 협력, 원활한 이동성): 국제적 협력으로 국경 넘는 자유로운 이동
- 내부조명(보호주의와 제한적인 글로벌 이동성): 관광이동성 전무
- 통합 파편화(이동성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2030년까지 국제관광 증가, 이후 GDP 및 인구성장 둔화로 감소, 국경개방 양극화 야기

나. 국내 관광트렌드

■ 2019 여행트렌드 ‘일상과 여행을 잇다, BRIDGE’

- 밀레니얼세대가 여행으로 세대간 벽을 허물고(break), 축제 등 체험여행(recreation)이 늘어나며, 타인의 여행 의지에 영향을 줄 만한 인생샷 공유 확대
- 먹방(delicious foods) 여행, 언제든 감행(go anytime)하는 즉행, 동쪽(east coast) 여행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3년(2015.10~2018.9)간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약 264만 건과 여행 인플루언서 집단에서의 버즈량 데이터 총 4만6498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9년 국내여행 트렌드로 ‘브릿지(B.R.I.D.G.E.)’를 발표함
 - B(Break the Generation Gap #다세대 가족여행)
 - ❖ 국내여행에서는 멀티제너레이션, 즉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세대 간 벽을 허무는 다세대 가족여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R(Recreational Activities, #레저 여행)
 - ❖ 축제, 체험, 행사 등 레크리에이션 관련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서핑, 루지, 짚라인 등 레포츠도 여행의 필수 아이템. 다 커서도 애니메이션 등을 소비하고, 테마파크, 그림책방, 이색놀이카페 등을 찾는 ‘어른이 놀이터’도 인기를 끌 전망임
 - I(Influential Contents, #SNS 여행콘텐츠)
 - ❖ 여행 관련 영상 콘텐츠 확대가 지속되고 1인 미디어와 영상 콘텐츠의 강세는 여행 안간 이웃들에게도 여행 가도록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D(Delicious Foods, #맛집 탐방)
 -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먹방, 맛집, 여행이 결합된 예능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가 여전하다. 국내여행 중 음식 관광의 비율은 2015년 13.2%, 2016년 24.7%, 2017년 34.7%로 증가
 - G(Go Anytime, #연중 여행)
 - ❖ 골목·시장·거리 등 일상과 멀리 떨어져있지 않은 친숙한 곳으로의 여행과 함께 비수기·성수기,

주중·주말 구분없이 여행을 떠나는 연중 여행 트렌드가 지속될 전망

- E(East Coast, #강원도 여행)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KTX 경강선과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보다 좋아진 강원도가 인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2019 국내여행 트렌드 전망					
B	R	I	D	G	E
Break the Generation Gap	Recreational Activities	Influential Contents	Delicious Foods	Go Anytime	East Coast
B	Break the Generation Gap	베이비붐 세대부터 밀레니얼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여행			
R	Recreational Activities	축제, 행사, 레포츠 등 다양한 액티비티와 즐길거리를 체험하는 여행			
I	Influential Contents	유튜브 등 영상에서 본 곳으로 떠나고,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는 여행			
D	Delicious Foods	맛집, 카페 등 미각과 시각을 만족시키는 여행			
G	Go Anytime	근교여행 등 특별하지 않은 날에 일상처럼 언제든 즐기는 여행			
E	East Coast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강원에서 즐기는 여행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8),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활용 국내관광 트렌드 분석 및 2019 트렌드 전망, 재인용

[그림 3-6] 2019 여행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 2020년¹⁰⁾ 국내 여행트렌드 'R.E.F.O.R.M' (코로나19 이전)¹¹⁾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도 국내여행 트렌드를 R.E.F.O.R.M.의 6가지 키워드로 전망하였음
- 소셜미디어 분석에 따르면 여행자의 취향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국내여행 트렌드 역시 개인 맞춤형 여행 선호가 큰 특징으로 나타남
 - R(Regional Creator, #지역 관광명소 발굴, #소개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성장)
 - ❖ 유튜브 채널 내 국내여행 관련 언급량이 늘어나고(2019년 1~3분기 약 8만 2천건, 전년대비 약 72% 증가), 유튜버 중 개인크리에이터 비율이 증대되고(영상 87%, 조회 수 75.7%) 있는데, 이는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는 소규모 크레이터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전망됨
 - E(Enjoy&Critique Food, #식사 종류는 별점과 함께, # 여행자 모두가 음식 비평가)
 - ❖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비주얼 콘텐츠의 생산·소비가 증가하면서 음식 관련 시각적 콘텐츠 증가와 더불어 사용자 경험, 정보 공유 서비스, 모바일 지도 서비스들이 활성화 되면서 소비자가 식사와 동시에 음식을 평가하는 경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¹²⁾

10) 2020년도 국내여행 트렌드 분석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 결과를 정리함

11) 2020년도 국내여행 트렌드 'R.E.F.O.R.M.' 은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19년 12월 16일)를 재 정리 하였음

- F(Find My Trip, #초개인화 시대, #세분화된 취향에 맞는 나만의 여행 찾기)
 - ❖ 취향의 세분화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 성장에 따른 부각된 트렌드로, 국내여행에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소셜미디어에서 국내 여행 목적 및 활동이 ‘얼음낚시’, ‘원투낚시’, ‘배스낚시’ 등 세분화된 활동 키워드 증가율 높음
- O(Other Destinations, #봄비는 인기 여행지에서 쾌적한 숨은 여행지로)
 - ❖ 대도시나 인기 여행지보다 다소 덜 변화한 곳이나 부도심지 키워드 순위가 상승함에 따라 관광객 쏠림 현상으로 인한 각종 불편, 즉 오버투어리즘을 피해 조용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기려 함(숨은 관광명소 선호)
- R(Redesign With Technology, #ICT 진화로 여행의 디지털화 가속)
 - ❖ 국내여행지에서 즐기는 주요 활동 중 드론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등 여행지에서 ICT 기반 다양한 액티비티를 선호함
 - ❖ ICT 인프라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기반 모바일 여행서비스 증가와 공유경제 플랫폼(O2O) 플랫폼의 활성화가 전망됨
- M(Make Trips Nearby, #짧게 자주 떠나는 여행의 일상화)
 - ❖ 2019년 상반기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당일여행 횟수(23.6%)는 증가나 증가했지만, 숙박여행 횟수 감소(2%)
 - ❖ 여행 관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도 데이트, 피크닉 등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활동 언급량이 증가함(부담없는 여행 선호)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9), 보도자료(2019.12.26.), 재인용

[그림 3-7] 2020년도 국내여행 트렌드 분석(REFORM)

12) 소셜데이터에서도 식사와 관련된 리뷰, 후기 등 평가 관련 키워드 언급량 증가가 예측됨

■ 2020년 여행트렌드 'S.A.F.E.T.Y.(코로나 19 이후)¹³⁾

- 한국관광공사는 SKT의 T-map 교통데이터 및 KT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국내 발생시점인 20년 1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21주간 국내 관광객의 관광이동패턴 및 행동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분석결과 전반적인 관광활동에서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집 근처의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생활관광)



자료 : 한국관광공사(2020), 보도자료(2020.06.11), 재인용

[그림 3-1] 2020년도 국내여행 트렌드 분석(S.A.F.E.T.Y.)

- S(Short Distance, #수도권·대도시 주변 ‘근거리’ 관광수요 증가)
 - ❖ 안전을 우려해 집 근처 친숙한 근거리(Short Distance) 생활 관광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함(수도권: 하남시, 남양주시, 용진군 증가)
- A(Activity, #아웃도어 ‘레저 및 캠핑’ 수요 증가)
 - ❖ 밀폐된 실내 관광활동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생활방역)가 용이한 야외활동(Activity), 아웃도어 레저 액티비티 관련 지역(장소)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수도권·대도시 근거리 캠핑장 급증, 전년대비 전국평균 73%)
- F(Family,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관광 확대)
 - ❖ 코로나19는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이 최대한 담보된 가족 단위(Family)의 소규모 관광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 결과 국내여행 재개시 동반자로 가족 선택-99.6%)
- E(Eco-Area, #코로나를 피해 ‘청정지역’ 관광수요 증가)

13) 2020년 여행트렌드 ‘SAFETY’ 는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0년 6월 11일)를 재정리함

- ❖ ‘편안한 불안보다는 불편한 안전’을 선택하는 원거리 청정지역·자연친화(Eco-Area) 관광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불편한 접근성에도 청정 이미지가 강한 지역 관광지 선호: 전북 임실, 전남 진도, 전남 고흥)
- T(Tourist-Site, #여전히 ‘인기 관광지’ 중심 관광수요 변동)
 - ❖ 안전을 의식해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전통적인 인기 관광지(Tourist site)에 대한 기피 현상이 뚜렷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한 지난 5월 초 황금 연휴기간에는 오히려 전통적인 인기 관광지에 방문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인기 관광지 관광욕구 유효)
- Y(Yet., #관광‘욕구’ 여전히 존재, 온전한 관광 ‘수요’ 회복까지는 시간 필요)
 - ❖ 지난 5월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관광수요 역시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의 ‘코로나19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 결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욕구’는 지속되고 있었음
 - ❖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국내 관광산업의 타격 등을 고려할 때, 온전한 수요 회복까지는 아직(Yet)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 시대 여가 트렌드 ‘S.U.P.E.R.’ (코로나 19 이후)

- 글로벌 여가 플랫폼 야놀자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3개월(2020년 3~5월)간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급 호텔 인기(Supreme) ▲언택트 트렌드 부상(Untact) ▲개인화된 여가 선호(Private) ▲체험형 레저 증가(Experience) ▲여행심리 반등(Rebound) 등 5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였음



자료 : 야놀자 홈페이지(<https://yanolja.in/en/>)

[그림 3-8] 코로나 시대 여가 트렌드 ‘S.U.P.E.R.’

- S(Supreme, #특급호텔 인기)
 - ❖ 국내 4~5성급 호텔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였는데, 이는 불가능한 해외여행의 대안으로 프리미엄 숙소 선택
- U(Untact, #언택트 트렌드 부상)
 - ❖ 개인간의 접촉 최소화로 언택트(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부상하고 있고, 셀프체크인 키오스크 설치 제휴점 이용이 증가함
- P(Private, #개인화된 여가 선호)
 - ❖ 개인화된 여가 선호도의 증가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낮은 펜션의 이용건 수 증강(인기검색어: 글램핑, 풀빌라 등 독립된 공간)
- E(Experience, #의미 있는 경험, #체험형 레저 증가)
 - ❖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간과 활동의 제약이 커져 단순 관람보다는 소규모 체험형 레저활동 인기(취미.여가활동 및 원데이클래스)
- R(Rebound, #여행심리 반등)
 - ❖ 코로나19 안정세를 보였던 올해 황금연휴 기간(4월30~5월 5일) 중 국내 이용 건수가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여행보상심리 반영, 향후 수요 급등 예상)

■ 키워드로 보는 2020-2024 관광트렌드: NEXT TRAVEL(향후 5년)¹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관광부문의 주요 트렌드 현상을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5년간의 관광트렌드 키워드를 “NEXT TRAVEL”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여행이 일상화되면서 계속해서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운다”라는 뜻임
- N(New generation, #여행 트렌드 세터, #뉴 제네레이션)
 - ❖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 소비 주도
 - ❖ 개성 및 희소성, 정체성, 재미와 경험 중시
 - ❖ ‘혼자 하는 여행’, ‘따로 또 같이 여행’ 패턴 지속
 - ❖ SNS 영상 콘텐츠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강화
- E(Experiential activity, #경험소비, #여행 액티비티 전성시대)
 - ❖ 현지 액티비티 여행(프로그램) 인기
 - ❖ 경험 중심, 능동적 여행: 프로여행러, 프로슈머
 - ❖ 액티비티 상품 플랫폼의 성장

14)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의 제시한 2020-2024(5년간)의 관광트렌드의 내용 중 주요 변화 방향에 대한 내용을 재정리 하였음

- X(Xtra time & short trip, #소소한 여행-소확행, #가심비, #가시비)
 - ❖ 소확행, 간기 근거리 여행 증가
 - ❖ 여행 일상화, 가심비, 가시비→ 국내, 해외/성수기 집중완화
 -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서 여행(스테이케이션, 호캉스)
- T(Travel platform business, #모바일과 여행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 ❖ 경험 가치 중심의 여행상품 구매 증가 전망
 - ❖ 여행정보 생산·유통·소비 경로 변화
 - ❖ 여행업의 탈경계화 및 비즈니스 모델 각축 전망
 - ❖ 각 이코노미와 관광산업 일자리 변화
 - ❖ T(Tourism for all, #누구나 즐기는 여행, #은퇴에서 100세까지)
 - ❖ 여행이 특권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로 대두
 - ❖ 구매력과 디지털 적응력을 갖춘 뉴시니어 전파
 - ❖ 밀리니얼 가족의 탄생 및 키즈시장의 성장
 - ❖ 장애인, 노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요구 증가
- R(Responsible tourism, #관광시민, #여행가치를 생각하다)
 - ❖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여행증가
 - ❖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 증가
 - ❖ 늘어나는 여행사고와 관광안전 의식 제고
 - ❖ A(AI tourism era, #빅데이터가 여는 AI관광시대)
 -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및 집단 지성 중요성 부각
 - ❖ IoT, AI 융합기술 발전을 통한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및 사용자 체감 관광경험의 변화
- V(Vulnerable tourism market, #다이내믹 방한시장, #유동성과 다변화)
 - ❖ 외부환경 요인의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인바운드 시장의 급격한 변화
 - ❖ 중국시장의 점진적 회복 및 질적 개선요구 증가
 - ❖ 외교갈등과 안보문제로 인한 일본시장 불안정성
 - ❖ 아세안 지역 내 한류 확산 및 관광교류 규모확대
- E(Expansion of sharing economy, #공유, #여행·공간·이동·경험을 잇다)
 - ❖ 공유 경제 비즈니스 온디맨드 경제로 여행(플랫폼 중개 알선 서비스)
 - ❖ 숙박, 이동, 음식 등 여행의 다방면에서 공유경제 플랫폼 확산
 - ❖ '문화코드'가 부여된 '경험소비'중시

- L(Life tourism,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
 - ❖ 일상 공간의 관광지화
 - ❖ 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 오버투어리즘 이슈 제거
 - ❖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 수요 증가



자료 :이원화박주영·조아라(2019),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0-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인용.

[그림 3-9] 2020-2024 관광트렌드 키워드, NEXT TRAVEL

다. 소 결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관광 급감

- 국제관광 환경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19년 기준 약 15억 명의 여행객 수와 1,478십억 달러의 관광수입이 창출되었지만 2020년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에 따라 국가별 이동제한 등으로 국제관광은 급감하에 따라 국내 관광·레저산업에도 심각한 경영난 초래
 - 국내 관광·시장 역시 외래관광객의 입국제한 및 내국인 국외관광 제재에 따라 여행업을 비롯한 외래관광객 의존도가 높던 업종의 심각한 경영난 초래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내수관광 불황

- 코로나19의 대확산에 따라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실내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행사개최가 제한됨에 따라 국내 관광·레저산업의 급격한 경영난이 초래됨에 따라 산업 내 신규 채용수요가 전문한 실정임
 - 관광·레저산업의 특별고용유지업종(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제외) 선정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 내 대량실직이 예상됨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관광트렌드의 변화

- 국내 관광트렌드는 코로나9 이후 기존의 관광트렌드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안전성, 소규모, 비대면, 청정지역 등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조사기관별 다양한 유형의 관광트렌드 도출)
- 이러한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관광·레저산업 역시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상품 개발 및 시스템의 구축 필요
- 산업의 인적자원 역시 신규로 부상하는 업종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재직자 역시 새로운 시스템(비대면 등)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또한 이뤄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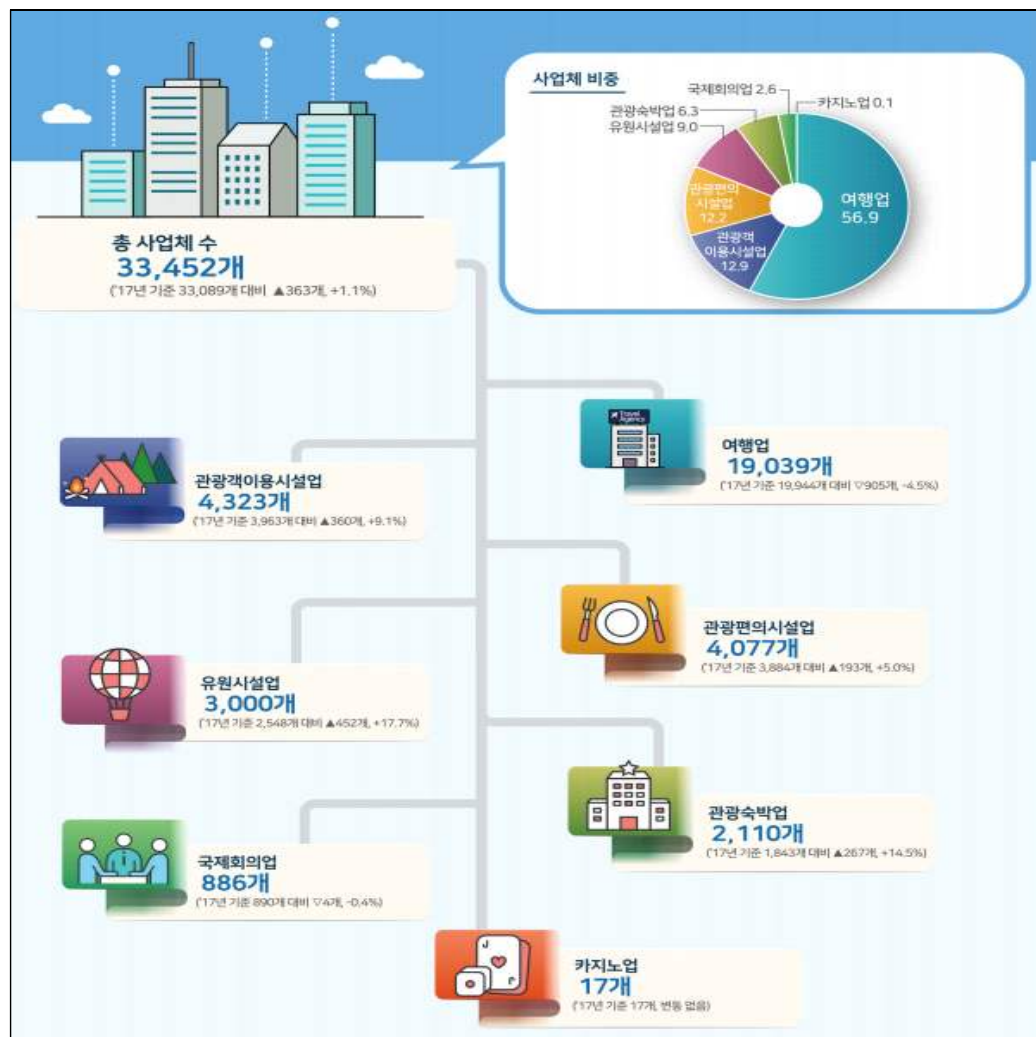
2. 관광레저산업 현황¹⁵⁾

1)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현황

가. 연도별 사업체 현황

■ 전체 사업체 현황

-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수는 최근 5년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의 관광레저분야 사업체 수는 33,452개로 전년 대비 1.1%가 증가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0] 업종별 관광사업체 현황(2018년 기준)

15)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참조 후 재작성 함

- 업종별로 보면, 전체 관광사업체 중 여행업이 19,039개(5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 4,323개(12.9%), 관광편의시설업 4,077개(12.2%), 유원시설업 3,000개(9.0%), 관광숙박업 2,110개(6.3%), 국제회의업 886개(2.6%), 카지노업 17개(0.1%)의 순임

[표 3-11] 연도별 사업체 수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개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율 (전년대비)
전 체	20,769 (100.0)	23,874 (100.0)	27,696 (100.0)	33,089 (100.0)	33,452 (100.0)	1.1
여행업	12,854 (61.9)	14,607 (61.2)	16,605 (60.0)	19,944 (60.3)	19,039 (56.9)	-4.5
관광숙박업	1,278 (6.2)	1,503 (6.3)	1,716 (6.2)	1,843 (5.6)	2,110 (6.3)	14.5
관광객이용시설업	336 (1.6)	1,213 (5.1)	3,168 (11.4)	3,963 (12.0)	4,323 (12.9)	9.1
국제회의업	677 (3.3)	619 (2.6)	700 (2.5)	890 (2.7)	886 (2.6)	-0.4
카지노업	17 (0.1)	17 (0.1)	17 (0.1)	17 (0.1)	17 (0.1)	-
유원시설업	593 (2.9)	1,060 (4.4)	1,782 (6.4)	2,548 (7.7)	3,000 (9.0)	17.7
관광편의시설업	5,014 (24.1)	4,855 (20.3)	3,708 (13.4)	3,884 (11.7)	4,077 (12.2)	5.0

주1: 관광사업체 특성상 진출입이 잦고, 2018년 기준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사업체임에도 명부에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를 감안하여 본 조사 전 소재지가 불명확하거나 종사자 장기부재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던 일부 사업체의 경우 관할 지방 자치단체,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최종 모집단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관광사업체 수를 구축함

주2: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세부 업종인 일반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5. 1. 29.)에 의해 2015년 기준 조사부터 조사대상으로 추가되었음

주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세부 업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 3. 22.)에 의해 2016년 기준조사부터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이동하였음

주4: 관광편의시설업의 관광면세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 3. 22.)에 의해 2016년 기준 조사부터 조사대상으로 추가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지역별 사업체 현황

- 관광사업체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1,561개(3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4,402개(13.2%), 제주 2,251개(6.7%), 부산 1,977개(5.9%) 등의 순임

[표 3-12] 지역별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 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 업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전체	33,452	19,039	2,110	4,323	886	17	3,000	4,077
	100.0	56.9	6.3	12.9	2.6	0.1	9.0	12.2
서울	11,561	8,518	440	1,130	563	3	308	599
	34.6	25.5	1.3	3.4	1.7	0.0	0.9	1.8
부산	1,977	1,197	154	163	60	2	227	174
	5.9	3.6	0.5	0.5	0.2	0.0	0.7	0.5
대구	1,021	665	23	52	35	1	103	141
	3.1	2.0	0.1	0.2	0.1	0.0	0.3	0.4
인천	1,025	449	147	135	11	1	140	143
	3.1	1.3	0.4	0.4	0.0	0.0	0.4	0.4
광주	733	550	13	24	22	0	64	60
	2.2	1.6	0.0	0.1	0.1	0.0	0.2	0.2
대전	631	422	17	8	31	0	98	55
	1.9	1.3	0.1	0.0	0.1	0.0	0.3	0.2
울산	463	232	15	36	9	0	91	80
	1.4	0.7	0.0	0.1	0.0	0.0	0.3	0.2
세종	117	69	0	7	3	0	24	14
	0.3	0.2	0.0	0.0	0.0	0.0	0.1	0.0
경기	4,402	2,126	170	610	50	0	763	683
	13.2	6.4	0.5	1.8	0.1	0.0	2.3	2.0
강원	1,403	372	144	571	19	2	139	155
	4.2	1.1	0.4	1.7	0.1	0.0	0.4	0.5
충북	721	386	31	149	4	0	103	48
	2.2	1.2	0.1	0.4	0.0	0.0	0.3	0.1
충남	1,018	389	42	239	2	0	150	196
	3.0	1.2	0.1	0.7	0.0	0.0	0.4	0.6
전북	1,347	532	50	267	10	0	110	377
	4.0	1.6	0.1	0.8	0.0	0.0	0.3	1.1
전남	1,536	556	257	199	3	0	146	375
	4.6	1.7	0.8	0.6	0.0	0.0	0.4	1.1
경북	1,622	548	82	326	14	0	177	475
	4.8	1.6	0.2	1.0	0.0	0.0	0.5	1.4
경남	1,625	688	109	299	17	0	277	234
	4.9	2.1	0.3	0.9	0.1	0.0	0.8	0.7
제주	2,251	1,340	416	107	33	8	80	267
	6.7	4.0	1.2	0.3	0.1	0.0	0.2	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나. 업종별 사업체 매출액 현황

■ 전체 사업체 매출액 현황

- 업종별 사업체 매출액 현황은 2018년 기준 25조 4,291억 원으로 전년 대비(25조 7,360억 원)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행업의 매출액이 8조 4,6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광숙박업(7조 6,644억원), 카지노업(3조 254억원), 관광편의시설업(1조 9,822억원), 유원시설업(1조 9,709억원), 국제회의업(1조 3,033억원), 관광객이용시설업(1조 207억원)의 순임
- 2017년에 비해 국제회의업(10.4% 감소)와 관광숙박업(8.9% 감소), 관광객이용시설업(7.5% 감소), 유원시설업(3.1% 감소)의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그 외 3개 업종(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 여행업)의 연간 총 매출액은 증가했음
 - 특히 카지노업(10.8% 증가)의 증가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3-13] 업종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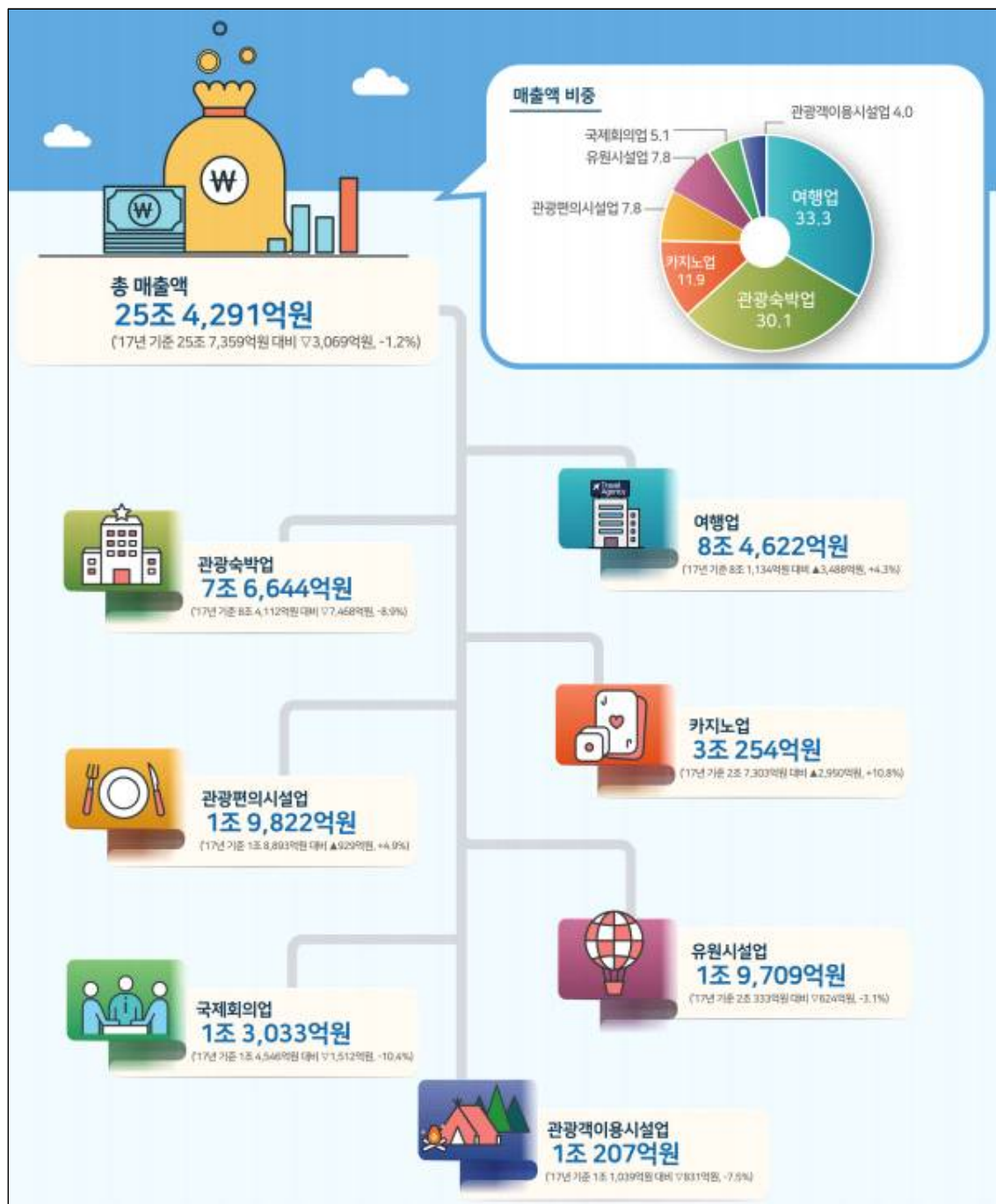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율 (전년대비)
전 체	22,567,248 (100.0)	22,358,220 (100.0)	25,036,015 (100.0)	25,735,937 (100.0)	25,429,075 (100.0)	-1.2
여행업	5,321,988 (23.6)	6,472,575 (29.0)	7,642,672 (30.5)	8,113,436 (31.5)	8,462,198 (33.3)	4.3
관광숙박업	7,930,628 (35.1)	7,859,586 (35.2)	8,268,323 (3.0)	8,411,162 (32.7)	7,664,356 (30.1)	-8.9
관광객 이용시설업	814,120 (3.6)	789,116 (3.5)	885,160 (3.5)	1,103,859 (4.3)	1,020,730 (4.0)	-7.5
국제 회의업	2,442,369 (10.8)	1,760,254 (7.9)	1,837,698 (7.3)	1,454,581 (5.7)	1,303,342 (5.1)	-10.4
카지노업	2,799,221 (12.4)	2,804,413 (12.5)	2,903,309 (11.6)	2,730,339 (10.6)	3,025,354 (11.9)	10.8
유원시설업	1,498,173 (6.6)	1,538,658 (6.9)	1,929,240 (7.7)	2,033,276 (7.9)	1,970,884 (7.8)	-3.1
관광편의 시설업	1,760,749 (7.8)	1,133,617 (5.1)	1,569,612 (6.3)	1,889,285 (7.3)	1,982,210 (7.8)	4.9

주1: 관광편의시설업의 세부 업종이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 3. 22.)에 의해 2016년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이동 포함됨

주2: 관광편의시설업의 관광면세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 3. 22.)에 의해 2016년 기준 조사부터 조사대상으로 추가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 1개소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7억 60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카지노업(1,779억 62백만원), 관광숙박업(36억 32백만원), 국제회의업(14억 71백만원), 유원시설업(6억 57백만원), 관광편의시설업(4억 86백만원), 여행업(4억 44백만원), 관광객이용시설업(2억 36백만원)의 순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1] 업종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현황(2018년 기준)

■ 지역별 사업체 매출액 현황

- 2018년 기준 지역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현황의 경우 서울이 10,930,392백만원(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3,513,465백만 원), 경기(2,344,211백만 원), 제주(2,298,551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4] 지역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 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전체	25,429,075	8,462,198	7,664,356	1,020,730	1,303,342	3,025,354	1,970,884	1,982,210
	100.0	33.3	30.1	4.0	5.1	11.9	7.8	7.8
서울	10,930,392	5,852,613	2,725,165	177,789	743,397	694,266	400,696	336,466
	43.0	23.0	10.7	0.7	2.9	2.7	1.6	1.3
부산	1,306,974	247,118	503,159	26,777	131,813	153,856	39,430	204,820
	5.1	1.0	2.0	0.1	0.5	0.6	0.2	0.8
대구	574,578	150,439	140,499	4,414	71,438	16,336	69,250	122,204
	2.3	0.6	0.6	0.0	0.3	0.1	0.3	0.5
인천	892,246	191,556	247,205	12,989	14,327	249,407	27,317	149,445
	3.5	0.8	1.0	0.1	0.1	1.0	0.1	0.6
광주	332,088	178,018	35,482	1,663	32,442	-	16,887	67,596
	1.3	0.7	0.1	0.0	0.1	-	0.1	0.3
대전	379,480	119,118	81,827	12,680	99,138	-	17,803	48,915
	1.5	0.5	0.3	0.0	0.4	-	0.1	0.2
울산	137,940	36,740	45,787	2,248	1,148	-	17,456	34,561
	0.5	0.1	0.2	0.0	0.0	-	0.1	0.1
세종	31,566	11,985	-	1,957	1,200	-	3,968	12,455
	0.1	0.0	-	0.0	0.0	-	0.0	0.0
경기	2,344,211	599,921	419,975	100,650	102,972	-	646,129	474,564
	9.2	2.4	1.7	0.4	0.4	-	2.5	1.9
강원	3,513,465	144,778	1,497,889	261,291	37,322	1,400,319	126,664	45,203
	13.8	0.6	5.9	1.0	0.1	5.5	0.5	0.2
충북	236,010	64,782	93,363	45,778	40	-	14,028	18,018
	0.9	0.3	0.4	0.2	0.0	-	0.1	0.1
충남	472,732	102,082	162,179	79,062	700	-	60,109	68,600
	1.9	0.4	0.6	0.3	0.0	-	0.2	0.3
전북	426,064	214,618	76,666	18,350	10,597	-	27,675	78,159
	1.7	0.8	0.3	0.1	0.0	-	0.1	0.3
전남	393,706	34,334	189,733	46,803	0	-	75,855	46,982
	1.5	0.1	0.7	0.2	0.0	-	0.3	0.2
경북	598,869	104,216	291,089	47,920	15,520	-	94,029	46,096
	2.4	0.4	1.1	0.2	0.1	-	0.4	0.2
경남	560,202	74,543	261,826	31,392	20,801	-	108,347	63,294
	2.2	0.3	1.0	0.1	0.1	-	0.4	0.2
제주	2,298,551	335,338	892,514	148,967	20,489	511,170	225,242	164,832
	9.0	1.3	3.5	0.6	0.1	2.0	0.9	0.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2) 사업체 종사자 현황

가. 연도별 종사자 현황

■ 전체 종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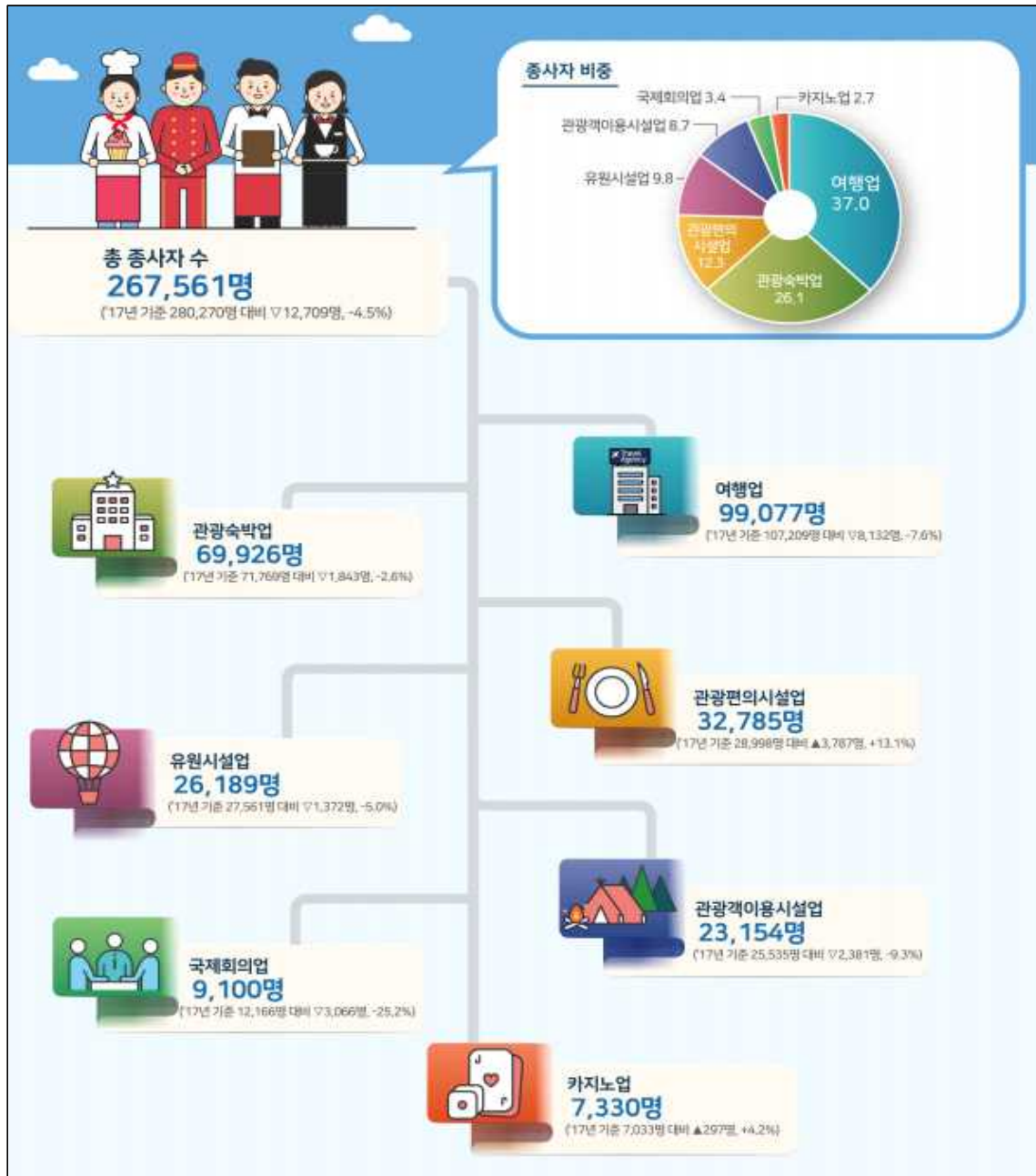
- 2018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 관광사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267,561명이며, 이 중 여행업이 99,07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관광 숙박업(69,926명), 관광편의시설업(32,785명), 유원시설업(26,189명), 관광객이용시설업(23,154명), 국제회의업(9,100명), 카지노업(7,330명) 등의 순임
- 관광사업체 총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4.5%인 12,709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의 종사자 수의 감소로 인해 2017년에 비해 25.2% 감소하였으나, 관광편의시설은 관광펜션업과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등 세부 업종의 모집단 증가의 영향으로 13.1% 증가했음

[표 3-15] 연도별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율 (‘17년 대비)	1개 사업체 평균종사자수 (‘18년 기준)
전 체	230,334 (100.0)	235,603 (100.0)	261,978 (100.0)	280,270 (100.0)	267,561 (100.0)	-4.5	8.0
여행업	69,400 (30.1)	84,558 (35.9)	98,421 (37.6)	107,209 (37.9)	99,077 (37.0)	-7.6	5.2
관광 숙박업	67,465 (29.3)	70,305 (29.8)	73,631 (28.1)	71,769 (25.4)	69,926 (26.1)	-2.6	33.1
관광객 이용시설업	10,671 (4.6)	11,065 (4.7)	17,421 (6.6)	25,535 (9.0)	23,154 (8.7)	-9.3	5.4
국제 회의업	17,330 (7.5)	15,131 (6.4)	12,596 (4.8)	12,166 (5.1)	9,100 (3.4)	-25.2	10.3
카지노업	8,931 (3.9)	9,418 (4.0)	9,115 (3.5)	7,033 (2.5)	7,330 (2.7)	4.2	431.2
유원 시설업	17,031 (7.4)	17,224 (7.3)	23,683 (9.0)	27,561 (9.8)	26,189 (9.8)	-5.0	8.7
관광편의시 설업	39,506 (17.2)	27,902 (11.8)	27,110 (10.3)	28,998 (10.3)	32,785 (12.3)	13.1	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2] 업종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현황(2018년 기준)

■ 지역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현황

- 업종별 사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00,762명으로 전체의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기 32,050명(12.0%), 강원 22,695(8.5%), 제주 21,150명(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6] 지역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전체	267,561	99,077	69,926	23,154	9,100	7,330	26,189	32,785
	100.0	37.0	26.1	8.7	3.4	2.7	9.8	12.3
서울	100,702	52,051	26,954	2,988	5,892	2,265	5,092	5,460
	37.6	19.5	10.1	1.1	2.2	0.8	1.9	2.0
부산	15,114	4,570	4,778	393	604	776	947	3,046
	5.6	1.7	1.8	0.1	0.2	0.3	0.4	1.1
대구	8,675	3,893	1,198	193	343	200	1,084	1,764
	3.2	1.5	0.4	0.1	0.1	0.1	0.4	0.7
인천	7,053	1,445	2,795	314	87	816	403	1,194
	2.6	0.5	1.0	0.1	0.0	0.3	0.2	0.4
광주	4,273	1,863	418	60	225	-	586	1,121
	1.6	0.7	0.2	0.0	0.1	-	0.2	0.4
대전	4,415	2,201	767	173	279	-	371	624
	1.7	0.8	0.3	0.1	0.1	-	0.1	0.2
울산	2,710	785	434	157	29	-	570	734
	1.0	0.3	0.2	0.1	0.0	-	0.2	0.3
세종	495	135	-	44	9	-	150	158
	0.2	0.1	-	0.0	0.0	-	0.1	0.1
경기	32,050	9,244	4,103	2,098	836	-	7,747	8,020
	12.0	3.5	1.5	0.8	0.3	-	2.9	3.0
강원	22,695	2,208	8,817	7,940	220	1,551	1,052	907
	8.5	0.8	3.3	3.0	0.1	0.6	0.4	0.3
충북	4,778	2,255	899	936	38	-	369	280
	1.8	0.8	0.3	0.3	0.0	-	0.1	0.1
충남	7,979	2,951	1,230	1,666	4	-	994	1,133
	3.0	1.1	0.5	0.6	0.0	-	0.4	0.4
전북	7,882	3,895	872	772	88	-	618	1,638
	2.9	1.5	0.3	0.3	0.0	-	0.2	0.6
전남	8,468	1,619	2,201	1,493	3	-	2,131	1,022
	3.2	0.6	0.8	0.6	0.0	-	0.8	0.4
경북	9,782	3,081	2,494	1,325	132	-	869	1,881
	3.7	1.2	0.9	0.5	0.0	-	0.3	0.7
경남	9,340	2,352	2,481	1,125	128	-	1,814	1,439
	3.5	0.9	0.9	0.4	0.0	-	0.7	0.5
제주	21,150	4,527	9,484	1,478	184	1,722	1,391	2,364
	7.9	1.7	3.5	0.6	0.1	0.6	0.5	0.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업종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분포 현황

- 업종별 사업체의 종사자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10명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의 84.7%(28,329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명~30명 미만 11.3%(3,770개소)로 나타났으며, 1개소 평균 종사자 수는 8.0명으로 나타남
- 여행업의 경우 10명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의 84.7%(16,977개소)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숙박업은 10명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50.1%(1,058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10명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92.4%(3,993개소)로 높게 나타남
 - 국제회의업은 10명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64.7%(573개소)로 높게 나타났고, 카지노업은 100명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94.1%(16개소)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원시설업은 10명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87.4%(2,622개소)로 나타났고, 관광편의시설업은 10명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76.2%(3,105개소)로 높게 나타남

[표 3-17] 업종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분포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분	전체	10명 미만	10명~30명 미만	30명~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명 이상	1개소 평균
전체	33,452 (100.0)	28,329 (84.7)	3,770 (11.3)	682 (2.0)	420 (1.3)	251 (0.8)	8.0
여행업	19,039 (100.0)	16,977 (89.2)	1,634 (8.6)	322 (1.7)	72 (0.4)	33 (0.2)	5.2
관광숙박업	2,110 (100.0)	1,058 (50.1)	555 (26.3)	186 (8.8)	178 (8.4)	133 (6.3)	33.1
관광객이용시설업	4,323 (100.0)	3,993 (92.4)	242 (5.6)	38 (0.9)	20 (0.5)	31 (0.7)	5.4
국제회의업	886 (100.0)	573 (64.7)	262 (29.6)	25 (2.8)	15 (1.7)	11 (1.2)	10.3
카지노업	17 (100.0)	0	1 (5.9)	0	0	16 (94.1)	431.2
유원시설업	3,000 (100.0)	2,622 (87.4)	273 (9.1)	46 (1.5)	38 (1.3)	21 (0.7)	8.7
관광편의시설업	4,077 (100.0)	3,105 (76.2)	803 (19.7)	65 (1.6)	98 (2.4)	6 (0.1)	8.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관광사업체 연령별 종사자 수 현황

- 업종별 사업체의 연령대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전체의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40세 미만(25.8%), 40~50세 미만(22.9%), 60~65세 미만(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행업의 경우 40~50세 미만이 전체의 28.0%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숙박업은 30세 미만이 전체의 34.2%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업은 30세 미만이 전체의 32.5%로 높게 나타남
- 국제회의업은 30세 미만이 전체의 29.4%로 나타났고, 카지노업은 30~40세 미만이 전체의 42.1%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원시설업은 30세 미만이 전체의 85.1%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편의시설업은 40~50세 미만이 전체의 26.7%로 높게 나타남

[표 3-18] 관광사업체 연령별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65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247,538 (100.0)	69,413 (28.0)	63,788 (25.8)	56,787 (22.9)	39,841 (16.1)	13,518 (5.5)	4,191 (1.7)
여행업	93,395 (100.0)	14,321 (15.3)	24,267 (26.0)	26,139 (28.0)	18,897 (20.2)	7,837 (8.4)	1,935 (2.1)
관광숙박업	69,382 (100.0)	23,365 (34.2)	19,683 (28.8)	13,318 (19.5)	8,946 (13.1)	2,396 (3.5)	674 (1.0)
관광객이용시설 업	18,123 (100.0)	5,896 (32.5)	3,616 (20.0)	3,492 (19.3)	2,956 (16.3)	1,254 (6.9)	909 (5.0)
국제회의업	9,040 (100.0)	2,660 (29.4)	3,273 (36.2)	1,860 (20.6)	1,067 (11.8)	145 (1.6)	35 (0.4)
카지노업	7,330 (100.0)	2,334 (31.8)	3,084 (42.1)	1,643 (22.4)	254 (3.5)	14 (0.2)	1 (0.0)
유원시설업	23,463 (100.0)	13,622 (58.1)	4,103 (17.5)	2,915 (12.4)	2,214 (9.4)	434 (1.8)	174 (0.7)
관광편의시설업	27,805 (100.0)	7,215 (25.9)	5,762 (20.7)	7,421 (26.7)	5,506 (19.8)	1,438 (5.2)	463 (1.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나. 고용형태별¹⁶⁾ 종사자 현황

- 2018년 관광사업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 수가 200,6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41,992명), 자영업자(14,939명), 무급가족 종사자(5,076명), 기타 종사자(4,947명) 등의 순임

-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5.0%로 전년 대비 3.3%p 증가함

16) 고용형태 구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류체계 적용

- 자영업자: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정상근로시간의 1/3이상 업무에 종사하며 임금 또는 급여를 받지 않는 자
- 상용근로자: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었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1년 이상 고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주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었거나 1일 단위로 고용된 자
- 기타 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주로 실적급,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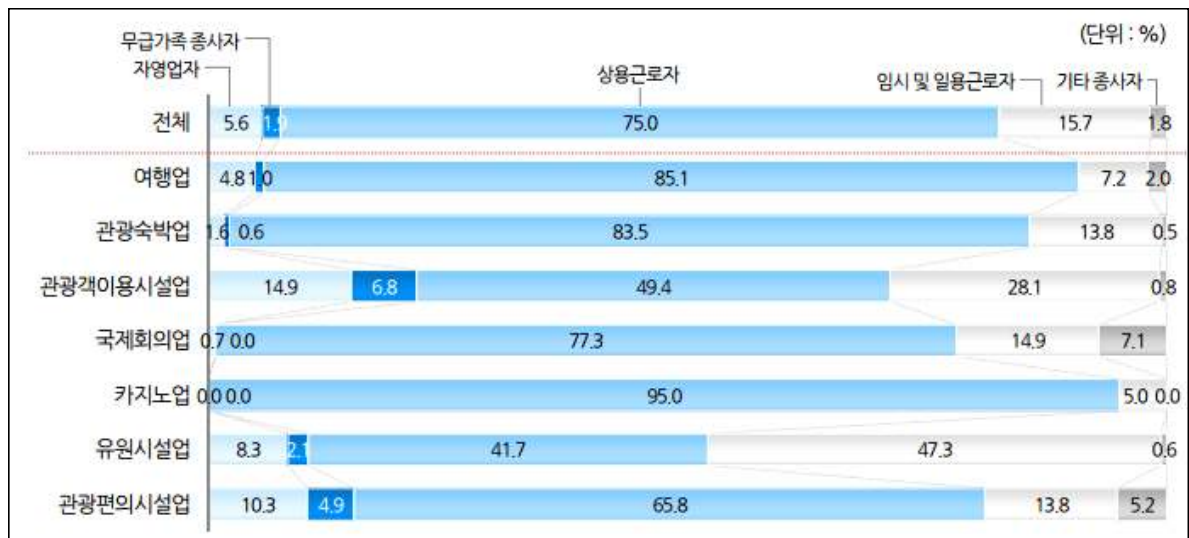
-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행업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85.1%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숙박업은 상용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83.5%,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상용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49.4%, 국제회의업은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77.3%, 카지노업 상용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95.0%, 관광편의시설업 상용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65.8%로 높게 나타남¹⁷⁾

[표 3-19]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단위 : 명,%,%p)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종사자
전체	267,561 (100.0)	14,939 (5.6)	5,076 (1.9)	200,606 (75.0)	41,992 (15.7)	4,947 (1.8)
여행업	99,077 (100.0)	4,729 (4.8)	953 (1.0)	84,272 (85.1)	7,178 (7.2)	1,945 (2.0)
관광숙박업	69,926 (100.0)	1,140 (1.6)	396 (0.6)	58,407 (83.5)	9,658 (13.8)	325 (0.5)
관광객이용시설업	23,154 (100.0)	3,461 (14.9)	1,571 (6.8)	11,430 (49.4)	6,507 (28.1)	186 (0.8)
국제회의업	9,100 (100.0)	60 (0.7)	0	7,037 (77.3)	1,352 (14.9)	650 (7.1)
카지노업	7,330 (100.0)	0	0	6,963 (95.0)	367 (5.0)	0
유원시설업	26,189 (100.0)	2,180 (8.3)	546 (2.1)	10,915 (41.7)	12,397 (47.3)	151 (0.6)
관광편의시설업	32,785 (100.0)	3,370 (10.3)	1,610 (4.9)	21,583 (65.8)	4,553 (13.8)	1,689 (5.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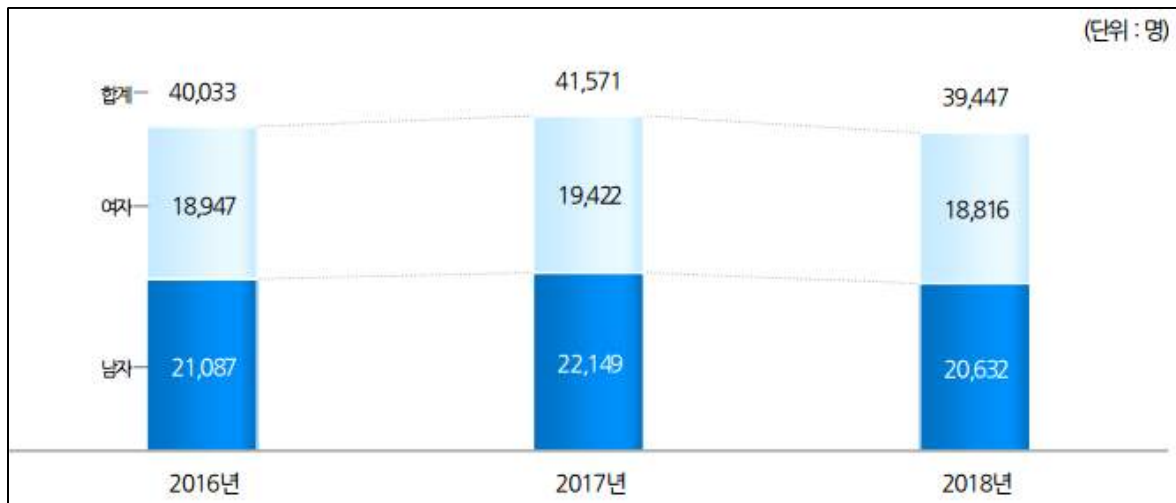
[그림 3-13] 업종별·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구성비(2018년 기준)

17) 하지만 유원시설업의 경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47.3%로 높게 나타나 유원시설업 근로자 대상의 실태조사가 요구됨(비정규직 등)

다. 신규채용 및 이직률 현황¹⁸⁾

■ 관광사업체 업종별 신규채용자 현황

-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신규채용자 수는 39,447명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4] 관광사업체 신규 채용자 수 추이(최근 3년)

[표 3-20] 관광사업체 업종별 신규 채용자 수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율
전 체	38,661	35,641	40,033	41,571	39,447	-5.1
여행업	8,337	10,442	13,314	15,492	12,434	-19.7
관광숙박업	12,612	11,934	13,293	15,235	14,419	-5.4
관광객이용시설업	1,996	1,669	1,188	2,038	1,988	-2.5
국제회의업	3,320	2,380	2,307	2,336	1,260	-46.1
카지노업	930	1,144	753	775	853	10.1
유원시설업	2,265	2,514	2,532	2,318	2,158	6.9
관광편의시설업	9,202	5,557	6,646	3,377	6,337	8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2019),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18) 고용형태 분류 중 상용근로자 200,600명(2018년 기준)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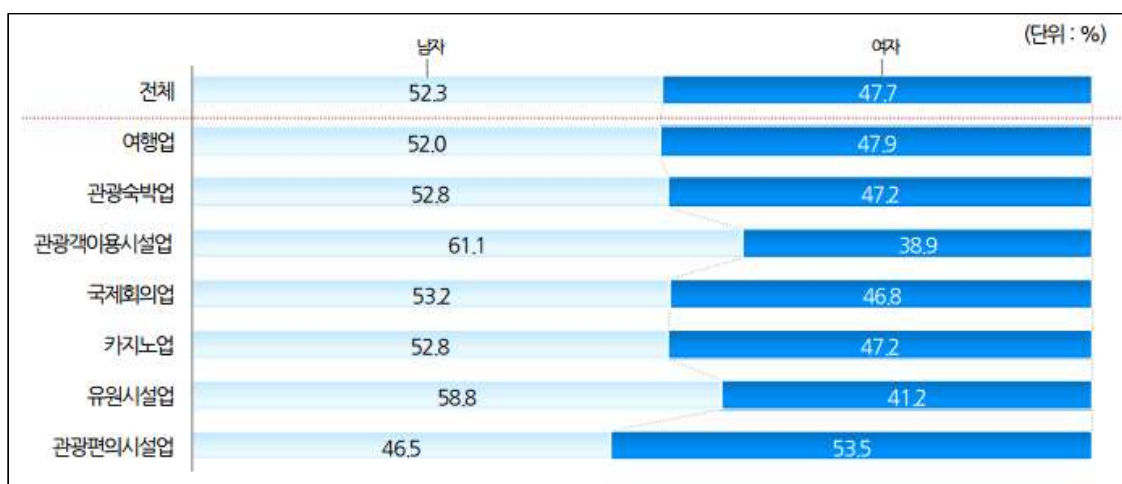
- 업종별 신규채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이 14,419명으로 전체 신규 채용자(39,447명)의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체 수가 제일 적은 카지노업(17개 업체)의 신규채용이 853명(2.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 신규 채용수가 전년대비 87.7%가 증가한 6,337명(전년 3,377명)으로 신규채용율이 높게 나타남(국제회의업 전년대비 신규 채용율이 46.1% 감소)
- 성별 신규채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의 52.3%로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53.5%) 채용이 더 높게 나타남

[표 3-21] 관광사업체 업종별·성별 신규 채용자 추이(2018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신규 채용자 수		
	전체	남자	여자
전 체	39,447(100.0)	20,632(52.3)	18,816(47.7)
여행업	12,434(100.0)	6,471(52.0)	5,962(47.9)
관광숙박업	14,419(100.0)	7,614(52.8)	6,805(47.2)
관광객이용시설업	1,988(100.0)	1,215(61.1)	773(38.9)
국제회의업	1,260(100.0)	670(53.2)	590(46.8)
카지노업	853(100.0)	450(52.8)	403(47.2)
유원시설업	2,158(100.0)	1,268(58.8)	890(41.2)
관광편의시설업	6,337(100.0)	2,944(46.5)	3,393(53.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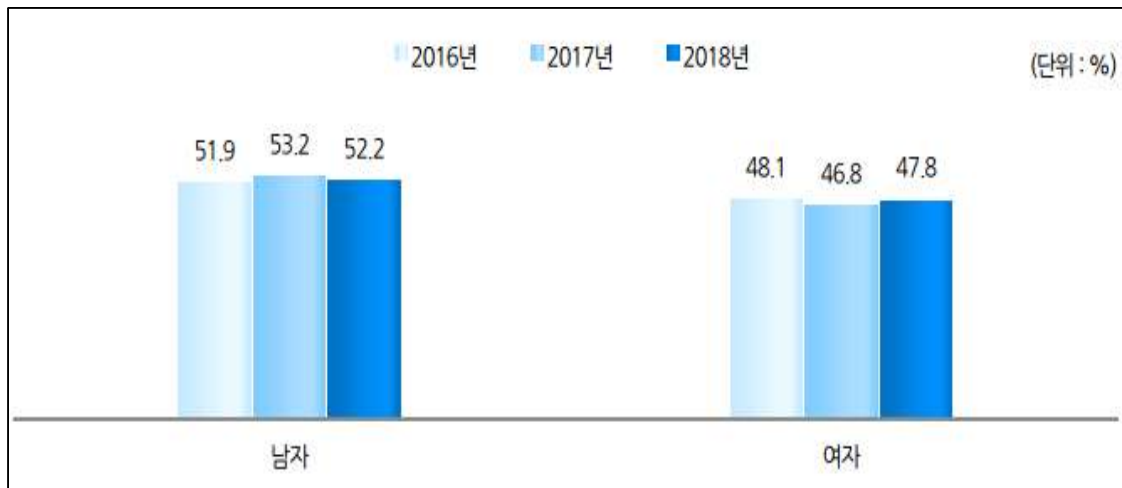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5] 업종별·성별 신규채용자 수 구성비(2018년 기준)

이직률 현황

-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중 이직자 수는 34,568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이 중 남자는 18,036명(52.2%), 여자는 16,531명(47.8%)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편의시설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이직자 수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반면, 국제회의업과 여행업, 유원시설업의 이직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6] 관광사업체 이직자 성별 구성비(최근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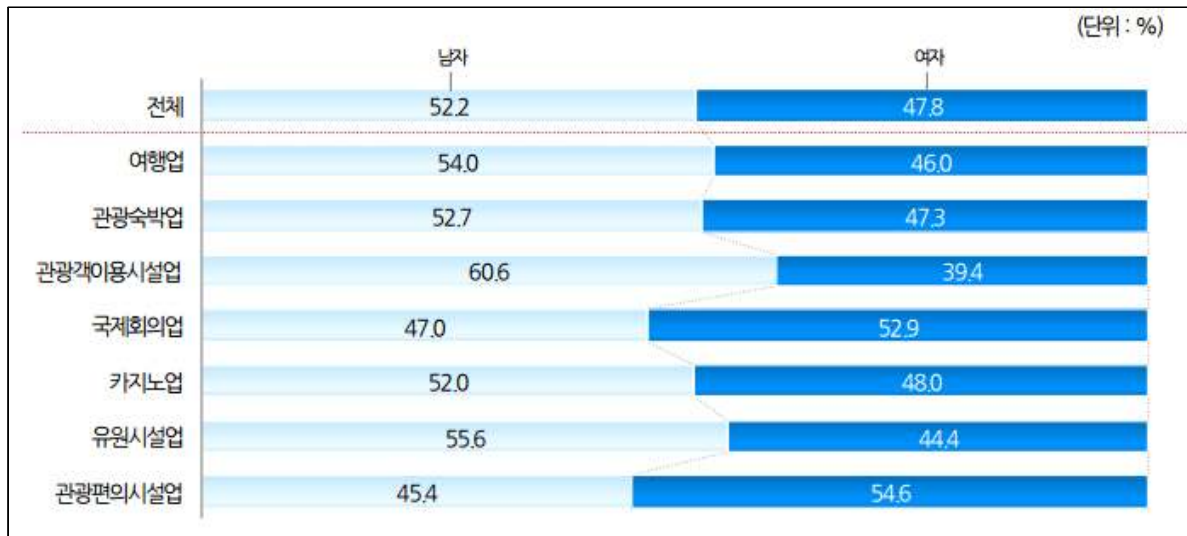
[표 3-22] 관광사업체 업종별 이직자 수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율
전 체	32,080	29,880	34,752	33,302	34,568	3.8
여행업	6,392	7,772	10,581	12,721	10,569	-16.9
관광숙박업	11,276	11,856	12,269	12,598	12,893	2.3
관광객이용시설업	1,431	1,304	1,030	1,188	1,658	39.6
국제회의업	2,402	1,990	1,726	1,653	1,314	-20.5
카지노업	957	1,210	990	884	897	1.5
유원시설업	1,637	1,887	2,281	1,698	1,536	-9.5
관광편의시설업	7,985	3,860	5,874	2,561	5,702	122.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성별 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의 52.3%로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제회의업과 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의 이직자 수가 더 높게 나타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7] 업종별 이직자 수 구성비(2018년 기준)

[표 3-23] 관광사업체 업종별·성별 이직자 수(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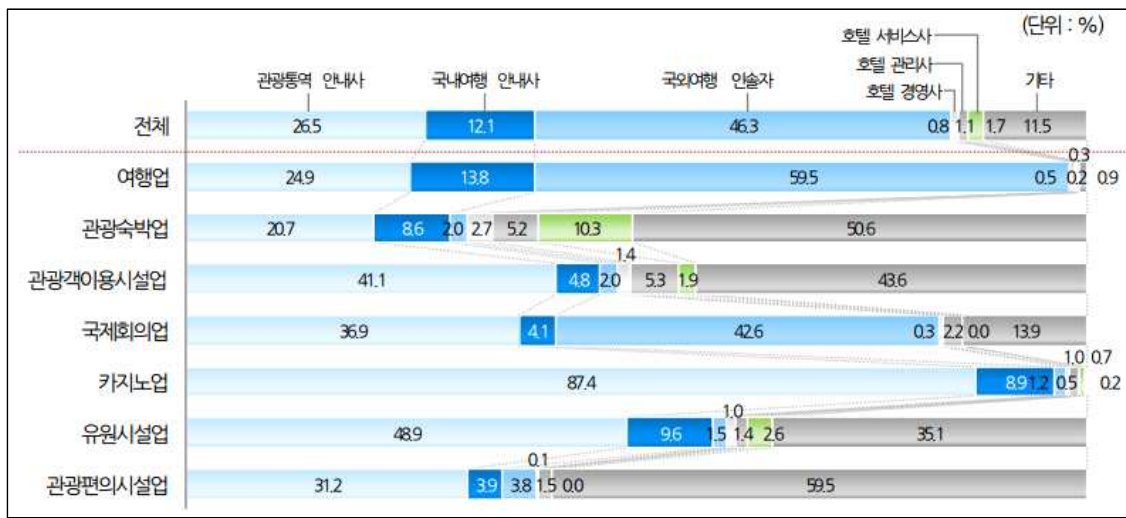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이직자 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34,568(100.0)	18,036(52.2)	16,531(47.8)
여행업	10,569(100.0)	5,709(54.0)	4,860(46.0)
관광숙박업	12,893(100.0)	6,799(52.7)	6,093(47.3)
관광객이용시설업	1,658(100.0)	1,004(60.6)	654(39.4)
국제회의업	1,314(100.0)	618(47.0)	695(52.9)
카지노업	897(100.0)	466(52.0)	431(48.9)
유원시설업	1,536(100.0)	854(55.6)	682(44.4)
관광편의시설업	5,702(100.0)	2,586(45.4)	3,115(54.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라. 자격증 보유현황

-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 종사자 중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 수는 총 33,554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음
- 업종별로 여행업, 카지노업 업종의 자격증 수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국제회의업과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종사자의 자격증 소지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8] 업종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2018년 기준)

- 2018년도 기준 업종별로 여행업 25,077명(전년대비 5.4%) , 카지노업 406명(전년대비 2.8%), 유원시설업 806명(전년대비 0.8%), 관광편의시설업 1,001명(전년대비 3.2%)의 자격증 소지 종사자 수가 2017년 대비 증가하였음
- 자격증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여행인솔자(15,525명/46.3%), 관광통역안내사(8,896명/26.5%), 국내여행안내사(4,070명/12.1%), 기타 자격증(3,855명/11.5%) 순으로 나타남

[표 3-24] 업종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전체	33,554 (100.0)	8,896 (26.5)	4,070 (12.1)	15,525 (46.3)	266 (0.8)	364 (1.1)	579 (1.7)	3,855 (11.5)
여행업	25,077 (100.0)	6,246 (24.9)	3,450 (13.8)	14,932 (59.5)	119 (0.5)	38 (0.2)	70 (0.3)	222 (0.9)
관광 숙박업	4,610 (100.0)	952 (41.1)	395 (4.8)	93 (2.0)	124 (1.4)	241 (5.2)	473 (10.3)	2,333 (50.6)
관광객 이용시설업	640 (100.0)	263 (41.1)	31 (4.8)	13 (2.0)	9 (2.7)	34 (5.3)	12 (1.9)	279 (43.6)
국제 회의업	1,014 (100.0)	374 (36.9)	42 (4.1)	432 (42.6)	3 (0.3)	22 (2.2)	0	141 (13.9)
카지노업	406 (100.0)	355 (87.4)	36 (8.9)	5 (1.2)	2 (0.5)	4 (1.0)	3 (0.7)	1 (0.2)
유원 시설업	806 (100.0)	394 (48.9)	77 (9.6)	12 (1.5)	8 (1.0)	11 (1.4)	21 (2.6)	283 (35.1)
관광편의 시설업	1,001 (100.0)	312 (31.2)	39 (3.9)	38 (3.8)	1 (0.1)	15 (1.5)	0	596 (59.5)

주1: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은 기존 기타 항목에 포함 조사되었으나, 2016년 기준 조사부터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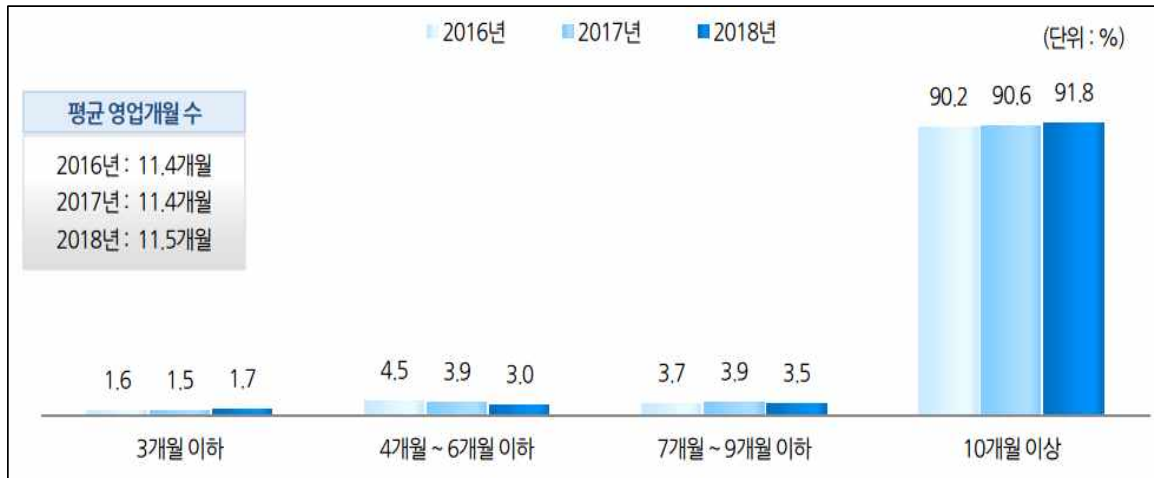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3) 관광사업체 영업현황

가. 연간 영업 개월 수¹⁹⁾

- 2018년 기준 10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관광사업체는 91.8%(30,697개)로 나타났으며, 연 평균 영업 개월 수는 11.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함
 - 업종별 연간 영업개월 수를 살펴보면 관광사업 특성상 모든 업종이 10개월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카지노업은 모든 업체가 10개월 이상(100.0%) 영업하였음
 - 다음으로 국제회의업 98.7%가 10개월 이상(99.7%) 영업하고, 여행업 96.3%가 10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업 역시 90.2%가 연간 10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영업 개월 수를 살펴보면 3개월 이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10개월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년 평균 영업개월 수는 11.43일로 나타남

19) 2018년 중 실제로 영업활동을 수행한 개월 수를 말하며 계절적 요인, 노동쟁의 및 기타요인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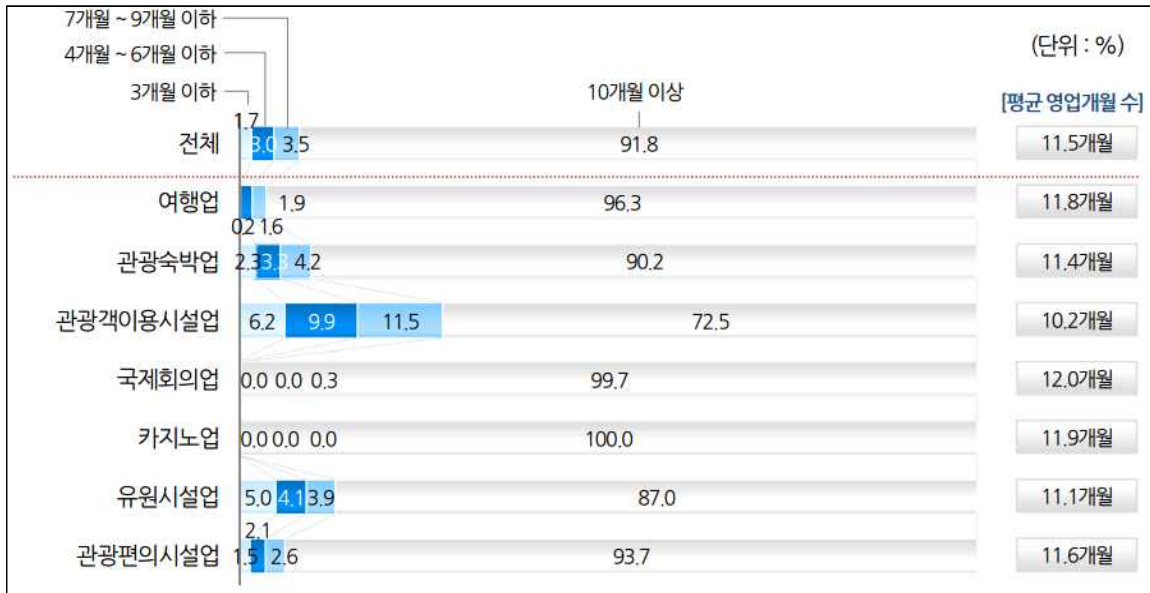
[그림 3-19] 사업체 연간 영업 개월 수 구성 추이(최근 3년)

[표 3-25] 사업체 업종별 영업 개월 수(2018년 기준)

(단위: 개,%)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6개월 이하	7개월~9개월 이하	10개월 이상	연평균 영업 개월 수
전체	33,452 (100.0)	567 (1.7)	1,020 (3.0)	1,169 (3.5)	30,697 (91.8)	11.5
여행업	19,039 (100.0)	41 (0.2)	310 (1.6)	357 (1.9)	18,331 (96.3)	11.8
관광숙박업	2,110 (100.0)	49 (2.3)	70 (3.3)	88 (4.2)	1,903 (90.2)	11.4
관광객이용시설업	4,323 (100.0)	267 (6.2)	428 (9.9)	495 (11.5)	3,133 (72.5)	10.2
국제회의업	886 (100.0)	0	0	3 (0.3)	883 (99.7)	12.0
카지노업	17 (100.0)	0	0	0	17 (100.0)	11.9
유원시설업	3,000 (100.0)	150 (5.0)	124 (4.1)	117 (3.9)	2,609 (97.0)	11.1
관광편의시설업	4,077 (100.0)	60 (1.5)	87 (2.1)	108 (2.6)	3,821 (93.7)	11.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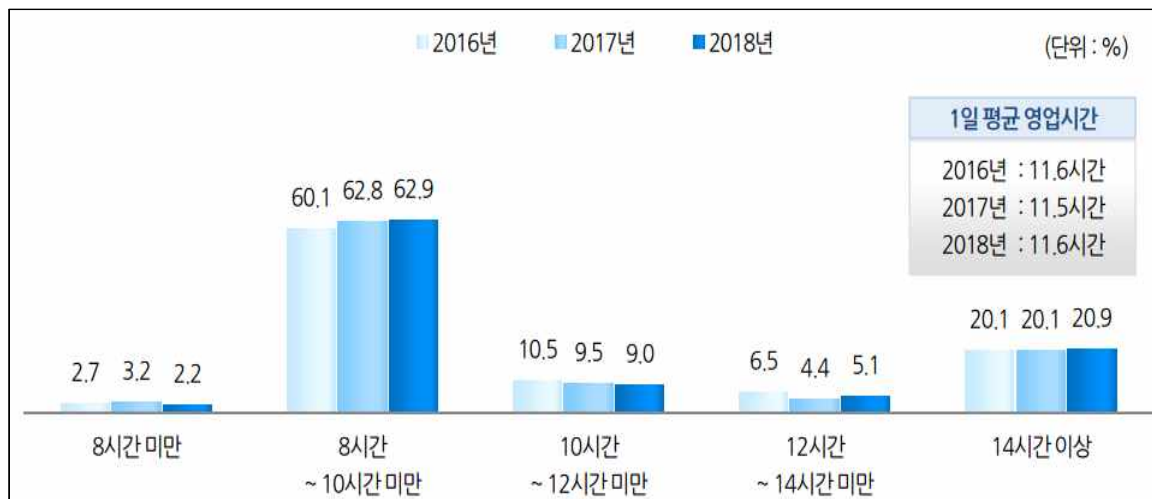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20] 업종별 연간 영업개월 수 구성비(2018년 기준)

나. 1일 평균 영업시간 현황²⁰⁾

-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의 1일평균 영업시간은 11.6시간으로 2017년 대비 0.1시간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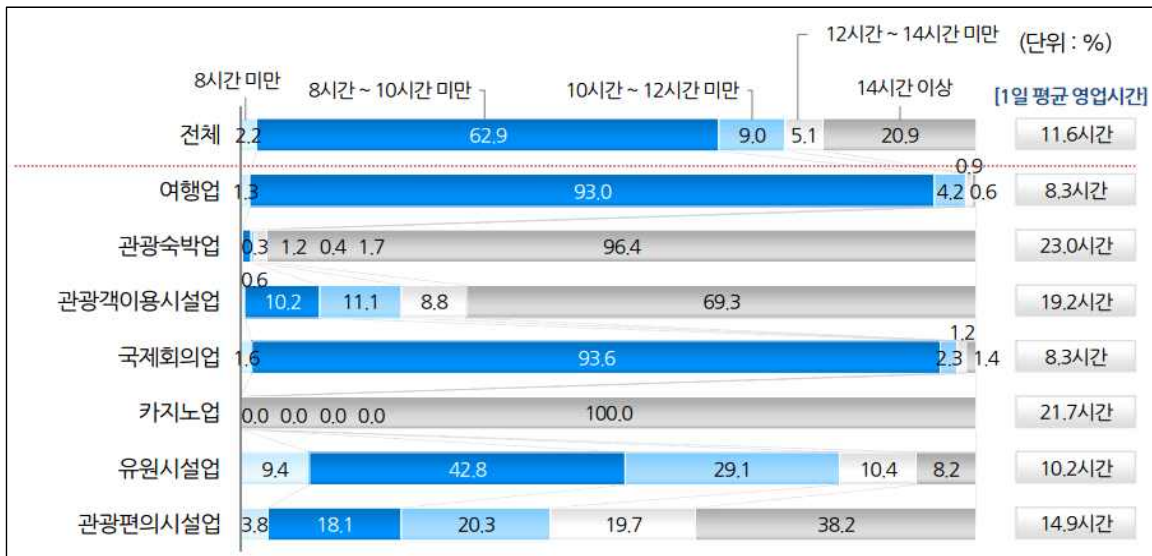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21] 관광사업체 1일 평균 영업시간 구성비(최근 3년)

20) 2018년 중 정상적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한 1일평균 시간(사업체의 개점시간에서 폐점시간까지의 영업시간)으로 종사자 개인의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체 입장에서의 영업시간을 의미함

- 평균 영업시간 구성비 2017년과 유사하게 나타난 한편, 8~10시간 미만인 21,027개(6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4시간 이상(20.9%), 10시간~12시간 미만(9.0%), 12~14시간 미만(5.1%), 8시간 미만(2.2%) 등의 순임(3년간 1일평균 영업시간 11.57시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22] 업종별 1일 평균 영업시간 구성비(2018년 기준)

[표 3-26] 사업체 업종별 1일 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1일평균 영업시간
전체	33,452 (100.0)	739 (2.2)	21,027 (62.9)	2,998 (9.0)	1,712 (5.1)	6,977 (20.9)	11.6
여행업	19,039 (100.0)	253 (1.3)	17,711 (93.0)	791 (4.2)	168 (0.9)	116 (0.6)	8.3
관광숙박업	2,110 (100.0)	6 (0.3)	26 (1.2)	9 (0.4)	36 (1.7)	2,033 (96.4)	23.0
관광객이용 시설업	4,323 (100.0)	27 (0.6)	440 (10.2)	480 (11.1)	382 (8.8)	2,994 (69.3)	19.2
국제회의업	886 (100.0)	14 (1.6)	829 (93.6)	21 (2.3)	11 (1.2)	12 (1.4)	8.3
카지노업	17 (100.0)	0	0	0	0	17 (100.0)	21.7
유원시설업	3,000 (100.0)	283 (9.4)	1,285 (42.8)	873 (29.1)	312 (10.4)	246 (8.2)	10.2
관광편의시 설업	4,077 (100.0)	155 (3.8)	736 (18.1)	826 (20.3)	802 (19.7)	1,558 (38.2)	14.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업종별 1일평균 영업시간을 살펴보면 여행업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업체가 93.1%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숙박업의 경우 14시간 이상인 업체가 96.4%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업 역시 14시간 이상인 업체가 69.3%로 높게 나타남
- 국제회의업의 경우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업체가 93.6%로 높게 나타났으며, 카지노업의 경우 모든 업체가 14시간 이상(100.0%)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원시설업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영업하는 업체가 42.8%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편의시설업은 14시간 이상 영업하는 업체가 38.2%로 높게 나타남

다. 월평균 휴무일 수²¹⁾

- 2018년 관광사업체의 월평균 휴무일 수는 4.7일로 2017년(4.8일) 대비 0.1일 감소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산업의 특성상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은 휴무일 없음(80% 이상), 유원시설업은 휴무일 1~5일(37.9%),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은 휴무일이 6~10일(70% 이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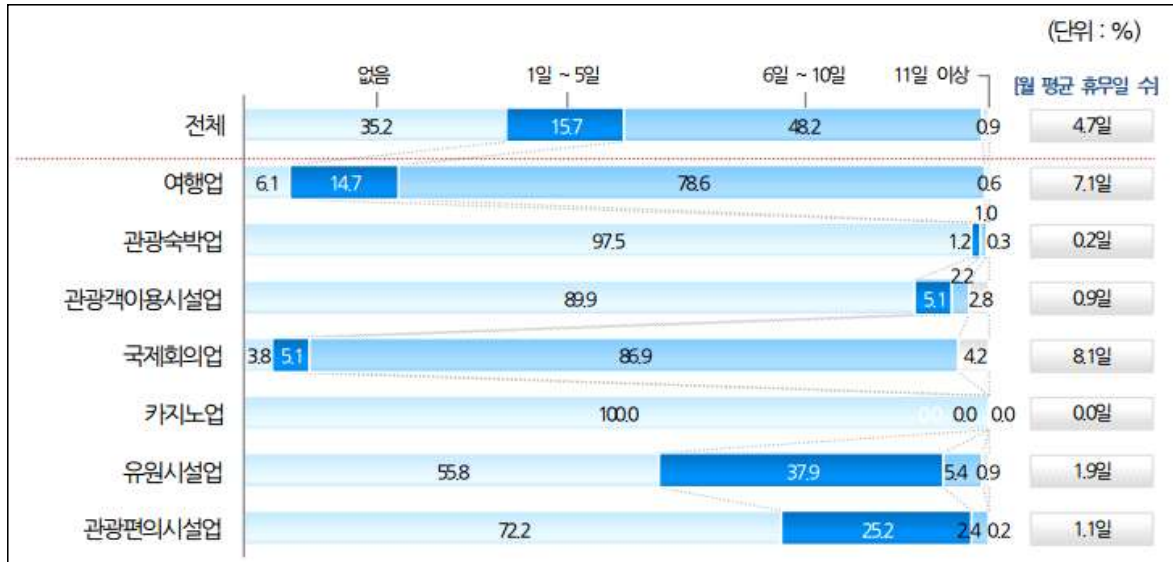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23] 사업체 월평균 휴무일 수 구성비 추이(최근 3년)

- 업종별 월평균 휴무일 수를 살펴보면 여행업은 6일~10일인 업체가 전체의 78.6%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숙박업의 경우 휴무일 수가 없는 업체가 전체의 97.5%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휴무일 수가 없는 업체가 전체의 89.9%로 높게 나타남

21) 2018년 중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업체의 정상 휴무일을 월평균 기준으로 기입한 자료임(국경일, 창립기념일 등은 제외)

- 국제회의업의 경우 6일~10일이 86.9%로 높게 나타났으며, 카지노업은 모든 업체가 휴무일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유원시설업은 휴무일 수가 없는 업체가 55.8%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편의시설업 역시 휴무일 수가 없는 업체가 전체의 72.2%로 높게 나타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24] 업종별 월평균 휴무일 수 구성비(2018년 기준)

[표 3-27] 사업체 업종별 월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평균 휴무일 수
전체	33,452 (100.0)	11,771 (35.2)	5,261 (15.7)	16,111 (48.2)	308 (0.9)	4.7
여행업	19,039 (100.0)	1,159 (6.1)	2,806 (14.7)	14,967 (78.6)	108 (0.6)	7.1
관광숙박업	2,110 (100.0)	2,057 (97.5)	26 (1.2)	21 (1.0)	6 (0.3)	0.2
관광객이용 시설업	4,323 (100.0)	3,886 (89.9)	219 (5.1)	96 (2.2)	123 (2.8)	0.9
국제회의업	886 (100.0)	34 (3.8)	45 (5.1)	770 (86.9)	37 (4.2)	8.1
카지노업	17 (100.0)	17 (100.0)	0	0	0	0
유원시설업	3,000 (100.0)	1,675 (55.8)	1,138 (37.9)	162 (5.4)	26 (0.9)	1.9
관광편의시 설업	4,077 (100.0)	2,944 (72.2)	1,027 (25.2)	96 (2.4)	9 (0.2)	1.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5) 소 결²²⁾

-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2019년 기준 17,502,756명(전년대비 14.0%)으로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국외여행 및 국내여행률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관광·레저분야 업종별 사업체 수는 2018년 기준 전년대비 1.1%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력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분야별 인력 양성이 요구되어짐
 -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업종은 유원시설업(전년대비 17.7%)으로 나타나 관련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인력의 양성·향상 방안 모색이 필요함(교육기관 연계, 일학습 병행 등)
- 2018년 기준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여행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4.3%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타 업종의 전반적인 매출 감소에 따라 관광·레저산업 전체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2%로 감소하였음
- 2018년도 기준 업종별 종사자는 2017년 대비 4.5% (12,709명)가 감소하였으며, 업종 중 국제회의업이 전년대비 25.2%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음
 - 업종별 종사자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상용근로자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종사자의 고용안정화의 가속화가 예상됨
- 2018년 기준 종사자의 신규채용자 수는 전년대비 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자 수 역시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보아 타 산업으로의 전직이 예상됨
 - 이직률이 높은 업종인 관광편의시설업(122.6%↑)과 관광객이용시설업(39.6%↑)의 경우 종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직률이 높은 이직률의 개선이 필요함

22) 본 보고서의 소결은 2018년도 기준 관광·레저산업 현황에 따른 소결로 2020년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음

3.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현황²³⁾

1) 여행업

- 여행업은 국내의 관광·레저산업 발전의 동맥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여행업의 종류에는 일반여행업과 국내여행업, 그리고 국외여행업으로 분류됨
- 1991년 1월 1일부터 여행업의 대외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여행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행사의 경영 개선 유도, 서비스 향상에 의한 신뢰회복, 여행업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2005년 4월 22일)을 통하여 여행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가. 사업체 현황

■ 전국 여행업 사업체 수

- 문화체육관광부(2020)의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여행업 등록현황은 일반여행업 5,863개소, 국내여행업 5,863개소, 국외여행업 9,187개소로 총 21,776개소가 등록되어 있음(2019년 말 기준)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8,102개소(일반: 3,464개소, 국내: 1,185개소, 국외: 3,453개소)로 가장 많은 등록률을 보이고, 다음으로 경기도 2,691개소(일반: 611개소, 국내: 854개소, 국외: 1,226개소) 순으로 나타남
- 부산은 1,578개소(일반: 247개소, 국내: 566개소, 국외: 765개소)로 나타났고, 제주도가 1,078개소(일반: 352개소, 국내: 586개소, 국외: 140개소)로 높은 등록율을 보였음
- 반면 세종시의 경우 85개소(일반: 19개소, 국내: 29개소, 국외: 37개소)로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음

23) 업종별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2020)의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와 동 기관의 2018년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를 활용하였으며, 항목별 기준년도 및 구분이 상이 할 수 있음

[표 3-28] 전국 시·도별 여행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체	21,776	5,863	6,726	9,187
서울시	8,102	3,464	1,185	3,453
부산시	1,578	247	566	765
대구시	945	136	382	427
인천시	523	134	179	210
광주시	669	115	253	301
대전시	599	90	237	272
울산시	328	52	137	139
세종시	85	19	29	37
경기도	2,691	611	854	1,226
강원도	581	105	251	225
충청북도	482	70	212	200
충청남도	599	45	283	271
전라북도	880	125	356	399
전라남도	804	93	383	328
경상북도	818	69	399	350
경상남도	1,014	136	434	444
제주도	1,078	352	586	140

주1)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여행업 분야의 관광사업체 수는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2017년 19,944개소) 4.5%가 감소함²⁴⁾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여행업의 경우 전년대비(2017년 5,648개소) 1.6%가 증가하였고, 국외여행업은 전년대비(2017년 5,706개소) 2.8% 감소하였으며, 국내여행업은 전년대비(2017년 2,640개소) 6.1% 감소하였고, 국내·외 여행업은 전년대비(2017년 5,778개소) 11.4% 감소하였음

24) 문화체육관광부(2019)의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행업을 크게 4개 부문(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 여행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표 3-29] 연도별 여행업 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개소,%)

연도	사업체 수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2014년	12,854	2,865	3,587	1,936	4,466
2015년	14,607	3,330	4,067	2,876	4,334
2016년	16,605	4,265	4,572	3,000	4,768
2017년	19,944	5,648	5,706	2,812	5,778
2018년	19,039	5,738	5,544	2,640	5,117
증감율	-4.5	1.6	-2.8	-6.1	-11.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연도별 매출액 현황

○ 여행업의 2018년 기준 총매출액은 8조 4,622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여행업(4조 9,258억 원), 국내·외 여행업(1조 3,805억 원), 국외 여행업(1조 7,380억 원), 국내여행업(4,177억 원)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0] 연도별 여행업 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백만 원,%)

연도	매출액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2014년	5,321,988	2,684,052	645,445	337,621	1,654,870
2015년	6,742,575	3,269,127	985,621	639,822	1,578,005
2016년	7,642,672	4,394,815	1,232,132	790,470	1,225,254
2017년	8,113,436	4,322,323	1,579,132	548,589	1,663,392
2018년	8,462,198	4,925,892	1,738,007	417,750	1,380,550
증감률	4.3	14.0	10.1	-23.9	-17.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국내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 매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임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여행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4.0% 증가하였고, 국외여행업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국내여행업 전년대비 23.9% 감소하였고, 국내·외여행업 전년대비 17.0% 감소하였음

나. 여행업 종사자 현황

■ 연도별 여행업 종사자 수

- 여행업 종사자 수는 2014년 69,40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전년대비 7.6%가 감소한 99,077명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여행업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추세(1.4%)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 업종의 경우 전반적인 감소추세(국외여행업 - 4.2%, 국내여행업 - 16.1%, 국내·외 여행업 - 21.3%)를 보이고 있음

[표 3-31] 여행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명,%)

연도	종사자 수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2014년	69,400	26,600	10,551	10,478	21,771
2015년	84,558	28,379	13,025	18,371	24,782
2016년	98,421	40,281	15,517	22,173	20,449
2017년	107,209	48,500	16,563	16,863	25,283
2018년	99,077	49,158	15,868	14,154	19,897
증감율	-7.6	1.4	-4.2	-16.1	-21.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 2018년도 기준 여행업의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현황을 살펴보면 5명미만이 전체의 75.3%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명-10명 미만 13.9%, 10명-20명 미만 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여행업의 경우 5명 미만이 전체의 54.0%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명-10명 미만(23.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외여행업은 5명 미만이 전체의 86.4%로 높게 나타남
- 국내여행업은 5명 미만이 전체의 79.2%, 국내·외여행업 5명 미만이 전체의 85.1%로 각각 나타남

[표 3-32] 여행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전체	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1개소 평균 종사자수
전 체	19,039 (100.0)	14,337 (75.3)	2,640 (13.9)	1,296 (6.8)	661 (3.5)	105 (0.6)	5.2
일반여행업	5,738 (100.0)	3,097 (54.0)	1,360 (23.7)	850 (14.8)	378 (6.6)	52 (0.9)	8.6
국외여행업	5,544 (100.0)	4,792 (86.4)	645 (11.6)	97 (1.7)	9 (0.2)	0	2.9
국내여행업	2,640 (100.0)	2,091 (79.2)	268 (10.2)	107 (4.1)	154 (5.8)	20 (0.8)	5.4
국내·외여행업	5,117 (100.0)	4,357 (85.1)	366 (7.2)	241 (4.7)	119 (2.3)	33 (0.6)	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재인용.

■ 사업체별 종사자 연령대 분포 현황

- 2018년도 기준 여행업의 사업체별 종사자 연령대 분포현황 살펴보면 40세-50세 미만이 28.0%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세-40세 미만 26.0%, 50세-60세 미만 2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여행업의 경우 30세-40세 미만이 32.7%로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은 40세-50세 미만이 35.4%, 국내여행업 50세-60세 미만 34.0%로 높게 나타남
- 국내·외여행업은 5명 미만이 전체의 79.2%, 국내·외 여행업 5명 미만이 전체의 85.1%로 각각 나타남

[표 3-33] 여행업 분야 연령대 분포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30세 미만	30세~40세 미만	40세~50세 미만	50세~60세 미만	60세~65세 미만	65세 이상
전 체	93,395 (100.0)	14,321 (15.3)	24,267 (26.0)	26,139 (28.0)	18,897 (20.2)	7,837 (8.4)	1,935 (2.1)
일반여행업	48,093 (100.0)	9,647 (20.1)	15,716 (32.7)	13,564 (28.2)	6,705 (13.9)	2,107 (4.4)	353 (0.7)
국외여행업	13,910 (100.0)	1,904 (13.7)	3,617 (26.0)	4,925 (35.4)	2,386 (17.2)	1,030 (7.4)	48 (0.3)
국내여행업	13,134 (100.0)	566 (4.3)	2,041 (15.5)	3,811 (29.0)	4,461 (34.0)	1,813 (13.8)	442 (3.4)
국내·외여행업	18,258 (100.0)	2,203 (12.1)	2,893 (15.8)	3,839 (21.0)	5,344 (29.3)	2,887 (15.8)	1,092 (6.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재인용.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2018년도 기준 여행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은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85.1%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 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여행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40,805명으로 전체의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외여행업은 상용근로자가 13,592명(85.7%), 국내여행업 상용근로자 11,942명(84.4%), 국내·외여행업 상용근로자 17,934명(90.1%)으로 나타남

[표 3-34] 여행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전 체	99,077 (100.0)	4,729 (4.8)	953 (1.0)	84,272 (85.1)	7,178 (7.2)	1,945 (2.0)
일반여행업	49,158 (100.0)	932 (1.9)	133 (0.3)	40,805 (83.0)	5,743 (11.7)	1546 (3.1)
국외여행업	15,868 (100.0)	1,623 (10.2)	335 (2.1)	13,592 (85.7)	190 (1.2)	128 (0.8)
국내여행업	14,154 (100.0)	823 (5.8)	196 (1.4)	11,942 (84.4)	1,058 (7.5)	135 (1.0)
국내·외여행업	19,897 (100.0)	1,350 (6.8)	289 (1.5)	17,934 (90.1)	187 (0.9)	136 (0.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2018년도 기준 여행업의 연간 신규채용 현황은 남성이 전체의 52.0%로 나타났고, 여성이 47.9%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여행업의 경우 여성이 60.0%로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은 여성이 72.6%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여행업은 남성이 84.0%, 국내·외여행업은 남성이 67.1%로 높게 나타남
- 여행업의 연간 이직 현황은 남성이 전체의 54.0%로 나타났고, 여성이 46.0%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여행업의 경우 여성이 57.7%로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은 여성이 75.5%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여행업은 남성이 83.9%, 국내·외여행업은 남성이 69.5%로 높게 나타남

[표 3-35] 여행업 분야 종사자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간 신규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2,434 (100.0)	6,471 (52.0)	5,962 (47.9)	10,569 (100.0)	5,708 (54.0)	4,860 (46.0)
일반여행업	6,173 (100.0)	2,469 (40.0)	3,704 (60.0)	4,883 (100.0)	2,066 (42.3)	2,818 (57.7)
국외여행업	1,564 (100.0)	428 (27.4)	1,136 (72.6)	1,416 (100.0)	347 (24.5)	1,069 (75.5)
국내여행업	2,508 (100.0)	2,107 (84.0)	402 (16.0)	2,276 (100.0)	1,909 (83.9)	366 (16.1)
국내·외여행업	2,188 (100.0)	1,468 (67.1)	720 (32.9)	1,994 (100.0)	1,387 (69.5)	607 (3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재인용.

■ 자격증 보유현황

- 2018년도 기준 여행업의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국외여행인솔자가 전체의 59.5%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광통역안내사(24.9%), 국내여행안내사(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여행업의 경우 국외여행인솔자가 전체의 48.5%로 높게 나타났고(관광통역안내사 40.9%), 다음으로 국외여행업은 국외여행인솔자가 86.9%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여행업은 국내여행안내사 53.0%, 국내·외여행업 국외여행인솔자 7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6] 여행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전체	25,077 (100.0)	6,246 (24.9)	3,451 (13.8)	14,932 (59.5)	119 (0.5)	38 (0.2)	70 (0.3)	222 (0.9)
일반 여행업	14,212 (100.0)	5,810 (40.9)	1,406 (9.9)	6,886 (48.5)	100 (0.7)	0	0	10 (0.1)
국외 여행업	4,314 (100.0)	208 (4.8)	270 (6.3)	3,750 (86.9)	18 (0.4)	18 (0.4)	42 (1.0)	7 (0.2)
국내 여행업	1,008 (100.0)	13 (1.3)	534 (53.0)	282 (28.0)	0	18 (1.8)	0	161 (16.0)
국내외. 여행업	5,542 (100.0)	215 (3.9)	1,241 (22.4)	4,013 (72.4)	0	1 (0.0)	28 (0.5)	44 (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다. 영업 현황

■ 연간 영업 개월 수

- 2018년도 기준 여행업의 연간 영업 개월 수를 살펴보면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개월 이하가 0.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영업 개월 수는 11.8개월로 나타남

[표 3-37] 여행업 분야 영업 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 개월)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이하	7개월~9개 월 이하	10개월 이 상	연평균 영 업 개월 수
전체	19,039 (100.0)	41 (0.2)	310 (1.6)	357 (1.9)	18,331 (96.3)	11.8
일반여행업	5,738 (100.0)	0	91 (1.6)	51 (0.9)	5,596 (97.5)	11.8
국외여행업	5,544 (100.0)	18 (0.3)	79 (1.4)	159 (2.9)	5,288 (95.4)	11.8
국내여행업	2,640 (100.0)	0	58 (2.2)	35 (1.3)	2,547 (96.5)	11.8
국내외.여행업	5,117 (100.0)	23 (0.4)	82 (1.6)	112 (2.2)	4,900 (95.8)	11.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세부업종별로 보면 일반여행업은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7.5%(연평균 개월 수: 11.8개월)로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은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5.4%(연평균 개월 수: 11.8개월)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여행업은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6.5%(연평균 개월 수: 11.8개월)로 높게 나타났고, 국내·외여행업은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5.8%(연평균 개월 수: 11.8개월)로 높게 나타남

■ 1일 평균 영업시간

- 2018년도 기준 여행업의 1일 평균 영업시간을 살펴보면 8시간~10시간 미만이 전체의 93.0%로 높게 나타났고, 14시간 이상이 0.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평균 영업시간은 8.3시간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보면 일반여행업은 8시간 ~ 10시간 미만이 전체의 96.3%(일평균 영업시간: 8.2시간)로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은 8시간 ~ 10시간 미만이 전체의 93.3%(일평균 영업시간: 8.2시간)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여행업은 8시간 ~ 10시간 미만이 전체의 92.4%(일평균 영업시간: 8.4시간)로 높게 나타났고, 국내·외여행업은 8시간 ~ 10시간 미만이 전체의 89.4%(일평균 영업시간: 8.4시간)로 높게 나타남

[표 3-38] 여행업 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 시간)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전체	19,039 (100.0)	253 (1.3)	17,711 (93.0)	791 (4.2)	168 (0.9)	116 (0.6)	8.3
일반여행업	5,738 (100.0)	67 (1.2)	5,526 (96.3)	72 (1.3)	51 (0.9)	22 (0.4)	8.2
국외여행업	5,544 (100.0)	64 (1.2)	5,171 (93.3)	243 (4.4)	48 (0.9)	18 (0.3)	8.2
국내여행업	2,640 (100.0)	52 (2.0)	2,439 (92.4)	75 (2.8)	19 (0.7)	55 (2.1)	8.4
국내·외여행업	5,117 (100.0)	71 (1.4)	4,575 (89.4)	400 (7.8)	50 (1.0)	21 (0.4)	8.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월평균 휴무일 수

- 2018년도 기준 여행업의 월평균 휴무일 수는 6~10일이 전체의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1일 이상이 0.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휴무일 수는 7.1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보면 일반여행업은 6~10일이 전체의 84.0%(월평균 휴무일 수: 7.5일)로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은 6~10일이 전체의 72.8%(월평균 휴무일 수: 7.5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여행업은 6~10일이 전체의 72.8%(월평균 휴무일 수: 6.6일)로 높게 나타났고, 국내·외여행업은 6~10일이 전체의 68.3%(월평균 휴무일 수: 6.6일)로 높게 나타남

[표 3-39] 여행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 % 일)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평균 휴무일 수
전체	19,039 (100.0)	1,159 (6.1)	2,806 (14.7)	14,967 (78.6)	108 (0.6)	7.1
일반여행업	5,738 (100.0)	349 (6.1)	517 (9.0)	4,821 (84.0)	51 (0.9)	7.5
국외여행업	5,544 (100.0)	224 (8.3)	591 (18.0)	4,729 (72.8)	0	7.5
국내여행업	2,640 (100.0)	218 (8.3)	474 (18.0)	1,921 (72.8)	28 (1.1)	6.6
국내·외여행업	5,117 (100.0)	367 (7.2)	1,225 (23.9)	3,496 (68.3)	29 (0.6)	6.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2) 관광숙박업

-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되며,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구성됨²⁵⁾

25)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숙박시설의 다양성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저가부터크 호텔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형 호텔업과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함(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3.11.29)

가. 사업체 현황

■ 전국 관광숙박업 사업체 수

○ 호텔업

- 호텔업은 크게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으로 구분됨
 - ❖ 한국전통호텔업은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 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가족호텔업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로 2019년 12월 말 전국 162개 업체가 운영 중임
 - ❖ 수상관광호텔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호스텔업은 2009년 10월 7일 호텔업의 한 종류로 신설되어 2019년 12월 말 전국 72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 의료관광호텔업²⁶⁾ 및 소형호텔업은 객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특색있는 숙박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29일 신설 되었으며,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 36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임

○ 휴양콘도미니엄업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1957년 스페인에서 기존호텔에 개인의 소유권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한 것이 시초이며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시설설로 국내의 1982년 12월 31일자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종으로 신설되었음(2019년 12월 말 기준 235개소)

○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광호텔업의 등록현황은 전국 1,049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33개 업체, 제주 127개 업체, 경기 123개 업체, 부산 81개 업체, 인천 83개 업체의 순으로 등록되어 있음

- 등급별로 보면 5성급·특1등급 58업체, 4성급·특2등급 107업체, 3성급·1등급 231업체, 2성급·2등급 263업체, 1성급·3등급 162업체로 나타남

○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광호텔업의 등록현황은 전국 1,049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33개 업체, 제주 127개 업체, 경기 123개 업체, 부산 81개 업체, 인천 83개 업체의 순으로 등록되어 있음

- 등급별로 보면 5성급·특1등급 58업체, 4성급·특2등급 107업체, 3성급·1등급 231업체, 2성급·2등급 263업체, 1성급·3등급 162업체로 나타남

26) 의료관광호텔업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1월 29일 신설되었음

[표 3-40] 전국 시도별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관광호텔업	5성급/특1급	24	6	1	5	-	-	1	1	2	1	-	-	-	2	1	14	58
	4성급/특2급	43	2	4	6	2	2	2	7	11	1	-	5	1	4	3	14	107
	3성급/1급	97	15	4	9	3	6	3	26	11	3	4	3	4	9	12	22	231
	2성급/2등급	67	39	8	25	4	4	3	40	8	6	3	8	8	12	17	11	263
	1성급/3등급	53	13	3	26	4	2	4	17	1	1	3	2	9	5	13	6	162
	등급없음	49	6	4	12	-	1	4	32	11	7	3	9	20	7	3	60	228
	소 계	333	81	24	83	13	15	17	123	44	19	13	27	42	39	49	127	1,049
한국전통호텔업		-	-	-	2	-	-	-		1			1	2	1	-	1	8
가족호텔업		21	1	-	2	-	1	1	14	14	2	4	6	10	3	21	62	162
호스텔업		96	72	3	70	1	-	-	16	10	2	6	8	227	24	28	165	728
소형호텔업		10	3	-	2	-	-	-	8	1		1	2	1	2	2	4	36
소계(관광호텔업 외)		127	76	3	76	1	1	1	38	26	4	11	17	240	30	51	232	934
호텔업 합계		460	157	27	159	14	16	18	161	70	23	24	44	282	69	100	359	1,983
휴양콘도미니엄업		-	6	-	2	-	-	-	17	76	9	15	6	11	15	17	61	235
총 계		460	163	27	161	14	16	18	178	146	32	39	50	293	84	117	420	2,218

주1: 등급 없음은 신규등록업체 및 등급 유효기간 만료업체로서 기준일 현재 유효등급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관광숙박업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14.5%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음(기타호텔업의 경우 전년대비(2017년) 44.6%로 큰 폭으로 증가함)

[표 3-41] 관광숙박업 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개소,%)

연도	사업체 수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2014년	1,278	831	243	204
2015년	1,503	915	373	215
2016년	1,716	1,038	428	250
2017년	1,843	1,035	581	227
2018년	2,110	1,043	840	227
증감율	14.5	0.8	44.6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연도별 매출액 현황

- 관광숙박업 분야 매출액은 2016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나 2018년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18년 기준 7조 6,644억의 매출액을 보임
- 전반적으로 관광숙박업 매출액이 감소추세를 보이나 기타호텔업의 경우 전년대비(2017년) 10.5% 증가한 4,697억 원으로 나타남

[표 3-42] 관광숙박업 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백만 원,%)

연도	매출액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2014년	7,930,628	5,316,541	327,973	2,286,114
2015년	7,859,586	5,118,879	342,767	2,397,940
2016년	8,268,323	5,173,687	436,281	2,658,354
2017년	8,411,162	5,464,429	424,988	2,521,745
2018년	7,664,356	4,965,753	469,764	2,228,838
증감율	-8.9	-9.1	10.5	-11.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나. 관광숙박업 종사자 현황

■ 연도별 관광숙박업 종사자 수

- 관광숙박업 종사자 수는 201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8년도 기준 69,926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타호텔업의 경우 전년대비 26.4% 증가한 5,857명으로 나타남

[표 3-43] 관광숙박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명)

연도	종사자 수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2014년	67,465	49,782	3,107	14,576
2015년	70,305	49,617	3,464	17,224
2016년	73,631	49,896	4,196	19,538
2017년	71,769	50,035	4,632	17,102
2018년	69,926	48,415	5,857	15,654
증감율	-2.6	-3.2	26.4	-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 2018년도 기준 관광숙박업의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현황을 살펴보면 10명 미만이 전체의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명-30명 미만 26.3%, 30명-50명 미만 6.8% 등의 순으로 나타남(1개소 평균 종사자 수: 33.1명)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호텔업의 경우 10명-30명 미만이 전체의 40.6%로 높게 나타났고(1개소 평균 종사자 수: 46.4%), 기타호텔업은 10명 미만이 87.0%로 높게 나타났으며(1개소 평균 종사자 7.0명), 휴양콘도미니엄업은 50명-100명 미만이 30.0%로 높게 나타남(1개소 평균 종사자 수 69.0명)

[표 3-44] 관광숙박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전체	10명 미만	10명~30명 미만	30~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명 이상	1개소 평균 종사자 수
전체	2,110 (100.0)	1,058 (50.1)	555 (26.3)	186 (8.8)	178 (8.4)	133 (6.3)	33.1
관광호텔업	1,043 (100.0)	304 (29.1)	423 (40.6)	129 (12.4)	100 (9.6)	86 (8.2)	46.4
기타호텔업	840 (100.0)	731 (87.0)	75 (8.9)	21 (2.5)	9 (1.1)	3 (0.4)	7.0
휴양콘도미니엄업	227 (100.0)	22 (9.7)	57 (25.1)	36 (15.9)	68 (30.0)	43 (18.9)	69.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사업체별 종사자 연령대 분포현황

- 2018년도 기준 관광숙박업의 사업체별 종사자 연령대 분포현황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34.2%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세-40세 미만 28.8%, 40세-50세 미만 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호텔업의 경우 30세 미만이 32.0%로 높게 나타났고(30세-40세 미만: 30.1%), 기타호텔업 30세-40세 미만이 27.8%로 높게 나타났으며(30세 미만: 23.1%), 휴양콘도미니엄업은 30세 미만이 44.1%로 높게 나타남(30세-40세 미만: 24.1%)

[표 3-45] 관광숙박업 분야 연령 분포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30세 미만	30세~40세 미만	40세~50세 미만	50세~60세 미만	60세~65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68,382 (100.0)	23,365 (34.2)	19,683 (28.8)	13,318 (19.5)	8,946 (13.1)	2,396 (3.5)	674 (1.0)
관광호텔업	47,895 (100.0)	15,347 (32.0)	14,404 (30.1)	9,418 (19.7)	6,453 (13.5)	1,770 (3.7)	504 (1.1)
기타호텔업	4,845 (100.0)	1,118 (23.1)	1,346 (27.8)	1,079 (22.3)	956 (19.7)	274 (5.7)	70 (1.4)
휴양콘도미니엄업	15,642 (100.0)	6,900 (44.1)	3,933 (25.1)	2,821 (18.0)	1,537 (9.8)	353 (2.3)	100 (0.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2018년도 기준 관광숙박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83.5%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기타종사자가 0.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호텔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8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은 상용근로자가 66.6%로 높은 비율을 보임
 - 휴양콘도미니엄 역시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77.3%로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도 전체의 21.4% 높게 나타남에 따라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6] 관광숙박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 용 근로자	기타 종사 자
전체	69,926 (100.0)	1,140 (1.6)	396 (0.6)	58,407 (83.5)	9,658 (13.8)	325 (0.5)
관광호텔업	48,415 (100.0)	453 (0.9)	67 (0.1)	42,412 (87.6)	5,400 (11.2)	83 (0.2)
기타호텔업	5,857 (100.0)	682 (11.6)	323 (5.5)	3,902 (66.6)	913 (15.6)	39 (0.6)
휴양콘도미니엄업	15,654 (100.0)	5 (0.0)	6 (0.0)	12,093 (77.3)	3,345 (21.4)	204 (1.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2018년도 기준 관광숙박업의 연간 신규채용 현황은 남성이 전체의 52.5%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47.2%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호텔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52.1%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은 여성이 52.5%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은 남성이 전체의 57.78로 높게 나타남
- 관광숙박업의 연간 이직현황은 남성이 52.7%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47.3%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보면 관광호텔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51.4%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은 여성이 50.3%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은 남성이 전체의 58.2%로 높게 나타남

[표 3-47] 관광숙박업 분야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간 신규 채용현황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4,419 (100.0)	7,614 (52.8)	6,805 (47.2)	12,893 (100.0)	6,799 (52.7)	6,093 (47.3)
관광호텔업	9,826 (100.0)	5,115 (52.1)	4,711 (47.9)	9,071 (100.0)	4,658 (51.4)	4,413 (48.6)
기타호텔업	1,506 (100.0)	716 (47.5)	790 (52.5)	974 (100.0)	484 (49.7)	490 (50.3)
휴양콘도미니엄업	3,086 (100.0)	1,782 (57.7)	1,304 (42.3)	2,848 (100.0)	1,657 (58.2)	1,191 (41.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자격증 보유현황

- 2018년도 기준 관광숙박업의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관광통역안내사의 비율이 전체의 20.7%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호텔서비스사 10.3%, 국내여행안내사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자격증의 보유가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보면 관광호텔업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가 21.7%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 호텔업은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29.7%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국내 여행안내사가 전체의 17.9%로 높게 나타남
 -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광종사자 자격(국가 전문자격 등) 외 기타자격증의 보유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8] 관광숙박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전체	4,610 (100.0)	952 (20.7)	395 (8.6)	93 (2.0)	124 (2.7)	241 (5.2)	473 (10.3)	2,333 (50.6)
관광호텔업	3,961 (100.0)	861 (21.7)	293 (7.4)	61 (1.5)	98 (2.5)	201 (5.1)	418 (10.6)	2,029 (51.2)
기타호텔업	118 (100.0)	35 (29.7)	10 (8.5)	8 (6.8)	7 (5.9)	11 (9.3)	20 (16.9)	27 (22.9)
휴양콘도미니엄업	532 (100.0)	56 (10.5)	92 (17.3)	24 (4.5)	19 (3.6)	29 (5.5)	35 (6.6)	277 (5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다. 영업 현황

■ 연간 영업 개월 수

- 2018년도 관광숙박업의 연간 영업 개월 수를 살펴보면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개월 이하/4개월~6개월 이하가 각각 2.3%로 낮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영업 개월 수는 11.4개월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보면 관광호텔업의 경우 10개월 이상이 92.7%(연평균 영업개월 수: 11.5개월)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은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85.1%(연평균 영업 개월 수: 11.1개월)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은 10개월 이상 전체의 97.4%(연평균 영업개월 수: 11.9개월)로 높게 나타남

[표 3-49] 관광숙박업 분야 영업 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 개월)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이하	7개월~ 9개월 이하	10개월 이상	연평균 영 업 개월 수
전체	2,110 (100.0)	49 (2.3)	70 (2.3)	88 (4.2)	1,903 (90.2)	11.4
관광호텔업	1,043 (100.0)	26 (2.5)	22 (2.1)	28 (2.7)	967 (92.7)	11.5
기타호텔업	840 (100.0)	22 (2.6)	44 (5.2)	59 (7.0)	715 (85.1)	11.1
휴양콘도미니 엄업	227 (100.0)	0	4 (1.8)	1 (0.4)	221 (97.4)	1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1일 평균 영업시간

- 2018년도 기준 관광숙박업의 1일평균 영업시간을 살펴보면 14시간 이상이 전체의 9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시간 미만이 0.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평균 영업시간은 23.0시간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보면 관광호텔업의 경우 14시간 이상이 전체의 99.0%(일평균 영업시간: 23.8시간)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은 14시간 이상이 전체의 92.4%(일평균 영업시간: 22.0시간)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은 14시간 이상이 전체의 98.2%(일평균 영업시간: 23.6시간)로 높게 나타남

[표 3-50] 관광숙박업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 시간)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전체	2,110 (100.0)	6 (0.3)	26 (1.2)	9 (0.4)	36 (1.7)	2,033 (96.4)	23.0
관광호텔업	1,043 (100.0)	1 (0.1)	6 (0.6)	1 (0.1)	1 (0.1)	1,033 (99.0)	23.8
기타호텔업	840 (100.0)	5 (0.6)	18 (2.1)	7 (0.8)	34 (4.0)	776 (92.4)	22.0
휴양콘도미니엄업	227 (100.0)	0	2 (0.9)	0	1 (0.4)	223 (98.2)	23.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월평균 휴무일 수

- 2018년도 기준 관광숙박업의 월평균 휴무일수는 업종 특성상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어 월평균 휴무일 수는 없음이 전체의 9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휴무일 수는 0.2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보면 관광호텔업은 휴무일 없음이 97.7%(월평균 휴무일 수: 0.1일)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의 경우 휴무일 없음이 97.1%(월평균 휴무일 수: 0.2일)로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휴무일 없음이 97.8%로 높게 나타남(월평균 휴무일 수: 0.1일)

[표 3-51] 관광숙박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 % 일)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평균 휴무일 수
전체	2,110 (100.0)	2,057 (97.5)	26 (1.2)	21 (1.0)	6 (0.3)	0.2
관광호텔업	1,043 (100.0)	1,019 (97.7)	9 (0.9)	15 (1.4)	0	0.1
기타호텔업	840 (100.0)	816 (97.1)	15 (1.8)	4 (0.5)	6 (0.7)	0.2
휴양콘도미니엄업	227 (100.0)	222 (97.8)	2 (0.9)	3 (1.3)	0	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3)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구분됨

가. 사업체 현황

■ 전국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체 수

- 2019년 12월 말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현황은 전문휴양업 98개 업체, 종합휴양업 27개 업체, 야영장업(일반/자동차) 2,356개 업체, 관광유람선업 44개업체, 관광공연장업 12개 등 총 4,57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

[표 3-52] 전국 시도별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 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계
전체	98	27	2,356	39	8	2,049	4,577
서울시	-	2	8	1	4	1,309	1,324
부산시	1	1	15	5	-	151	173
대구시	-	1	15	-	1	38	55
인천시	1	-	69	4	-	83	157
광주시	-	-	4	-	-	28	32
대전시	1	1	7	-	-	4	13
울산시	-	-	21	-	-	13	34
세종시	-	-	5	-	-	2	7
경기도	13	4	575	-	-	77	669
강원도	8	8	490	3	1	53	563
충청북도	5	1	168	-	-	4	178
충청남도	5	2	189	2	-	3	201
전라북도	4	1	115	3	2	141	266
전라남도	4	1	135	3	-	50	193
경상북도	11	1	261	1	-	47	321
경상남도	2	1	235	9	-	46	293
제주도	43	3	44	8	-	-	80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가장 많은 업체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외국인관광도 시민박업의 비율이 높음(전체의 63.9%)
 - 다음으로 경기도의 비율이 높으며, 야영장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전체의 24.4%)

[표 3-53]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개소,%)

연도	사업체 수						
	전체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 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4년	336	93	-	189	43	11	-
2015년	1,213	74	872	228	35	4	-
2016년	3,168	85	1,302	297	30	3	1,451
2017년	3,963	127	1,701	400	42	5	1,688
2018년	4,323	133	1,910	426	48	7	1,799
증감율	9.1	4.7	12.3	6.5	14.3	40.0	6.6

주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다가 2016년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수치를 적용하였음.

주2)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2015년 기준부터 적용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사업체 수는 2014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6년 높은 상승폭을 보이는데, 이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기존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이동되어 적용됨에 따른 증가임
- 2018년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비중이 전체의 41.6%로 높게 나타남

연도별 매출액 현황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매출액은 2016년까지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 전년대비 24.7% 증가하였으나 2018년 소폭 하락하여 1조 207억 원으로 나타남(전년대비 7.5% 감소)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야영장업(전년대비 24.7%)과 관광유람선업(21.0%),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14.7%)은 전년대비 증가추세를 보였음

[표 3-54]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백만 원, %)

연도	매출액						
	전체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 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2014년	814,120	706,976	-	34,458	54,960	17,726	-
2015년	789,116	590,827	104,767	35,557	42,741	15,224	-
2016년	885,160	631,595	121,862	42,965	39,459	5,550	43,730
2017년	1,103,859	773,632	164,765	43,715	64,859	4,478	52,411
2018년	1,020,730	663,326	160,493	54,530	78,497	3,757	60,127
증감율	-7.5	-14.3	-2.6	24.7	21.0	-16.1	14.7

주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다가 2016년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수치를 적용하였음.

주2)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2015년 기준부터 적용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나.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현황

연도별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수

-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수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소폭 감소하였음(전년대비 9.3% 감소)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야영장업은 전년(2017년)에 78.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8년 다시 보이고 감소추세(-21.3%)를 보였으며, 반면 관광유람선업은 전년대비(2017년) 19.7%의 증가율을 보였음
- 이밖에 자동차 야영장업(10.9%)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11.8%)이 높게 나타남

[표 3-55]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4년~2018)

(단위 : 개소)

연도	종사자 수						
	전체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 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4년	10,671	8,748	-	983	707	232	-
2015년	11,065	5,494	3,504	1,232	568	268	-
2016년	17,421	6,098	6,456	1,757	403	89	2,620
2017년	25,535	8,076	11,544	2,307	568	83	2,957
2018년	23,154	7,453	9,088	2,559	680	70	3,305
증감율	-9.3	-7.7	-21.3	10.9	19.7	-15.7	11.8

주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다가 2016년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수치를 적용하였음.

주2)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2015년 기준부터 적용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 2018년도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현황을 살펴보면 10명 미만이 전체의 8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명 이상이 1.2%로 가장 낮게 나타남(1개소 평균 종사자 수: 5.4명)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 및 종합휴양업은 50명-100명 미만이 전체의 27.8%로 높게 나타났고(1개소 평균종사자 수: 56.0명), 일반야영장업은 10명 미만이 78.3%로 높게 나타났으며(1개소 평균 종사자 수(4.8명), 자동차야영장업 역시 10명 미만이 68.8%로 높게 나타남(1개소 평균 종사자 수 6.0명)
 - 관광유람선업은 10명-30명미만이 35.4%로 높게 나타났고(1개소 평균 종사자 수: 14.2명), 관광공연장업은 30명-50명 미만이 71.4%로 높게 나타났으며(1개소 평균 종사자 수: 10.0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10명 미만이 93.7%로 높게 나타남(1개소 평균 종사자 수: 1.8명)

[표 3-56]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전체	10명 미만	10명~30명 미만	30~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명 이상	1개소 평균 종사자 수
전체	4,323 (100.0)	3,502 (81.0)	491 (11.4)	191 (4.4)	89 (2.1)	50 (1.2)	5.4
전문 및 종합휴양업	133 (100.0)	17 (12.8)	22 (16.5)	28 (21.1)	37 (27.8)	29 (21.8)	56.0
일반 야영장업	1,910 (100.0)	1,496 (78.3)	261 (13.7)	106 (5.5)	37 (1.9)	10 (0.5)	4.8
자동차 야영장업	426 (100.0)	293 (68.8)	77 (18.1)	38 (8.9)	9 (2.1)	9 (2.1)	6.0
관광 유람선업	48 (100.0)	8 (16.7)	17 (35.4)	15 (31.3)	6 (12.5)	2 (4.2)	14.2
관광 공연장업	7 (100.0)	2 (28.6)	0	5 (71.4)	0	0	10.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799 (100.0)	1,685 (93.7)	114 (6.3)	0	0	0	1.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사업체별 종사자 연령대 분포현황

- 2018년도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체별 종사자 연령대 분포현황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32.5%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세~40세 미만 20.0%, 40세~50세 미만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 및 종합휴양업은 30세 미만이 44.5%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 야영장업은 30세 미만이 22.5%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야영장업 역시 30세 미만이 31.8%로 높게 나타남
 - 관광유람선업은 40세~50세 미만이 22.0%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공연장업은 30세 미만이 41.2%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30세~40세 미만이 40.3%로 높게 나타남

[표 3-57] 관광객 이용시설업 분야 연령 분포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30세 미만	30세~40세 미만	40세~50세 미만	50세~60세 미만	60세~65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18,123 (100.0)	5,896 (32.5)	3,616 (20.0)	3,492 (19.3)	2,956 (16.3)	1,254 (6.9)	909 (5.0)
전문 및 종합휴양업	7,418 (100.0)	3,302 (44.5)	1,628 (21.9)	1,252 (16.9)	819 (11.0)	284 (3.8)	135 (1.8)
일반야영장업	6,597 (100.0)	1,486 (22.5)	1,121 (17.0)	1,474 (22.3)	1,383 (21.0)	570 (8.6)	566 (8.6)
자동차야영장업	2,172 (100.0)	690 (31.8)	232 (10.7)	407 (18.7)	465 (21.4)	234 (10.8)	145 (6.7)
관광유람선업	658 (100.0)	117 (17.8)	135 (20.5)	145 (22.0)	129 (19.6)	78 (11.9)	53 (8.1)
관광공연장업	68 (100.0)	28 (41.2)	14 (20.6)	9 (13.2)	7 (10.3)	9 (13.2)	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210 (100.0)	273 (22.6)	488 (40.3)	208 (17.2)	153 (12.6)	77 (6.4)	11 (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28.1%로 높게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 및 종합휴양업은 상용근로자가 65.4%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야영장업은 상용근로자가 45.1%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야영장업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47.8%로 높게 나타남
 - 관광유람선업은 상용근로자가 90.6%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공연장업은 상용근로자가 90.6%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은 자영업자가 53.9%로 높게 나타남

[표 3-58]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전체	23,154 (100.0)	3,461 (14.9)	151 (6.8)	11,430 (49.4)	6,507 (28.1)	186 (0.8)
전문 및 종합휴양업	7,453 (100.0)	27 (0.4)	7 (0.1)	4,872 (65.4)	2,453 (32.9)	94 (1.3)
일반야영장업	9,088 (100.0)	1,408 (15.5)	1,083 (11.9)	4,099 (45.1)	2,436 (26.8)	61 (0.7)
자동차야영장업	2,559 (100.0)	226 (8.8)	160 (6.3)	942 (36.8)	1,223 (47.8)	8 (0.3)
관광유람선업	680 (100.0)	17 (2.5)	5 (0.7)	616 (90.6)	41 (6.0)	0
관광공연장업	70 (100.0)	2 (2.5)	0	68 (90.6)	0	0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3,305 (100.0)	1,780 (53.9)	314 (9.5)	833 (25.2)	354 (10.7)	3 (0.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2018년도 기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연간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채용이 전체의 61.0%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38.9%로 나타남(2018년 기준 1,988명)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여성의 채용이 78.8%로 높게 나타남²⁷⁾
-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연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이직률이 60.6%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39.4%로 나타남(2018년도 기준 1,658명)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이직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여성의 이직이 82.6%로 높게 나타남²⁸⁾

27) 전반적으로 남성의 채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관광유람선업(76.8%)과 관광공연장업(75.0%)의 남성 신규채용 비율이 높음

28) 전반적으로 남성의 이직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관광유람선업(74.5%)과 관광공연장업(100.0%)의 남성 이직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59]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신규채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간 신규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988 (100.0)	1,215 (61.1)	773 (38.9)	1,658 (100.0)	1,004 (60.6)	654 (39.4)
전문 및 종합휴양업	993 (100.0)	576 (58.0)	417 (42.0)	1002 (100.0)	585 (58.4)	418 (41.7)
일반야영장업	670 (100.0)	444 (66.3)	226 (33.7)	511 (100.0)	326 (63.8)	184 (36.0)
자동차야영장업	148 (100.0)	95 (64.2)	52 (35.1)	62 (100.0)	43 (69.4)	19 (30.6)
관광유람선업	99 (100.0)	76 (76.8)	24 (24.2)	55 (100.0)	41 (74.5)	14 (25.5)
관광공연장업	12 (100.0)	9 (75.0)	2 (16.7)	5 (100.0)	5 (100.0)	0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66 (100.0)	14 (21.2)	52 (78.8)	23 (100.0)	5 (21.7)	19 (82.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자격증 보유현황

- 2018년도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분야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호텔관리사(5.3%), 국내여행안내사(4.8%) 등의 순으로 나타남(기타자격증 43.6%)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관리사가 각각 9.8%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야영장업은 국내여행안내사가 2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 야영장은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가 각각 7.1%로 높게 나타남
 - 관광유람선업은 관광통역안내사가 8.7%로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통역안내사가 94.4%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기타 자격증의 비율이 높게 나옴에 따라 업종별 특성에 따른 관광산업 외 타 자격증의 필요성이 도출되어 현황조사를 통해 현재 종사자들이 보유한 기타국가전문자격 외 자격증을 파악하고,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이 요구됨(추가 자격체계 구축 등)

[표 3-60]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전체	640 (100.0)	263 (41.1)	31 (4.8)	13 (2.0)	9 (1.4)	34 (5.3)	12 (1.9)	279 (43.6)
전문 및 종합휴양업	193 (100.0)	12 (6.2)	19 (9.8)	13 (6.7)	2 (1.0)	19 (9.8)	12 (6.2)	117 (60.6)
일반야 영장업	41 (100.0)	0	11 (26.8)	0	7 (17.1)	0	0	24 (58.5)
자동차 야영장업	14 (100.0)	1 (7.1)	1 (7.1)	0	0	0	0	12 (85.7)
관광유람 선업	138 (100.0)	12 (8.7)	0	0	0	0	0	127 (92.0)
관광공연 장업	0	0	0	0	0	0	0	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52 (100.0)	238 (94.4)	0	0	0	14 (5.6)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재인용.

다. 영업 현황

■ 연간 영업 개월 수

- 2018년도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연간 영업 개월 수를 살펴보면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개월 이하가 6.2%로 낮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영업 개월 수는 10.2개월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보면 전문 및 종합휴양업은 10개월 이상이 95.5%(연평균 영업개월 수 11.7개월)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야영장업은 10개월 이상이 66.8%(연평균 영업개월수 9.9개월)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 야영장업은 10개월 이상이 71.1%(연평균 영업개월 수 10.2개월)로 높게 나타남
 - 관광유람선업은 10개월 이상이 77.1%(연평균 영업 개월 수 10.9개월)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공연장업은 10개월 이상이 100.0%(연평균 영업 개월 수 12.0개월)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10개월 이상이 76.9%(연평균 영업개월 수 10.3개월)로 높게 나타남

[표 3-61]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영업 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 개월)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이하	7개월~9개 월 이하	10개월 이 상	연평균 영 업 개월 수
전체	4,323 (100.0)	267 (6.2)	428 (9.9)	495 (11.5)	3,133 (72.5)	10.2
전문 및 종합휴양업	133 (100.0)	1 (0.8)	4 (3.0)	1 (0.8)	127 (95.5)	11.7
일반야 영장업	1,910 (100.0)	138 (7.2)	190 (9.9)	307 (16.1)	1,275 (66.8)	9.9
자동차 야영장업	426 (100.0)	17 (4.0)	46 (10.8)	60 (14.1)	303 (71.1)	10.2
관광유람선업	48 (100.0)	0	4 (8.3)	7 (14.6)	37 (77.1)	10.9
관광공연장업	7 (100.0)	0	0	0	7 (100.0)	12.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799 (100.0)	111 (6.2)	185 (10.3)	119 (6.6)	1,384 (76.9)	10.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재인용.

1일 평균 영업시간

- 2018년도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 1일 평균 영업시간을 살펴보면 14시간 이상이 전체의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 1일 평균 영업시간 수는 19.2시간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8시간 ~ 10시간미만이 39.8%(일평균 영업시간: 14.0시간)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야영장업은 14시간 이상이 36.8%(일평균 영업시간: 21.2시간), 자동차야영장업은 14시간 이상이 83.1%(일평균 영업시간 21.4시간)로 높게 나타남
 - 관광유람선업은 8시간~10시간미만이 54.2%(일평균 영업시간: 7.8시간)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8시간미만이 전체의 71.4%(일평균 영업시간: 6.7시간)로 나타났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14시간 이상이 57.2%(일평균 영업시간 17.3시간)로 높게 나타남

[표 3-62]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일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 시간)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전체	4,323 (100.0)	27 (0.6)	440 (10.2)	480 (11.1)	382 (8.8)	2,994 (69.3)	19.2
전문 및 종합휴양업	133 (100.0)	1 (0.8)	53 (39.8)	19 (14.3)	11 (8.3)	49 (36.8)	14.0
일반야영장업	1,910 (100.0)	0	149 (7.8)	93 (4.9)	106 (5.5)	1,562 (81.8)	21.2
자동차야영장업	426 (100.0)	0	32 (7.5)	20 (4.7)	20 (4.7)	354 (83.1)	21.4
관광유람선업	48 (100.0)	17 (35.4)	26 (54.2)	3 (6.3)	3 (6.3)	0	7.8
관광공연장업	7 (100.0)	5 (71.4)	2 (28.6)	0	0	0	6.7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799 (100.0)	4 (0.2)	178 (9.9)	346 (19.2)	242 (13.5)	1,029 (57.2)	17.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재인용.

■ 월평균 휴무일 수

- 2018년도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 월평균 휴무일 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없음이 89.9%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일~5일이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업종별 월평균 휴무일 수는 0.9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휴무일이 없음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문 및 종합휴양업은 1일~5일이 9.8%(월평균 휴무일 수: 0.9일), 일반야영장업은 1일~5일이 7.2%(월평균 휴무일 수: 1.4일), 자동차야영장업은 1일~5일이 9.2%(월평균 휴무일 수: 1.4일)로 높게 나타남
 - 관광유람선업은 1일~5일이 16.7%(월평균 휴무일 수: 1.7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6일~10일이 2.1%(월평균 휴무일 수 0.2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관광공연장업은 1일~5일이 전체의 71.4%(월평균 휴무일 수 2.0일)로 높게 나타남

[표 3-63]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 % 일)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평균 휴무일 수
전체	4,323 (100.0)	3,886 (89.9)	219 (5.1)	96 (2.2)	123 (2.8)	0.9
전문 및 종합휴양업	133 (100.0)	110 (82.7)	13 (9.8)	8 (6.0)	1 (0.8)	0.9
일반야영장업	1,910 (100.0)	1,642 (86.0)	137 (7.2)	34 (1.8)	98 (5.1)	1.4
자동차야영장업	426 (100.0)	353 (82.9)	137 (9.2)	14 (3.3)	19 (4.5)	1.4
관광유람선업	48 (100.0)	37 (77.1)	8 (16.7)	2 (4.2)	2 (4.2)	1.7
관광공연장업	7 (100.0)	2 (28.6)	5 (71.4)	0	0	2.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799 (100.0)	1,742 (96.8)	17 (0.9)	37 (2.1)	3 (0.2)	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4)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분류되며,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고,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 필요한 업무를 행사 주관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함

가. 사업체 현황

■ 전국 국제회의업 사업체 수

- 2018년 말 기준 국제회의업(시설업+기획업) 886개 업체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지역이 563개(63.5%) 업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3-64] 전국 시도별 국제회의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체 수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전체
전체	13	873	886
서울시	1	562	563
부산시	1	59	60
대구시	1	34	35
인천시	1	10	11
광주시	1	21	22
대전시	0	31	31
울산시	0	9	9
세종시	0	3	3
경기도	1	49	50
강원도	3	16	19
충북도	0	4	4
충남도	0	2	2
전북도	1	9	10
전남도	0	3	3
경북도	1	13	14
경남도	1	16	17
제주도	1	32	3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국제회의업의 사업체 수는 증가 및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7년 890개 업체로 증가하다 2018년도 소폭 감소하였음(전년대비 0.5% 감소)
- 세부업종별로 보면 국제회의시설업은 13개 업체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국제회의 기획업은 873개업체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음

[표 3-65]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 개소,%)

연도	사업체 수		
	전체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2014년	677	16	661
2015년	619	11	608
2016년	700	10	690
2017년	890	13	877
2018년	886	13	873
증감율	-0.5	-	-0.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연도별 매출액

- 국제회의업의 매출액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8년 기준 총 매출액은 1조 3,033억 원으로 전년대비(1조 7,715억 원) 26.4% 감소하였음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국제회의 시설업은 2,4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8%로 감소하였고, 국제회의 기획업은 1조 633억 원으로 전년대비 29.2%로 감소함

[표 3-66]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도	매출액		
	전체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2014년	2,442,369	238,619	2,203,750
2015년	1,760,254	167,309	1,592,946
2016년	1,837,698	223,838	1,613,860
2017년	1,771,500	269,040	1,502,460
2018년	1,303,342	239,993	1,063,349
증감율	-26.4	-10.8	-29.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나. 국제회의업 종사자 현황

■ 연도별 국제회의업 종사자 수

- 국제회의업 종사자 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8년 기준 9,100명으로 전년대비 25.2%가 감소하였음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국제회의시설업은 681명으로 전년(2017년) 대비 5.7%로 감소하였고, 국제회의기획업은 8,419명으로 전년대비(2017년) 26.4%로 감소하였음

[표 3-67]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명,%)

연도	종사자 수		
	전체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2014년	17,330	935	16,395
2015년	15,131	488	14,643
2016년	12,596	622	11,974
2017년	12,166	722	11,444
2018년	9,100	681	8,419
증감율	-25.2	-5.7	-26.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 2018년도 기준 국제회의업의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현황을 살펴보면 1명-5명 미만이 전체의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명-10명 미만 26.3%, 10명-20명 미만 25.1% 등의 순으로 나타남(1개소 평균종사자 수: 10.3명)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제회의 시설업은 20명-50명미만이 전체의 53.8%(1개소 평균종사자 수: 52.3명)로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기획업은 1명-5명미만이 전체의 38.9%(1개소 평균종사자 수 9.6명)로 높게 나타남

[표 3-68] 국제회의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전체	1명~5명 미만	5명~10 명 미만	10명~20 명 미만	20명~50 명 미만	50명 이 상	1개소 평균 종사자 수
전체	886 (100.0)	340 (38.4)	233 (26.3)	222 (25.1)	64 (7.2)	26 (2.9)	10.3
국제회의 시설업	13 (100.0)	0	1 (7.7)	0	7 (53.8)	5 (38.5)	52.3
국제회의 기획업	873 (100.0)	340 (38.9)	232 (26.6)	222 (25.4)	57 (6.5)	21 (2.4)	9.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사업체별 종사자 연령대 분포현황

- 2018년도 기준 국제회의업의 사업체별 종사자 연령대 분포현황 살펴보면 30세~40세 미만이 36.2%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세 미만이 2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제회의시설업은 30세~40세 미만이 33.9%로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 기획업 역시 30세~40세 미만이 36.4%로 높게 나타남

[표 3-69] 국제회의업 분야 종사자 연령대 분포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30세 미만	30세~40 세 미만	40세~50 세 미만	50세~60 세 미만	60세~65 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9,040 (100.0)	2,660 (29.4)	3,273 (36.2)	1,860 (20.6)	1,067 (11.8)	145 (1.6)	35 (0.4)
국제회의 시설업	681 (100.0)	148 (21.7)	231 (33.9)	190 (27.9)	99 (14.5)	14 (2.1)	1 (0.1)
국제회의 기획업	8,359 (100.0)	2,513 (30.1)	3,042 (36.4)	1,670 (20.0)	968 (11.6)	131 (1.6)	34 (0.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2018년도 기준 국제회의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77.3%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국제회의 시설업은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8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 기획업 역시 상용근로자가 76.5%로 높게 나타남

[표 3-70] 국제회의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전체	9,100 (100.0)	60 (0.7)	0	7,037 (77.3)	1,352 (14.9)	650 (7.1)
국제회의 시설업	681 (100.0)	0	0	597 (87.7)	84 (12.3)	0
국제회의 기획업	8,419 (100.0)	60 (0.7)	0	6,440 (76.5)	1,268 (15.1)	650 (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2018년도 기준 국제회의업의 연간 신규채용 현황은 남성이 전체의 53.2%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46.8%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남성이 57.8%로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 기획업 역시 남성(52.9%)의 신규채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국제회의업의 연간 이직 현황은 여성이 52.9%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이 47.0%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보면 국제회의 시설업은 남성의 이직이 60.3%로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 기획업은 여성이 이직이 53.6%로 높게 나타남

[표 3-71] 국제회의업 분야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간 신규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260 (100.0)	670 (53.2)	590 (46.8)	1,314 (100.0)	618 (47.0)	695 (52.9)
국제회의 시설업	83 (100.0)	48 (57.8)	36 (43.4)	63 (100.0)	38 (60.3)	25 (39.7)
국제회의 기획업	1,177 (100.0)	623 (52.9)	554 (47.1)	1,251 (100.0)	581 (46.4)	670 (53.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자격증 보유현황

- 2018년도 기준 국제회의업의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국외여행인솔자가 전

체의 42.6%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광통역안내사(3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보면 국제회의시설업은 관광통역안내사의 비중이 20.0%로 높게 나타났으나 기타 자격증 보유 비율(64.0%)이 높게 나타남

- 국제회의기획업은 국외여행인솔자가 44.8%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광통역안내사(3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72] 국제회의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전체	1,014 (100.0)	374 (36.9)	42 (4.1)	432 (42.6)	3 (0.3)	22 (2.2)	0	141 (13.9)
국제회의 시설업	50 (100.0)	10 (20.0)	2 (4.0)	0	3 (6.0)	3 (6.0)	0	32 (64.0)
국제회의 기획업	964 (100.0)	364 (37.8)	40 (4.1)	432 (44.8)	0	19 (2.0)	0	109 (11.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다. 영업 현황

■ 연간 영업 개월 수

○ 2018년도 국제회의업의 연간 영업 개월 수를 살펴보면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평균 영업 개월 수는 12.0개월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보면 국제회의 시설업은 10개월 이상이 100.0%(연평균 영업 개월 수: 12.0개월)로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 기획업 역시 10개월 이상이 99.7%(연평균 영업 개월 수: 12.0개월)로 높게 나타남

[표 3-73] 국제회의업 분야 연평균 영업 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 개월)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이하	7개월~9개 월 이하	10개월 이 상	연평균 영 업 개월 수
전체	886(100.0)	0	0	3(0.3)	883(99.7)	12.0
국제회의 시설업	13(100.0)	0	0	0	13(100.0)	12.0
국제회의 기획업	873(100.0)	0	0	3(0.3)	870(99.7)	1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1일 평균 영업시간

- 2018년도 기준 국제회의업의 1일평균 영업시간을 살펴보면 8시간~10시간 미만이 전체의 93.6%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평균 영업시간은 8.3시간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보면 국제회의시설업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69.2%(일평균 영업시간: 10.7시간)로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기획업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전체의 93.9%(일평균 영업시간: 8.3시간)로 높게 나타남

[표 3-74] 국제회의업 분야 일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 시간)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전체	886 (100.0)	14 (1.6)	829 (93.6)	20 (2.3)	11 (1.2)	12 (1.4)	8.3
국제회의 시설업	13 (100.0)	0	9 (69.2)	2 (15.4)	1 (7.7)	2 (15.4)	10.7
국제회의 기획업	873 (100.0)	14 (1.6)	820 (93.9)	19 (2.2)	10 (1.1)	10 (1.1)	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월평균 휴무일 수

- 2018년도 기준 국제회의업의 월평균 휴무일수는 6일~10일이 전체의 86.9%로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휴무일 수는 8.1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보면 국제회의 시설업은 6일~10일이 전체의 50.0%(월평균 휴무일 수: 4.3일)²⁹⁾로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기획업은 6일~10일이 87.4%(월평균 휴무일 수: 8.2일)로 높게 나타남

[표 3-75] 국제회의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 % 일)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평균 휴무일 수
전체	886(100.0)	34(3.8)	45(5.1)	770(86.9)	37(4.2)	8.1
국제회의 시설업	13(100.0)	7(50.0)	0	7(50.0)	0	4.3
국제회의 기획업	873(100.0)	28(3.2)	45(5.2)	763(87.4)	37(4.2)	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29) 국제회의시설업은 월평균 휴무일 수가 없는 업체도 50.0%로 나타남

5) 카지노업

- 국내 카지노는 카지노업 허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수입을 확대하는 등 관광산업 진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정의는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함

가. 사업체 현황

■ 전국 카지노업 사업체 수

- 2019년도 기준 국내 카지노업은 총 17개 업체(내국인 전용 카지노 1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8개 업체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시(3개), 부산시(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76] 전국 시·도별 카지노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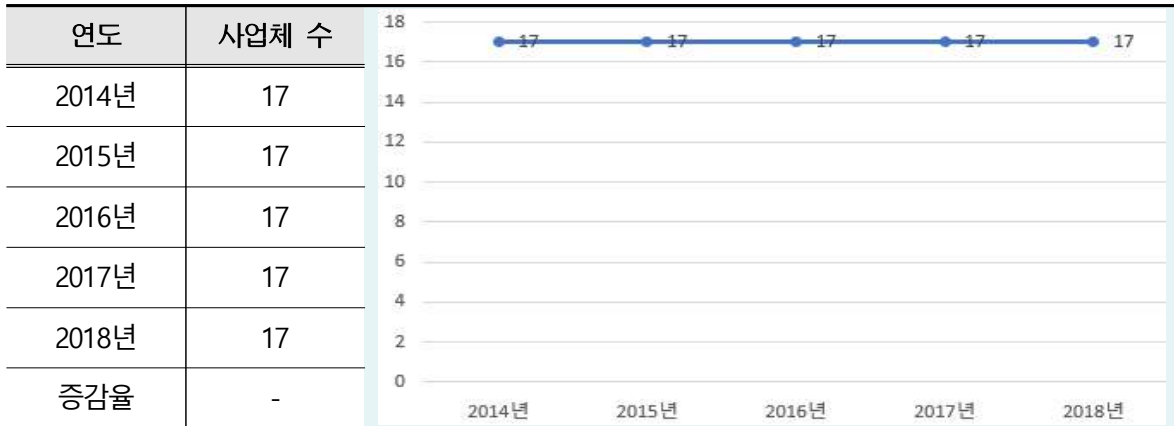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분	업체 수	업체 명
서울시	3	워커힐 카지노(파라다이스)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코엑스점(그랜드코리아레저)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북힐튼점(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시	2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그랜드코리아레저)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산지점(파라다이스)
인천시	1	인천카지노(파라다이스세가사미)
강원도	2	알펜시아카지노(지바스)
		강원랜드 카지노(강원랜드)-내국인 전용 카지노
대구시	1	인터볼고대구카지노(골든 크라운)
제주도	8	공즈카지노(길상창휘)
		파라다이스 카지노 제주지점(파라다이스)
		아람만카지노(마제스타)
		로얄팔레스카지노(건하)
		엘티카지노(엘티엔터테인먼트)
		제주썬카지노(지앤엘)
		랜딩카지노(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메가럭카지노(메가럭)
계	17	외국인전용카지노 16개소, 내국인전용카지노 1개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카지노업의 경우 2014년부터 17개(외국인 전용 16개, 내국인 전용 1개)를 유지하고 있음
 [표 3-77] 카지노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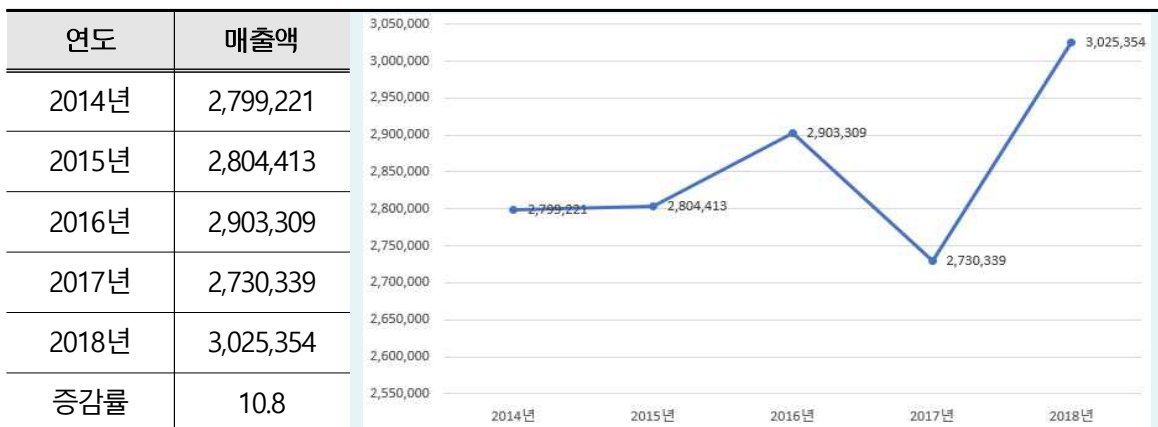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연도별 매출액 현황

○ 카지노업의 매출액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7년 전년 대비(2016년) 6.0%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8년도 기준 약 3조, 254억 원으로 나타남

[표 3-78] 카지노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백만 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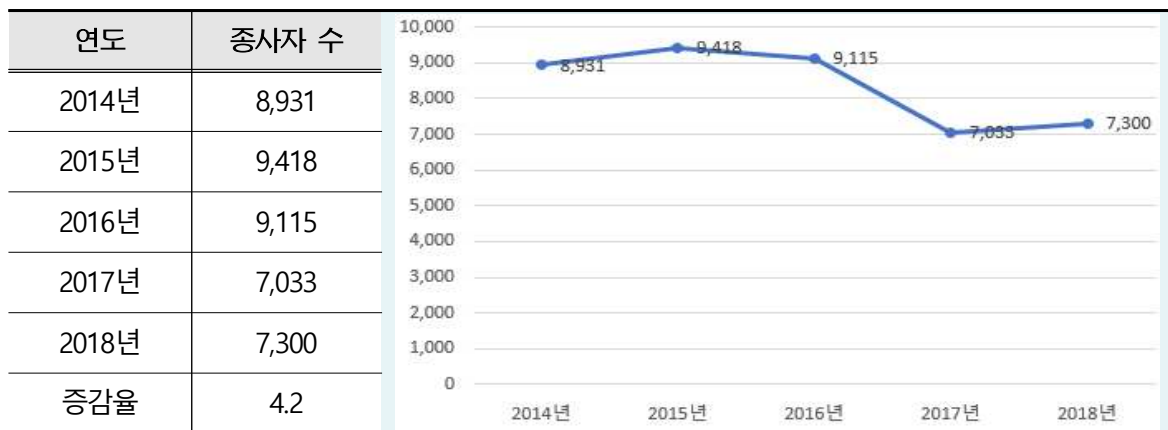
나. 카지노업 종사자 현황

■ 연도별 카지노업 종사자 수

- 카지노업 종사자 수는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7년 전년대비 22.8% 감소하였고, 2018년도 기준 7,300명(4.2%↑)으로 소폭 증가함

[표 3-79] 카지노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사업체별 종사자 분포 현황

- 2018년도 기준 카지노업의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현황을 살펴보면 20명 이상이 전체의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개소 평균 종사자 수는 431.2명으로 나타남

[표 3-80] 카지노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전체	20명 미만	20명 이상	1개소 평균 종사자 수
전체	17 (100.0)	0	17 (100.0)	431.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사업체별 연령대 분포현황

- 2018년도 기준 카지노업의 사업체별 연령대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30세~40세 미만이 전

체의 42.1%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세 미만(31.8%), 40세~50세 미만(2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81] 카지노업 분야 연령 분포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30세 미만	30세~40세 미만	40세~50세 미만	50세~60세 미만	60세~65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7,330 (100.0)	2,334 (31.8)	3,084 (42.1)	1,643 (22.4)	254 (3.5)	14 (0.2)	1 (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2018년도 기준 카지노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95.0%로 높게 나타났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5.0%로 나타남

[표 3-82] 카지노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전체	7,330 (100.0)	0	0	6,963 (95.0)	367 (5.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2018년도 기준 카지노업의 연간 신규채용은 총 853명으로 성별 비율은 남성 52.8%, 여성 47.2%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직현황은 총 897명으로 성별 비율은 남성 52.0%, 여성 48.0%로 나타남

[표 3-83] 카지노업 분야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간 신규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853 (100.0)	450 (52.8)	403 (47.2)	897 (100.0)	466 (52.0)	431 (4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자격증 보유현황

- 2018년도 기준 카지노업 종사자의 자격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8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내여행안내사 8.9% 순으로 나타남

[표 3-84] 카지노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전체	406 (100.0)	355 (87.4)	36 (8.9)	5 (1.2)	2 (0.5)	4 (1.0)	3 (0.7)	1 (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다. 영업 현황

■ 연간 영업 개월 수

- 2018년도 기준 카지노업의 연간 영업개월 수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업체(외국인전용 16개 업체, 내국인 적용 1개 업체) 모두 10개월 이상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영업 개월 수는 11.9개월로 나타남

[표 3-85] 카지노업 분야 연간 영업 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 개월)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이하	7개월~9개 월 이하	10개월 이 상	연평균 영 업 개월 수
전체	17 (100.0)	0	0	0	17 (100.0)	1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1일 평균 영업시간

- 2018년도 기준 카지노업의 1일 평균 영업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업체(외국인전용 16개 업체, 내국인 적용 1개 업체) 모두 14시간 이상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 영업시간은 21.7시간으로 나타남

[표 3-86] 카지노업 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 시간)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전체	17 (100.0)	0	0	0	0	17 (100.0)	2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월평균 휴무일 수

- 2018년도 기준 카지노업의 월평균 휴무일 수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업체(외국인전용 16개 업체, 내국인 적용 1개 업체) 모두 휴무일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월평균 휴무일 수: 0.0일)

[표 3-87] 카지노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 % 일)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평균 휴무일 수
전체	17 (100.0)	17 (100.0)	0	0	0	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6) 유원시설업

- 유원시설업은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으로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됨

가. 사업체 현황

■ 유원시설업 사업체 수

- 2019년 기준 유원시설업은 2,833개 업체(종합 43개소, 일반 324개소, 기타 2,45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755개소(종합 10개소, 일반 52개소, 기타

693개소)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세종시가 22개(기타 22개소)로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음

[표 3-88] 전국 시도별 유원시설업체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종합 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계
전 체	43	324	2,455	2,822
서울시	3	11	299	313
부산시	-	13	145	158
대구시	2	14	76	92
인천시	-	10	140	150
대전시	1	3	79	83
울산시	-	9	65	74
광주시	1	4	57	62
경기도	10	52	693	755
강원도	8	18	95	131
충북도	-	16	99	115
충남도	4	26	112	142
전북도	-	16	102	118
전남도	4	41	84	129
경북도	3	28	149	180
경남도	3	35	184	222
제주도	4	18	54	76
세종시	-	-	22	22

주1)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와 관광사업체조사의 수치가 상이 할 수 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유원시설업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전년대비 17.7% 증가한 3,000개소로 나타났으며, 기타 유원시설업의 증가폭(22.8%)이 높게 나타나 2,535개소가 운영 중임

[표 3-89]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개소, %)

연도	사업체 수			
	전체	종합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2014년	593	49	284	260
2015년	1,060	39	325	696
2016년	1,782	39	360	1,383
2017년	2,548	49	434	2,065
2018년	3,000	49	416	2,535
증감율	17.7	0.0	-4.1	22.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연도별 매출액 현황

- 유원시설업의 매출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상승세를 보이다 2018년도 기준 전년대비 3.1% 감소한 1조 9,709억 원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전년대비 4.8% 감소(1조 769억원)하였고, 일반 유원시설업은 11.2% 감소(5775억원)하였으며, 반면 기타 유원시설업은 전년대비 25.9% 증가(3,164억 원)하였음

[표 3-90]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백만 원, %)

연도	매출액			
	전체	종합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2014년	1,498,173	896,212	479,560	122,402
2015년	1,538,658	926,284	527,926	84,449
2016년	1,929,240	1,169,498	597,131	162,611
2017년	2,033,276	1,131,333	650,621	251,322
2018년	1,970,884	1,076,919	577,529	316,436
증감률	-3.1	-4.8	-11.2	25.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2019).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나. 유원시설업 종사자 현황

■ 연도별 유원시설업 종사자 수

- 유원시설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기준 전년대비 5.0% 감소한 26,189명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전년대비 5.2% 증가하여 8,840명으로 나타났고, 일반 유원시설업은 전년대비 29.7%가 감소한 8,063명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유원시설업은 9,286명으로 전년대비 20.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91]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명,%)

연도	종사자 수			
	전체	종합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2014년	17,031	8,323	7,220	1,489
2015년	17,224	7,009	7,823	2,392
2016년	23,683	7,695	9,351	6,637
2017년	27,561	8,407	11,462	7,692
2018년	26,189	8,840	8,063	9,286
증감율	-5.0	5.2	-29.7	20.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현황

- 2018년도 기준 유원시설업의 종사자 규모현황을 살펴보면 1명-5명미만이 전체의 66.5%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명-10명 미만이 20.9%로 높게 나타났으며, 1개소 평균 종사자 수는 8.7명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 유원시설업은 50명 이상이 59.2%(1개소 평균 종사자 수: 180.4명) 높게 나타났고, 일반 유원시설업은 1명-5명 미만이 32.0%(1개소 평균 종사자 수: 19.4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유원시설업은 1명-5명 미만이 73.3%(1개소 평균 종사자 수: 3.7명)로 높게 나타남

[표 3-92] 유원시설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전체	1명~5명 미만	5명~10 명 미만	10명~20 명 미만	20명~50 명 미만	50명 이 상	1개소 평균 종사자 수
전체	3,000 (100.0)	1,994 (66.5)	628 (20.9)	226 (7.5)	93 (3.1)	59 (2.0)	8.7
종합유원 시설업	49 (100.0)	3 (6.1)	4 (8.2)	7 (14.3)	6 (12.2)	29 (59.2)	180.4
일반유원 시설업	416 (100.0)	133 (32.0)	98 (23.6)	82 (19.7)	73 (17.5)	30 (7.2)	19.4
기타유원 시설업	2,535 (100.0)	1,858 (73.3)	526 (20.7)	137 (5.4)	14 (0.6)	0	3.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사업체별 종사자 연령대 분포 현황

- 2018년도 기준 유원시설업 사업체별 종사자 연령대 분포현황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32.5%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세~40세 미만 20.0%, 40세~50세 미만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30세 미만이 61.0%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 유원시설업은 30세 미만이 47.1%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유원시설업 역시 30세 미만이 전체의 67.0%로 높게 나타남

[표 3-93] 유원시설업 분야 사업체별 연령대 분포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전체	30세 미 만	30세~40 세 미만	40세~50 세 미만	50세~60 세 미만	60세~65 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23,463 (100.0)	13,622 (58.1)	4,103 (17.5)	2,915 (12.4)	2,214 (9.4)	434 (1.8)	174 (0.7)
종합유원 시설업	8,833 (100.0)	5,389 (61.0)	1,362 (15.4)	1,059 (12.0)	868 (9.8)	119 (1.3)	36 (0.4)
일반유원 시설업	7,868 (100.0)	3,705 (47.1)	1,583 (20.1)	1,254 (15.9)	965 (12.3)	278 (3.5)	83 (1.1)
기타유원 시설업	6,763 (100.0)	4,528 (67.0)	1,158 (17.1)	603 (8.9)	381 (5.6)	38 (0.6)	55 (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2018년도 기준 유원시설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47.3%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용근로자가 41.7%로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 유원시설업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52.1%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 유원시설업은 상용근로자가 51.8%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유원시설업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44.8%로 높게 나타남

[표 3-94] 유원시설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전체	26,189 (100.0)	2,180 (8.3)	546 (2.1)	10,915 (41.7)	12,397 (47.3)	151 (0.6)
종합유원시설업	8,840 (100.0)	3 (0.0)	5 (0.1)	4,222 (47.8)	4,609 (52.1)	0
일반유원시설업	8,063 (100.0)	136 (1.7)	59 (0.7)	4,176 (51.8)	3,627 (45.0)	65 (0.8)
기타유원시설업	9,286 (100.0)	2,042 (22.0)	482 (5.2)	2,517 (27.1)	4,162 (44.8)	85 (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2018년도 기준 유원시설업의 연간 신규 채용현황은 2,158명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8.8%, 여성 41.2%로 나타남

[표 3-95] 유원시설업 신규 채용 및 이직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간 신규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158 (100.0)	1,268 (58.8)	890 (41.2)	1,536 (100.0)	854 (55.6)	682 (44.4)
종합유원시설업	670 (100.0)	413 (61.6)	257 (38.4)	508 (100.0)	321 (63.2)	186 (36.6)
일반유원시설업	761 (100.0)	444 (58.3)	316 (41.5)	630 (100.0)	371 (58.9)	259 (41.1)
기타일반시설업	727 (100.0)	410 (56.4)	317 (43.6)	399 (100.0)	161 (40.4)	237 (59.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남성이 61.6%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유원시설업은 남성이 58.3%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유원시설업 역시 남성이 56.4%로 높게 나타남
- 2018년도 기준 유원시설업의 연간 이직자는 1,536명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5.6%, 여성 44.4%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남성이 63.2%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유원시설업은 남성이 58.9%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유원시설업은 여성이 9.4%로 높게 나타남

■ 자격증 보유현황

- 2018년도 기준 유원시설업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관광통역안내사의 비율이 전체의 48.9%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 자격증이 3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관광통역안내사가 50.7%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유원시설업은 기타 자격증이 49.4%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유원시설업은 관광통역안내사가 100.0%로 높게 나타남

[표 3-96] 유원시설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전체	806 (100.0)	394 (48.9)	77 (9.6)	12 (1.5)	8 (1.0)	11 (1.4)	21 (2.6)	283 (35.1)
종합유원 시설업	578 (100.0)	293 (50.7)	53 (9.2)	8 (1.4)	4 (0.7)	11 (1.9)	13 (2.2)	196 (33.9)
일반유원 시설업	174 (100.0)	51 (29.3)	21 (12.1)	4 (2.3)	5 (2.9)	0	7 (4.0)	86 (49.4)
기타유원 시설업	54 (100.0)	50 (92.6)	4 (7.4)	0	0	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다. 영업 현황

■ 연간 영업 개월 수

- 2018년도 기준 유원시설업의 연간 영업 개월 수를 살펴보면 10개 이상이 전체의 87.0%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업종별 연평균 영업 개월 수는 11.1개월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10개월 이상이 81.6%(연평균 영업개월 수:

10.7개월)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유원시설업은 10개월 이상이 3.8%(연평균 영업 개월 수: 9.7개월)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유원시설업은 10개월 이상이 9.2%(연평균 영업개월 수: 11.3개월) 높게 나타남

[표 3-97] 유원시설업 분야 연간 영업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 개월)

연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이하	7개월~9 개월 이하	10개월 이 상	연평균 영 업 개월 수
전체	3,000 (100.0)	150 (5.0)	124 (4.1)	117 (3.9)	2,609 (87.0)	11.1
종합유원시설업	49 (100.0)	3 (6.1)	5 (10.2)	2 (4.1)	40 (81.6)	10.7
일반유원시설업	416 (100.0)	71 (17.1)	22 (5.3)	16 (3.8)	307 (73.8)	9.7
기타유원시설업	2,535 (100.0)	76 (3.0)	98 (3.9)	100 (3.9)	2,262 (89.2)	11.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1일 평균 영업시간

- 2018년도 기준 유원시설업 1일평균 영업시간을 살펴보면 8시간-10시간 미만이 42.8%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시간-12시간 미만이 29.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평균 영업시간은 10.2시간으로 나타남

[표 3-98] 유원시설업 분야 일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 시간)

연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 간 미만	12시간~14시 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전체	3,000 (100.0)	283 (9.4)	1,285 (42.8)	873 (29.1)	312 (10.4)	246 (8.2)	10.2
종합유원 시설업	49 (100.0)	0	19 (38.8)	12 (24.5)	8 (16.3)	10 (20.4)	12.4
일반유원 시설업	416 (100.0)	35 (8.4)	265 (63.7)	56 (13.5)	12 (2.9)	48 (11.5)	10.0
기타유원 시설업	2,535 (100.0)	248 (9.8)	1,001 (39.5)	805 (31.8)	292 (11.5)	188 (7.4)	1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38.8%(일평균 영업시간: 12.4시간)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유원시설업은 8시간-10시간미만이 63.7%(일평균 영업시간: 10.0시간)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유원시설업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39.5%(일평균 영업시간: 10.2시간)로 높게 나타남³⁰⁾

■ 월평균 휴무일 수

- 2018년도 기준 유원시설업 월평균 휴무일 수 현황을 살펴보면 없음이 전체의 55.8%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일~5일 37.9%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휴무일 수는 1.9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없음이 87.8%(월평균 휴무일 수: 0.7일), 일반유원시설업은 없음이 67.8%(월평균 휴무일 수: 1.8일), 기타유원시설업 역시 없음이 53.3%(월평균 휴무일 수: 1.9일)로 나타남

[표 3-99] 유원시설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 일)

연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평균 휴무일 수
전체	3,000 (100.0)	1,675 (55.8)	1,138 (37.9)	162 (5.4)	26 (0.9)	1.9
종합유원시설업	49 (100.0)	43 (87.8)	4 (8.2)	3 (6.1)	0	0.7
일반유원시설업	416 (100.0)	282 (67.8)	94 (22.6)	32 (7.7)	8 (1.9)	1.8
기타유원시설업	2,535 (100.0)	1,350 (53.3)	1,040 (41.0)	127 (5.0)	18 (0.7)	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30)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10시간-12시간 미만 역시 전체의 1.8%로 높게 나타남

7)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사업이나 시설 가운데 관광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2019년부터 관광관련업종을 포함할 수 있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 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 체험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기타관광 편의시설업(제주)으로 12가지로 구분됨³¹⁾

가. 사업체 현황

■ 전국 관광편의시설업 사업체 수

- 2019년 말 기준으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4,372개소로 관광유흥음식점업 12개소, 관광극장유흥업 131개소,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356개소, 관광식당업 1,721개소, 관광순환버스업 55개소, 관광사진업 20개소,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2개소, 관광펜션업 605개소, 관광궤도업 18개소, 한옥체험업 1,359개소, 관광면세업 62개소, 관광지원서비스업 17개소, 기타관광 편의시설업(제주) 4개소 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744개소로 가장 많은 업종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 643개소, 경북 521개소, 전북 402개소 등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세종(12개소), 충북(58개소), 광주(60개소) 등의 지역의 관광편의시설업의 분포는 낮게 나타남

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2019년 기준 시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자료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표 3-100] 전국 시·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 체	643	184	155	137	60	72	81	12	744	188	58	170	402	372	521	276	297	4,372
관광유희음식점업	0	0	1	0	1	0	1	0	6	0	0	1	0	0	1	0	1	12
관광극장유희업	15	8	6	7	1	12	3	0	29	4	6	5	5	3	8	15	4	131
외국인 전용유희음식점업	3	16	18	2	0	1	26	0	175	5	1	4	17	4	31	48	5	356
관광 식당업	452	146	98	88	49	59	43	7	407	29	12	21	81	7	11	54	157	1,721
관광순환버스업	3	2	4	3	0	0	1	0	8	12	0	0	2	6	3	10	1	55
관광 사진업	11	1	0	0	0	0	0	0	2	0	0	0	2	0	0	0	4	20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0	2
관광 펜션업	0	0	0	18	0	0	5	1	65	77	6	92	34	64	54	85	104	605
관광 궤도업	0	0	2	1	0	0	0	0	2	5	2	0	1	3	1	1	0	18
한옥 체험업	139	2	24	12	9	0	2	4	47	33	28	46	259	282	410	62	0	1,359
관광면세업	9	7	2	6	0	0	0	0	1	23	2	1	1	2	0	1	7	62
관광지원 서비스업*	11	2	0	0	0	0	0	0	2	0	0	0	0	1	1	0	0	17
기타관광편의시설업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14

주) 관광지원서비스업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신설됨에 따라 2018년 기준 분석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2019년 12월 31일 기준), 재인용.

- 연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사업체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소폭 증가하여, 2018년 기준 4,077개소로 나타남(전년대비 약 4.8% 증가)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식당업의 1,617개소로 가장 많은 업체가 운영중에 있으며, 다음으로 한옥체험업 1,284개소, 관광펜션업 564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01]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개소)

구분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율
전체	5,014	4,855	3,708	3,884	4,077	5.0
관광유흥음식점업	34	6	10	12	10	-16.7
관광극장유흥업	152	106	94	136	110	-19.1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415	454	440	446	358	-19.7
관광 식당업	2,119	1,386	1,476	1,489	1,617	8.6
관광순환버스업	42	48	52	62	58	-6.5
관광 사진업	14	12	13	16	17	6.3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17	1	2	2	2	-
관광 펜션업	386	391	406	409	564	37.9
관광 궤도업	18	9	9	13	16	23.1
한옥 체험업	927	1,108	1,188	1,266	1,284	1.4
관광면세업	-	-	18	33	41	24.2

주1) 시내순환관광업은 2016년부터 관광순환버스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주2) 관광면세업은 2016년부터 신설되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연도별 매출액 현황

- 관광편의시설업의 연도별 매출액은 201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8년 기준 약 4.9%로 증가한 1조 9,822억 원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면세업의 경우 전년대비 106.4%의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관광극장 유흥업(40.4%), 관광순환버스업(37.3%), 관광펜션업(29.8%), 관광유흥음식점업(28.8%) 등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관광사진업 27.9% 감소)

[표 3-102]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율
전체	1,760,749	1,133,617	1,569,612	1,889,285	1,982,210	4.9
관광유흥음식점업	68,888	5,196	4,753	6,122	9,310	52.1
관광극장유흥업	179,416	134,383	143,002	200,796	165,041	-17.8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59,929	61,428	54,775	55,026	39,354	-28.5
관광 식당업	1,273,260	805,543	1,157,048	1,303,563	1,375,030	5.5
관광순환버스업	21,318	23,615	34,310	47,124	46,026	-2.3
관광 사진업	6,524	5,219	6,266	4,515	4,284	-5.1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26,274	2,947	8,947	9,700	9,988	3.0
관광 펜션업	31,007	29,417	30,717	39,872	50,756	27.3
관광 궤도업	58,772	16,669	18,032	20,993	36,839	75.5
한옥 체험업	20,346	2,864	31,734	36,425	60,220	65.3
관광면세업	-	-	80,028	165,150	18,5360	12.2

주1) 시내순환관광업은 2016년부터 관광순환버스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주2) 관광면세업은 2016년부터 신설되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나.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 현황

■ 연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 수

- 관광편의시설업의 연도별 종사자 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소폭 증가하여 2018년도 기준 32,785명으로 나타남(전년대비 13.1% 증가)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증가한 업종은 관광식당업 20,306명(19.5% ↑),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70명(12.9% ↑), 관광펜션업 1,643명(32.4% ↑), 관광궤도업 262명(7.8% ↑), 한옥체험업 3,334명(20.1% ↑), 관광면세업 1,215명(53.4% ↑)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감소한 업종은 관광유흥음식점업 114명(34.1% ↓), 관광극장유흥업 3,179명(13.1%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1,627명(15.7% ↓), 관광순환버스업 991명(8.0% ↓), 관광사진업 45명(22.4% ↓)으로 나타남

[표 3-103]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명, %)

구분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율
전체	39,506	27,902	27,110	28,998	32,785	13.1
관광유흥음식점업	1,037	127	184	173	114	-34.1
관광극장유흥업	4,486	2,999	2,686	3,659	3,179	-13.1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2,536	2,565	1,917	1,929	1,627	-15.7
관광 식당업	24,113	15,159	16,846	16,988	20,306	19.5
관광순환버스업	671	770	985	1,077	991	-8.0
관광 사진업	93	77	106	58	45	-22.4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156	18	60	62	70	12.9
관광 펜션업	1,305	1,220	1,096	1,241	1,643	32.4
관광 궤도업	1,127	148	193	243	262	7.8
한옥 체험업	2,395	2,507	2,772	2,776	3,334	20.1
관광면세업	-	-	265	792	1,215	53.4

주1) 시내순환관광업은 2016년부터 관광순환버스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주2) 관광면세업은 2016년부터 신설되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현황

- 2018년도 기준 관광편의시설업의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현황을 살펴보면 1명-5명 미만이 전체의 52.6%로 높게 나타났으며, 1개소 평균 종사자 수는 8.0명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유흥음식점업은 5명-10명 미만이 40.0%(1개소 평균 종사자 수: 11.4명)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극장유흥업은 20명-50명 미만이 30.0%(1개소 평균 종사자 수: 28.9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은 1명-5명 미만이 57.0%(1개소 평균 종사자 수: 4.5명)로 높게 나타남
- 관광식당업은 5명-10명 미만이 37.8%(1개소 평균 종사자 수: 12.6명), 관광순환버스업은 10명-20명 미만이 37.9%(1개소 평균 종사자 수: 17.1명), 관광사진업 1명-5명 미만 76.5%(1개소 평균 종사자 수: 2.6명),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10명-20명 미만/50명 이상 50%(1개소

평균 종사자 수: 35.0명)로 각각 높게 나타남

- 관광펜션업은 1명~5명 미만인 86.3%(1개소 평균 종사자 수: 2.9명), 관광 퀘도업 5명~10명 미만/20명~50명 미만이 37.5%(1개소 평균 종사자 수: 16.4명), 한옥체험업 1명~5명 미만 90.4%(1개소 평균 종사자 수: 2.6명), 관광면세점업 5명~10명 미만 26.8%(1개소 평균 종사자 수: 29.6명)로 나타남

[표 3-104]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사업체별 종사자 분포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1명~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1개소 평균 종사자 수
전체	4,077 (100.0)	2,143 (52.6)	963 (23.6)	617 (15.1)	250 (6.1)	104 (2.6)	8.0
관광유희음식점업	10 (100.0)	2 (20.0)	4 (40.0)	2 (20.0)	2 (20.0)	0	11.4
관광극장유희업	110 (100.0)	7 (6.4)	22 (20.0)	29 (26.4)	33 (30.0)	18 (16.4)	28.9
외국인 전용 유희 음식점업	358 (100.0)	204 (57.0)	138 (38.5)	17 (4.7)	0	0	4.5
관광 식당업	1,617 (100.0)	248 (15.3)	612 (37.8)	501 (31.0)	180 (11.1)	75 (4.6)	12.6
관광순환버스업	58 (100.0)	12 (20.7)	6 (10.3)	22 (37.9)	16 (27.6)	3 (5.2)	17.1
관광 사진업	17 (100.0)	13 (76.5)	4 (23.5)	0	0	0	2.6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2 (100.0)	0	0	1 (50.0)	0	1 (50.0)	35.0
관광 펜션업	564 (100.0)	487 (86.3)	75 (13.3)	2 (0.4)	0	0	2.9
관광 퀘도업	16 (100.0)	1 (6.3)	6 (37.5)	3 (18.8)	6 (37.5)	0	16.4
한옥 체험업	1,284 (100.0)	1,161 (90.4)	84 (6.5)	35 (2.7)	3 (0.2)	0	2.6
관광면세업	41 (100.0)	8 (19.5)	11 (26.8)	6 (14.6)	10 (24.4)	7 (17.1)	29.6

주1) 시내순환관광업은 2016년부터 관광순환버스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주2) 관광면세업은 2016년부터 신설되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사업체별 종사자 연령대 분포 현황

○ 2018년도 기준 관광편의시설업의 사업체별 종사자 연령대 분포현황 살펴보면 40세~50세

미만이 26.7%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세 미만 2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유희음식점업은 50세~60세 미만이 59.3%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극장유희업 40세~50세 미만 41.3%, 외국인 전용 유희음식점업 30세 미만 58.3%, 관광 식당업 30세 미만 29.6%, 관광순환버스업 50세~60세 미만 37.1%로 각각 높게 나타남
- 관광사진업은 40세~50세 미만/50세~60세 미만 30.0%,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30세~40세 미만 60.0%, 관광펜션업 50세~60세 미만 40.4%, 관광케도업 40세~50세 30.9%, 한옥체험업 50세~60세 미만 30.4%, 관광면세업 30세 미만 32.9%로 각각 높게 나타남

[표 3-105]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령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체	30세 미만	30세~40세 미만	40세~50세 미만	50세~60세 미만	60세~65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27,805 (100.0)	7,215 (25.9)	5,762 (20.7)	7,421 (26.7)	5,506 (19.8)	1,438 (5.2)	463 (1.7)
관광유희음식점업	108 (100.0)	2 (1.9)	8 (7.4)	28 (25.9)	64 (59.3)	6 (5.6)	0
관광극장유희업	3,706 (100.0)	341 (11.1)	502 (16.3)	1,269 (41.3)	770 (25.0)	187 (6.1)	7 (0.2)
외국인 전용 유희 음식점업	1,188 (100.0)	693 (58.3)	319 (26.9)	77 (6.5)	99 (8.3)	0	0
관광 식당업	18,624 (100.0)	5,517 (29.6)	4,014 (21.6)	5,003 (26.9)	3,245 (17.4)	685 (3.7)	160 (0.9)
관광순환버스업	983 (100.0)	46 (4.7)	106 (10.8)	220 (22.4)	365 (37.1)	193 (19.6)	55 (5.6)
관광 사진업	30 (100.0)	4 (13.3)	2 (6.7)	9 (30.0)	9 (30.0)	0	6 (20.0)
여객자동차 터미 널시설업	70 (100.0)	0	42 (60.0)	11 (15.7)	10 (14.3)	3 (4.3)	4 (5.7)
관광 펜션업	727 (100.0)	49 (6.7)	97 (13.3)	120 (16.5)	294 (40.4)	135 (18.6)	32 (4.4)
관광 케도업	262 (100.0)	35 (13.4)	73 (27.9)	81 (30.9)	49 (18.7)	22 (8.4)	1 (0.4)
한옥 체험업	1,545 (100.0)	136 (8.8)	239 (15.5)	312 (20.2)	469 (30.4)	195 (12.6)	193 (12.5)
관광면세업	1,193 (100.0)	393 (32.9)	360 (30.2)	292 (24.5)	131 (11.0)	12 (1.0)	4 (0.3)

주1) 시내순환관광업은 2016년부터 관광순환버스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주2) 관광면세업은 2016년부터 신설되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2018년 기준 관광편의시설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13.8%로 높게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상용근로자가 61.4%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극장유흥업 기타종사자 42.9%,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상용근로자 39.0%, 관광식당업 상용근로자 79.1%, 관광순환버스업 상용근로자 92.6%로 각각 높게 나타남
 - 관광사진업은 상용근로자가 51.1%,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상용근로자 92.9%, 관광펜션업 자영업자 32.2%, 관광궤도업 상용근로자 82.8%, 한옥체험업 상용근로자 31.7%, 관광면세업 상용근로자 97.1%로 각각 높게 나타남

[표 3-106]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전체	32,785 (100.0)	3,370 (10.3)	1,610 (4.9)	21,583 (65.8)	4,533 (13.8)	1,689 (5.2)
관광유흥 음식점업	114 (100.0)	6 (5.3)	0	70 (61.4)	12 (10.5)	26 (22.8)
관광극장 유흥업	3,179 (100.0)	99 (3.1)	4 (0.1)	891 (28.0)	821 (25.8)	1,364 (42.9)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1,627 (100.0)	358 (22.0)	81 (5.0)	635 (39.0)	368 (22.6)	184 (11.3)
관광 식당업	20,305 (100.0)	1,327 (6.5)	355 (1.7)	16,067 (79.1)	2,469 (12.2)	88 (0.4)
관광 순환버스업	991 (100.0)	6 (0.6)	2 (0.2)	918 (92.6)	50 (5.0)	15 (1.5)
관광 사진업	45 (100.0)	15 (33.3)	0	23 (51.1)	6 (13.3)	0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70 (100.0)	0	0	65 (92.9)	5 (7.1)	0
관광 펜션업	1,643 (100.0)	529 (32.2)	387 (23.6)	458 (27.9)	269 (16.4)	0
관광 궤도업	262 (100.0)	0	0	217 (82.8)	45 (17.2)	0
한옥 체험업	3,334 (100.0)	1,012 (30.4)	77 (23.3)	1,058 (31.7)	476 (14.3)	11 (0.3)
관광면세업	1,215 (100.0)	18 (1.5)	4 (0.3)	1,180 (97.1)	11 (0.9)	2 (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관광편의시설업의 연간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총 3,393명이 채용되었고, 이중 남성이 46.5%, 여성이 53.5%의 비율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식당업이 4,829명을 채용함으로써 관광편의시설업 전체의 76.2%(남성:50.1%, 여성: 49.9%)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396명(관광편의시설업 중 6.2%) 등의 채용현황을 나타냄
- 관광편의시설업의 연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총 5,702명이 이직하였고, 이중 남성이 45.4%, 여성이 54.6%의 비율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식당업이 4,399명이 이직함으로써 전체의 77.1%(남성: 50.2%, 여성: 49.8%)으로 가장 높은 이직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이 424명(관광편의시설업중 4.4%) 등의 이직현황을 나타냄

[표 3-107]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단위 : 명,%)

연도	연간 신규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337 (100.0)	2,944 (46.5)	3,393 (53.5)	5,702 (100.0)	2,586 (45.4)	3,115 (54.6)
관광유흥음식점업	14 (100.0)	14 (100.0)	0	14 (100.0)	14 (100.0)	0
관광극장유흥업	227 (100.0)	143 (63.0)	84 (37.0)	235 (100.0)	147 (62.6)	88 (37.4)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396 (100.0)	0	396 (100.0)	424 (100.0)	0	424 (100.0)
관광 식당업	4,829 (100.0)	2,419 (50.1)	2,410 (49.9)	4,399 (100.0)	2,208 (50.2)	2,191 (49.8)
관광순환버스업	128 (100.0)	103 (80.5)	25 (19.5)	123 (100.0)	106 (86.2)	17 (13.8)
관광 사진업	2 (100.0)	0	2 (100.0)	0	0	0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1 (100.0)	1 (100.0)	0	1 (100.0)	1 (100.0)	0
관광 펜션업	89 (100.0)	73 (82.0)	16 (18.0)	30 (100.0)	29 (96.7)	1 (3.3)
관광 궤도업	63 (100.0)	44 (69.8)	19 (30.2)	44 (100.0)	32 (72.7)	12 (27.3)
한옥 체험업	226 (100.0)	59 (26.1)	167 (73.9)	307 (100.0)	13 (4.2)	294 (95.8)
관광면세업	363 (100.0)	88 (24.2)	274 (75.5)	126 (100.0)	36 (28.6)	89 (70.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재인용.

■ 자격증 보유현황

- 2018년 기준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의 자격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31.2%로 가장 많은 보유율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기타 자격증 보유자가 전체의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관광통역안내사가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광식당업은 기타자격증이 65.3%, 관광순환버스업은 국외여행인솔자 40.4%, 고나광사진업은 관광통역안내사가 50.0%, 관광케도업은 기타 자격증이 100.0%, 한옥체험업 기타자격증이 66.7%, 관광면세업은 관광통역안내사가 100.0%로 각각 높게 나타남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은 자격증 소지 종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08]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종사자 자격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전체	1,001 (100.0)	312 (31.2)	39 (3.9)	38 (3.8)	1 (0.1)	15 (1.5)	0	596 (59.5)
관광유흥음 식점업	0	0	0	0	0	0	0	0
관광극장유 흥업	0	0	0	0	0	0	0	0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5 (100.0)	5 (100.0)	0	0	0	0	0	0
관광 식당업	812 (100.0)	266 (32.8)	0	0	0	15 (1.8)	0	530 (65.3)
관광순환버 스업	94 (100.0)	15 (16.0)	36 (38.3)	38 (40.4)	0	0	0	5 (5.3)
관광 사진업	4 (100.0)	2 (50.0)	0	0	0	0	0	2 (50.0)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0	0	0	0	0	0	0	0
관광 펜션업	0	0	0	0	0	0	0	0
관광 케도업	10 (100.0)	0	0	0	0	0	0	10 (100.0)
한옥 체험업	72 (100.0)	20 (27.8)	3 (4.2)	0	1 (1.4)	0	0	48 (66.7)
관광면세업	4 (100.0)	4 (100.0)	0	0	0	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다. 영업 현황

■ 연간 영업 개월 수

- 2018년 기준 관광편의시설업의 연간 영업 개월 수를 살펴보면 10개월 이상 영업하는 업체가 전체의 9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영업 개월 수는 11.6개월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유희음식점업은 10개월 이상이 100.0%(연평균 영업 개월 수: 12.0개월)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극장유희업 10개월 이상이 90.0%(연평균 영업 개월 수: 11.5개월), 외국인 전용 유희음식점업 10개월 이상이 88.5%(연평균 영업 개월 수: 11.3개월), 관광식당업 10개월 이상이 95.7%(연평균 영업 개월 수: 11.7개월), 관광순환버스업 10개월 이상이 94.8%(연평균 영업 개월 수: 11.7개월)로 각각 높게 나타남

[표 3-109]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간 영업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개월,%)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6개월 이하	7개월~9개월 이하	10개월 이상	연평균 영업 개월 수
전체	4,077 (100.0)	60 (1.5)	87 (2.1)	108 (2.6)	3,821 (93.7)	11.6
관광유희 음식점업	10 (100.0)	0	0	0	10 (100.0)	12.0
관광극장 유희업	110 (100.0)	0	4 (3.6)	7 (6.4)	99 (90.0)	11.5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358 (100.0)	18 (5.0)	3 (0.8)	20 (5.6)	317 (88.5)	11.3
관광 식당업	1,617 (100.0)	11 (0.7)	35 (2.2)	24 (1.5)	1,547 (95.7)	11.7
관광순환 버스업	58 (100.0)	2 (3.4)	0	1 (1.7)	55 (94.8)	11.7
관광 사진업	17 (100.0)	0	0	2 (11.8)	15 (88.2)	11.5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2 (100.0)	0	0	0	2 (100.0)	12.0
관광 펜션업	564 (100.0)	0	4 (0.7)	16 (2.8)	544 (96.5)	11.8
관광 궤도업	16 (100.0)	0	0	3 (18.8)	13 (81.3)	11.1
한옥 체험업	1,284 (100.0)	30 (2.3)	42 (3.3)	32 (2.5)	1,180 (91.9)	11.5
관광면세업	41 (100.0)	0	0	3 (7.3)	38 (92.7)	11.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관광사진업은 10개월 이상이 88.2%(연평균 영업 개월 수: 11.5개월),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10개월 이상이 100.0%(연평균 영업 개월 수: 12.0개월), 관광펜션업 10개월 이상이 96.5%(연평균 영업 개월 수: 11.8개월), 관광케도업 10개월 이상이 81.3%(연평균 영업 개월 수: 11.1개월), 한옥체험업 10개월 이상이 91.9%(연평균 영업 개월 수: 11.5개월), 관광면세업 10개월 이상이 92.7%(연평균 영업 개월 수: 11.8개월)로 각각 높게 나타남

■ 1일 평균 영업시간

- 2018년 기준 관광편의시설업의 1일평균 영업시간을 살펴보면 14시간 이상이 전체의 38.2%로 높게 나타났고, 일평균 영업시간은 14.9시간으로 나타남

[표 3-110]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1일 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시간,%)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전체	4,077 (100.0)	155 (3.8)	736 (18.1)	826 (20.3)	802 (19.7)	1,558 (38.2)	14.9
관광유흥 음식점업	10 (100.0)	4 (40.0)	6 (60.0)	0	0	0	7.2
관광극장 유흥업	110 (100.0)	48 (43.6)	29 (26.4)	26 (23.6)	4 (3.6)	4 (3.6)	8.1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358 (100.0)	71 (19.8)	259 (72.3)	18 (5.0)	0	9 (2.5)	8.3
관광 식당업	1,617 (100.0)	7 (0.4)	229 (14.2)	728 (45.0)	579 (35.8)	75 (4.6)	11.1
관광순환 버스업	58 (100.0)	0	49 (84.5)	6 (10.3)	3 (5.2)	0	8.6
관광 사진업	17 (100.0)	0	11 (64.7)	4 (23.5)	2 (11.8)	0	9.3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2 (100.0)	0	1 (50.0)	0	0	1 (50.0)	14.5
관광 펜션업	564 (100.0)	5 (0.9)	5 (0.9)	10 (1.8)	24 (4.3)	521 (92.4)	22.8
관광 케도업	16 (100.0)	0	10 (62.5)	3 (18.8)	1 (6.3)	1 (6.3)	10.7
한옥 체험업	1,284 (100.0)	20 (1.6)	113 (8.8)	21 (1.6)	185 (14.4)	945 (73.6)	19.3
관광면세업	41 (100.0)	1 (2.4)	24 (58.5)	11 (26.8)	3 (7.3)	3 (7.3)	9.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유흥음식점업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60.0%(일평균 영업시간: 7.2시간)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극장유흥업 8시간 미만이 43.6%(일평균 영업시간: 8.1시간),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8시간-10시간 미만이 72.3%(일평균 영업시간: 8.3시간), 관광식당업 10시간-12시간 미만이 45.0%(일평균 영업시간: 11.1시간), 관광순환버스업 8시간-10시간 미만이 84.5%(일평균 영업시간: 8.6시간)로 각각 높게 나타남
- 관광사진업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64.7%(일평균 영업시간: 9.3시간),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8시간-10시간 미만이 50.0%(일평균 영업시간: 14.5시간), 관광펜션업 14시간 이상이 92.4%(일평균 영업시간: 22.8시간), 관광케도업 8시간-10시간 미만이 62.5%(일평균 영업시간: 10.7시간), 한옥체험업 14시간 이상이 73.6%(일평균 영업시간: 19.3시간), 관광면세업 8시간-10시간 미만이 58.5%(일평균 영업시간: 9.6시간)로 각각 높게 나타남

■ 월평균 휴무일 수

- 2018년 기준 관광편의시설업의 월평균 휴무일 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없음이 72.2%로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휴무일 수는 1.1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없음이 80.0%(월평균 휴무일 수: 1.0일)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극장유흥업 없음이 83.6%(월평균 휴무일 수: 0.7일)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1일-5일이 67.3%(월평균 휴무일 수: 2.6일), 관광식당업 없음이 58.8%(월평균 휴무일 수: 1.4일), 관광순환버스업 6일-10일이 50.0%(월평균 휴무일 수: 4.9일)로 각각 높게 나타남
- 관광사진업은 6일-10일이 52.9%(월평균 휴무일 수: 5.0일),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없음이 100.0%(월평균 휴무일 수: 0.0일), 관광펜션업 없음이 98.0%(월평균 휴무일 수: 1.0일), 관광케도업 없음이 93.8%(월평균 휴무일 수: 0.7일), 없음이 90.3%(월평균 휴무일 수: 0.5일), 관광면세업 없음이 90.2%(월평균 휴무일 수: 0.5일)로 각각 높게 나타남

[표 3-111]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 일, %)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평균 휴무일 수
전체	4,077 (100.0)	2,944 (72.2)	1,027 (25.2)	96 (2.4)	9 (0.2)	1.1
관광유흥 음식점업	10 (100.0)	8 (80.0)	2 (20.0)	0	0	1.0
관광극장 유흥업	110 (100.0)	92 (83.6)	15 (13.6)	4 (3.6)	0	0.7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358 (100.0)	107 (29.9)	241 (67.3)	0	9 (2.5)	2.6
관광 식당업	1,617 (100.0)	950 (58.8)	648 (40.1)	18 (1.1)	0	1.4
관광순환버스업	58 (100.0)	17 (29.3)	12 (20.7)	29 (50.0)	0	4.9
관광 사진업	17 (100.0)	4 (23.5)	4 (23.5)	9 (52.9)	0	5.0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2 (100.0)	2 (100.0)	0	0	0	0.0
관광 펜션업	564 (100.0)	553 (98.0)	11 (2.0)	0	0	0.1
관광 궤도업	16 (100.0)	15 (93.8)	0	1 (6.3)	0	0.7
한옥 체험업	1,284 (100.0)	1,159 (90.3)	92 (7.2)	33 (2.6)	0	0.5
관광면세업	41 (100.0)	37 (90.2)	1 (2.4)	3 (7.3)	0	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8) 소 결³²⁾

○ 여행업은 관광산업 내 사업체 수 및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여행업의 증가 추세에 따라 시장 수요 특성에 부합하는 업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 여행업 등록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높은 창업율과 함께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어 진입장벽의 제고가 필요함
- 실제로 여행업은 국내외 환경에 매우 민감하며,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행업의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형여행사(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역시 최소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정부의 고용유지금을 지원받고 있음

32) 본 보고서의 소결은 2018년도 기준 관광·레저분야 사업체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됨에 따라 현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음

- 관광숙박업 분야 호텔업 중 관광호텔업은 3성 이하의 업체 비율(65.3%)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중소형 호텔의 종사자 수요가 높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공급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18년도 기준 전년대비 사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수가 2.6%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타호텔업의 증가(44.6%)와 관광호텔업의 유지(0.8%)에 따른 영향으로 예상됨
 - 또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전년대비 동일하지만 매출액(-11.6%) 및 종사자 수(-8.5%)가 감소됨에 따라 사업체의 전반적인 매출 감소에 따른 인력조정이 예상됨
-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사업체는 꾸준히 증가추세(전년대비 9.1%)를 보이고 있지만, 매출액(-7.5%) 및 종사자 수(-9.3%)의 감소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영세한 야영장 및 외국인관광도 시민박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야영장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인력의 수요가 예상됨
- 2018년도 기준 국제회의업은 전반적인(사업체, 매출액, 종사자 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제회의기획업의 영세성에 의한 매출액 감소들이 전반적인 업종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더욱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제회의업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시스템의 도입(언택트 등)과 관련 인력의 수요가 예상됨
- 카지노업의 경우 2014년 이후 17개 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나 종사자는 증가추세로 전년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 또한 전년대비 1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비중이 급격히 높은 카지노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입국 제한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사행산업 이미지로 정부 지원금 또한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유원시설업의 경우 사업체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출액(-3.1%) 및 종사자 수(-5.0%)가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도심형 소규모 유원시설업(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등)의 수가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관광편의시설업은 사업체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젊은층의 이용률이 높은 관광캐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반면 유흥음식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 유흥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등)의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음
 - 종사자 수 추이 역시 비슷한 현황을 보임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의 인력양성방안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또한 필요할 것임

4. 관광레저산업 인력 현황

1) 업종별 종사자 규모와 비중 추세변화

■ 업종별 종사자 규모 추세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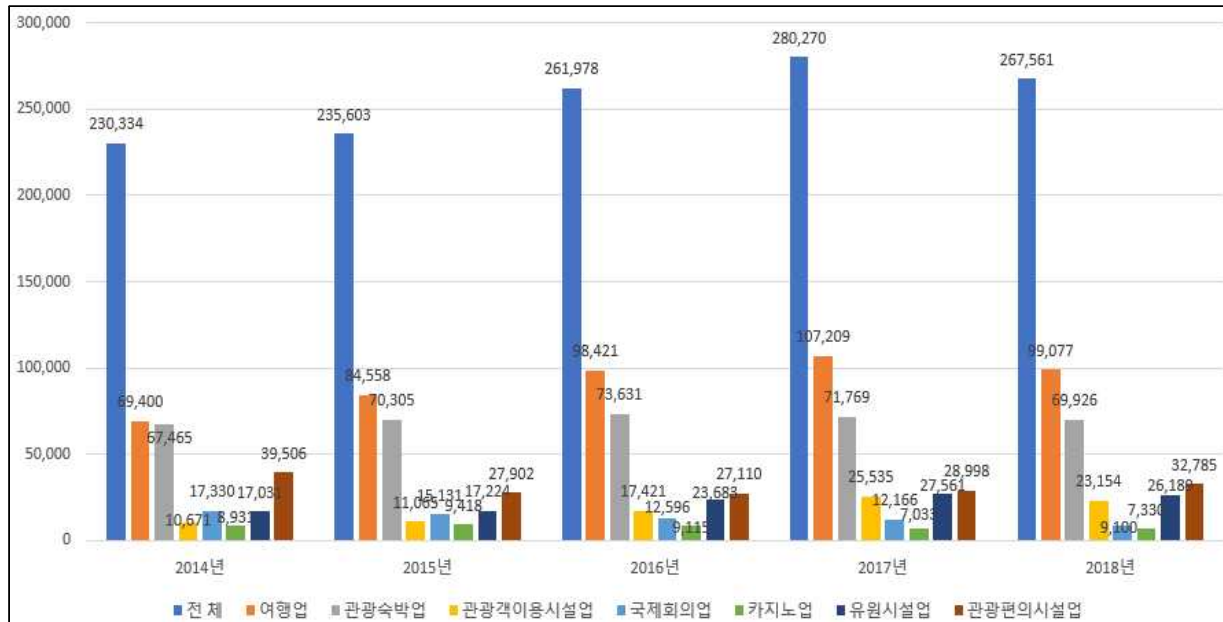
- 2018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 관광사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267,561명이며, 이 중 여행업이 99,07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관광숙박업(69,926명), 관광편의시설업(32,785명), 유원시설업(26,189명), 관광객이용시설업(23,154명), 국제회의업(9,100명), 카지노업(7,330명) 등의 순임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의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면 대부분 감소추세를 보이며 -4.5%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제회의업이 전년대비 -25.2%의 증감율을 보였음
 - 반면 관광편의시설업은 전년대비 13.1%의 높은 증감율을 보였으며, 카지노업 또한 4.2%의 증감율을 보였음

[표 3-112] 연도별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2014년~2018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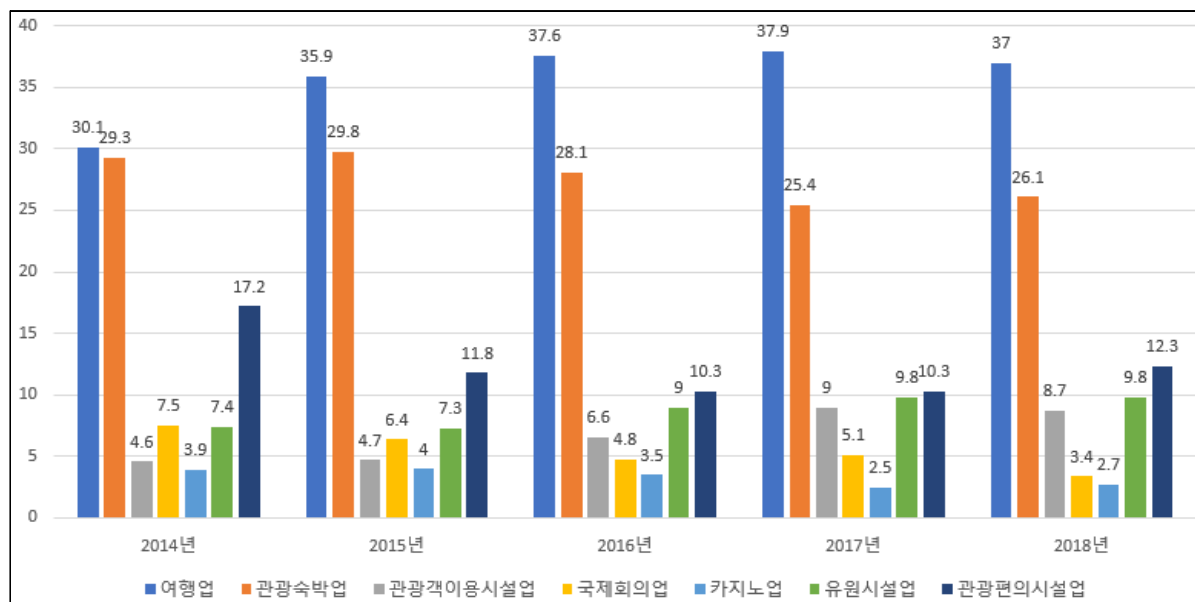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율 (`17년 대비)
전 체	230,334 (100.0)	235,603 (100.0)	261,978 (100.0)	280,270 (100.0)	267,561 (100.0)	-4.5
여행업	69,400 (30.1)	84,558 (35.9)	98,421 (37.6)	107,209 (37.9)	99,077 (37.0)	-7.6
관광숙박업	67,465 (29.3)	70,305 (29.8)	73,631 (28.1)	71,769 (25.4)	69,926 (26.1)	-2.6
관광객이용시설업	10,671 (4.6)	11,065 (4.7)	17,421 (6.6)	25,535 (9.0)	23,154 (8.7)	-9.3
국제회의업	17,330 (7.5)	15,131 (6.4)	12,596 (4.8)	12,166 (5.1)	9,100 (3.4)	-25.2
카지노업	8,931 (3.9)	9,418 (4.0)	9,115 (3.5)	7,033 (2.5)	7,330 (2.7)	4.2
유원시설업	17,031 (7.4)	17,224 (7.3)	23,683 (9.0)	27,561 (9.8)	26,189 (9.8)	-5.0
관광편의시설업	39,506 (17.2)	27,902 (11.8)	27,110 (10.3)	28,998 (10.3)	32,785 (12.3)	1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25]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종사자 변화 추이(2014-2018)

- 업종별 종사자 비중은 5년간 여행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평균 35.7%의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광숙박업이 전체 비중의 27.7%(5년 평균)로 높게 나타난 반면 카지노업의 경우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음(평균 3.3%)
- 카지노업의 경우 전체 업체 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 급격히 적어 전체 종사자의 비중 또한 낮게 나타남(2018년 기준 17개소)



[그림 3-26]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종사자 비중 추세(2014-2018)

2)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신규채용 규모

가. 전체 종사자 신규채용 규모

○ 2018년을 기준으로 관광·레저산업의 신규채용 규모는 40,033명으로 총 종사원의 약 15.0%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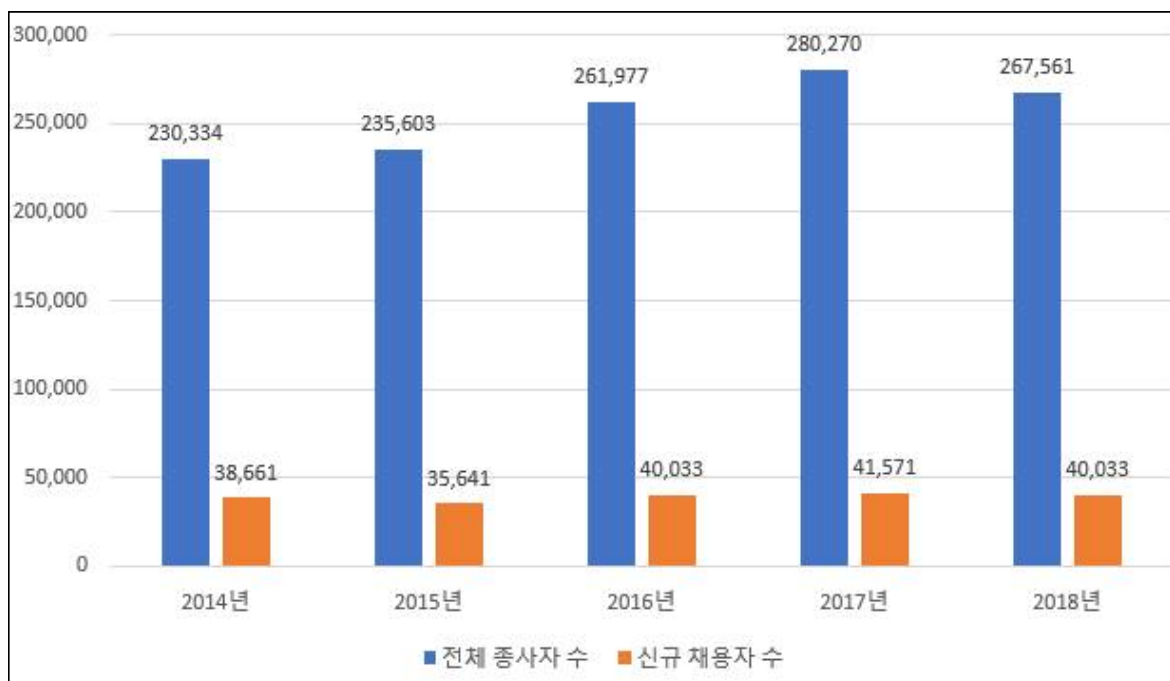
- 연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증가추세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고, 2018년 기준 전년대비 신규채용자 비중은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13] 관광레저산업 신규채용 동향(2014년~2018년)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종사자 수	230,334	235,603	261,977	280,270	267,561
신규 채용자 수	38,661	35,641	40,033	41,571	40,033
신규채용자 비중	16.8	15.1	15.3	14.8	15.0
증감율 (채용자 비중)	-	-10.1	1.3	-3.3	1.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2019).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27]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신규채용 동향

나.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업종별 신규 채용현황(매출액·종사자 규모별)

■ 여행업의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2018년 기준 여행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이 전체의 31.9%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천만 원 미만이 2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20-50명 미만이 전체의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20명 미만인 업체가 2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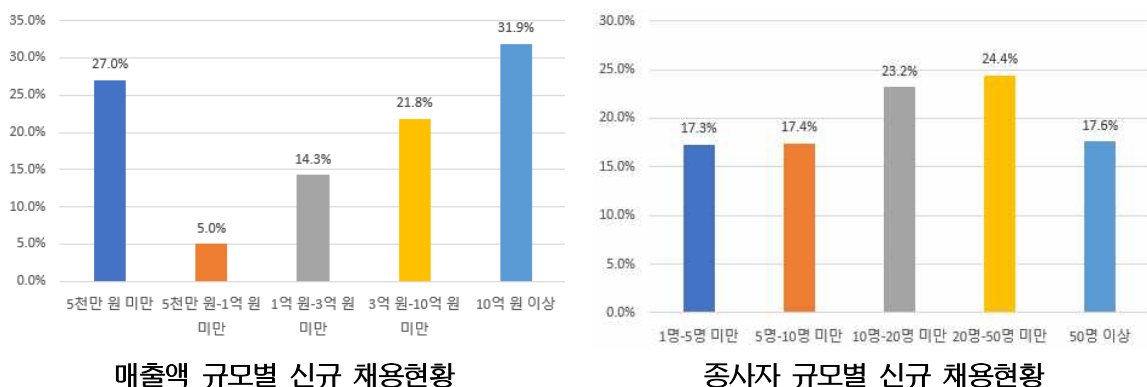
[표 3-114] 여행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단위 :명,%)

구분	매출액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3억 원 미만	3억 원-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전체
비율	3,359(27.0)	616(5.0)	1,780(14.3)	2,713(21.8)	3,965(31.9)	12,434(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1명-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전체
비율	2,158(17.3)	2,164(17.4)	2,890(23.2)	3,035(24.4)	2,186(17.6)	12,433(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28] 여행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2018년 기준 관광숙박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40억 원 이상이 전체의 68.7%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5억 원-40억 원 미만인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명 이상이 전체의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명-100명 미만이 2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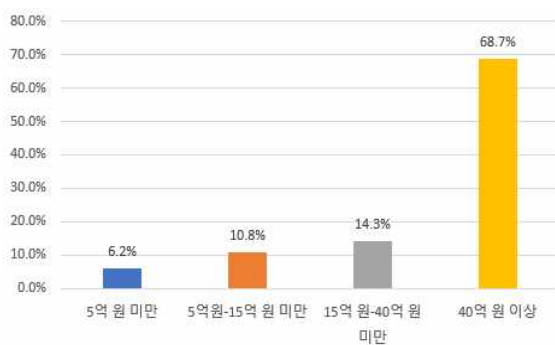
[표 3-115]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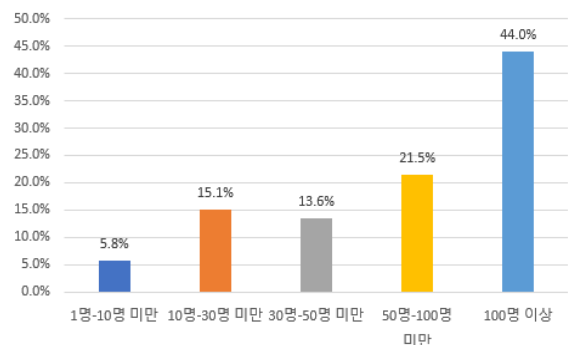
구분	매출액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5억 원 미만	5억 원-15억 원 미만	15억 원-40억 원 미만	40억 원 이상	전체
비율	889 (6.2)	1,551 (10.8)	2,066 (14.3)	9,912 (68.7)	14,419 (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1명-10명 미만	10명-30명 미만	30명-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명 이상
비율	840 (5.8)	2,173 (15.1)	1,959 (13.6)	3,096 (21.5)	6,350 (44.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매출액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그림 3-29]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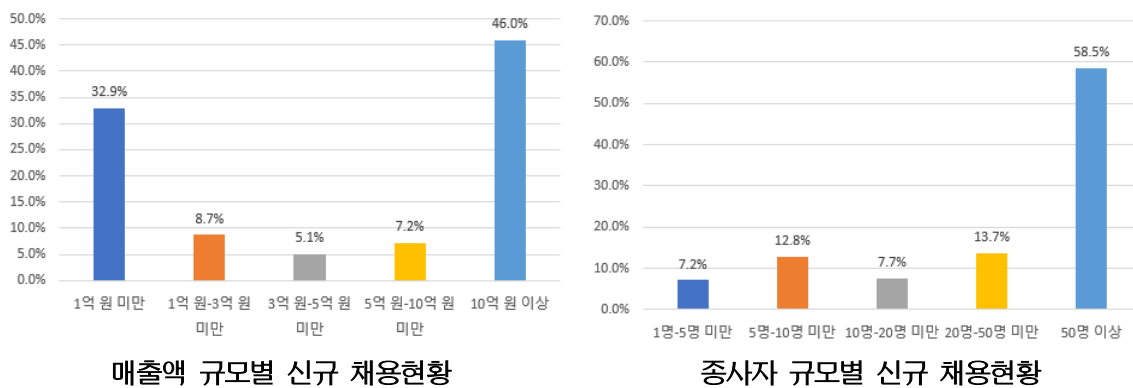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이 전체의 46.0%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억 원 미만이 3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명 이상이 전체의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명-50명 미만이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16]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단위 :명,%)

구분	매출액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1억 원 미만	1억 원-3억 원 미만	3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전체
비율	655 (32.9)	173 (8.7)	101 (5.1)	144 (7.2)	915 (46.0)	1,988 (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1명-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전체
비율	143 (7.2)	255 (12.8)	154 (7.7)	273 (13.7)	1,163 (58.5)	1,988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30]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2018년 기준 국제회의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이 전체의 79.9%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천만 원 미만이 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0명-20명 미만이 전체의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명-50명 미만이 2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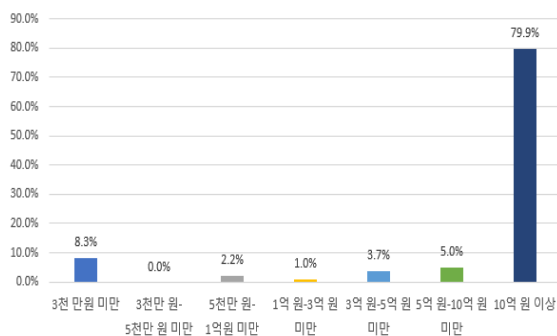
[표 3-117]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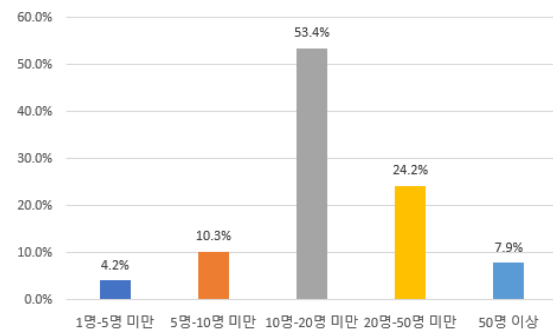
구분	매출액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3천 만 원 미만	3천만 원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3억 원 미만	3억 원 ~5억 원 미만	5억 원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전체
비율	104 (8.3)	0	28 (2.2)	12 (1.0)	46 (3.7)	63 (5.0)	1,007 (79.9)	1,260 (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1명~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전체
비율	53 (4.2)	130 (10.3)	673 (53.4)	305 (24.2)	100 (7.9)	1,260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매출액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그림 3-31]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2018년 기준 카지노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1,000억 원 이상이 전체의 42.9%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0억 원-1,000억 원 미만인 2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20명 이상이 전체의 10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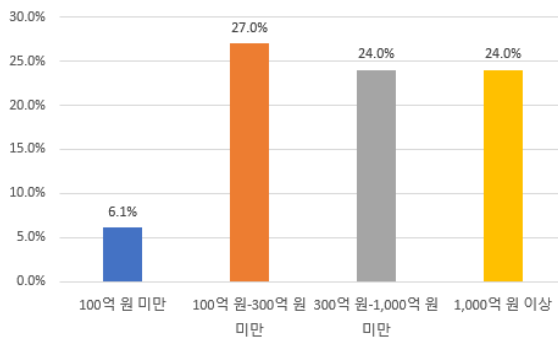
[표 3-118]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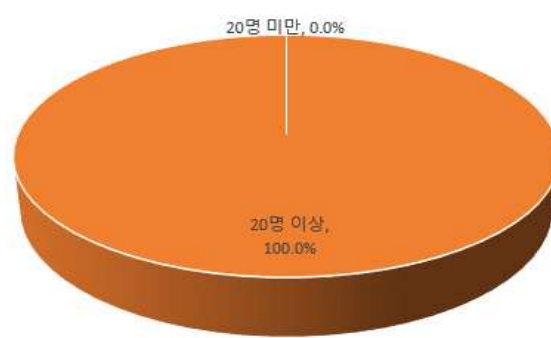
구분	매출액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100억 원 미만	100억 원-300억 원 미만	300억 원-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	전체
비율	52 (6.1)	230 (27.0)	205 (24.0)	366 (42.9)	853 (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20명 미만	20명 이상	전체
비율	0	853 (100.0)	853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매출액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그림 3-32]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2018년 기준 유원시설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15억 원 이상이 전체의 55.1%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천만 원-3억 원 미만이 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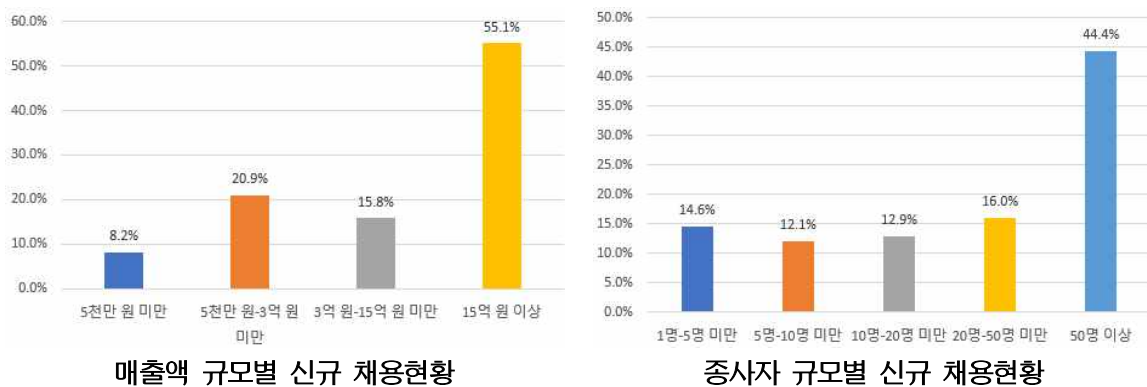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명 이상이 44.4%로 높게 나타났고, 20명-50명 미만이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19]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단위 :명,%)

구분	매출액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3억 원 미만	3억 원-15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체
비율	176 (8.2)	452 (20.9)	340 (15.8)	1,190 (55.1)	2,158 (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1명-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비율	315 (14.6)	261 (12.1)	279 (12.9)	345 (16.0)	958 (44.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33]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2018년 기준 관광편의시설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이 전체의 75.6%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억 원-5억 원 미만이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명 이상이 49.9%로 높게 나타났고, 20명-50명 미만이 2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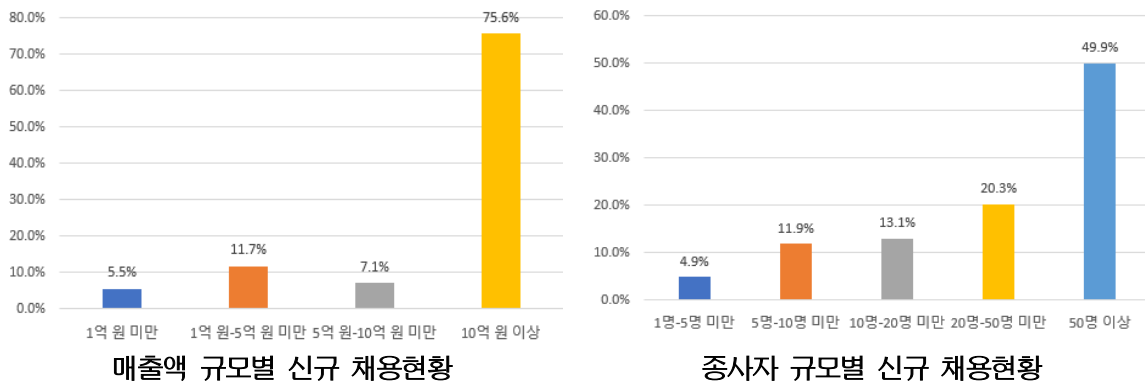
[표 3-120]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단위 :명,%)

구분	매출액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전체
비율	351 (5.5)	744 (11.7)	452 (7.1)	4,790 (75.6)	6,337 (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신규 채용현황				
	1명-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비율	309 (4.9)	752 (11.9)	829 (13.1)	1,286 (20.3)	3,161 (49.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34]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3) 관광·레저산업 관련 전국 직종별 구인구직 동향(고용노동부 통계)

- 고용노동부(2020.4)의 2020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 직종 중분류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의 직종 소분류는 다음과 같음
 - 직종소분류: 여행서비스원, 항공기·선박·열차객실승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오락시설 서비스원
- 관광·레저산업 관련 전국 종사자 구인구직현황은 직종소분류인 여행서비스원, 항공기·선박·열차객실승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오락시설 서비스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규모별: 5인 이상, 5-299인, 10인-29인, 100-299인)

■ 직종별 소분류 전 규모 5인 이상 현황

- 여행서비스원은 현원 13,784명, 구인인원 729명, 채용인원 729명, 부족인원 23명, 채용계획인원 23명(부족률 0.2%)으로 나타남
 - 항공기·선박·열차객실승무원은 현원 15,297명, 구인인원 175명(부족률 0.0%)로 나타났고, 숙박시설 서비스원은 현원 11,371명, 구인인원 921명, 채용인원 895명, 미충원 인원 26명, 부족인원 132명, 채용계획인원 160명(부족률 1.1%)으로 나타남
- 오락시설 서비스원은 현원 7,915명, 구인인원 724명, 채용인원 2,504명, 미충원 인원 45명, 부족인원 407명, 채용계획인원 1,509명(부족률 4.4%)으로 나타남

■ 직종별 소분류 중소규모 5-299인 현황

-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현황은 현원 10,487명, 구인인원 682명, 채용인원 682명, 부족인원 22명, 채용계획인원 22명(부족률 0.2%)으로 나타남
 - 항공기·선박·열차객실승무원은 현원 465명, 구인인원 24명, 채용인원 24명(부족률 0.0%), 숙박시설 서비스원은 현원 7,544명, 구인인원 333명, 채용인원 330명, 미충원 인원 3명, 부족인원 119명, 채용계획인원 122명(부족률 1.6%)으로 나타남
- 오락시설 서비스원은 현원 6,069명, 구인인원 564명, 채용인원 543명, 미충원 인원 18, 부족인원 165명, 채용계획인원 1,323명(부족률 2.6%)으로 나타남

■ 직종별 소분류 2규모 10-29인 현황

-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현황은 현원 2,172명, 구인인원 49명, 채용인원 49명(부족률 0.0%)로 나타남
 - 항공기·선박·열차객실승무원은 현원 35명, 구인인원 7명, 채용인원 7명(부족률0.0%)로 나타났고, 숙박시설 서비스원은 현원 1,849명, 구인인원 42명, 채용인원 42명(부족률0.0%), 으로 나타남
- 오락시설 서비스원은 현원 844명, 구인인원 7명, 채용인원 2, 미충원 인원 5명, 부족인원 15명, 채용계획인원 4명(부족률 1.7%)으로 나타남

■ 직종별 소분류 4규모 100-299인 현황

-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현황은 현원 934명, 구인인원 100명, 채용인원 100명, 미충원 인원 0명, 부족인원 10명, 채용계획인원 10명(부족률 1.1%)으로 나타남

- 항공기·선박·열차객실승무원은 현원 154명, 구인인원 17명, 채용인원(부족률 0.0%)로 나타났고, 숙박시설 서비스원은 현원 1,754명, 구인인원 107명, 채용인원 107명, 미충원 인원 0명, 부족인원 32명, 채용계획인원 51명(부족률 1.9%)으로 나타남

○ 오락시설 서비스원은 현원 4,508명, 구인인원 420명, 채용인원 420명, 미충원 인원 0명, 부족인원 83명, 채용계획인원 106명(부족률 1.7%)으로 나타남

[표 3-121] 고용보험 통계상 전국 직종별·규모별·현원·구인인원·채용인원·미충원인원·부족인원·채용계획인원·부족률 구인구직 동향(2020년 상반기 기준)

(단위: 명, %)

직종 중분류	직종 소분류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여행서비스원	13,784	729	729	0	23	23	0.2
	항공기·선박·열차객실승무원	15,297	175	175	0	0	0	0.0
	숙박시설 서비스원	11,371	921	895	26	132	160	1.1
	오락시설 서비스원	7,915	724	705	19	252	1,407	3.1
	소계(여행·숙박·오락서비스직)	48,367	2,549	2,504	45	407	1,590	0.8
	직종 소분류 전체(전규모 5인 이상)	12,302,576	793,093	733,997	59,096	223,126	238,199	1.8
	직종 소분류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여행서비스원	10,487	682	682	0	22	22	0.2
	항공기·선박·열차객실승무원	465	24	24	0	0	0	0.0
	숙박시설 서비스원	7,544	333	330	3	119	122	1.6
	오락시설 서비스원	6,069	564	546	18	165	1,323	2.6
	소계	24,567	1,604	1,581	23	305	1,466	1.2
	직종 소분류 전체(중소규모 5-299인)	9,709,939	636,179	583,661	52,518	196,543	207,514	2.0

직종 소분류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여행서비스원	2,172	49	49	0	0	0	0.0
항공기.선박.열차객실승무원	35	7	7	0	0	0	0.0
숙박시설 서비스원	1,849	42	42	0	0	0	0.0
오락시설 서비스원	844	7	2	5	15	4	1.7
소계	4,900	104	99	5	15	4	0.3
직종 소분류 전체(2규모 10-29인)	3,064,917	192,553	179,030	13,523	54,291	56,322	1.7
직종 소분류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여행서비스원	934	100	100	0	10	10	1.1
항공기.선박.열차객실승무원	154	17	17	0	0	0	0.0
숙박시설 서비스원	1,745	107	107	0	41	45	2.3
오락시설 서비스원	1,676	196	196	0	32	51	1.9
소계	4,508	420	420	0	83	106	1.8
직종 소분류 전체(4규모 100-299인)	1,722,829	111,581	100,584	10,997	30,330	35,389	1.7

주) 본 자료는 고용노동통계자료로 현황부분의 업종별 종사자 현황(관광진흥법상 업종별 관광사업)의 수치와는 상이함

자료 : 고용노동부(2020), 2020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 참고 후 재구성

4)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이직 현황

가. 전체 종사자 이직 동향

- 2018년을 기준으로 관광레저산업의 이직 현황은 34,568명으로 총 종사원의 약 12.9%를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증가추세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고, 2018년 기준 전년대비 이직자 비중은 8.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22] 관광레저산업 전체업종 연도별 이직자 현황(2014년~2018년)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종사자 수	230,334	235,603	261,977	280,270	267,561
전체 이직자 수	32,080	29,880	34,752	33,302	34,568
이직자 비중	13.9	12.7	13.3	11.9	12.9
증감율 (이직자 비중)	-	-8.6	4.7	-10.5	8.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그림 3-35] 관광레저산업 연도별 이직자 현황

나.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업종별 이직 현황(매출액·종사자 규모별)

■ 여행업의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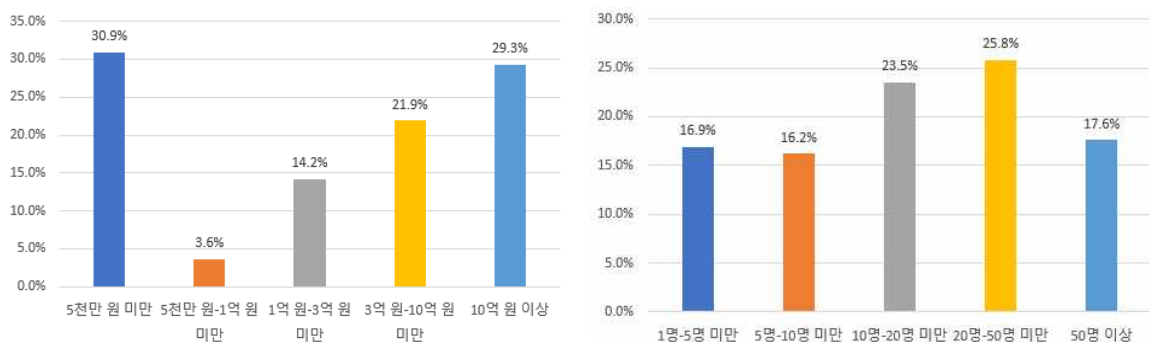
- 여행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이 전체의 20.9%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억 원 이상인 29.9%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50명 미만이 전체의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명 이상이 17.6% 높게 나타남

[표 3-123] 여행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매출액별 연간 이직 현황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3억 원 미만	3억 원-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전체
비율	3,271 (30.9)	383 (3.6)	1,502 (14.2)	2,313 (21.9)	3,099 (29.3)	10,569 (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이직 현황					
	1명-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전체
비율	1,789 (16.9)	1,707 (16.2)	2,484 (23.5)	2,726 (25.8)	1,864 (17.6)	10,569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36] 여행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 2018년 기준 관광숙박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40억 원 이상이 전체의 72.4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5억 원-40억 원 미만이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명 이상이 전체의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명-100명 미만이 2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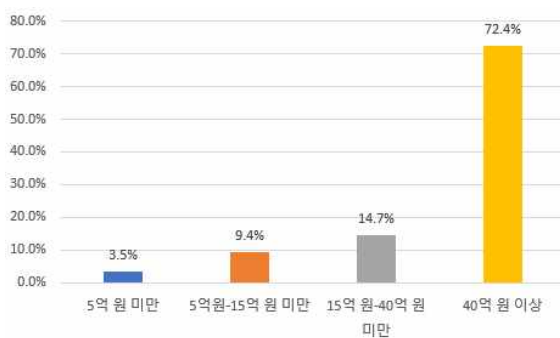
[표 3-124]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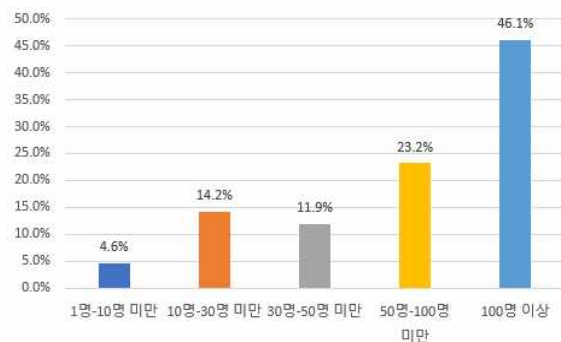
구분	매출액 규모별 연간 이직 현황				
	5억 원 미만	5억 원-15억 원 미만	15억 원-40억 원 미만	40억 원 이상	전체
비율	448 (3.5)	1,210 (9.4)	1,899 (14.7)	9,336 (72.4)	12,893 (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이직 현황				
	1명-10명 미만	10명-30명 미만	30명-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명 이상
비율	599 (4.6)	1,825 (14.2)	1,532 (11.9)	2,994 (23.2)	5,942 (46.1)
전체	12,893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매출액 규모별 이직현황



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그림 3-37]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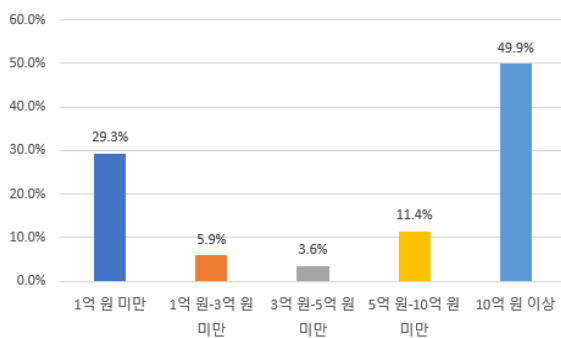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이 전체의 46.0%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억 원 미만이 3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명 이상이 전체의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명-50명 미만이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25]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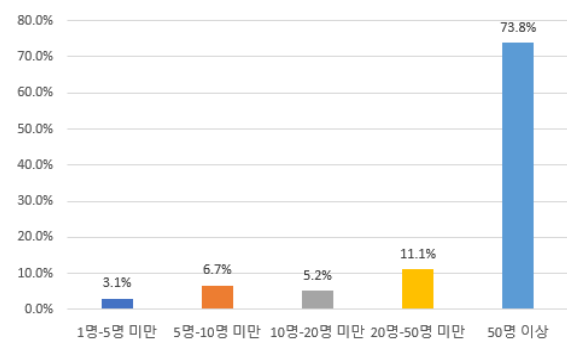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매출액 규모별 연간 이직현황					
	1억 원 미만	1억 원-3억 원 미만	3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전체
비율	486 (29.3)	97 (5.9)	60 (3.6)	189 (11.4)	827 (49.9)	1,658 (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이직현황					
	1명-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전체
비율	52 (3.1)	111 (6.7)	87 (5.2)	184 (11.1)	1,224 (73.8)	1,658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매출액 규모별 이직현황



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그림 3-38]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 2018년 기준 국제회의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이 전체의 73.8%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억 원-10억 원 미만이 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0명-20명 미만이 전체의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명-50명 미만이 2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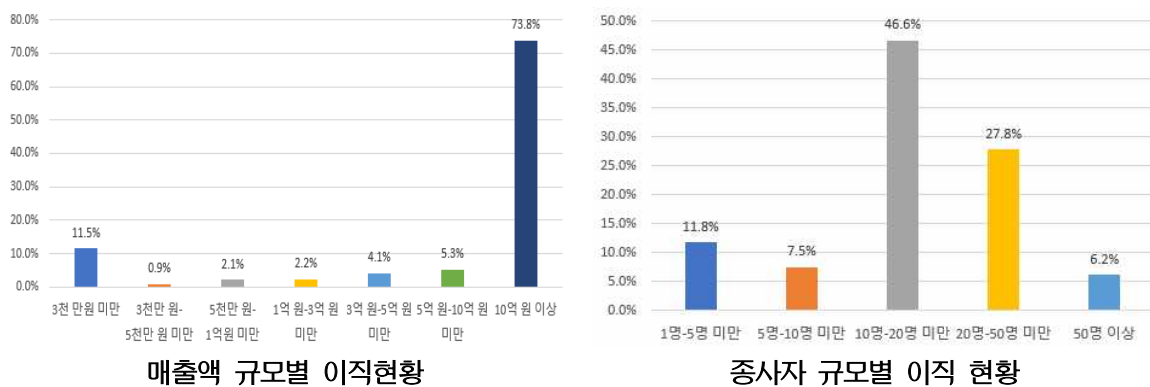
[표 3-126]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단위 :명,%)

구분	매출액 규모별 연간 이직현황							
	3천 만 원 미만	3천만 원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3억 원 미만	3억 원 -5억 원 미만	5억 원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전체
비율	151 (11.5)	12 (0.9)	28 (2.1)	29 (2.2)	54 (4.1)	69 (5.3)	970 (73.8)	1,314 (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이직현황					
	1명-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전체
비율	155 (11.8)	98 (7.5)	612 (46.6)	365 (27.8)	82 (6.2)	1,314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39]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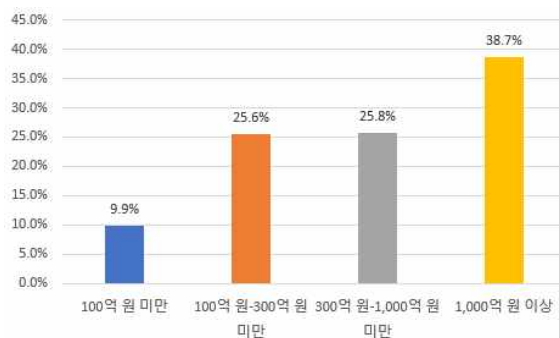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카지노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1,000억 원 이상이 전체의 38.7%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0억 원-1,000억 원 미만이 2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20명 이상이 전체의 100.0%로 나타남

[표 3-127]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단위 :명,%)

구분	매출액 규모별 연간 이직현황				
	100억 원 미만	100억 원-300억 원 미만	300억 원-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	전체
비율	89 (9.9)	230 (25.6)	231 (25.8)	347 (38.7)	897 (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이직현황				
	20명 미만	20명 이상	전체		
비율	0	897 (100.0)	897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매출액 규모별 이직현황



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그림 3-40]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 2018년 기준 유원시설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15억 원 이상이 전체의 55.1%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천만 원-3억 원 미만인 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명 이상이 44.4%로 높게 나타났고, 20명-50명 미만이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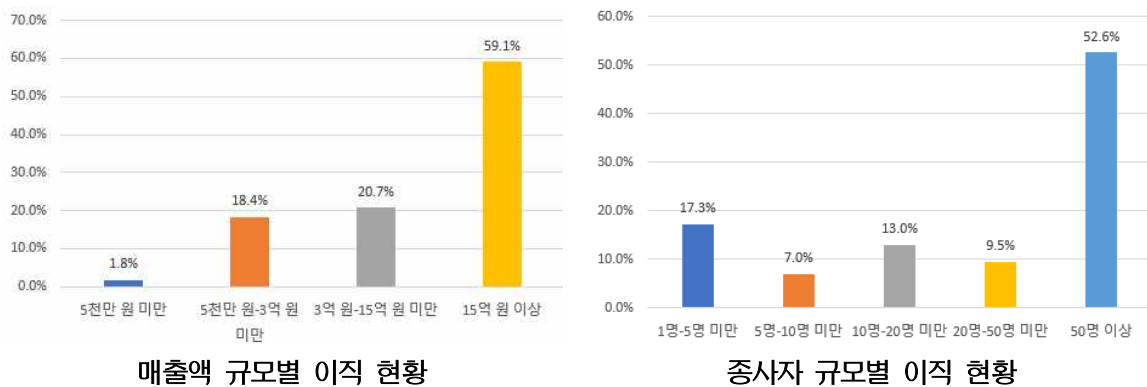
[표 3-128]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단위 :명,%)

구분	매출액 규모별 연간 이직 현황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3억 원 미만	3억 원-15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체
비율	28 (1.8)	282 (18.4)	318 (20.7)	908 (59.1)	1,536 (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이직 현황				
	1명-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비율	265 (17.3)	107 (7.0)	199 (13.0)	146 (9.5)	808 (52.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41]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 2018년 기준 관광편의시설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이 전체의 75.6%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억 원-5억 원 미만이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명 이상이 49.9%로 높게 나타났고, 20명-50명 미만이 2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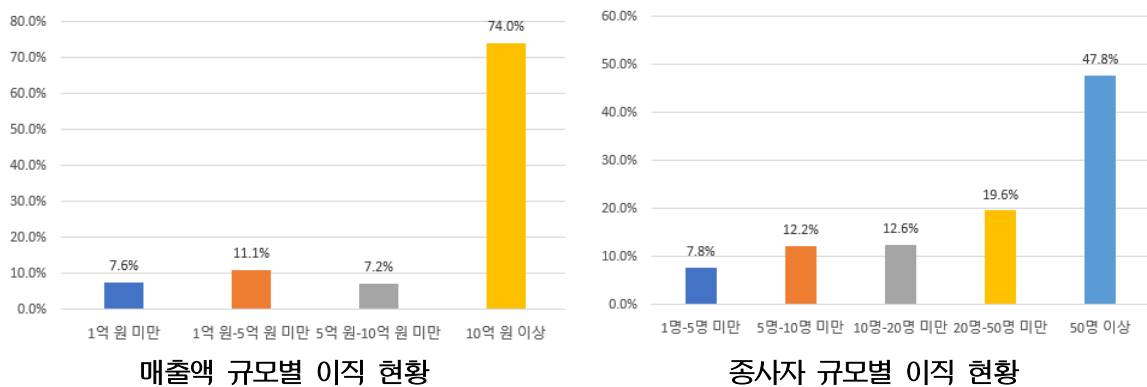
[표 3-129]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매출액 규모별 연간 이직 현황				
	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전체
비율	434 (7.6)	635 (11.1)	412 (7.2)	4,221 (74.0)	5,702 (100.0)

구분	종사자 규모별 연간 이직 현황				
	1명-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비율	445 (7.8)	693 (12.2)	718 (12.6)	1,119 (19.6)	2,727 (47.8)
전체	5,702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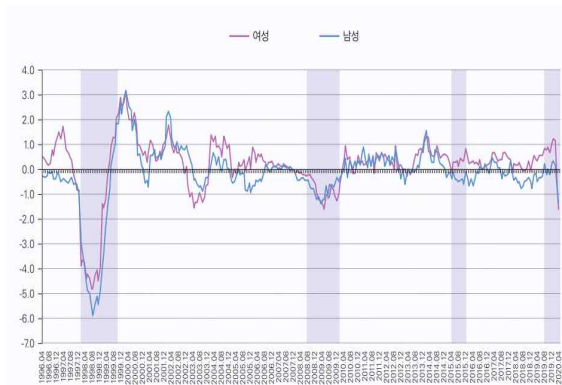
[그림 3-42]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종별 고용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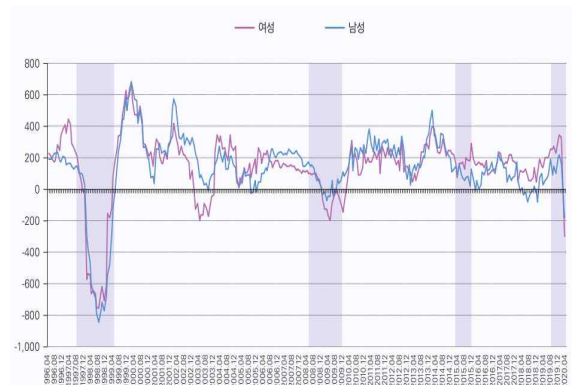
가. 전산업 고용동향 분석

- 우리는 과거 다양한 전염병(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과 그로 인한 고용감소를 경험하였고,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감소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가운데 2020년 3월 기준 고용률과 취업자가 모두 전년 동월(2019년도 3월) 대비 감소추세를 나타냄(금융위기 수준 초과)
-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일시휴직자 증가하였는데³³⁾, 이는 2011년 9월(324천명 증가)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남(2020년 3월 1,260천명 증가, 2020년 4월 1,130천 명 증가)
 - 질병, 금융위기 등 다양한 사회현상에 따라 고용환경에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금융위기 때는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였는데 반해, 코로나 19 확산은 취업자가 감소하고 일시휴직자가 증가하며, 실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³⁴⁾
-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일시휴직자가 증가한 원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정부 정책 효과와 코로나19 확산이 가까운 시기에 종식되리라는 기대로 실업자 증가가 지연되고 일시휴직자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전년 동월대비 고용률 증감(단위:%P)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증감(단위:천명)



주) 음영 범위는 순서대로 외환위기, 금융위기, 메르스, 코로나 확산 국면(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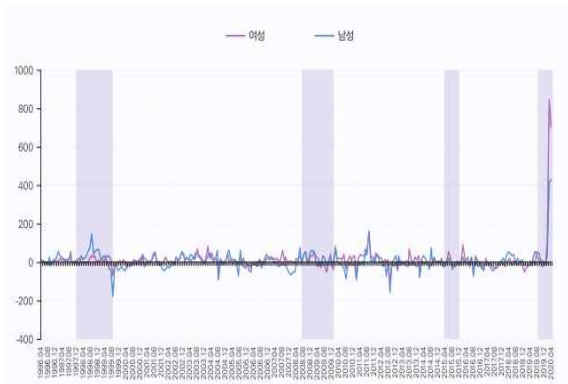
자료: 이정아(2020), 노동시장 변동 추이와 코로나19 확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브리프, 재인용.

[그림 3-43] 전년 동월대비 고용률/취업자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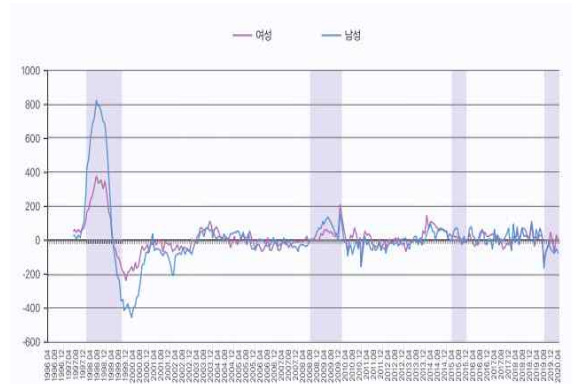
33) 위험 국면에서 일시 휴직자 증가원인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정책 효과와 코로나19 확산이 가까운 시기에 종식되리라는 기대로 실업자 증가가 지연되고 일시 휴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는 취업자가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한 대면 서비스업 부문에 영향을 끼쳤는데 대면 서비스업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취업자의 필수 유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34)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특정기간(3월~9월)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정됨

전년 동월대비 일시휴직자 증감(단위:천명)



전년 동월대비 실업자 증감(단위:천명)



주) 통계청 경제활동연구조사 원자료, 각연월

자료: 이정아(2020), 노동시장 변동 추이와 코로나19 확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브리프, 재인용.

[그림 3-44] 전년 동월대비 일시휴직자 증감/실업자 증감 현황

■ 관광·레저산업 부문 업종별 고용 동향 분석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관광·레저산업 분야별 종사자 수 및 채용 동향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종사자 수 동향(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2019년 9월) 전 산업 (-0.6%) 대비 높게 나타남(평균 -10.0%)

[표 3-130] 관광·레저산업 분야 종사자 수 동향(2020년 9월 기준)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2019년 9월		2020년 8월		2020년 9월	
		종사자 수	증감률	종사자 수	증감률	종사자 수	증감률
전 산업		18,688	2.0	18,519	-0.5	18,576	-0.6
관광·레저 산업 분야	숙박 및 음식점업	1,277	3.1	1,130	-11.8	1,112	-12.9
	사업시설 지원서비스업	1,167	0.5	1,101	-5.6	1,103	-5.6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335	3.2	279	-16.7	282	-15.6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관광·레저산업 분야 적용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11), 2020년 9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재인용

- 또한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채용동향(잠정치)은 전 산업이 평균 7.3%가 증가한데 반해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경우 평균 14.7% 감소한 것으로(상용:-19.0%, 임시일용: -1.7%)

[표 3-131] 관광·레저산업 분야 채용 동향(2020년 9월 중)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채용		상용		임시일용	
		종사자수	증감률	종사자수	증감율	종사자수	증감율
전 산업		831	7.3	320	-7.1	511	18.9
관광·레저 산업 분야	숙박 및 음식점업	78	-25.4	26	-19.5	52	-28.0
	사업시설 지원서비스업	57	12.1	31	1.8	26	27.6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9	-30.9	3	-39.3	6	-4.8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관광·레저산업 분야 적용(잠정치)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11), 2020년 9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재인용

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고용현황

- 2020년 4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은 3.3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월 (2.3천명↓)에 비해 감소폭이 1천명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³⁵⁾

[표 3-132] 주요 관광·레저산업 관련 업종 피보험자 수 증감(전년 동월대비, 천명)

구분	`17.4 월	`18.4 월	`19년			`20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철도 운송업	0.3	10.1	0.2	0.0	0.1	-0.1	-0.1	-0.2	-0.1
육상 여객업	-0.4	-13.5	2.6	4.1	3.5	1.2	1.0	-7.7	-11.7
해상 운송업	-0.3	-0.5	-0.2	-0.1	-0.1	-0.1	-0.3	-0.2	-0.3
항공 운송업	1.3	2.1	2.2	1.8	1.7	1.4	1.0	0.9	0.4
숙박시설 운영업	2.9	2.8	5.2	4.2	2.5	2.0	1.7	-1.3	-2.6
음식점업	37.0	26.6	49.0	46.6	46.4	41.7	36.4	14.3	-4.4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0.1	0.5	0.2	-0.9	-1.2	-1.1	-1.6	-2.7	-3.3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0.8	2.0	3.1	2.4	1.9	1.9	1.0	0.1	-1.3
(참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20.0	-7.3	3.0	-6.6	-8.2	8.9	-10.9	-12.7	-19.6

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0), 제1차 산업지역고용세미나 자료(2020.05.08.)

35)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의 피보험자 1인 이상 고용보험 사업체 수는 `20.3월 5,362개소로 `19.3(5,668개소)에 비해 5.4%(306개소↓)감소

- 육상여객운송업 피보험자 수는 11.7천명 감소, 3월(7.7천명↓) 이후 감소 확대, 이는 주로 전세버스운송업과 택시운송업의 피보험자 수의 가파른 감소에 의한 것임
- 숙박시설운영업은 2.6천명 감소, 전월(1.3천명↓)에 감소로 전환한 이후 감소폭 확대,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서비스업은 감소 전환(1.3천명↓)
- 항공운송업은 증가폭 축소(0.4천명↑), 항공지상조업 인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은 역대 최대 감소인 19.6천명 감소

■ 여행업 세부 고용현황³⁶⁾

- 국내 여행업은 2017년 사드사태를 시작으로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및 홍콩시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 코로나19 까지 겹치면서 매출 감소에 따른 종사자 고용에 어려움이 발생함³⁷⁾

[표 3-133] 코로나19 피해 이후 주요여행사 근무형태

여행사	근무형태	임금조정	시행기간
하나투어	주 2일 잡세어링(1일 유급, 1일 무급)시행	월급 20%삭감	3월1일~4월30일까지
모두투어	전직원 유급휴직	월급30%삭감	3월1일~4월30일까지
노랑풍선	주4일 근무제도 시행 및 3월, 4월 중 한달 유급휴직	월급20%삭감	2월11일~4월30일까지
KRT	주4일 근무제도 시행	월급20%삭감	2월 17일부터 6주간
내일투어	1개월 무급휴직 시행	무급	2일부터 시행
하안풍차투어	유급휴가 5일 및 주4일 근무제도 시행	월급25%삭감	3월1일~3월31일까지
참좋은여행	구조조정 또는 임금 삭감 없음	-	-
롯데관광	구조조정 또는 임금 삭감 없음	-	-
한진관광	구조조정 또는 임금 삭감 없음	-	-
보물섬투어	구조조정 또는 임금 삭감 없음	-	-

자료: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ycoon1027&logNo=221825220078>)

36)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고용현황은 협단체 및 기업 담당자 의견조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업종별(여행업, 관광숙박업, MICE, 크루즈업, 유원시설업 등) 대응방안을 토대로 고용현황을 분석하였음

37) 여행업이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여행사 종사자를 비롯한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의 간접피해까지 동반 됨

- 대형여행사 인사담당자 인터뷰 결과 금년 고용계획은 전무한 상태로, 당초 4월까지 계획했던 유급 휴직(급여70%)은 연장이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영세한 여행업체의 경우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체제를 도입함³⁸⁾
- 또한 대형 여행사의 종사자 구조조정이 기사화 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시기인 8~9월에 대량 실직이 예상됨

■ 관광숙박업(호텔업) 세부 고용현황

-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에 따른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중심의 호텔업의 경우 휴업으로 인한 기존 종사자의 유급휴직제도 운영 및 정부 특별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호텔의 경우 명예퇴직 및 급여삭감이 진행되고 있음³⁹⁾
- 호텔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2020년도 상반기 채용은 없으며, 하반기 역시 불투명한 상태임

[표 3-134] 코로나19에 따른 호텔 휴관 현황(명동 및 동대문권)

NO	호텔	위치	휴관일자	특이사항
1	스카이파크 명동1	명동	3/1~3/31	■스카이파크 센트럴 명동으로 터어웨이
2	스카이파크 명동2	명동	3/1~3/31	
3	스카이파크 명동3	명동	3/1~3/31	
4	크라운파크	명동	3/9~4/30	■기존 예약 이비스 명동으로 터어웨이
5	밀리오레호텔 명동	명동	3/10~4/30	
6	스타즈 호텔2	을지로	3/16~4/30	■스타즈 호텔 1호 통합운영
7	호텔도마	충무로	3/6~4/30	
8	뉴오리엔탈	명동	3/10~3/31	
9	스테이비	을지로	3/16~4/30	
10	베스트웨스턴 국도	을지로	3/16~4/30	
11	루미아호텔	남대문	3/1~5/5	
12	토마스명동	북창동	3/1~4/30	
13	에이퍼스트	시청	3/16~4/30	
14	뉴국제호텔	시청	3/1~3/31	
15	세종호텔	명동	3/16~4/15	
16	밀리오레 호텔 동대문	동대문	~4/10	

38) 기업 담당자 인터뷰 결과 코로나19 피해 이후 국내 주요여행사 근무형태 조정에 따라 급여가 삭감됨에 따라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해 대리 운전, 편의점, 새벽배송 등의 투잡(two-job) 병행 종사자 증가

39) 업계 불황으로 인하여 계약직(인턴 등)에서 정규직 전환 시점이 늦춰지거나 퇴사(계약만료)가 진행됨

17	라마다양코르신설동	신설동		■ 현재 판매 중이나 7월 1일부로 청년주택으로 변경
18	스카이파크 동대문	동대문	3/1~3/31	■ 스카이파크 킹스타운으로 터어웨이
19	웨스턴코업 레지던스	동대문	3/16~4/30	■ 동대문코업으로 통합운영
20	에이큐브	동대문	3/1~4/17	
21	글로벌인서울 동대문	동대문	3/1~4/30	
22	영빈호텔	동대문	3/1~4/30	
23	라마다 동대문	동대문	4/1~4/30	
24	디세븐스위치	동대문	3/1~4/30	
25	아트리움	종로	3/1~5/31	
26	드레곤시티(이비스스타일)	용산	2/24~3/31	■ 노보텔로 업그레이드
27	노보텔 독산	독산	3/16~3/25	

자료: 서울시 명동 및 동대문권 호텔마케팅 팀장 회의자료 재인용

- 회의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명동 및 동대문의 경우 이용객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에 따라 3~4월 휴관을 계획하였고,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음
- 특정호텔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 활용을 중단하고, 정규 직원의 멀티플레이화를 추진하고 있음(프론트 오피스 직원→객실, 주방 투입 등)

■ 유원시설업 세부 고용현황

- 유원시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내국인 의존도가 높지만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속도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권고로 인해 이용객 감소에 따라 성수기 임에도 경영난⁴⁰⁾을 겪고 있으며, 2020년도 신규 채용은 전무한 상태임
- 소규모 유원시설의 경우 운영을 중단하면서 종사자의 휴직 또는 계약 해지가 진행 중이며, 업종 특성상 파트타임(비정규직) 활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지만 이용객 감소에 따라 비정규직 활용비중 감소
- 특히, 유원시설업의 경우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MICE업과 달리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제외되어 추가선정이 필요하며, 대규모 형태의 운영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진행시 시설 및 고용유지의 어려움에 따른 폐업 및 실직자 발생이 예상됨

40) 유원시설업의 경우 경영난으로 인한 휴관 및 적자운영에 따라 종사자 휴직제도 운영, 급여삭감을 통해 사업체 운영이 진행되고 있음

■ MICE업 세부 고용현황

- 대규모 관광객 유발이 가능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박람회),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는 MICE산업에도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외국인 회의참여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부의 권로로 인한 사람들이 밀집될 수 있는 행사 진행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고 있음⁴¹⁾
-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행사가 전무하여 매출이 제로인 상황에서 조직경영을 위해 휴업, 휴직, 감원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
- 일부 업체의 경우 하반기 종식을 전제로 진행 될 행사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매출이 없음에도 고용유지금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곳도 있으며, 타 업종에 비해 미약하게나마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카지노업 세부 고용현황

- 국내 카지노업계는 인바운드 관광객 급감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휴업을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한 업체의 직접적인 영향(종사자 휴직 등)과 협력업체의 간접적 영향 등으로 4월 초 기준 휴직자는 약 4,400명으로 추정되면서 카지노업의 2020년도 채용계획은 없을 것을 예상됨
- 현재 인천 영종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시저스, 인스파이어 등)의 개발로 인하여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에는 대규모 채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⁴²⁾(코로나19 상황 개선 전제)

■ 크루즈업 세부 고용현황

- 크루즈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연관산업(관광, 조선, 항공, 유통 등)이 많은 점을 감안 할 때 향후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이 예상됨
- 현재 국제 선사들은 직원 급여 삭감이 진행되고 있으며, 근로계약 만료 후 미연장을 통한 자연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크루즈 운항의 중단에 따라 조선소에 발주한 크루즈 선박 인도시기의 지연으로 신규채용 확충 조정에 따른 산업 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국

41) 연초 행사의 경우 작년 말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관련 비용 지출 등에 대한 보존이 어려운 상황임

42) 인스파이어 담당자에 의하면 직접적인 카지노 인력(딜러 등) 채용은 700~8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업종(호텔 등)까지 하면 천명 이상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음

제 크루즈 선사 담당자 인터뷰 내용)

■ 전세계 관광산업 일자리 전망

[표 3-135]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추산 피해 규모

(단위: 백만개, 십억달러)

구분	잠재적 일자리 손실	전체GDP 손실
전세계	-100.8	-2,689.4
아시아	-63.4	-1,041.0
유럽	-13.0	-708.5
아프리카	-7.6	-52.8
아메리카	-14.1	-790.8
중동	-2.6	-96.2

주) 원자료는 WTTC(2020.04.24.)의 WTTC now estimates over 100 million jobs losses in the Travel & Tourism sector and alerts G20 countries to the scale of the crisis.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투어고 인사이트(제23호),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위기, 해외 관광분야 지원 정책 사례, 재인용

- 2020년 4월 24일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여행·관광산업에서 1억 80만 개 일자리가 손실될 것을 전망함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약 6,34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음

5) 소결⁴³⁾

■ 업종별 인력 수요증가에 따른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필요

- 관광·레저산업의 전반적인 사업체 수 및 신규채용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업의 업종별 인력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세부 업종 분야별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여 ISC 참여기관(협·단체) 및 관련 인력양성기관 중심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직무별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미스매칭의 최소화와 수급의 균형이 요구됨

43) 본 보고서 소결은 2018년도까지의 인력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일부 내용에 한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음

- 실제로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업종(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이 있어 세부 업종별 인력수요 조사가 요구됨
- 코로나19 확산이후 여행업의 신규채용 전무한 실정이지만 IT 관련 종사자의 채용이 인력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전문가 인터뷰 내용)

■ 대규모 시설 지원방안 모색

- 현재 관광·레저산업의 특성은 매출규모 및 종사자 규모가 큰 곳의 신규채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대기업계열, 사행산업 등의 이유로 제한적인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산업을 특별고용유지업종으로 선정하고 특혜를 부여받고 있지만,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경우 사행산업, 대기업 계열 등의 이유로 지정에서 소외됨에 따라 고용규모가 큰 업종인데 반해 제한적 지원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요구됨(전문가 인터뷰 내용)

■ 관광·레저산업 전직지원시스템 구축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국내 관광·레저산업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운영이 중단된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현재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특별고용유지업종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힘들게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향후 대량실직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효율적인 전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야영장업(캠핑, 글램핑 등), 골프장 등 실외 시설의 인력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퇴직자(예정자 등)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유관기관(노사발전재단 등)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산업내 효율적인 전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임⁴⁴⁾

44) 관광·레저ISC는 2020년도 여행업 종사자(TC, 가이드 등) 대상 웨딩서비스 인력 전직교육프로그램을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진행하였고, 2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음(현재 일자리 연계 추진 중)

제 4 장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1.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정책⁴⁵⁾ 및 직업분석

1)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개념

■ 개념 및 정의

- 전문인력의 사전적 개념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을 보면 ‘전문(專門)’이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음. 또는 그 분야”를 의미하고 인력은 “사람의 노동력”을 뜻함
 - 즉, 이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전문인력은 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의 노동력을 의미함
- 「관광진흥법」상 관광·레저산업 관련 전문인력과 관련된 규정은 제7절 관광종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⁴⁶⁾
 - 전문인력과 관련해서 「관광진흥법」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정의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 교육기관(제8조의 3)⁴⁷⁾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과 관련 전문 위탁기관 등과 관련하여 규정함
-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한 개념에는 전문직, 역량, 핵심 역량 등이 있음
 - 전문직(profession)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으로 정의됨(영미권의 확대된 ‘profession’ 개념: 전문직은 체계적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이론과 실기 측면 모두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이제환, 2003)
 - 역량(Competency)은 직무와 관련한 특정 업무를 완수하고 직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과 능력(Morris,

45)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책 사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의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

46) 구체적으로 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교육), 제40조(자격취소 등)는 관광종사원의 자격,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4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1973; Tas, 1988)으로, 업계의 전문가나 교육자를 비롯해 노동 인구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기술, 능력, 지식 등을 포함한다(Millar et al., 2010)

-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은 복잡한 업무 활동과 기술을 조화시킬 수 있는 특별화 된 전문지식으로 정의(Prahaland & Hamel, 1990)되는데, 이러한 관광산업 인력의 핵심역량과 관련해서 연구는 관광사업체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근무환경 적응, 대인관계, 외국어, 전문지식 등)

○ 이러한 전문인력에 대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관광·레저 관련 전문적 학위 및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광·레저에 관한 실질적 지식 및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말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2)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례

가. 국외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정책사례

- 국외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정책 사례분석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음⁴⁸⁾
- 국외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의 정책 사례는 서로 다른 분류 방식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추진 목표에 따라 ① 자격제도, ② 산관학 연계 인력 양성, ③ 지역관광 인재 양성, ④ 관광 인력 양성 조직, ⑤ 기타(관광산업 인식 개선 정책)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사업을 구분하였음
- 국외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의 정책 사례 분석은 일본 추진 정책 11개, 영국 추진 정책 4개, 캐나다 추진 정책 5개, 미국 추진 정책 사업 3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표4-1] 참조)
 - 일본: 5개의 자격제도, 4개의 인력양성 사업 추진, 1개의 지역관광지 개발 관련 인재육성 정책과 1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영국: 2개의 인력양성 사업, 1개의 지역 기금 확보, 관광사업 인식 개선 정책 시행
 - 캐나다: 1개의 자격제도 운영 및 2개의 인력 양성 사업 추진, 2개의 인력 양성 조직 운영
 - 미국: 개의 자격제도 운영, 1개의 인력양성사업 추진

48) 국외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관련 정책 사업의 사례분석은 2018년 기준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음(한국 문화관광연구원, 2018. 재인용)

[표 4-1] 국외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정책 주요 사례

구분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
자격제도	-전국 통역안내사 ⁴⁹⁾ -지역 통역안내사 -여행업무 취급관리자 ⁵⁰⁾ -여정관리주임자 -여행서비스 수배 -업무 취급관리자	-	-emerit 기술훈련 및 인증 프로그램 (관광산업 전문인 력 양성)	-직무능력 모델 제공 및 활용 -여행 상담원 인증 프로그램
산관학 연 계 인력 양성	-커리큘럼 모델 개발 및 적용(인력양성) -인턴십 충실화(인력양성) -산관학 연계 관광업계 종사원 능력향상 정책 (인력향상) -산관학 연계에 의한 중핵인재 양성사업(인 력향상)	-견습 제도 (Apprenticeships) ⁵¹⁾ -교육 프로그램 운영	-Ready-to-Work ⁵²⁾ -청년고용전략 (YES) ⁵³⁾	-산학연계 세미나 운영
지역관광 인재 양성	-지역 관광지개발 관련 인재육성 정책	-해안권 지역 기금 (Coastal Commu nities Fund)	-	-
관광인력 양성 조직	-관광인력 양성을위한 정책검토 및 준비 조 직의 운영	-	-Tourism HR Canada -관광교육위원 회 ⁵⁴⁾ (Tourism Educati on Councils)	-
기타	-	-관광사업 인식 개선 정책(#mytourism job)	-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재인용.

49) 통역안내사 자격제도는 통역안내사법 개정으로 인해 커다란 내용 변화가 이루어져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통역안내사 업무 독점이 완전 폐지되어 누구나 통역안내업무를 할 수 있게 된 한편, 국가자격시험은 존속시켜 합격자에게는 전국통역안내사 자격 부여(지역 통역안내사 제도를 신설)

50) 여행서비스 제공의 명확성 및 공정성 확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에 관련된 업무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기 위해 운영됨

51) 영국은 2020년까지 3 백만 개의 견습 프로그램들을 목표로 견습 정책(Apprenticeships)의 질적, 양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안권 및 해안가 지역 내의 관광산업견습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해안권 지역 기금 등을 통해 관광 전문인력 양성 추진

52) 1994년 청년층의 관광직업이라는 정책으로 18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의 학업에서 취업으로의 과정을 돕기 위해 시작 됨

53)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들에게 취업정보, 기술, 경력과 역량강화 등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54) 지역에 기반한 비정부 기관으로, 캐나다 내 각 지역에서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광산업 표준, 인증, 교육 등을 평가하는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나. 국내 부처별 전문인력 정책사례

- 국내 부처별 전문인력 양성 정책 사례 분석을 위하여 2018년 기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양성 정책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망 강화 기반 구축,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 배려 체제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목표로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임금상승-근로환경 개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개편을 하고,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생애단계별(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고용단계별(고용진입, 고용이후), 사회적 취약계층별(여성, 장애인) 다각적인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뒷받침하고,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될 미래의 고용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강화’, ‘산업계수요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산업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까지 연결(취업)되는 사후 사업관리체계 강화’라는 3대 인력 육성 추진방향이 담긴 ‘2018년도 산업부 인력양성계획(‘18.1)’ 발표
- 국내 부처별 인력양성 정책 사례 분석은 고용노동부 11개, 교육부 4개, 중소벤처기업부 추진 정책 사업 16개, 산업통상자원부 추진 정책 사업 6개를 대상으로 실시함

[표 4-2] 정부 부처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요 사례

주관부처	관산학 협력 기반 사업	재직자 역량 강화사업	취업(창업)역량 제고 사업
고용 노동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일학습 병행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중소기업 훈련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내일배움카드(실업자)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정책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한국형 나노디그리 육성	-평생교육 바우처	-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기술사관 육성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 양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벤처기업 채용인력 역량 강화 교육 -R&D기획역량강화교육	-비즈쿨 학교 지정·운영 -창업대학원 운영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온라인교육시스템(SMEMOOC) 활성화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산업통상 자원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산업전문인력역량 강화(R&D) -산학융합지구조성(R&D)	-산업단지 근로자 평생학습 교육 지원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산업단지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재인용.

■ 관산학 협력기반 사업

- 정부의 다양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산학 협력 기반 사업을 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과 기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표 4-3] 정부부처별 관산학 협기반 사업의 주요 내용

주관부처	관산학 협력 기반 사업명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을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 단체와 연합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 사업비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 지역·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 지역별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인력수요·공급조사→공동훈련센터 훈련→채용 등 지역·산업의 맞춤형 인재육성체계 구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 및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 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재양성, 지역 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일학습 병행	• 기업이 청년 등을 선 채용하여 체계적인 현장훈련 실시, 학교 및 공동훈련센터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기르는 일터 기반의 학습 제도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정책	•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양성하여 사회·산업 현장의 수요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
	글로벌 현장학습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및 해외연수 등과 같은 다양한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 및 진로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
	한국형 나노디그리 육성	• 재직자, 구직자가 기업·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 기간(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모형을 개발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교육을 지원하여 기술·기능인력을 양성, 채용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하는 4년제 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술 고도화·융합화에 따른 숙련기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인력 체계적 양성(중소기업 취업 연계) • 중소기업과 대학(전문대·일반대) 연계, 산학맞춤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적합한 기술인재 양성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가 요구하는 R&D 및 산학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현장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과 취업이 연계되는 고급연구 인력양성 신모델 구축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 대학 및 정부가 상호 유기적인 수요자 기반의 산학 협력을 통해 공과대학생의 전공역량강화, 고교생의 현장 직무능력 제고
산업통상 자원부	창의융합형 공학 인재 양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대학 스스로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 산업계 수요 및 대학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및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산업전문인력역량 강화(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유망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실습 및 산학공동프로젝트 등의 교육과정 지원
	산학융합지구조성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조성, 산업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취업'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지원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재인용.

■ 재직자 역량강화 사업

- 정부의 다양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재직자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기업의 근로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표 4-4] 정부부처별 재직자 역량강화 사업의 주요 내용

주관부처	재직자 역량강화 사업명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내일배움카드(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중소기업 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지원
교육부	평생 교육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실질적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기업,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채용조건형) 학생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의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

	R&D기획역량강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경험이 없고 의지는 있어도 역량이 부족한 상태의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
	벤처기업 채용인력 역량 강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채용인력의 업무적응도 및 팀워크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온라인교육시스템 (SME-MOOC)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근로자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연수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근로자 평생학습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직무역량(교육제도)의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의 언어, 상관습, 관세 및 각종 수출입 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과 더불어 지역별 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한 무역실무지식을 겸비한 맞춤형 지역전문 인재육성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재인용.

■ 취업(창업) 역량강화 제고 사업

- 정부의 다양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재직자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기업의 근로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표 4-5] 정부부처별 취업(창업)역량제고 사업의 주요 내용

주관부처	취업(창업) 역량제고 사업명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 산업분야의 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현장 직무 요구 지식·기술 등 산업부문별·수준별 체계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 자격 부여
	내일배움카드(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 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업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비즈쿨 학교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쿨을 운영
	창업대학원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청년창업사관학교	• 유망(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시장전문가 참여 및 선진 사업모델 개발기법을 활용하여 사업화 과정 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 우수한 창업인프라(전담인력, 시험장비 등)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전국 권역별 창업 전진기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혁신가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문제 해결과 관련한 도전 기회 제공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재인용.

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 정부부처에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피해현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대상 6개 부문 약 30가지의 정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표 4-6]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분야별 관광기업 지원 대책(문체부)

유형	추진 내용
금융지원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 및 조기지원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의무 유예 /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융자상환유예 -소상공인 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융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고용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4대 사회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지원
세정지원	-내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기연장, 당일환급, 관세조사 유예 등
보증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 및 우대보증 /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보증기한 연장 -신속전액보증 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 활력 보강 프로그램
경영지원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 -호텔등급평가 유예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추가지원 -카드사 혜택확대 /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코로나19 격리입원 근로자 유급휴가비 지원
근로자 대 상 지원	-[무급휴직]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특수형태근로자·저소득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주1) 2020년 8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분야별 관광기업 지원 대책, 재인용.

- 이밖에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 중임

[표 4-7]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 현황

구분	추진 내용
서울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민생경제대책반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5,000억원) 및 특례보증(5,000억 원)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2.14.)
부산	-민·관 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 설치·운영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4,000억원) 및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150억원) 지원 -피해기업 추가자금(1,000억원) 긴급 지원 및 피해극복을 위한 자금 기탁(BNK, 100억원)
대구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대책본부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200억원) 및 특별보증(200억원) 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추진
인천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반 및 경제대책 상황실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650억원) 및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250억원) 지원 -피해 업체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방세 지원
광주	-코로나19 경제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2,300억원) 및 특례보증(732억원) 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발표(2.12.)
대전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피해접수창구 및 소상공인 지원협의체 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1,420억원) 지원 -피해기업 구매조건 생산자금 100억원 특별배정 및 피해 -기업 세제 지원 등
울산	-자동차산업 대응지원센터 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1,200억원) 지원 -지방세 지원, 울산페이 이용 활성화 추진(결제금액 3% 포인트 추가지급)
세종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250억원) 확보 -코로나19 대응 예비비 편성(154백만원) -지방세 지원(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경기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경제 TF 설치·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2,000억원) 및 특례보증(8,500억원) 지원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2.6)

강원	-민·관 합동 비상경제 대책본부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700억원) 지원 -소비촉진 및 경기활성화 특별대책 수립(2.13.)
충북	-경제상황점검 및 대응 TF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50억원) 및 특례보증(50억원) 지원 -지방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및 할인 확대 추진
충남	-지역경제 대응 TF팀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6,624억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2.13.)
전북	-전북 경제상황대응 TF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1,000억원) 및 특례보증(200억원)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및 할인을 확대 추진
전남	-경제상황 대응 T/F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500억원) 및 -특례보증(400억원) 지원 -지방세 지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경북	-코로나19 대응 경북 경제 T/F단 구성·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당초 300억원 → 1,200억원 증액) -수출입 피해기업 마케팅·신규시장 개척 등 긴급예산 10억원 지원
경남	-경상남도 코로나19 경제상황대응반 및 통합신고센터 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500억원) 및 특례보증(200억원) 지원 -수출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4개사업, 318억원) 조기 시행
제주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출범(2.13.)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9,000억원) 및 특례보증(1,000억원) 지원 -관광사업체 대상 관광진흥기금 5,700억원 특별 지원(특별용자 3,000억원, 상환유예 2,700억원)

주1) 2020년 8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분야별 관광기업 지원 대책, 재인용.

다. 소결

■ 상위정책과 인력양성 정책의 연계성 강화 및 관련 조직 운영 필요

- 국외 관광 전문인력 양성 정책은 상위 정책과 연계성을 바탕으로, 국내 타분야에 있어서 전문인력 양성은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함

- 캐나다, 일본의 경우 인력양성 정책 개발을 위한 조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전략적인 인력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확대 및 정책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있음

■ 전문인력 양성정책 사업 전 철저한 평가·관리 체계 및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그 특성상 투입과정은 비교적 명확한 것에 비해 사업효과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부부처에서는 양성사업의 성과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 및 캐나다의 경우 관광산업의 인력은 현장 경험이 중시되기 때문에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정부부처에서도 산관학 협력 인력 양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함

■ 경력단계별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일본은 자격제도의 등급화 및 단계화가 심화되고, 미국의 경우, 경력단계별 국가 직무능력 모델을 제공하여 자격증 및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있음
- 국내 정부부처의 경우, 신규 직원, 종사자(중견/고경력 등) 등의 경력단계별교육을 위한 지원 및 교육과정 체계 구축이 요구됨(관련 자격체계 구축필요)

■ 업종별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모색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산업 내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업종별 혜택의 사각지대가 있어 추가 지원방안이 필요함
 - 숙박업의 경우 관광숙박업은 혜택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 숙박업 중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업체가 있으며, 국제회의업과 여행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광고홍보업 등록업체 또한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함(인터뷰 내용)
 - 이밖에 교통유발지원금, 임대료, 전기세 등의 지원을 추가적 진행이 요구됨

3)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업 현황 분석⁵⁵⁾

가. 관광레저산업 대표 직업

-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관광산업 특수분류(3차) 중 핵심 관광산업으로 국한하였음
-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속한 7개 업종의 등록사업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데 관련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직무 범위가 관광 관련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칭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음⁵⁶⁾
- 핵심 관광산업 이외의 상호의존, 부분적용, 관광 지원산업은 연관되는 직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직업군들이 넓게 분포되어 관련 직업으로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이와 관련한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동 자료는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세분류(4-digit) 단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관광레저산업과 관련되는 직업을 선별하였음
- 관광·레저분야 관련 직업은 관리자에 속하는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부터 전문가⁵⁷⁾, 사무종사자(여행사무원), 서비스 종사자⁵⁸⁾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음

[표 4-8] 관광레저 분야 관련 직업 및 직업 예시

직업분류				직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예시
관리자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고객서비스 관리자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리자	호텔(모텔)관리자·여행업체관리자·호텔 총지배인·카지노관리자·이미용업체관리자·스포츠센터관리자 등
			음식서비스 관리자	호텔음식(음료부)관리자·식당관리자·레스토랑매니저 등
전문가	경영금융 전문가	상품기획 홍보 및 조사전문가	여행상품 개발자	관광여행기획자·여행상품개발원·투어오퍼레이터
			행사기획자	공연전문가·컨벤션코디네이터·국내 및 국제회의 기획자
	문화예술	작가·기자 및	통역가	동시통역사·수화통역사·통역가

55) 한국고용정보원(2016)의 「관광산업의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보고서의 내용을 재인용하여 분석하였음

56) 단, 핵심 관광산업 중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은 매칭되는 직업 분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함

57) 여행상품 개발자, 행사기획자, 통역가,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미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가 이에 해당함

58) 항공기 객실승무원,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오락시설 서비스원,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이 이에 해당함

	스포츠 전문가	출판전문가		
		큐레이터·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박물관관리인·문화재보존원(수리원)
		매니저 및 기타 문화 예술 관련 종사자	마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 사자	사서·기록물관리사(원)·문서보관원 마술사·동물조련사·곡예사
사무 종사자	상담통계 안내 및 기타 사무직	여행안내 및 접수사무원	여행사무원	여행사무원·여행표발행사무원·예약 및 발권사무원
서비스 종사자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운송서비스 종사자	항공기 객실 승무원	항공기승무원·객실사무장·객실장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여객선승무원·열차객실승무원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여행 및 관광 통역안내원	국내외여행안내원·관광통역안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호텔리어·호텔 컨시어지·도어맨·콘도서 비스원·모텔시중원·여관시중원
			오락시설 서비스원	놀이시설 안내원·놀이기구조작원·놀이기 구진행요원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카지노딜러·골프장캐디

주: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9차 개정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직업예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과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을 참고로 정리한 것임

자료: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직업정보시스템)

나.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업 특성

■ 업종별 관련 직업 현황

- 한국고용정보원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테마별 직업여행 등으로 구성되어 구직자들에게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⁵⁹⁾
- 관광산업 특수분류의 1단계에 속하는 핵심 관광산업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그 외 상호의존 관광산업과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지원산업 중 직접적으로 관련 산업의 종사자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직업들을 분석하였음

59) www.work.go.kr/constJobCarpa/srch/jobInfoSrch/srchJobInfo.do

[표 4-9]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직업 현황

구분	업종 내용	세부직업
여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해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 안내 및 편의를 제공 일반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여행사무원, 여행안내원, 여행상품개발자, 투어컨덕터, 관광통역안내원, 자연환경안내원, 문화관광해설사, 지역수배전문가, 항공권예약발권사무원
관광숙박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에게 음식·운동·오락·휴양등을 포함해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제공 관광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컨시어지, 호텔지배인, 프런트데스크 사무원, 숙박관련서비스직, 호텔세탁업, 오더테이커, 룸메이드, 숙박시설 전화교환원, 도어맨
관광객 이용 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의 휴양·여가 선용을 위해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을 제공 전문휴양업(1종2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공연장)업,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컨벤션기획자, 국제회의통역사
카지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 기구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재산상의 이익 혹은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업 	-카지노딜러, 카지노출납원, 카지노 안전관리원
유원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시설(기구)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놀이시설종사원, 퍼레이드연기자, 테마파크디자이너
관광편의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6가지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극장유흥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등 	

주: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7개 업종을 중심으로 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관광산업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재인용

나. 업종별 관련 직업 특성⁶⁰⁾

■ 여행업 관련 직업

- 여행서비스 종사자는 외국인의 국내·외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여행사무원과 여행 상품기획자(개발자), 여행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여행안내원으로 구분 됨
- 여행사무원: 고객에게 여행상품을 추천 및 판매하고, 여행일정을 계획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며 요구되는 학력은 없고, 관련 분야 지식(국내·외 여행경험 포함)과 업무경험이 있으면 입직시 유리함
 - 여행안내원: 국내외를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교통기관, 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각종 여행편의를 제공하며, 관광지 및 관광 대 상품물을(관광지 등)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며, 관련 분야 지식(국내·외 여행경험 포함)과 업무경험이 있으면 입직시 유리함(관련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
 - 여행상품 개발자: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세우며,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며,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계획에 관하여 조언하는 업무로 학력제한은 없으나 대학에서 호텔관광계열 전공자 및 관련 분야 지식(국내·외 여행경험 포함)과 업무경험이 있으면 입직시 유리함

[표 4-10] 여행업 관련 직업 특성

직업	직무	관련 학과/자격증
여행사무원	여행상품 추천 및 판매, 여행일정 계획	어학 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인문/사회계열
여행안내원	국내외 여행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안내 및 여행편의 제공	호텔관광경영학과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여행상품 기획자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여행계획을 수립하며 단체관광 여행 조직	
관광통역안내원	국내여행 외국인 혹은 국외여행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안내	인문/사회계열 호텔관광경영학과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주) 한국고용정보원과 직업정보시스템 내용 활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관광산업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재인용

60) 직업에 대한 전망은 직업당 평균 30명 이상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전망하였음

- 관광통역안내원: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등을 안내하고 여행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특별히 학력제한은 없으나 관광계열 전공자 및 통역안내원 이수자가 활동이 가능함(관련 자격: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숙박업 관련 직업⁶¹⁾

- 숙박시설 서비스원은 주로 호텔이나 콘도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 객실안내, 짐 운반,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 열쇠 관리, 객실 정리, 세탁 보급, 음식 제공 등 각종 서비스 제공
 - 호텔컨시어지: 호텔을 방문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력·나이·전공학과 제한은 없으나 고졸이상의 학력 선호 함(관련 자격: 호텔서비스사)
 - 호텔 객실청소원: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객실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로 특별한 자격 및 학력·나이는 없음(면접 선발)

[표 4-11] 관광숙박업 관련 직업 특성

직업	직무	관련 학과/자격증
호텔컨시어지	호텔 방문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 제공	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경영과
호텔객실청소원	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에 서 객실 청결유지	무관
도어맨, 벨맨	호텔 접객과 고객의 짐을 운반, 차량 주차 서비스 제공	무관
호텔 지배인	호텔업 전반적인 업무 총괄	호텔경영학 관광경영학
오더 테이커	호텔 투숙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 해결	어학관련 학과
호텔 세탁원	객실 용품 정리 및 세탁	

주) 한국고용정보원과 직업정보시스템 내용 활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관광산업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재인용

61) 일자리 전망은 직업당 평균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망하였음

■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관련 직업(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 포함)⁶²⁾

○ 카지노업 관련 직업은 카지노 딜러, 카지노 출납원 및 관리원으로 구분됨

- 카지노 딜러: 오락장, 클럽 등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게임을 진행하며, 요구되는 학력과 연령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음: 보통 전문대 이상 학력 및 외국어 점수 필요(토익 850점 이상, HSK 8급 이상, 일어능력시험 2급이상 등)
- 카지노 출납원: 카운트룸을 운영하며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을 공급 회수, 게임테이블에 장착되어 있는 드롭박스의 드롭(현금, 수표, 여행자 수표 등의 내용물)을 정해진 시간에 회수하는 업무(회수된 드롭박스 드롭 계산·정리, 칩, 현금, 수표 등을 보관 등)
- 안전 관리원: 카지노에 입장하는 고객들을 통제하고 물품을 점검하여 금지목록을 접수·보관하는 일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장금지 고객의 출입을 통제하며, 영업장 내외를 순찰하며 고객 및 카지노 종사자의 안전 도모

○ 유원시설업 등 관련 직업

- 놀이시설 종사원: 경기장, 유기장, 유원지, 도박장, 전망대 등과 운동설비를 갖춘 장소 등에서 편의와 안전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놀이공원의 현장업무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담당
- 골프장 캐디: 골프장에서 고객을 위하여 골프백을 담은 수레(cart)를 밀고 다니거나 운반하는 업무로 별도의 학력제한은 없으며 양성기관(골프캐디 양성학원 등) 교육 이수 후 취업

[표 4-12]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관련 직업 특성

직업	직무	관련 학과/자격증
카지노 딜러	오락장, 클럽 등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게임 진행	카지노경영과 호텔카지노과 호텔카지노경영과
카지노 출납원	카지노 게임 칩을 공급하고 회수	무관
카지노 안전관리원	카지노 영업장 고객관리 및 안전보호	경호학과
놀이시설 종사원	경기장, 유기장, 유원지 등 운동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편의와 안전유지 업무 수행	무관
골프장 캐디 (캐디 관리원)	골프장에서 골프백을 운반 혹은 카트 이동	무관

주) 직업정보시스템 내용 활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관광산업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재인용

62) 일자리 전망은 직업당 평균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망하였음

2. 정규 교육기관⁶³⁾ 인력양성 현황

- 관광·레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함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
이 개설되고 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관광·레저산업의 인력을 저변확대는 물론 인력
의 공급원으로써 충실한 역할의 수행이 필요함

1) 정규 교육기관 현황

가. 관광·레저분야 고등학교

- 국내에 관광·레저분야 관련 고등학교는 2000년에 개교한 한국관광고등학교(한국 최초 관
광특성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기준 전국에 100개교에 약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임
- 이중 학교명에 관광이 들어간 학교는 15개교(6,405 여명)로 관광경영과, 관광조리과, 관광
서비스과, 관광레저경영과, 관광외국어과, 관광호텔경영과, 항공관광경영과, 컨벤션관광과
등이 있음
- 기타 관광 관련 고등학교에는 경기 남양고등학교 등 85개교 14,705명이 있음⁶⁴⁾

[표 4-13] 전국 관광 관련 고등학교 세부현황

(단위 : 개, 명)

연번	학교유형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1	특성화고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	6	143
2	특성화고	고명경영고등학교	4	104
3	기타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6	112
4	특성화고	대경상업고등학교	4	104
5	특성화고	대일관광고등학교	23	528
6	특성화고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8	184
7	특성화고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9	220
8	특성화고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15	361
9	특성화고	서울관광고등학교	29	716
10	특성화고	서울컨벤션고등학교	30	734
11	특성화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	9	501

63) 관광·레저산업 발전에 따라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관광교육기관은 관광인력의 저변확대는 물론 전문적인 관광인력의 공급원으로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관광관련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정규 관광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음

64) 학교명에 관광, 호텔, 컨벤션, 항공, 레저, 외식, 조리가 들어간 학교 등

연번	학교유형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12	특성화고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7	143
13	특성화고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15	339
14	특성화고	송곡관광고등학교	21	512
15	기타	종로산업정보학교	9	-
16	특성화고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18	349
17	기타	아현산업정보학교	6	153
18	특성화고	은평메디텍고등학교	4	92
19	특성화고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27	633
20	특성화고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1	26
21	특성화고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	3	68
22	일반고(종합고)	석정여자고등학교	3	35
23	특성화고	춘천한샘고등학교	3	78
24	특성화고	경기관광고등학교	12	277
25	특성화고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9	222
26	특성화고	경기경영고등학교	6	144
27	특성화고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9	211
28	특성화고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15	371
29	특성화고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4	80
30	일반고(종합고)	남양고등학교	6	150
31	특성화고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3	78
32	특성화고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9	218
33	특성화고	분당경영고등학교	9	210
34	특성화고	성남금융고등학교	6	134
35	특성화고	성보경영고등학교	18	445
36	특성화고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6	138
37	일반고(종합고)	양동고등학교	3	71
38	특성화고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29	680
39	특성화고	일산고등학교	6	156
40	특성화고	일죽고등학교	3	66
41	일반고(종합고)	파주여자고등학교	6	98
42	특성화고	평촌경영고등학교	16	400
43	일반고(종합고)	하성고등학교	3	35
44	특성화고	한국관광고등학교	9	252
45	특성화고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3	79
46	특성화고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6	169
47	특성화고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18	719
48	특성화고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9	158
49	특성화고	병천고등학교	9	235
50	일반고(종합고)	성환고등학교	8	174

연번	학교유형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51	일반고(종합고)	예산예화여자고등학교	4	79
52	특성화고	증평정보고등학교	3	65
53	특성화고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8	188
54	특성화고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2	18
55	특성화고	경남관광고등학교	30	694
56	특성화고	경남산업고등학교	6	154
57	특성화고	선명여자고등학교	6	124
58	일반고(종합고)	삼가고등학교	2	44
59	특성화고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6	147
60	특성화고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6	132
61	특성화고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4	95
62	특성화고	경주정보고등학교	6	140
63	특성화고	명인정보고등학교	2	45
64	특성화고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3	73
65	특성화고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2	44
66	특성화고	대구관광고등학교	35	732
67	특성화고	상서고등학교	7	168
68	특성화고	계성여자상업고등학교	7	157
69	특성화고	부산관광고등학교	12	258
70	특성화고	부산마케팅고등학교	4	91
71	특성화고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4	98
72	특성화고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24	537
73	특성화고	영산고등학교	4	58
74	특성화고	해운대관광고등학교	16	348
75	특성화고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9	248
76	특성화고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12	319
77	특성화고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21	541
78	특성화고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4	91
79	특성화고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9	186
80	특성화고	인천산업정보학교[각종학교]	4	62
81	특성화고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9	254
82	특성화고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2	49
83	특성화고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2	42
84	특성화고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2	40
85	특성화고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6	161
86	특성화고	순천효산고등학교	11	267
87	특성화고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14	337
88	특성화고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2	27
89	특성화고	진성여자고등학교	2	31

연번	학교유형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90	특성화고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9	203
91	일반고(종합고)	고창여자고등학교	3	47
92	특성화고	강호항공고등학교	6	133
93	특성화고	남원제일고등학교	6	96
94	특성화고	덕암정보고등학교	4	86
95	특성화고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2	56
96	특성화고	학산고등학교	3	66
97	일반고(종합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3	56
98	특성화고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3	69
99	특성화고	제주고등학교	33	891
100	특성화고	중문고등학교	6	158
합 계			890	21,110

주1) 학급수/학생수: 전체 학과 중 관광계열 학과의 학급수 및 학생수 현황

주2) 2019년 12월 학교알리미 정보공시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나. 관광·레저분야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및 대학원

- 4년제 정규과정의 대학에서는 주로 관광·레저 전반에 걸친 학문적 이론교육을 위주로 하는 반면, 2년제 전문대학은 관광에 관한 이론과 NCS를 기반으로 한 실무·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관광·레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함
 - 1964년 경기대학교 4년제 정규 학사과정으로 관광관련 학과가 최초로 설치된 이래 관광관련 대학 교육기관의 현황은 2019년 12월 기준 145 학교에서 정규 학위과정의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⁶⁵⁾
- 최근에는 다른 학문분야와 관광이 결합하여 관광의 학문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 및 개방화의 시대 흐름에 따라 관광이 외국어, 경영, 문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되어 새로운 학문영역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관광·레저산업 관련 대학교(4년제)의 경우 연간 졸업생은 2019년 기준 약 2,300명인데 반해 교육과정별 NCS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의 확보가 다소 어려워 조속한 NCS기반 교육과정의 도입이 요구됨
 - 최근에는 NCS기반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였던 전문대학 역시 의무화가 풀리면서 현재의 NCS기반 교육과정의 어려움 발생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됨

65) 2010년까지 부록에 수록되었던 <국내 관광관련학과 현황>의 경우, 『통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제공되지 않음

- 이에ISC에서는 이러한 산업 현장과 교육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조속한 NCS의 개발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임

[표 4-14] 관광·레저 관련 대학 교육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학교 수	정원	입학생 수	재적학생 수		졸업생 수
				재학생 수	휴학생 수	
전문대학(3년제)	30	2,866	3,338	6,402	2,372	2,844
전문대학(2년제)	34	3,405	3,618	7,146	2,853	2,927
대학교	45	3,017	3,430	12,676	2,924	2,300
방송통신대학	1	1,900	429	2,579	935	512
산업대학	1	60	101	320	43	53
사이버대학(대학)	2	-	106	370	54	126
전공대학	1	735	745	1,382	517	578
일반대학원	18	-	210	414	75	143
전문대학원	1	-	5	9	1	1
특수대학원	12	-	267	499	69	143
계	145	11,987	12,249	31,797	9,843	9,627

주1) 2019 한국교육개발원 학과(전공) 분류집의 소계열이 관광/관광학인 경우에 한함

주2) 학교 수는 입학자가 있는 학교에 한하며, 본교 기준임

주3) 입학자는 2019년 3월 기준이며 졸업생은 2018년 8월 및 2019년 2월 졸업자가 포함 됨

주4) 한국교육개발원, 2019년 4월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평생교육원, 전문학교 등)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
-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학교교육은 물론 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학점은행제 전체 교육기관 현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 기관유형별 현황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대학/전문대 부설 구분)이 200개소, 학원(기술계/사회계/예능계 구분) 15개소, 직업훈련기관(공공/인정 구분) 65개소가 운영 중임
- 그 밖에 정부관련기관 35개소, 고등기술학교 1개소, 특수학교 6개소,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4개소, 평생교육시설 19개소, 평생교육시설(원격) 77개소, K-MOOC 11개소로 총 433개소가 있음

[표 4-15]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기관유형		기관수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대학부설평생교육원	123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77
	소계	200
학원	기술계학원	5
	사회계학원	9
	예능계학원	1
	소계	15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원	1
	인정직업훈련원	64
	소계	65
정부관련기관		35
고등기술학교		1
특수학교		6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4
평생교육시설		19
평생교육시설(원격)		77
K-MOOC		11
합계		433

주) 2020년 현재 기준 수치임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

■ 관광관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현황

○ 전국에 관광관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총 49개교가 운영 중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 28개교가 운영 중임

- 또한 2개교(인천직업전문학교, 엠배서더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시설)는 현재 운영 중단 중임

[표 4-16] 관광관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현황

연번	지역	교육기관명	비고 (운영여부)
1	서울	(재)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운영 중
2	서울	(학)송실대학교 송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3	서울	EK티쳐 한국어교수원격평생교육원	운영 중
4	경기	강남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5	서울	강남직업전문학교(서울)	운영 중
6	서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운영 중
7	경기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운영 중
8	서울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9	경기	경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10	서울	경희대학교부설글로벌미래교육원	운영 중
11	경기	경희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국제)	운영 중
12	서울	고려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13	서울	광운대학교부설정보과학교육원	운영 중
14	서울	국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15	서울	글로벌아평생교육원	운영 중
16	인천	글로벌관광통역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17	충남	남서울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운영 중
18	대구	대구과학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19	경기	대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20	서울	동국대학교전산원	운영 중
21	부산	동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22	인천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운영 중
23	서울	메이필드호텔스쿨	운영 중
24	서울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운영 중
25	서울	백석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26	서울	백석예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27	부산	부산과학기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28	경기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 중
29	서울	사이에듀평생교육원	운영 중
30	서울	서강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31	서울	서울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32	서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연번	지역	교육기관명	비고 (운영여부)
33	서울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34	서울	서울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35	서울	세종대학교미래교육원	운영 중
36	서울	송실대학교글로벌미래교육원	운영 중
37	경기	신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38	서울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39	서울	엠베서더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시설	일시 중단
40	경기	용인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41	경기	유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42	인천	인천직업전문학교	일시 중단
43	인천	인하공업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44	서울	정화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중
45	경기	한국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운영 중
46	서울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47	경기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운영 중
48	서울	한양대학교부설미래인재교육원	운영 중
49	충남	호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합계		49개교	

주1) 국가평생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의 과목별 검색에서 관광관련 교육기관 필수과목인 ‘관광학개론’을 검색하여 관련 교육기관을 정리하였음

주2) 일시 중단의 경우 검색 교과목인 ‘관광학개론’ 과 관련한 교육과정 임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

2) 일학습병행 관련 운영기관 현황

○ 일학습병행이란 실력중심사회 여건조성을 위해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제공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근로자의 역량을 국가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학위)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 재직자과정(입사 1년 이내 신규입직자): 재직자 과정을 크게 단독기업형(기업단독으로 현장훈련과 현장 외 훈련실시)과 공동훈련센터형(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현장 외 훈련실시)으로 구분됨
- 재학생과정(특성화고-2~3학년, 전문대-2학년, 대학교3~4학년 재학생): 재학생과정은 특성화고(2~3학년) 대상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2020년도 67개 사업단 운영), 전문대 재학생(2학년) 단계(2020년도 11개교 운영), 일반대학교 재학생(3~4학년) 대상 IPP형 일학습병행(2020년도 36개교 운영)으로 구분됨

■ 공동훈련센터형⁶⁶⁾

- NCS기반 자격형 일학습병행에 참여기업의 공동훈련센터 자격으로 여러 전문대학 및 대학교가 참여하여, 산업 내 중소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현장 외 훈련(OFF-JT)을 직접 실시하고 현장훈련(OJT)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전국 108개 기관기업)
- 참여형태는 크게 국가 또는 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연계형과 학위와 연계되어 교육부 또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대학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표 4-17] 전국 일학습 병행 공동훈련센터 현황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08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107	한국폴리텍Ⅶ대학	10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5	영진전문대학	104	중부대학교(일학습 병행)	103	전주 비전대학
102	제주한라대학교	101	경북전문대학 산학협력단	100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99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9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97	한밭대학교
96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정수캠퍼스)	95	군장대학 산학협력단	94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93	한국폴리텍Ⅵ대학	92	한국폴리텍Ⅵ 대학 동부산캠퍼스	91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90	배재대학교 IPP사업단	89	한국디지털기업협회 강남평생교육원	88	(학)순천향 대학
87	동국대학교 듀얼공동훈련센터	86	(주) 대흥소프트밀 (일학습병행)	85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84	한국폴리텍Ⅳ대학 충주캠퍼스	83	한국폴리텍Ⅵ대학 영주캠퍼스	82	한국폴리텍6대학 달성캠퍼스
81	한국폴리텍1대학 산학협력단제주지소	80	한국섬유개발연구원	79	동양미래대학교
78	충북보건과학대학교	77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	76	씨앤엠로보틱스주식회사(일학습병행)
75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74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73	오산대학교
72	(주)포스크미래창조아카데 미	71	한국폴리텍5대학 산학협력단	7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6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68	두원공과대학교 유니테크사업단	67	현진소재(주)
66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일학습 병행)	65	한국폴리텍Ⅳ 청주캠퍼스	64	한국폴리텍 진주캠퍼스
63	구미대학교	62	한국폴리텍대학	61	한국정밀 화학산업진흥회

66) 학습기업은 현장훈련(OJT)만 운영하며, 현장 외(Off-JT)은 듀얼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참여형태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익산캠퍼스		
60	한국광산업진흥회 (일학습병행제SC)	59	인천재능대학교	58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일학습)
57	서라벌대학교	56	신안산대학교	55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54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53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항공캠퍼스	52	(주)LGCNS Learning&Development 담당(II)
51	한국폴리텍7대학 부산캠퍼스	50	광주대학교	49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48	한국폴리텍V대학 산학협력단 목포지소	47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46	(사)충북산학융합본부
45	한국폴리텍V대학 순천캠퍼스	44	한국폴리텍 화성캠퍼스	43	우송정보대학
42	한경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41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40	한국해양대학교
39	영남이공대학교	38	한양여자대학교(일학습 병행)	37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36	(사)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 흥협회	35	(사)한국외국기업협회	34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일학습병행)
33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 진흥회	32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31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
30	한국폴리텍 II대학	29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28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27	한국폴리텍VI대학 포항캠퍼스	26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25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24	한국폴리텍IV대학 홍성캠퍼스(직장)	23	한국폴리텍IV대학	22	한국폴리텍III대학 강릉캠퍼스
21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20	공주대학교	19	ICT폴리텍 대학
18	한국금융투자협회	17	(주)디아이씨	16	한국철강협회(일학습 병행)
15	동강대학교	14	유한대학교	13	(사)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 회
12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일학습)	11	(사)캠틱종합기술원	10	거제대학교
9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	8	남서울대학교	7	(학교법인)동남학원 (동남보건대학)
6	창원문성대학교 공동훈련센터	5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학교법인)	4	(학교법인)경남정보대학 산학협력단
3	인덕대학교	2	인하공업전문대학	1	배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총 108개 기관

자료: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참고 후 재작성.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 현황

-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을 진행,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현장 외 훈련(Off-JT)을 진행하는 과정

[표 4-18]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 현황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전주공업고등학교	23	순천효산고등학교	45	천안공업고등학교
2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24	상서고등학교	46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3	문경공업고등학교	25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47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4	부산관광고등학교	26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48	대구공업고등학교
5	부원고등학교	27	두원공업고등학교	49	부천공업고등학교
6	은평메디텍고등학교	28	영남공업고등학교	50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7	인천하이텍고등학교	29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51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일학습병행)
8	경북공업고등학교	30	세명컴퓨터고등학교	52	청주공업고등학교
9	인평자동차고등학교	31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일학습병행)	53	광주공업고등학교
10	평촌경영고등학교	32	경북하이텍고등학교	54	경남공업고등학교
11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33	전북하이텍고등학교	55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12	부산공업고등학교	34	경주공업고등학교 도제학교	56	세종하이텍고등학교
13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35	영광공업고등학교	57	서울공업고등학교
14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36	광양하이텍고등학교	58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15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	37	용산공업고등학교	59	재능고등학교
16	원주공업고등학교	38	강경상업고등학교	60	대한미용사회
17	인천기계고등학교	39	울산공업고등학교	61	경주정보고등학교
18	금파공업고등학교	40	평촌공업고등학교	62	삼일공업고등학교 (일학습 병행)
19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41	양영디지털고등학교	63	경기스마트고등학교
20	목포공업고등학교	42	부평공업고등학교	64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21	휘경공업고등학교	43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65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22	충북공업고등학교 (일학습병행)	44	서산공업고등학교	66	성동공업고등학교

총 66건

자료: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참고 후 재작성.

- NCS기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고등학교, 관련 협회 등)의 경우 NCS자격과정과 모듈형, NCS기반자격+대학(학위) 연계형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전국에 66개 기관에서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

■ 유니테크 사업단 현황

- 특성화고 재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2년간 훈련 진행 후, 졸업한 학습근로자를 전문대학으로 진학시켜 훈련 진행하는 장기간의 훈련과정임
- NCS기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고등학교, 관련 협회 등)의 경우 NCS자격과정과 모듈형, NCS기반자격+대학(학위) 연계형 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전국에 17개 기관에서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

[표 4-19] 유니테크 사업단 현황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인천재능대학교
2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11	동원대학
3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12	두원공과대학교 유니테크 사업단
4	유한대학교	13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
5	영남이공대학교	14	군장대학 산학협력단
6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15	경북전문대학 산학협력단
7	신성대학	16	전주비전대학
8	우송정보대학	17	영진전문대학
9	경남정보대학교 산학협력단	18	구미대학교 유니테크 사업단
총 18개 기관			

자료: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참고 후 재작성.

■ IPP형 일학습 병행 사업단

- 대학 졸업예정자들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을 진행, 대학에서 현장외 훈련(Off-JT)을 진행하는 과정 임
- NCS기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고등학교, 관련 협회 등)의 경우 NCS자격과정과 모듈형, NCS기반자격+대학(학위) 연계형 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전국에 17개 기관에서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

[표 4-20] IPP형 일학습 병행 사업단 현황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동덕여자대학교 IPP사업단	21	대구한의대학교(듀얼공동훈련센터)
2	한신대학교	22	건국대학교
3	동서대학교 IPP사업단	23	한남대학교
4	카톨릭관동대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단	24	한성대학교 IPP사업단
5	학교법인 홍익학원	25	숙명여자대학교
6	경성대학교 IPP 사업단	26	목포대학교(대학회계)
7	영산대학교	2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8	한마학원경남대학교 IPP사업단	28	동신대학교
9	성신여자대학교	2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10	명지대학교	30	동국대학교 듀얼공동훈련센터
11	협성대학교	31	순천향대학교
12	경기대학교 IPP사업단	32	신라대학교
13	남서울대학교	33	배재대학교 IPP사업단
14	인하대학교	34	선문대학교
15	광운대학교	35	인제대학교
16	한국교통대학교	36	목원대학교
17	부산외국어대학교	37	대구대학교
18	연세대학교 IPP사업단	38	가천대학교
19	강원대학교(삼척)	39	한라대학교
20	동의대학교	총 39개 교	

자료: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참고 후 재작성.

3)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광·레저산업 인력양성(향상) 현황⁶⁷⁾

가.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훈련 공급 현황

■ 전체 양성훈련 공급현황

- 서울지역 양성훈련 공급현황은 고용노동부 훈련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수료한 훈련생의 현황을 합산하여 분석함
- 2018년 서울지역에서 실시된 양성훈련의 종류는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3digit)⁶⁸⁾기준 68가지로, 해당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88,726명이며, 훈련수료 인원은 78,203명(88.1%)으로 나타남
 - 훈련 수료 인원 중 취업자 수는 43,705명(훈련수료인원 대비 취업률 55.9%)으로 나타남
-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현황을 살펴보면 「521. 여행 서비스원」이 1,007명(실시율: 10.2%)이 양성훈련에 참여하여 915명(수료율: 90.9%)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479명(수료자 대비 52.3%)으로 나타남
 -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의 경우 29명(실시율: 1.0%)이 참여하여 26명(수료율: 89.7%)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6명(수료자 대비: 23.1%)으로 나타남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의 경우 34명(실시율: 68.0%)이 참여하여 32명(수료율: 94.1%)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20명(수료자 대비: 62.5%)으로 나타남

[표 4-21] 서울지역 직종별(KECO) 양성훈련 공급 현황

(단위: 명, %)

한국고용직업분류 2019 소분류	훈련 정원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실시율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전 체	1,036,469	88,726	78,203	8.6	88.1	43,705	55.9
521. 여행 서비스원	9,846	1,007	915	10.2	90.9	479	52.3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3,030	29	26	1.0	89.7	6	23.1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0	34	32	68.0	94.1	20	62.5

주) 서울지역 직종별(KECO) 양성훈련 현황 중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 수치 제시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2018』

67)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의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 양성(향상) 교육현황은 RSC 훈련수요공급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지역별로 작성기준이 다소 상이하여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관광·레저산업에 맞게 재작성함

68) 양성훈련 KECO는 2018년 개정된 직업분류 코드를 활용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공급현황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직종별(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훈련정원은 36,941이며, 훈련실시 인원은 28,037명(실시율 75.9%)으로 나타났으며, 수료 인원은 23,528명(수료율 83.5%)으로, 총 취업자 수는 15,485명(수료인원 대비 65.8%)으로 나타남
-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현황을 살펴보면 「521. 여행 서비스원」이 26명(실시율: 43.3%)이 양성훈련에 참여하여 23명(수료율: 88.5%)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11명(수료자 대비 47.8%)으로 나타남
 -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의 경우 20명(실시율: 66.7%)이 참여하여 19명(수료율: 95.0%)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5명(수료자 대비: 26.3%)으로 나타남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의 경우 30명(실시율: 100.0%)이 참여하여 28명(수료율: 93.3%)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16명(수료자 대비: 57.1%)으로 나타남

[표 4-22] 서울지역 직종별(KECO)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공급 현황

(단위: 명, %)

한국고용직업분류 2019 소분류	훈련 정원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실시율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전 체	36,941	28,037	23,528	75.9	83.9	15,485	65.8
521. 여행 서비스원	60	26	23	43.3	88.5	11	47.8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30	20	19	66.7	95.0	5	26.3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30	30	28	100.0	93.3	16	57.1

주) 서울지역 직종별(KECO) 양성훈련 현황 중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 수치 제시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2018』

■ (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공급현황

- (구직자)내일배움카드제의 직종별(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훈련 정원은 999,528명이며, 훈련 실시인원은 60,689명(실시율 6.1%)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훈련을 수료한 인원은 54,675명(수료율 90.1%)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28,220명(수료인원 대비 51.6%)로 나타남
-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현황을 살펴보면 「521. 여행 서비스원」이 981명(실시율: 10.0%)이 양성훈련에 참여하여 892명(수료율: 90.9%)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

는 468명(수료자 대비 52.5%)으로 나타남

-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의 경우 9명(실시율: 0.3%)이 참여하여 7명(수료율: 77.8%)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1명(수료자 대비: 14.3%)으로 나타남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의 경우 4명(실시율: 20.0%)이 참여하여 4명(수료율: 100.0%)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4명(수료자 대비: 100.0%)으로 나타남

[표 4-23] 서울지역 직종별(KECO) (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공급현황

(단위: 명, %)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소분류	훈련 정원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실시율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전 체	999,528	60,689	54,675	6.1	90.1	28,220	51.6
521. 여행 서비스원	9,786	981	892	10.0	90.9	468	52.5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무원	3,000	9	7	0.3	77.8	1	14.3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20	4	4	20.0	100.0	4	100.0

주) 서울지역 직종별(KECO) 양성훈련 현황 중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 수치 제시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2017』

3.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 양성(향상) 현황⁶⁹⁾

1) 관광레저산업 핵심업종(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교육 현황

가. 부처 관련 종사자 교육

- 정부에서는 관광레저산업 분야 종사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종사원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왔으며, 또한 국내 인바운드 크루즈 관광시장 확대와 국적 선사 출범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의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 중임

가) 한국관광공사 교육프로그램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테마아카데미를 비롯한 전문프리미엄가이드 양성교육, 관광통역안내사 테마아카데미, 관광통역안내사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관광산업 취업멘토링, 관광고교 교사 및 학생 대상 교육, 자유학기제 연계 관광산업분야 진로탐색 교육,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주 대상 안전점검 실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표 4-24] 한국관광공사 관광종사원 교육실적

(단위 : 명,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과정 명	교육실적	교육시간	교육횟수
한국 관광 공사	문화관광해설사 테마아카데미	330	2일~3일	9
	전문프리미엄가이드 양성교육	62	44시간	3
	관광통역안내사 테마아카데미	1,038	13시간	20
	관광통역안내사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333	25시간	5
	관광산업 취업멘토링	216	4시간	5
	관광고교 교사 및 학생 대상 교육	265	1일~2일	4
	자유학기제 연계 관광산업분야 진로탐색 교육	846	2시간	16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주 대상 안전점검 실무교육	358	온라인 교육	상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69) 관광레저산업의 정부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 교육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2019)의 2018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나)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의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내 인바운드 크루즈 관광시장 확대와 국적 크루즈선 취항계획 실행 여건 조성을 위해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⁷⁰⁾
-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는 크루즈 전문교육과정은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의 훈련비 지원을 받아 서울/경기지역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경북지역 대경대학교, 부산지역 동의과학대학교의 3개 기관에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운영
 - 2015년~2017년: 1차 운영기관: 경북 대경대학교, 서울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제주 제주대학부설기관 창의연구소에서 실시
 - 2018년~2022년: 2차 운영기관: 경북 대경대학교, 부산 동의과학대학, 서울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 운영 중⁷¹⁾

[표 4-25] 2020 해양수산부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과정표

교육항목	교과목	교육형태	시간(h)
기초소양교육(10h)	직업기초능력	이론	10
크루즈 운영 실무교육(150h)	관광일반	이론	20
	크루즈 프론트 관리	이론/실습	20
	크루즈 캐빈관리	이론/실습	10
	크루즈 식음료 관리	이론/실습	30
	크루즈 기항지 관광관리	이론/실습	10
	크루즈 카지노 관리	이론/실습	10
	크루즈 위락시설 관리	이론/실습	10
	크루즈 마케팅	이론/실습	20
	크루즈 지상지원 관리	이론/실습	10
	크루즈 선상지원 관리	이론/실습	10
	크루즈 실무 영어	이론/실습	35
크루즈 외국어 교육(70h)	크루즈 인터뷰 영어	이론/실습	35
크루즈 전문교육(26h)	크루즈 실무용어	이론	8
	크루즈 서비스 매너	이론/실습	12
	전문가 특강	이론	10
크루즈 실무교육(220h)	선원교육	이론/실습	50
	크루즈 현장체험학습	실습	40
	안전교육	이론/실습	10
	해외교육	이론/실습	120
총계		480시간	

자료 : 동의과학대학교 크루즈 전문인력양성사업단(<http://cruise.dit.ac.kr/page/php/sub03.php>)

70)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크루즈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크루즈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크루즈승무원 양성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크루즈선사와의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71) 운영프로그램 및 연수기관은 각 교육기관마다 상이하나, 국내교육의 기본 프로그램과 크루즈승무원의 취업을 목표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기 훈련과정의 주관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 국내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현황은 살펴보면 과정등록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과정생의 수이며, 교육이수는 국내·국외연수 이수자로 총 출석률 80%이상인 과정 수료생, 취업합격은 해외선사 면접에 합격한 인원을 말함

[표 4-26]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및 취업 현황 제1차(‘15년~’17년)

구분	합계 (취업자수)	대경대			아세아			창의연구소		
		과정 등록	교육 이수	취업 합격	과정 등록	교육 이수	취업 합격	과정 등록	교육 이수	취업 합격
계	219	127	125	89	123	117	98	60	52	32
‘15 1기	55	30	29	22	30	27	24	15	14	9
‘16 2기	48	25	25	14	26	26	24	15	14	10
‘16 3기	39	20	20	14	25	24	18	15	9	7
‘17 4기	43	26	26	21	22	21	16	15	15	6
‘17 5기	34	26	25	18	20	19	16	-	-	-

자료: 각 기관별 해양수산부 결과 실적 보고 자료 인용

[표 4-27]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및 취업 현황 제2차(‘18년~ 현재)

구분	합계 (취업자수)	대경대			아세아			동의과학대		
		과정 등록	교육 이수	취업 합격	과정 등록	교육 이수	취업 합격	과정 등록	교육 이수	취업 합격
계	103									
‘18 6기	55	22	21	13	30	28	22	30	25	20
‘19 7기	48	13	13	8	22	18	17	25	25	23

출처: 각 기관별 해양수산부 결과 실적 보고 자료 인용

- 제1차 운영성과는 과정등록인원 대비 합격인원을 살펴볼 때, 대경대학교 70.08%, 아세아 항공직업전문학교 79.67%, 창의연구소 53.33%이며, 제2차 사업은 향후 2022년 종료예정이며, 2018년 대경대 59.09%,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78.57%, 동의과학대 66.67%의 선사취업합격률을 보이며, 2019년 현재 합격률은 61.54%, 아세아 항공직업전문학교 77.27%, 동의과학대 76.67%임

나. 업종별 협·단체 교육프로그램

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교육프로그램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관광안내소 안내소 역량강화교육(직무기초), 관광안내소 안내소 역량강화교육(직무심화), 관광안내소 안내사 역량강화교육(직무실무),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표 4-28]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교육 프로그램

(단위 : 명,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과정 명	교육 실적	교육 시간	교육 횟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관광안내소 안내사 역량강화교육(직무기초)	107	2일	4
	관광안내소 안내사 역량강화교육(직무심화)	145	2일	4
	관광안내소 안내사 역량강화교육(직무실무)	127	1일	2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51	1일	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나)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프로그램

-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는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안내실무교육, 관광통역안내사 광둥어 교육, 관광통역안내 신입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연도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현황은 2004년 2,240명을 시작으로 2019년 2,038명으로 이 기간 총 27,923명이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관광공사)

[표 4-29]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 프로그램

(단위 : 명,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과정 명	교육 실적	교육 시간	교육 횟수
(사)한국관광통역안내 사협회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안내실무교육	541	70시간	10
	관광통역안내사 마인어, 베트남어 교육	30	291시간	1
	관광통역안내 신입실무교육	34	48시간	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다) 한국여행업협회 교육프로그램

-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매년 여행업 임직원 및 가이드 등을 대상으로 여행업 안전관리 및 서비스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자 직무교육⁷²⁾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관리하에 전국 53개 TC(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업체 및 대학 등)에서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및 양성과정을 연간 운영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표 4-30] 한국여행업협회 교육 프로그램

(단위 :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과정 명	교육대상	교육 시간	교육 횟수
한국 여행업 협회	여행업 안전관리 및 서비스교육	여행업 임직원 및 가이드	4.5	연 1회
	국외여행인솔자 직무교육	국외여행인솔자	4	연 6회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https://www.kata.or.kr>)

[표 4-31]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 안내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 시간	교육 횟수
소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교육 : 여행사 실무, 관광관련법규, 국외여행인솔자실무, 관광서비스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중 선택 선택교육 : 교육기관 자유선택(단,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과정으로 편성) 외국어교육 : 실무영어, 실무일어, 실무중국어등 	여행업체 6개월이상 근무자 (해외여행경험자)	15 시간 이상	연간
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교육 : 여행사 실무, 관광관련법규, 국외여행인솔자실무, 관광서비스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중 선택 선택교육 : 교육기관 자유선택(단,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과정으로 편성) 외국어교육 : 실무영어, 실무일어, 실무 중국어등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80 시간 이상	연간
보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안전사고 관련 사고대처능력 및 서비스 교육 등 TC실무교육 	국외여행인솔자 및 여행사 임직원	4.5 시간	연 1 회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https://www.kata.or.kr>)

72) 교육내용으로는 여행사 보험과 인솔자의 역할, 여행사 인사정책 설명, 인솔자의 기본 업무지침, 검역법 개정 설명, 문제상황 대처 능력 향상교육, 안전대처능력 향상교육 등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 국외여행인솔자는 국가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아니지만 국외여행업 및 일반여행업을 대상으로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두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의해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 자격 중 하나임
- 국외여행인솔자(TC)의 경우 1983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77,205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소양과정 33,952명, 관광통역 10,697명, 양성과정 32,556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을 취득함(2020년 11월 기준 1,383명 취득)

라) 기타기관 교육프로그램

- 이밖에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기타기관 교육기관으로는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카지노리조트 아카데미와 유원시설 안전교육과 숙박종사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호텔업협회에서는 우수호텔아카데미 및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재직자 대상 경영책임자 교육, 분야별 특성화 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유원시설업 관련교육은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에서 주로 진행이 되며 주로 안전교육(안전 관리자 교육,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 사업주 안전교육, 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 및 중소기업체 기술지원사업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경우 카지노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보조사업으로 국내 이론교육과 해외 연수교육을 연계한 ‘카지노리조트 아카데미(연2회)’, ‘제주지역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종사자 교육(2회)’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콘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종사자 교육훈련 및 연수와 해외리조트 벤치마킹(대표자 및 종사자 대상)을 진행하였음

[표 4-32] 기타기관 교육 프로그램

(단위 : 명,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과정 명	교육실적	교육시간	교육횟수
기타기관	카지노리조트 아카데미(2회)	69	64시간	2
	유원시설 안전교육(안전관리자, 종합·유원시설업자)	381	2일	5
	숙박종사원(호텔, 콘도)교육	325	1~2일	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2) 기타 관광레저산업 관련 인력양성(향상) 현황

가. 의료관광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가) 공공기관 교육과정 현황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는 2007년부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의료관광관련 전문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표 4-33]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자질 및 역량 교육프로그램

과목명	대상	인원	비고
관광통역안내사 테마아카데미 (의료/웰니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50	2018년 시행(13시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과정 (관광분야)	관광업계 및 의료관광 에이전시 재직자	25	2014년 시행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과정 (의료분야)	의료관광 종사자	50	2014년 시행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기본소양과정	의료관광 종사자	40	2014년 시행
의료관광 마케터과정	의료관광 종사자	30	2014년 시행(48시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 (한방분야)	의료관광 종사자	30명	2014년 시행(32시간)

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전문인력포털 참고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은 글로벌 헬스케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통역사, 코디네이터, 유치업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교육 대상의 다양화로 포괄적인 교육을 운영 중임

[표 4-34] 2019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 교육프로그램 종류

과정명	인원	시간	과정명	인원	시간
의료통역 강사과정	20	7	글로벌헬스케어 인 컨퍼런스	85	6
의료통역 전문과정	50	200	글로벌헬스케어 차세대 리더양성	10	30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실무실습과정	10	65	병원국제마케팅 전문과정	20	72
외국인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30	100	의사 해외진출 실무과정	20	8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서비스 역량강화과정	25	8	간호사 해외진출 실무과정	20	8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마케팅 역량강화과정	25	8	간호사 해외진출 전문과정	20	40
국제진료 간호사 전문과정	20	30	의료기사 해외진출 전문과정	20	40
국제진료 간호사 Nursing Conversation 과정	25	8	동남아시아 의료시장 전략과정	20	16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역량강화과정	20	16	글로벌 제안서작성 및 PT 역량과정	20	16
외국인환자 유치 지역기반 역량강화과정	15	8	사우디 의사(펠로우) 사전교육과정	미정	135
글로벌헬스케어 직업탐색과정	30	2~8	사우디 치과의사 한국어 교육	미정	1,350

자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9), 보건산업교육프로그램

■ 광주국제교육센터

- 광주국제교육센터에서 2019년 시행되는 교육으로 광주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유치지역기반 역량강화과정을 위하여 실시함

[표 4-35] 광주 의료통역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교과목	내용	시간	교육방법
글로벌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이문화 이해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실습 	2	실습
의료통역 현장 법률문제 및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통역 시 발생하는 법적문제 및 대응방안 의료통역 외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 및 대응방안 	3	강의
의료통역 시나리오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과목별 주요 의학용어 및 시나리오 현장관련 질의응답을 통한 언어별 간담회 	1	실습

주)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료통역 업무 현장 배치 가능 인력을 위한 교육이며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광주 FINA 세계 마스터지 수영 대회 등 단기 일자리 연계 예정과정임

자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9), 보건산업교육프로그램

- 의료통역 전문인력으로 커뮤니케이션법, 의료통역 현장의 법류문제, 다빈도 의료상황 및 표현을 익히는 과정으로 글로벌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의료통역 관련 법률, 통역 실습관련 교육을 실시함
- 광주시 의료통역 인력교육은 광주시 통역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20명 내외로 진행됨

나) 협단체 교육과정 현황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는 글로벌헬스코디네이터,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두 종류의 민간자격검정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글로벌헬스코디네이터는 해외환자의 유치를 위한 의료과 관광을 접목한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업무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실무 전문가를 위한 민간자격제도임⁷³⁾
-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는 병원의 대형화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민간자격제도임⁷⁴⁾

■ (사)한국의료관광협회·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 (사)한국의료관광협회 및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는 150시간과정을 운영 중임

다) 대학 및 대학교 전공교육과정 및 사설 교육기관

■ 대학 및 대학교 전공교육과정

- 2019년 현재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강원관광대학교⁷⁵⁾, 경주대학교⁷⁶⁾, 대구가톨릭대학교, 대

73) 주요 교과목으로는 의료관광산업이해, 글로벌의료문화 이해, 의료관광 의료법,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개념,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서비스 지원, 원물관리 및 기초영어, 고객관리 실무, 국제진료 실무로 구성 됨

74) 주요 교과목으로는 병원서비스실무(병원코디네이터 이해), 병원서비스실무(서비스 매너), 병원고객만족경영(MOT), 병원고객만족경영(환자상담), 병원고객만족경영(내부고객관리), 병원진료지원실무(보건실무), 병원진료지원실무(의료법규), 병원진료지원실무(의료마케팅)로 구성됨

75) 강원대학교 의료관광학과 교육과정(12학년) 교과목은 병원행정학, 보건통계학, 의료보험, 전자계산일반, 의학영어1·2·3, 의무기록학1·2, 병원재무회계, 해부생리학, 의료관계법규, 의료정보관리학, 공중보건학, 병리학개론, 식품위생학, 보건의료DB, 질병 및 수술분류1·2, 인터넷과 의료정보, 적정진료보장, 병원마케팅, 병원코디네이터, 의무기록실습1·2, 정보관리실무, 의무기록전사, 병원원무관리, 의료정보시스템실무, 프로그래밍언어, 병원네트워크, 암등록, 보건의료 DB 실습, 위생관계법규, 현장실습으로 구성됨

전과학기술대학교, 마산대학교에서 의료관광과 관련된 전공학과를 운영 중에 있음

- 한편 기존에 의료관광과를 운영하던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수성대학교, 고구려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동주대학교, 건양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공주대학교 대학원,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등은 학과운업을 중단함
- 또한 건양대학교, 공주대학교, 숭실대학교, 인제대학교, 가천대학교는 대학원과정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중단하고 있으나 한림국제대학원은 컨벤션이벤트 경영학과 의 전공으로 의료관광과정을 운영함

나.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 양성(향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 관광두레PD(청년PD)

- 관광두레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 여행알선, 체험, 기념품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체를 성공 창업하고 자립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임
- 관광두레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내·외 유관 기관과 네트워킹을 통 해 국내 관광의 흐름을 보다 넓고 다양하게 바꾸어 나감으로써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음
- 이러한 성과는 관광두레사업단, 멘토단, 관련 기관들의 노력과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고 이끌며 사업을 기획·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두레PD가 있기에 가능하였음(2019년 기준 44명의 관광두레PD 활동 중)

■ 교육 프로그램 현황

- 관광두레PD는 행정기관, 전문가와 주민 사이의 중간 지원역할을 하고, 주민사업체 발굴 부터 사업계획 수립, 창업·경영개선을 위한 기획과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는 지역 내 관광두레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관광두레PD의 자질과 역량은 사업의 성패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76) 경주대학교 보건의료관광학과 교육과정은 교과목은 1학년과정은 중국어 기초 입문, 병리학개론, 의학용어1, 해부생리학으로 구성되었고, 2학년 과정은 의학용어2, 의료중국어회화, 의료정보관리학, 병원코디네이터 실무, 보건의료행정, 조직인사학, 병원통계학으로 구성되었으며, 3학년(전산학, 의무기록학, 보건의료관광서비스지원관리, 노인복지론, 전공영어회화, 건강과운동 공중보건학개론, 질병 및 수술분류, 의무기록실습, 실버보건실무, 임상현장단기인턴학습, 전공영어회화), 4학년(의무기록전사, 원무관리, 암등록, 의료보험, 보건의료관광실무, 임상현장단기 인턴학습2, 임상현장단기 인턴학습1, 적정진료보장, 의료관계법규, 병원관리학, 회계재무학, 임상현장단기 인턴학습3, 임상현장단기 인턴학습2)과정으로 교육중에 있음

- 관광두레사업단(한국관광공사)은 지역별 선정된 관광두레PD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음
- 관광두레사업단은 관광두레PD의 연차별 수행미션에 따라 갖춰야 할 역량을 23개 항목으로 분류했고, 이를 기초·심화·실행 3단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운영은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나 함께 공유해야 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성해 진행하였음

[표 4-36] 관광두레PD 역량강화를 위한 3단계 교육 과정

구분	정의	내용	교육과정
기본역량	관광두레사업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관광두레PD가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역량	사업이해	기초
		역할인식	
		정보 수집·분석	
		문서 기획	
		시간·업무 관리	
		커뮤니케이션	심화
		갈등관리	
		관계형성	
		문제해결	
		컨설팅	
		자기 계발	
		네트워킹	실행
직무역량	관광두레PD의 중심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지역 이해	기초
		사업계획 수립	
		여행상품 지식	심화
		사업성 평가	
		세무 지식	
		재무회계 지식	
		여행상품 개발	실행
		법인설립 관련 지식	
		고객 관리	
		목표 관리	
		마케팅(홍보, 판촉)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관광두레 실적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인용

- 2020년 기준 관광두레PD는 41개 지역에 50명이 활동 중이며, 130개 주민사업체(참여 주민수: 1,363명)를 지원하고 있음

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프로그램 현황

- 「관광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제48조의4제1항)⁷⁷⁾
 - 문화관광해설사제도는 2011년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한국관광공사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위탁업체로 선정되어야 예비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출할 수 있음

[표 4-37]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목 기본구성(안)

교육 영역	교육 내용	시간
기본소양	- 문화관광해설사의 의미와 역할 - 관광산업의 이해	5시간
지역의 문화·역사·관광·산업	- 지역 역사, 문화, 예술 -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자원 - 주요문화관광지 표준 해설	32시간
해설안내기법	- 해설 안내 기법, 해설 우수 사례, 그 밖의 해설화법	12시간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 문화관광 영어 - 문화관광 일본어 - 문화관광 중국어	10시간 (각 외국어 합산)
컴퓨터	- 문화관광해설사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사용자 교육 - 기초 OA 교육 - SNS활용법	10시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 장소 및 요인에 따른 사례 및 현황 분석 - 응급상황별 대응요령 및 가상 실습 - 야외활동 인솔요령	10시간
수화	- 수화해설 기초교육	5시간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 관광객 심리 및 특성 - 커뮤니케이션 기법 - 서비스 마인드 교육	8시간
관광객의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및 해설 - 소외계층 장애인 이해 및 인식 개선 교육 - 이미지 메이킹	8시간
총 계		100시간

자료: 한국관광공사 누리집(kto.visitkorea.or.kr)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 참조.

77) 문화관광해설사는 2001년 한국방문의해, 2002년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앞두고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의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유산해설사로 출발하였음

-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운영하는 100시간(9개 과목)의 신규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렇게 배출된 예비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및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쳐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취득함

[표 4-38] 전국 시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현황(최근 5년간)

(단위:명)

구분	양성인원					활동인원				
	‘15	‘16	‘17	‘18	‘19	‘15	‘16	‘17	‘18	‘19
전체	239	253	181	224	312	2,791	2,939	3,049	3,182	3,228
서울시	18	29	0	14	39	186	206	214	206	234
부산시	18	0	0	0	19	114	90	92	127	105
대구시	15	0	0	0	0	124	122	122	120	120
인천시	0	4	10	14	4	111	102	108	113	113
광주시	0	26	0	0	22	64	83	81	70	59
대전시	0	0	0	20	0	46	45	44	63	63
울산시	0	11	15	11	19	46	54	65	69	63
세종시	5	0	0	0	5	4	7	8	7	6
경기도	0	35	0	61	0	511	533	477	554	554
강원도	35	23	15	14	15	151	182	195	201	208
충북도	8	0	0	0	18	173	165	168	159	177
충남도	14	23	17	7	12	135	159	170	169	173
전북도	20	31	35	27	41	212	220	238	245	273
전남도	26	15	28	34	40	270	290	316	331	350
경북도	32	37	0	0	57	332	336	358	345	323
경남도	7	19	20	22	21	191	191	193	210	217
제주도	41	0	41	0	0	121	154	200	193	190

주1) 활동 인원의 경우 2001년부터 양성된 5,939명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활동내용 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을 기본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전국 3,228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 중임
-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설안내가 제공되고 있음⁷⁸⁾
- 지역관광활성화가 부각됨에 따라 지역관광의 핵심 전문인력인 문화관광해설사는 2017년 이후 양성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활동 인원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78) 특별히 단체인원이 해설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각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음

4.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자격현황

1)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운영현황

가.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운영체계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1962년에 시행된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를 효시로,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춘 자로 하여금 관광사업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관광산업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현재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국가전문자격인 여행업 분야의 국내 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호텔업 분야의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총 5종목으로 구성됨
- 이 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국제회의업 분야의 컨벤션기획사, 의료관광 분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가 이에 해당함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을 종합하여 총 4개 분야 8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행업 :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 호텔업 :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 국제회의업 : 컨벤션기획사
 - 기타 분야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표 4-39]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구성 체계

구분		내 용	법 명
국가전문 자격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국내여행안내사	관광진흥법
	호텔업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국가기술 자격	국제회의기획업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법
	의료관광업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자격	여행업	국외여행인솔자	관광진흥법

나.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검정체계

가) 여행업 분야: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 자격시험 개요

- 현행 자격제도 운영 체계에서 여행업 분야 관련 자격인 국내여행안내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국적·성별·연령 및 학력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국내여행안내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함
 -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을 말함
- 국내여행안내사는 연 1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관광통역안내사는 연 1회 필기시험(제1차 시험)과 면접시험(제2차 시험) 외 외국어 시험을 시행함

■ 검정과목

- 국내여행안내사의 필기시험은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으로 구성되며, 관광통역안내사의 필기시험은 외국어,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으로 구성됨
 - 면접시험은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 대면 구술평가 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광통역안내사는 시험응시 언어를 사용한 구술시험으로 진행함

[표 4-40] 국내여행안내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구분	검정과목(배점비율)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국사 (30%)	외국어(공인어학성적) ⁷⁹⁾
	관광자원해설 (20%)	국사(40%)
	관광법규 (20%)	관광자원해설(20%)
	관광학개론 (30%)	관광법규(20%)
면접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중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은 영어 등 10개 언어로 응시할 수 있으며 특별시험의 경우 시장의 수요에 따라 해당 언어 분야의 시험응시 기회를 제공함

■ 합격기준 및 합격률

- 최근 5년간 관광통역안내사 평균 합격률은 1차(필기)의 경우 41.9%로 나타났고, 2차(면접)는 57.7%로 나타남
- 국내여행안내사의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은 1차(필기)는 58.7%, 2차(면접)는 77.9%로 나타남

[표 4-41] 최근 5년 간 여행업 분야 자격 합격률(2015년~2019년)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합격률
관광통역 안내사	1차	대상	14,680	12,171	5,231	4,027	3,993	41.9
		응시 (응시율)	13,096 (89.2)	10,575 (86.9)	4,276 (81.7)	3,356 (83.3)	3,206 (80.3)	
		합격 (합격률)	3,481 (27.0)	3,046 (28.8)	2,144 (50.1)	1,503 (44.8)	1,890 (58.9)	
	2차	대상	5,441	4,504	3,361	2,467	2,536	57.7
		응시 (응시율)	4,879 (90.0)	3,997 (88.7)	2,861 (85.1)	2,041 (82.7)	2,178 (85.9)	
		합격 (합격률)	2,522 (52.0)	2,145 (53.7)	1,610 (56.3)	1,251 (61.3)	1,428 (65.6)	
국내여행 안내사	1차	대상	808	776	1,058	1,680	1,400	58.7
		응시 (응시율)	455 (56.3)	399 (51.4)	586 (55.4)	601 (34.8)	679 (48.5)	
		합격 (합격률)	235 (52.0)	284 (71.2)	355 (60.6)	421 (70.1)	269 (39.6)	
	2차	대상	1,795	1,625	1,708	1,830	1,805	77.9
		응시 (응시율)	970 (54.0)	992 (61.0)	1,130 (66.2)	1,178 (64.3)	1,182 (65.4)	
		합격 (합격률)	709 (73.0)	781 (78.7)	914 (80.9)	981 (83.3)	874 (73.9)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79)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4개 국어 및 특별 FLEX는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시행하며, 응시 점수는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대행함

■ 기타 자격: 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

- 국외여행인솔자는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은 아니지만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 자격 제도 중에 하나로 관광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함
- 교육과정: 소양, 양성, 보수 교육

[표 4-42]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

구분	교육 내용
소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대상: 여행업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외경험 있는자 • 교육시간: 15시간 이상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여행사 실무, 관광관련 법규, 국외여행인솔자실무, 관광서비스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중 선택 - 선택: 교육기관 선택 - 외국어: 실무영어, 실무일어, 실무중국어 등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대상: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 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교육시간: 80시간 이상 • 교육내용(소양과정과 동일)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대상: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 및 여행사 임직원 • 교육내용: 해외안전사고 관련 사고대처능력 및 서비스 교육 등 TC실무교육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www.kata.or.kr): 국외여행인솔자 인력관리시스템 참조 후 재작성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취득현황은 1983년부터 1명으로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총 77,205명이 취득하였음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은 2015년 6,218명으로 전체의 약 8.3%의 가장 높은 취득률을 보임

[표 4-43]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취득 현황(1983-2020)

(단위 : 명,%)

구분	‘12 이전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취득자 (취득 률)	42,564 (56.80)	4,699 (6.27)	4,727 (6.31)	6,218 (8.30)	4,821 (6.43)	4,220 (5.63)	4,414 (5.89)	3,269 (4.36)	1,383 (1.79)	77,205 (100.0)

주)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는 1983년부터 시행되었음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www.kata.or.kr): 국외여행인솔자 인력관리시스템 참조 후 재작성

나) 관광숙박업 분야: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 자격시험 개요

- 호텔경영사 자격제도는 호텔관리사 자격 취득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4성(특 2등)급 이상의 호텔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호텔경영사는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담당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호텔에서의 객실예약업무, 객실판매 및 정비업무, 접객업무, 회계업무, 식당업무 등 제반 호텔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종사원 근무상태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말함
- 호텔관리사 자격제도는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나 관광 분야를 전공한 자를 대상으로 함
 - 호텔관리사는 관광호텔의 객실관리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를 담당하며,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와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과 한국전통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수행
 - 호텔서비스사는 호텔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텔종사원으로서 외국어실력이 필요하고, 서비스에 대하여 이해하며, 고객에게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영접, 객실안내, 짐 운반, 객실예약,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열쇠관리, 객실정리, 세탁보급, 음식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함

■ 검정과목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호텔업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 기준에 부합하는 어학성적을 취득해야 함
 - 어학성적은 자격 종목별 자격 취득 기준에 부합하는 어학성적이 요구되며 이는 공인 어학시험 성적 제출로 대체됨
- 필기시험은 종목별로 상이하며 면접시험은 3개 종목 공통으로 대면 구술평가 형식으로 진행함

[표 4-44] 호텔경영사관리사서비스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구분	검정과목 (배점비율)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제1차 시험	관광법규(10%)	관광법규 (30%)	관광법규 (30%)
	호텔회계론(30%)	관광학개론 (30%)	호텔실무 (70%)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30%)	호텔관리론 (40%)	
	호텔마케팅론(30%)		
제2차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면접(영어면접): 발음, 억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호텔관련 전문 지식 및 각종 상황대처 능력 등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호텔서비스사에 한함)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합격기준 및 합격률

-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의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점수는 6할 이상을 기준으로 함(필기의 경우 매 과목당 4할 이상의 점수를 획득)
- 호텔종사원의 외국어시험은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년 이내의 정기시험만 인정함

[표 4-45] 관광숙박업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기준 점수

구분	합격기준 점수
외국어	종목별 언어별로 상이
제1차 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환산점수 6할 이상
제2차 시험	총점의 6할 이상

- 최근 5년간의 호텔경영사의 경우 총 8명이 응시하여 최종 1명이 합격하였으며, 호텔관리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최종 합격자는 63명으로 나타남(5년 평균 합격률 60.9%)
- 호텔서비스사의 최근 5년간 최종합격자는 698명(5년 평균 합격률: 78.7%)으로 호텔 관련 자격증 중 가장 높은 응시율 및 합격률을 보임

[표 4-46] 최근 5년 간 관광숙박업 관련 종사원 자격 합격률(2015년~2019년)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합격률
호텔 경영사	1차	대상	1	1	-	3	3	50.0 (2년간)
		응시 (응시율)	1 (100.0)	1 (100.0)	-	3 (100.0)	3 (100.0)	
		합격 (합격률)	-	-	-	2 (66.7)	1 (33.3)	
	2차	대상	-	-	-	2	3	25.0 (2년간)
		응시 (응시율)	-	-	-	2 (100.0)	3 (100.0)	
		합격 (합격률)	-	-	-	1 (50.0)	-	
호텔 관리사	1차	대상	30	17	20	20	21	71.7
		응시 (응시율)	25 (83.3)	12 (70.6)	16 (80.0)	16 (80.0)	17 (80.9)	
		합격 (합격률)	20 (80.0)	4 (33.3)	14 (87.5)	13 (81.2)	13 (76.5)	
	2차	대상	31	16	24	23	25	60.9
		응시 (응시율)	29 (94.0)	13 (81.3)	23 (95.8)	20 (87.0)	24 (96.0)	
		합격 (합격률)	15 (52.0)	11 (84.6)	8 (34.8)	15 (75.0)	14 (58.3)	
호텔 서비스 사	1차	대상	76	86	80	108	119	85.3
		응시 (응시율)	44 (57.8)	60 (69.8)	45 (56.3)	60 (55.6)	71 (59.6)	
		합격 (합격률)	41 (93.1)	58 (96.7)	34 (75.5)	52 (86.7)	53 (74.6)	
	2차	대상	178	268	222	255	276	78.7
		응시 (응시율)	133 (74.7)	187 (69.8)	162 (73.0)	192 (75.3)	201 (72.8)	
		합격 (합격률)	89 (67.0)	164 (87.7)	118 (72.8)	156 (81.3)	171 (85.0)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다) 국제회의업 분야: 컨벤션기획사 1·2급

■ 자격시험 개요

- 컨벤션기획사2급은 컨벤션기획사 1급 자격자의 지휘 하에 회의기획/운용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회의목표 설정, 예산관리, 등록기획, 계약, 협상, 현장관리, 회의평가 업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업무수행
- 컨벤션기획사1급은 회의유치에서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제반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회의기획/운용을 수행하고 2급 자격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수행(2급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 검정과목

- 컨벤션 기획사의 경우 1급과 2급으로 구분 됨
 - 컨벤션기획사 2급의 필기시험은 컨벤션산업론 및 호텔관광실무론, 컨벤션영어로 구성되고, 실기시험은 컨벤션실무로서 컨벤션기획서 및 영문서신 작성의 작업형평가로 진행함
 - 컨벤션기획사 1급의 필기시험은 컨벤션기획실무론, 재무회계론, 컨벤션 실무로 구성되고, 실기시험은 컨벤션 기획 및 실무 제안서작성, 영어 프레젠테이션 평가로 진행함

[표 4-47]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구분	검정과목	
	컨벤션기획사 2급	컨벤션기획사 1급
1차(필기)	컨벤션 산업론	컨벤션기획실무론
	호텔관광실무론	재무회계론
	컨벤션 영어	컨벤션 실무
2차(실기)	컨벤션 실무(컨벤션기획서 및 영문서신 작성)	컨벤션 기획 및 실무제안서 작성, 영어프레젠테이션 평가

주) 컨벤션기획사의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이 가능함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중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합격기준 및 합격률

-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하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시험시간: 6시간)을 합격기준으로 함

[표 4-48] 컨벤션기획사 자격 합격기준 점수

구분	내 용
1차(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
2차(실기)시험	60점 이상

자료 :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컨벤션기획사 2급의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은 필기시험의 경우 78.9%, 실기시험의 경우 약 49.8%로 나타남
- 컨벤션기획사 1급의 최근 5년간의 평균 합격률은 필기시험의 경우 32.5%, 실기시험의 경우 10.0%로 나타남

[표 4-49]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컨벤션기획사 1·2급 합격률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컨벤션 기획사2급	필기	응시	631	1,216	1,099	1,071	1,077
		합격	551	973	845	785	834
		합격률	87.3	80.0	76.9	73.3	77.4
	실기	응시	371	722	657	470	577
		합격	233	260	306	236	310
		합격률	62.8	36.0	46.6	50.2	53.7
컨벤션 기획사1급	필기	응시	18	12	15	3	9
		합격	1	5	9	0	5
		합격률	5.6	41.7	60.0	0	55.6
	실기	응시	1	5	8	1	3
		합격	0	0	4	0	0
		합격률	0	0	50.0	0	0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라) 의료관광분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자격시험 개요

-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을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해외여행과 의료서비스 선택의 자유화로 인해 건강 요양, 치료 등의 의료혜택을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일부 지역을 방문하면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휴식과 기분전환이 될 수 있는 그 지역 주변의 관광, 레저, 문화 등을 동시에 체험하는 관광활동
- 국제화되는 의료시장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서비스 지원, 관광지원, 국내외 의료기관의 국가 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담, 리스크 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및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직무

■ 검정과목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 됨
 - 1차 필기시험 검정과목: 보건의료관광행정,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관리, 보건의료 관광마케팅, 관광서비스 지원관리, 의학용어/질환의 이해
 - 2차 실기시험 검정과목: 보건의료 관광실무

[표 4-50]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 검정과목

구분	검정과목	
1차(필기)	보건의료관광행정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관리
	보건의료 관광마케팅	관광서비스 지원관리
	의학용어/질환의 이해	
2차(실기)	보건의료 관광실무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중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합격기준 및 합격률

-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하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시험시간: 6시간)을 합격기준으로 함

[표 4-51]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 합격기준 점수

구분	내 용
1차(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
2차(실기)시험	60점 이상

자료 :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은 필기는 69.9%로 나타났고, 실기는 45.9%(최근 5년 평균 합격률)로 나타남

[표 4-52] 최근 5년 간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합격률(2015년-2019년)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필기	응시	487	377	264	195	231
		합격	314	271	179	144	166
		합격률	64.5	71.9	67.8	73.8	71.9
	실기	응시	515	444	211	160	231
		합격	154	222	140	55	113
		합격률	29.9	50.0	66.4	34.4	48.9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다. 관광·레저산업 민간자격 등록현황

- 민간자격 등록현황은 민간자격정보시스템(<https://www.pqi.or.kr/>)에 등록된 관광·레저분야의 민간자격을 중심으로 작성함
- 관광분야(키워드: 관광) 민간자격의 경우 총 31개가 등록되어 운영 중이며, 호텔분야(키워드: 호텔) 민간자격은 3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여행분야(키워드: 여행) 민간자격은 30개 과정이 등록·운영 중임
 - 카지노분야(키워드: 카지노)는 10개 자격과정이 등록·운영 중이며, 크루즈분야(키워드: 크루즈) 민간자격은 7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캠핑(야영)분야(키워드: 캠핑, 야영) 민간자격은 9개 과정이 등록·운영 중이며, MICE분야(키워드: mice)는 1개 과정, 레저분야(키워드: 레저) 민간자격은 총 18개 과정이 등록·운영 중임

[표 4-53] 관광·레저분야 민간자격 등록현황(키워드별)

키워드	자격명	자격관리기관
관광	도보관광자원해설사	(주)해양관광자원연구소
	웰니스관광플래너	(재)아침편지문화재단
	드론관광전문가	제이에스융합인재교육원(주)
	관광서비스전문가	한국서비스인증협회
	시니어관광플래너	KAIM교육컨설팅평가원
	관광지도사	한국재즈힙합탐무지컬협회
	항공관광취업실무	글로벌승무원코칭협회
	웰니스관광코디네이터	경남항노화주식회사
	관광바리스타	(사)한국여행서비스교육협회
	여행관광안전교육지도사	한국재난안전교육센터
	관광여행전문가	(주)한국고용진흥원
	항공관광취업컨설팅	글로벌승무원코칭협회
	관광안전요원	국민안전교육진흥회
	음식관광해설사	(사)한국음식관광협회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사)한국노인복지사협회
	관광뷰티코디네이터	비비에스미용예술실용전문학교
	농경문화체험관광해설사	(사)한국농경문화원
	다문화관광코디네이터	세계다문화진흥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코디네이터	(사)공동체사회포럼
	관광레크레이션	(사)한국대학레크레이션협회
	관광서비스사	(사)한국전문자격협회
	학습관광지도사	(사)한국관광개발원
	실버관광코디네이터	(사)한국관광개발원
	농촌생태관광지도사	지식경영서비스연구원
	글로벌문화관광가이드	국제문화교육협회
	문화관광지도사	(사)한국관광개발원
	문화관광기획사	(사)한국관광개발원
	문화관광교육사	(사)한국관광개발원

	관광레크레이션	(사)세계레크리에이션교육협회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
	관광개발설계사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
호텔	호텔외식경영사	(사)한국식음료문화협회
	AWEK호텔&레스토랑 음료전문가	와인비전
	호텔디저트실무전문가	(재)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여행	여행사Operator실무능력	코세아 원격교육원
	이야기로 떠나는 세계문화여행지도 강사	(주)아진에듀케어
	세계문화여행	(주)리틀아티스트
	크루즈여행전문가	행캠퍼
	여행크리에이터전문가	하나교육개발원
	크루즈여행전문가	하나교육개발원
	여행안전가이드지도사	대한인재교육협회
	여행드로잉강사	한국실용회화협회
	해독여행상담지도사	(사)한국아그리젠토6차산업경영컨설팅협회
	여행상담사	(주)한국능력교육진흥원
	여행크리에이터전문가	한국온라인마케팅협회
	청소년여행코치	청소년 여행학교
	마을공정여행기획가	공정교육전문가협회
	여행프로그램크리에이터	한국직업자격평가원
	크루즈여행전문코디네이터	국제자연치유대학
	여행큐레이션전문가	KAMI교육컨설팅평가원
	여행사오퍼레이터실무자격증	(주)백아
	여행관광안전교육지도사	한국재난안전교육센터
	관광여행전문가	(주)한국고용진흥원
	여행스케치디자인	한국현대창작예술협회
	여행상품상담사	(사)한국여행서비스교육협회
	여행작가자격증	대한여행작가협회
	수학여행안전지도사	(주)생명의 별
	여행상담사	(사)한국여행상담사협회

	여행사OPERATOR자격증	(주)라비아
	수학여행안전지도사	(사)국제레크리에이션교육협회
	자전거여행안전가이드	(주)엘에스네트웍스
	여행상품판매관리사	(주)지식경영서비스연구원
	여행기획사	(사)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여행사operator실무능력	(주)코세아서비스 개발원
카지노	카지노서비스운영사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카지노테이블게임운영사	(주)강원랜드
	카지노테이블영업매니저	(주)강원랜드
	카지노운영관리사	한국NCS자격개발원
	카지노운영관리사	(재)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카지노게임운영사(딜러)	한국인재교육진흥원
	카지노매니저	한국인재교육진흥원
	카지노게임운영사(딜러)	(사)한국능률협회
	카지노운영관리사	(사)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카지노기획개발사	(사)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크루즈	크루즈서비스관리사	고쇼투어
	크루즈여행전문가	행챔터
	크루즈여행전문가	하나교육개발원
	크루즈인솔사	(주)블루스터디
	크루즈여행전문코디네이터	국제자연치유대학
	크루즈산업서비스전문가	(주)한국자격관리협회
	크루즈운영관리사	(사)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캠핑(야영)	캠핑지도사	한국교육능력진흥원(주)
	캠핑백패킹지도사	UTR KOREA
	캠핑안전지도사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캠핑지도사	(사)대한스포츠문화산업협회
	캠핑안전관리자	(사)국제재난구조복지회
	캠핑안전지도사	국민생활체육전구캠핑연합회
	캠핑놀이지도사	(주)한국자격관리협회

mice	캠핑놀이지도사	체육인재개발교육원
	야영장관리운영사	들살이문화협동조합
	MICE전문가	(사)글로벌MICE진흥원
레저 ⁸⁰⁾	드론스포츠레저	창의개발교육원
	드론스포츠레저	(주)창의개발교육원
	레저스포츠안전지도사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스포츠레저놀이지도사	(사)한국스포츠경영관리협회
	해양레저안전전문가	(사)재난안전연합회
	레저문화시설안전관리사	(사)한국레저문화연구원
	해양레저안전전문가	재난안전연합회 전남지부
	레저스포츠안전지도사	한국레저스포츠협동조합
	레저승마지도사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레저보트관리정비사	국민안전교육진흥회
	골프레저산업경영관리사	한국골프레저연구원
	스포츠레저안전관리사	(사)한국스포츠경영관리협회
	한국레저레크리에이션선진지도자	(주)한국여가문화교육지원센터좋은놀이문화연구소
	해양레저스포츠안전전문가	(주)한국자격관리협회
	레저문화이벤트기획사	세종사이버대학교
	레저스포츠시설관리지도자	명지대학교
	레저경영마케팅지도자	명지대학교
	수상레저지도자	(사)한국스포츠인재개발원

자료 :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s://www.pqi.or.kr>), 참고 후 재작성.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 개발현황

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하고 표준화한 것을 의미함(자격기본법 제2조)

80) 레저분야(키워드: 레저)의 민간자격의 경우 순수 관광산업보다는 레저스포츠 분야 자격이 주를 이룸

- NCS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과학적으로 체계화 한 것으로 직무의 특성에 따라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함
 - 직무능력은 직무 수행능력과 직업 기초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업 기초능력이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의미함(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 직무수행능력은 해당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능력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행업무와의 일치정도에 따라 1) 필수 직업능력, 2) 선택 직업능력, 3)산업공통 직업능력으로 구분됨

나. 관광·레저산업 분야 NCS 및 관련 자격 개발 현황

[표 4-54] 관광·레저산업 NCS 및 자격 개발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NCS 기반 자격
12. 이용·숙박· 여행·오락· 스포츠	03. 관광·레저	01. 여행서비스	1. 여행상품개발 2. 여행상품상담 3. 국내여행안내 4. 해외여행안내 5. 항공객실서비스	여행상품기획_L5 여행상품상담_L4 여행안내_L3 항공객실서비스_L3
		02. 숙박서비스	1. 숙박기획·개발 2. 객실관리 3. 부대시설관리 4. 연회관리 5. 접객서비스	호텔관리_L5 호텔객실서비스_L3 호텔식음료서비스_L3
		03. 컨벤션	1. 회의기획 2. 전시기획 3. 이벤트기획	컨벤션기획_L3, L5
		04. 관광·레저서비스	1. 카지노기획개발 2. 카지노운영관리 3. 크루즈운영관리 4. 유원시설운영관리 5. 리조트운영관리	카지노기획개발_L4 크루즈운영관리_L4 유원시설운영관리_L3 카지노딜러_L3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관련 분야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여행서비스 : 여행상품 개발, 여행상품 상담, 국내여행 안내, 해외여행안내, 항공객실 서비스
- 숙박서비스 : 숙박기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 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 컨벤션 : 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기획
- 관광·레저서비스 : 카지노기획개발, 카지노운영관리, 크루즈운영관리, 유원시설운영관리, 리조트 운영관리

가) 여행서비스

- 여행서비스분야의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을 직능유형(skill type)과 직능수준(skill level)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여행서비스분야의 직능유형(skill type)은 여행상품개발, 여행상품상담, 국내여행안내, 해외여행안내, 항공객실서비스 등 5가지이며, 직능수준(skill level)의 경우 2~5수준에 분포하고 있음
- 여행서비스 분야 NCS기반 자격(4개): 여행상품기획_L5, 여행상품상담_L4, 여행안내_L3, 항공객실서비스_L3

[표 4-55] 여행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구분	01. 여행상품개발	02. 여행상품상담	03. 국내여행안내	04. 해외여행안내	05. 항공객실서비스
5수준	여행상품개발 관리자	여행상품 총괄관리자			
4수준	여행상품개발 실무자	여행상담 관리자			객실서비스 관리자
3수준		여행상담 실무자	관광통역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객실서비스 실무자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나) 숙박서비스

- 숙박서비스 분야는 크게 고객을 서비스하는 부서(Front of the House)와 지원부서(Back of the House)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는 접객부서에 해당하고, 숙박기획·개발은 지원 부서에 해당함
- 위의 직능 수준을 기준으로 접객부서의 1, 2 수준은 주로 대고객 서비스를 수행하며,

- 3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담당 업장이나 부서의 관리 업무까지 관할하게 됨
- 지원부서는 고객을 서비스하는 부서가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숙박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지원부서의 1, 2 수준은 주로 보조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3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부서에 따라 숙박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함
 - 숙박서비스분야 NCS기반 자격(3개): 호텔관리_L5, 호텔객실서비스_L3, 호텔식음료서비스_L3

[표 4-56] 숙박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구분	01. 숙박기획개발	02. 객실관리	03. 부대시설관리	04. 연회관리	05. 접객서비스
6(차장)	경영지원실장				
5(과장)	경영지원팀장/ 세일즈&마케팅팀장	프론트 데스크 매니저	식음료 매니저		당직지배인
4(대리)	경영지원담당/ 판촉지배인	하우스키핑 부지배인/ 프론트데스크 부지배인	휘트니스 매니저/ 식음료 부지배인	연회 지배인	접객서비스 매니저
3(주임)		하우스키핑 정비담당/ 예약담당/프론트 데스크 담당	휘트니스 어텐던트/ 식음료 캡틴	연회 주임	접객서비스 주임
2(사원)		프론트 데스크 어 텐던트, 예약 담당	식음료 서버	연회 담당	접객서비스 담당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다) 컨벤션

- 컨벤션분야 NCS 세분류는 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 기획 총 3개 직무로 구분됨
 - 회의기획(PCO)는 하위직급에서 중간직급까지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2년, 중간~상위직급이 4년, 상위~최상위직급이 11년 이상 소요됨
 - 전시기획(PEO)는 하위직급에서 중간직급까지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3년, 중간~상위직급이 5년, 상위~최상위직급이 12년 이상 소요됨
 - 이벤트기획은 하위직급에서 중간직급까지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2년, 중간~상위직급이 5년, 상위~최상위직급이 10년 이상 소요됨
- 컨벤션 분야 NCS기반 자격(3개): 컨벤션기획_L3, L5

[표 4-57] 컨벤션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구분	01.회의기획	02.전시기획	03.이벤트기획
8(임원/총괄관리자)	회의기획총괄관리자	전시기획총괄관리자	이벤트기획총괄관리자
7(부장/기획자)	회의기획자	전시기획자	이벤트기획자
6(차장/운영책임자)	회의기획운영책임자	전시기획운영책임자	이벤트기획운영책임자
5(과장/실무책임자)	회의기획실무책임자	전시기획실무책임자	이벤트기획실무책임자
4(대리/실무담당자)	회의기획실무담당자	전시기획실무담당자	이벤트기획실무담당자
3(사원/실무보조자)	회의기획실무보조자	전시기획실무보조자	이벤트기획실무보조자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4) 관광·레저서비스

- 카지노기획개발의 경우 실제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운영관리 직무와 다른 수준을 보이며, 카지노기획과장-카지노기획팀장-카지노기획실장-카지노기획본부장 등과 같이 사무에 대한 직능수준을 수행하며, 카지노운영관리의 경우 카지노 현장 실무자-카지노 운영실무자-카지노보안실무자-카지노운영 관리자-카지노운영 책임자 등으로 직능수준이 구성됨
- 크루즈운영관리는 크루즈 담당 책임자(슈퍼바이저)-크루즈매니저(지배인)등으로 직능수준이 나뉘는데, 실제 한국에서 운영되는 크루즈의 수가 상당히 적고 대부분 크루즈 상품과 세일즈를 담당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어, 크루즈운영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능수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원시설운영관리의 경우 주임-필드 매니저-매니저-팀장-본부장으로 직능수준이 나뉘며, 테마파크의 내부의 시설물 관리와 아울러 기획부터 어트랙션운영, 매장관리까지 테마파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리조트운영관리의 경우 주임-매니저-부장-팀장-본부장으로 직능수준이 나뉘며, 리조트 상품 및 회원관리, 리조트 안전관리, 편의시설, 식음료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관광·레저서비스 분야 NCS기반 자격(4개): 카지노기획개발Ⅱ4, 크루즈운영관리Ⅱ4, 유원시설운영관리Ⅱ3, 카지노딜러Ⅱ3

[표 4-58] 관광레저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구분	01.카지노기획개발	02.카지노운영관리	03.크루즈운영관리	04.유원시설운영관리	05.리조트 운영관리
7(본부장)	카지노기획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6(실장)	카지노기획 실장	카지노운영 책임자	크루즈 매니저(배인)	팀장	
5(팀장)	카지노기획 팀장	카지노운영 관리자		매니저	팀장
4(과장)	카지노기획 과장	카지노보안 실무자	크루즈 담당책임자	필드 매니저	매니저
3수준(대리)		카지노운영 실무자		주임	주임
2수준(사원)		카지노현장 실무자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표 4-59] 관광·레저산업 분야 NCS 기반자격 개발현황

5수준	여행 상품 기획 └5					호텔관리└5					컨벤션기획└5						
4수준		여행 상품 상담 └4												카지 노 기획 개발 └4		크루 즈 운영 관리 └4	
3수준			여행안내└3		항공 객실 서비 스└3		호텔객실서비스 └3		호텔식음료서비 스└3		컨벤션기획└3				카지 노딜 러 └3		유원 시설 운영 관리 └3
2수준																	
세분 류	여행 상품 개발	여행 상품 상담	국내 여행 안내	해외 여행 안내	항공 객실 서비 스	숙박 기 획· 개발	객실 관리	접객 서비 스	연회 관리	부대 시설 관리	회의 기획	전시 기획	이벤 트기 획	카지 노 기획 개발	카지 노 운영 관리	크루 즈 운영 관리	유원 시설 운영 관리
소 분류	01. 여행서비스					02. 숙박서비스					03. 컨벤션			04. 관광·레저서비스			
중 분류	03. 관광·레저																
대 분류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주) 관광·레저서비스의 05. 리조트운영관리의 경우 2018년 신설로 인하여 자격체계가 개발되지 않았음

5. 소 결

■ 광의적 접근을 통한 관광·레저산업 인력양성 교육 실시

- 현재 관광·레저산업 관련 교육기관들의 인력양성 교육들은 대부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범위 내 관련 교육이 대부분으로, 광의적 접근을 통한 산업범위의 확대와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현재 NCS 등의 각종 산업분류표에 제시된 업종들을 보면 대분류(12.이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외 다른 분류 즉, 음식, 운송업, 농·어업(농촌개발 등) 등 다양한 분야의 직무들이 관광·레저와 관련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6차 산업 및 지역관광 활성화 추세에 맞춰 여러 관련 기관들이 업을 통해 관련 NCS 보완개발 및 복합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이 요구됨
- 최근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PD(청년PD) 등을 통해 지역주민 주도형 지역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또한 융·복합 산업인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력양성 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관광·레저산업의 주요한 분야로 새롭게 인식하고 관련 NCS 보완 및 자격 보완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업종별 필요한 직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분야(정보통신 등)와의 융·복합화를 반영한 자격체계 및 관련 인력양성 역시 요구됨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RSC)의 협업체계 구축

- 현재 국내에는 17개 지역에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지역맞춤형 인력양성(향상)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인자위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요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제기됨
- 현재 서울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및 향상훈련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ISC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 2020년도 관광·레저ISC의 경우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계 의견수렴 회의를 2차례 진행하였으며, 제주RSC와는 숙박산업ICT 교육 및 전직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수행하였음
 - 또한 다른 지역 역시 대분류 기준이 아닌 세분류로 구분한 인력양성 및 향상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여부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관광·레저산업 인력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

■ 정규교육기관의 NCS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관광·레저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부(과)가 개설되고 관련 교육을 고교 및 대학교(전문대 포함)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산업내로의 취업률이 높지 않음⁸¹⁾
- 이와 같이 관련 분야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관광·레저산업 관련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들이 현재 산업현장을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로 예상됨
-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칭의 최소화를 위하여 산업분야별 NCS를 개발하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특성화 고등학교 및 전문대(전문학교 등)의 경우 많은 교육기관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아직도 많은 교육기관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도입방안 모색이 필요함
 - 물론 현재 개발된 NCS의 경우 관광·레저산업 전 산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 개발된 직무별 NCS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빠른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이에 관련기관(ISC, 협·단체 등) 및 산업현장의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직무별 NCS의 개발 및 수정·보완을 통한 NCS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유기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관광·레저산업 분야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관광·레저산업의 국가전문자격 및 기술자격 등 관련 자격제도가 과거부터 존재해 왔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자격 보유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응시율이 낮아 자격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 물론 자격증 소유자의 의무고용 외에도 검정형 자격취득제도는 많은 이론적 지식을 요하는 비중이 높아 현장 근무자의 경우 자격취득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국가자격(기술자격, 전문자격) 이외에 민간자격증 보유율이 전체의 11.5%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현장맞춤형 민간자격의 추가개발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⁸²⁾

8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의 관광산업 인력수급실태 분석에 의하면 관광관련 특성화고의 경우 관련 분야 취업률이 2015년 기준 55.5%로 나타났고,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2015년 기준 47.8%, 대학교의 취업률은 49.1%로 약 50%정도가 관광 관련분야로 취업함

제 5 장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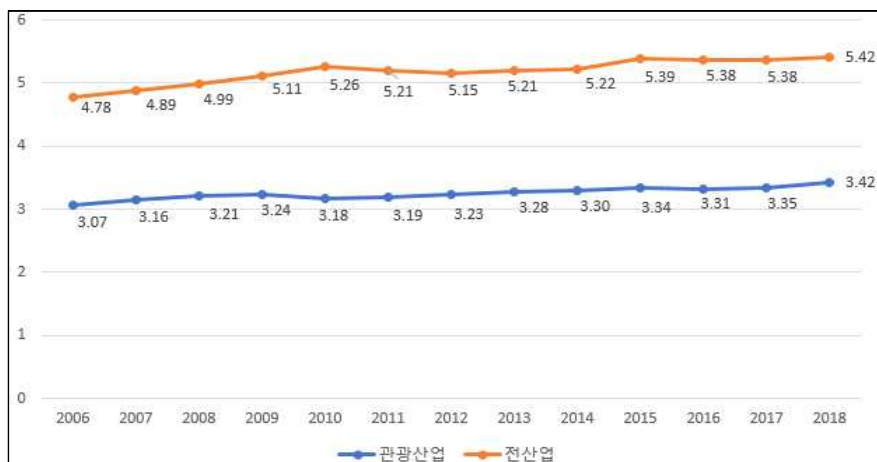
1.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전망

1) 관광·레저산업 고용실태 현황분석

-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예측을 위하여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0)의 투어고인사이트(데이터 4호) 자료를 활용하여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고용실태 현황분석(관광산업 특수분류⁸³⁾ 대분류/중분류) 작성하였음

■ 대분류(핵심 관광산업) 현황

- 관광·레저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 대한 현황 조사를 위하여 관광산업 특수분류인 대분류(관광운수업:102)-중분류(관광 도로운송업:10202)-소분류(관광 시내순환 관광업:1020201)에 해당하는 KSIC(시내버스 운송업: 49212)에 해당하는 종사자 및 사업체 수 등의 현황을 <전국 사업체 조사> DB에서 추출하였음



[그림 5-1]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 추이

82) 관광·레저ISC는 카지노업의 자격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GKL, 파라다이스 등) 및 교육기관 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한 민간자격을 등록하였음 (시험 일정 협의 중)

83)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본 보고서 2장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 관광산업 특수분류 대분류 중 핵심 관광산업은 한국 전산업 대비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를 비교한 결과 2018년도 기준 사업체 수는 전산업(4,103,172개)의 24.0%인 982,888개로 나타났고, 종사자 수는 전산업(22,234,776명)의 15.1%인 3,359,816명으로 나타남⁸⁴⁾

[표 5-1] 연도별 전체 산업대비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종사자 수

(단위: 백 개소, 백 명, %)

연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관광산업	전산업	비율	관광산업	전산업	비율
2006년	9,198	32,270	28.5	28,276	154,360	18.3
2007년	9,230	32,630	28.3	29,148	159,440	18.3
2008년	9,375	32,650	28.7	30,065	162,880	18.5
2009년	9,454	32,940	28.7	30,619	168,180	18.2
2010년	9,501	33,550	28.3	30,226	176,470	17.1
2011년	9,679	34,700	27.9	30,917	180,930	17.1
2012년	9,882	36,020	27.4	31,912	185,690	17.2
2013년	10,048	36,770	27.3	32,936	191,730	17.2
2014년	10,303	38,130	27.0	33,953	199,000	17.1
2015년	10,407	38,740	26.9	34,709	208,890	16.6
2016년	10,588	39,500	26.8	35,091	212,590	16.5
2017년	9,719	40,200	24.2	32,606	216,270	15.1
2018년	9,829	41,030	24.0	33,598	222,350	15.1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0), 투어고 인사이트(데이터인사이트 4호), 재인용.

- 2006년 대비 2018년의 관광·레저산업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사업체의 경우 631백 개소가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67,990백 명이 증가하였음⁸⁵⁾
- 연도별 사업체당 평균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06년 평균 3.1명에서 2018년 기준 3.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산업의 종사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임(2006년 4.8명→ 2018년 5.4명)

■ 중분류 관광·레저산업 현황분석

- 관광산업 특수분류 중 대분류인 핵심 관광산업의 하위분류인 관광쇼핑업, 관광운수업, 관광숙박업, 관광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 오락 및 레저스포츠 산업, 카지노업 8개 산업의 연도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추출함
-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사업체수는 문화, 오락 및 레저스포츠 산업이 10.6%로 가장

84) 전산업 대비 사업체 수는 높은 편이었으나 종사자 수는 낮게 나타나 관광·레저산업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한 것을 알 수 있음

85) 이에 반해 전 산업의 증가는 사업체의 경우 8,766백 개소로 나타났고, 종사자 수는 67,990백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레저산업은 전 산업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 됨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이어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7.9%), 국제회의업(5.9%) 순으로 성장세를 보임

- 종사자 수 역시 문화, 오락 및 레저스포츠 산업이 6.6% 성장률을 나타냈고, 이어 여행보조 서비스업 6.3%, 관광운수업 5.3%로 나타남

[표 5-2] 관광·레저산업 중분류별 사업체 추이(증감율)

(단위: 백 개소, 백 명, %)

연도	관광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숙박업	관광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 오락 및 레저스포츠 산업	카지노업
2006년	1,304	23	1,586	6,049	130	36	64	6
2007년	1,278 (-2.0)	23 (0.9)	1,658 (4.6)	6,023 (-0.4)	137 (5.7)	40 (10.4)	68 (5.6)	2 (-61.6)
2008년	1,269 (-0.7)	25 (5.6)	1,737 (4.8)	6,103 (1.3)	131 (-4.2)	38 (-3.6)	71 (4.5)	2 (-36.4)
2009년	1,269 (-)	25 (-)	1,737 (-)	6,103 (-)	131 (-)	38 (-)	71 (-)	2 (-)
2010년	1,243 (-2.1)	24 (-0.2)	1,891 (8.8)	6,087 (-0.3)	132 (1.0)	41 (7.6)	81 (14.5)	1 (1.3)
2011년	1,255 (1.0)	24 (-0.1)	1,910 (1.0)	6,210 (2.0)	143 (7.6)	48 (17.3)	87 (7.5)	2 (18.9)
2012년	1,279 (1.9)	26 (4.5)	1,986 (3.9)	6,283 (1.2)	157 (10.2)	55 (13.6)	94 (8.7)	2 (25.0)
2013년	1,276 (-0.2)	27 (6.5)	2,139 (7.7)	6,274 (-0.2)	164 (4.2)	60 (8.8)	106 (12.8)	2 (-)
2014년	1,279 (0.2)	29 (5.7)	2,336 (9.2)	6,293 (0.3)	177 (7.9)	68 (12.9)	119 (11.9)	2 (-10.0)
2015년	1,302 (1.8)	29 (0.8)	2,444 (4.6)	6,260 (-0.5)	175 (-0.8)	71 (4.4)	124 (4.3)	2 (2.0)
2016년	1,315 (1.0)	28 (-2.5)	2,557 (4.6)	6,305 (0.7)	180 (2.6)	68 (-4.3)	149 (19.9)	2 (9.9)
2017년	1,188 (-9.7)	29 (2.7)	1,564 (-38.8)	6,391 (1.4)	286 (58.7)	67 (-1.4)	192 (28.4)	3 (14.4)
2018년	1,162 (-2.2)	30 (2.2)	1,677 (7.2)	6,389 (-0.1)	291 (1.9)	70 (4.7)	208 (8.6)	3 (29.1)
연평균 성장률	-0.9	2.2	1.5	0.5	7.9	5.9	10.6	-0.8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0), 투어고인사이트(데이터인사이트 4호), 재인용.

○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증감율의 경우 2017년도에 가장 큰 폭으로 변동된 것을 알 수 있음

- 2017년도의 경우 국내 사드배치로 인한 이슈로 방한 외국인의 높은 비중(2019년 기준 25.8%)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에 따라 관광숙박업 및 관광쇼핑업의 경영난을

초래함에 따라 2017년도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음

- 반면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사업체, 종사자)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은 감소하였으나, 타국 관광객의 유입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임

[표 5-3] 관광·레저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 추이(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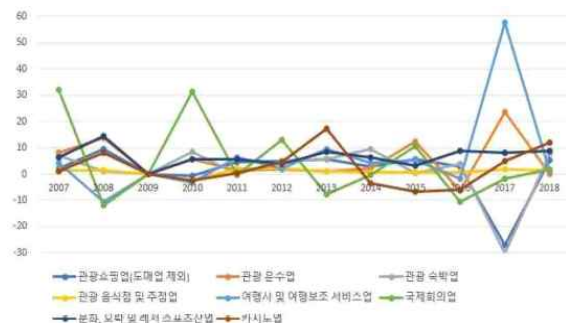
(단위: 백 개소, 백 명, %)

연도	관광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숙박업	관광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 오락 및 레저스포츠 산업	카지노업
2006년	455	106	469	1,602	72	23	79	23
2007년	464 (2.1)	114 (8.2)	502 (6.9)	1,622 (1.2)	75 (4.1)	30 (32.1)	84 (6.2)	23 (1.2)
2008년	509 (9.5)	130 (13.6)	507 (1.0)	1,647 (1.5)	67 (-10.4)	27 (-11.9)	96 (14.3)	25 (8.0)
2009년	509 (-)	130 (-)	507 (-)	1,647 (-)	67 (-)	27 (-)	96 (-)	25 (-)
2010년	506 (-0.5)	137 (5.4)	550 (8.3)	1,605 (-2.5)	65 (-3.1)	35 (31.1)	101 (5.5)	24 (-2.4)
2011년	529 (4.5)	139 (1.4)	550 (0.1)	1,639 (2.1)	69 (6.4)	35 (-0.3)	107 (5.6)	24 (0.4)
2012년	554 (4.8)	142 (1.7)	576 (4.7)	1,673 (2.0)	71 (2.2)	39 (13.1)	111 (4.0)	25 (4.5)
2013년	586 (5.7)	143 (1.1)	608 (5.6)	1,692 (1.1)	78 (9.6)	36 (-7.8)	120 (8.3)	30 (17.2)
2014년	604 (3.0)	146 (2.1)	666 (9.5)	1,705 (0.7)	81 (4.2)	36 (-0.3)	128 (6.4)	29 (-3.6)
2015년	639 (5.7)	164 (12.2)	670 (0.4)	1,714 (0.5)	85 (5.1)	40 (10.6)	132 (3.1)	27 (-6.5)
2016년	656 (2.7)	154 (-6.3)	695 (3.8)	1,724 (0.5)	84 (-1.5)	36 (-10.4)	144 (8.6)	25 (-5.8)
2017년	478 (-27.0)	190 (23.7)	486 (-30.0)	1,757 (1.8)	132 (57.6)	35 (-1.7)	155 (8.1)	26 (4.8)
2018년	504 (5.3)	191 (-)	524 (7.7)	1,782 (1.4)	133 (1.1)	36 (1.7)	169 (8.8)	30 (11.8)
연평균 성장률	1.3	5.3	1.5	0.9	6.3	4.7	6.6	2.5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0), 투어고 인사이트(데이터인사이트 4호), 재인용.



중분류별 사업체 수 증감율 추이



중분류별 종사자 수 증감율 추이

[그림 5-2]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감율 추이

■ 종사자 지위에 따른 관광·레저산업 고용형태

- 관광·레저산업의 13년간(2006~2018)의 근로형태(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음⁸⁶⁾

[표 5-4] 연도별 전체 산업(관광·레저산업) 종사자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명, %)

연도		자영업자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
2006년	전산업	2,756,813	17.8	948,234	61.4	170,601	11.0
	관광산업	870,637	30.7	907,245	32.0	453,324	16.0
2007년	전산업	2,772,876	17.3	9,858,446	61.8	1,793,017	11.2
	관광산업	871,887	29.9	948,312	32.5	508,072	17.4
2008년	전산업	2,778,032	17.0	9,965,491	61.1	2,014,709	12.3
	관광산업	890,473	29.6	910,978	30.3	602,965	20.0
2009년	전산업	2,787,093	16.5	10,249,585	60.9	2,214,300	13.1
	관광산업	895,711	29.2	923,439	30.1	638,395	20.8
2010년	전산업	2,821,830	15.9	10,699,076	60.6	2,529,436	14.3
	관광산업	898,181	29.7	915,173	30.2	612,748	20.2
2011년	전산업	2,883,970	15.9	11,344,790	62.7	2,297,390	12.7
	관광산업	910,340	29.4	977,938	31.6	609,681	19.7
2012년	전산업	2,966,326	15.9	11,580,358	62.3	2,412,090	12.9
	관광산업	947,932	29.7	1,041,018	32.6	692,861	21.7
2013년	전산업	3,000,618	15.6	12,220,345	63.7	2,362,592	12.3
	관광산업	960,635	29.1	1,126,471	34.2	692,379	21.0
2014년	전산업	3,071,505	15.4	13,446,906	64.3	2,600,973	12.4
	관광산업	980,610	28.8	1,187,368	34.9	705,165	20.7
2015년	전산업	3,127,452	14.9	13,692,110	64.4	2,712,045	12.7
	관광산업	993,765	28.6	1,292,239	37.2	643,820	18.5
2016년	전산업	3,173,311	14.9	13,692,110	64.4	2,712,045	12.7
	관광산업	1,006,193	28.6	1,308,849	37.3	697,066	19.8
2017년	전산업	3,211,229	14.8	13,944,003	64.4	2,763,785	12.7
	관광산업	911,762	27.9	1,196,438	36.6	649,522	19.9
2018년	전산업	3,260,484	14.6	14,368,925	64.6	2,888,527	12.9
	관광산업	921,137	27.4	1,271,171	37.8	677,994	20.1

주1)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고용형태(무급가족, 기타)로 인해 분석그룹인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 총합은 100%가 아님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0), 투어고 인사이드(데이터인사이드 4호), 재인용.

- 자영업자의 경우 2006년도는 870,637명(30.7%)⁸⁷⁾을 시작으로 비율이 감소하여 2018년도 921,137명(27.4%)으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 수는 2006년 907,245명(32.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 기준 1,271,171명으로

86) 산업의 고용형태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근로자 5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는 종사자 수요예측을 위하여 무급가족 및 기타근로자에서 인원을 제외함

87) ' () '의 수치는 당해연도 전체 관광산업 종사자 수의 비율임

로 전체 관광산업 종사자 중 37.8%로 나타났으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는 2006년 453,324명(16.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679,994명(20.1%)으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의 수와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광·레저산업의 고용안정화가 진 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알 수 있음

2) VAR·VEC 모형을 활용한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수 전망⁸⁸⁾

가. 분석방법

-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년간의 전국 사업체 조사 시계열(time-series) 데이터를 바탕으로 VAR·VEC모형을 적용하여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추이를 전망함
 -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는 전체 관광산업 종사자 수,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임(분석변수: 관광수입, GDP, 경제성장률, 여행 및 총횡수)
- VAR·VEC모형은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내생화하여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김진수, 2020)
 - VAR 모형은 Sims(1980)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나 기술적으로는 Lutkep(1991)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이후 Watson(1994)에 의해 수정·보완되어 Hamilton(1994), Campbell, Lo, and MacKinlay(1997), Cuthbertson(1996) m Mills(1999), Tsay(2001) 등에 의해 금융 시계열 등 분석에 널리 사용됨(김용재, 2005)⁸⁹⁾

$$AR(1): AR(1): a_t = \alpha + \theta a_{t-1} + \epsilon_t \quad (\text{식1})$$

- 만약, n차원 벡터 $a_t = (a_{1t}, a_{2t}, \dots, a_{nt})$ 일 때, 단인 시계열의 안정성 조건과 마찬가지로 벡터 시계열의 모형도 유사하게 안정성을 정의한다면, 벡터 a_t 의 안정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VAR(p)식(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VAR(P): a_t = \alpha_1 + \theta_1 a_{t-1} + \theta_1 a_{t-2} + \theta_1 a_{t-3} + \dots + \theta_n a_{t-n} + \epsilon_t \quad (\text{식2})$$

- VEC(Vector Error Correction)모형은 단위근 시계열인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에서 r개의 공적분 관계(cointegration relationship)가 존재하면 (식3)과 같이 VEC 모형으

88) 관광·레저산업 수요예측을 위하여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0)의 투어고인사이트(관광산업 특수분류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연계에 의한 관광산업 고용형태현황과 고용전망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성함

89) 예를 들어 AR(p)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의 차이(Lag)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벡터시계열 a_t 가 자기회귀구조를 가질 때 이 모형을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모델)이라함(김명직, 장국형 2011)

로 표현이 가능함

- 여기서 α 는 조정계수이며, β 는 공적분 방정식의 추정계수이고, Γ 는 단기 추정계수임

- 여기에서 종사자 수(총 종사자,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경제변수(관광수입,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여행 총 횟수)간에 공적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VEC 모형을 사용하고 공적분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VAR 모형을 사용함

$$\Delta y_t = \alpha(\beta y_{t-1} + \mu + pt) + \sum_{i=1}^{p-1} \Gamma_i \Delta y_{t-i} + \gamma + \pi t + \epsilon_t \quad (\text{식3})$$

- VAR을 사용 할 때는 먼저 각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stationary time series) 검정, 즉 시계열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의 일관성 여부와 불안정적 시계열(non-stationary time series)을 이용할 경우 신빙성이 떨어짐에 따라 정상 시계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실시함
- 단위근 검정 방법론의 이론적 기초는 DF(Dickey-Fuller) 검정에서 출발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을 사용함

$$\Delta Y_t = \alpha + \beta T + \rho Y_{t-1} + \sum_{i=1}^{\infty} \lambda_j \Delta Y_{t-i} + \epsilon_t \quad (\text{식4})$$

-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는 총 4개로 관광·레저산업의 총 종사자 수(tpeo), 자영업자 수(owner), 상용근로자 수(regular) 및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daily)이며, 주요 고려 변수로는 관광수입(income)과 여행 총 횟수(tour)임

[표 5-5] 변수 정의 및 출처

변수	정의	출처
관광수입	한국은행 국제수지 중 일반여행수입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GDP	국내 총생산	한국은행<국민소득>
경제 성장률	전년도 대비 경제 성장률	
여행 총 횟수	1년 동안 다녀온 국내 숙박여행 및 당일 여행 횟수의 총 합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조사>

주1)*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의 2019 국민여행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만 15세 이상의 국민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녀온 국내 숙박여행 및 당일여행 횟수의 총합계를 의미함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0), 투어고 인사이트(데이터인사이트 4호), 재인용.

- 각 변수의 단위근 검정 결과 임시 및 일용 근로자(daily), 경제성장률(growth)을 제외하고

는 모든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시계열 데이터로 확인 됨

- 이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차분을 실시한 결과 여행 총 횟수인 tour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1차분 후에는 단위근이 제거되어 안정적인 시계열을 나타냈으며, tour는 2차분 후에야 1% 이하 유의수준에서 안정적인 시계열 데이터 결과가 도출 됨⁹⁰⁾

[표 5-6] 단위근 검정결과

변수	t-value	p-value	차분 수준
tpeo	-3.135*	0.053	I(1)
owner	-3.120*	0.054	I(1)
regular	-2.826*	0.086	I(1)
daily	-3.006*	0.062	I(0)
income	-6.460***	0.000	I(1)
GDP	-3.481**	0.030	I(1)
growth	-4.772***	0.004	I(0)
tour	-4.786***	0.005	I(2)

주1)*:p<0.1, **:p<0.05, ***:P<0.01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0), 투어고 인사이트(데이터인사이트 4호), 재인용.

- 변수간 공적분 관계는 요한슨 공적분 검정(Johansen co_integration Test)을 통해 판별할 수 있음

[표 5-7] Johansen 공적분 검정결과

분류	통계검정치	income	GDP	growth	tour
총 종사자	Trace	30.282**	14.059*	21.654***	15.091*
	Max-Eigen	16.318	13.544*	19.642***	11.105
자영업자	Trace	16.821**	7.152	21.654***	15.091*
	Max-Eigen	10.680	5.893	19.642***	11.105
상용직	Trace	21.293***	8.061	21.343***	18.941**
	Max-Eigen	15.970**	7.165	21.030***	16.118**
일용직	Trace	11.819**	21.711***	31.580***	21.758***
	Max-Eigen	11.975	21.663***	21.191***	18.840***

주1)*:p<0.1, **:p<0.05, ***:P<0.01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0), 투어고 인사이트(데이터인사이트 4호), 재인용.

- 요한슨 공적분 검정은 기본적으로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공적분 관계를 추정하며, 고려하는 모든 변수들을 내생변수로 간주하여 종속변수를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 개의 공적분 관계를 식별해 낼 수 있는 편의성이 있음(오현주김상혁, 2014)

$$\Delta X_t = \alpha + \Pi_n \Delta X_{t-n} + \sum_{i=1}^{n-1} \Pi_i \Delta X_{t-i} + \mu_t \quad (\text{식5})$$

90) 단위근이 발생 할 경우에는 시계열로 이루어진 변수간의 구조식이 균형관계를 보이는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체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수와 경제변수(관광수입,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여행횟수) 간에는 모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음
 - 자영업자와 상용 근로자의 경우 GDP변수와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변수들과는 관계가 있는 거승로 나타남
 - 임시 및 일용근로자 그룹에서는 모든 변수에 대해 공적분 관계가 발견됨에 따라 귀무가설이 채택됨
 - 전체 관광·레저산업 종사자를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관광수입과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과 여행 총 횟수는 고용과 장기적 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불안정 시계열자료에 대해 공적분 관계를 가질 경우 변수들 사이의 장기적 균형과 단기적 균형을 고려할 수 있는 VEC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 보고자 함

나.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수 전망

-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수 전망을 위하여 사용한 데이터의 시계열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개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20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고용노동부(2020.06)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VEC모형을 통한 예측 연간 성장률과 2020년의 실제 전년 대비 성장률을 살펴보았음

■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수 전망

- 13개년의 시계열 데이터 자료와 2020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종사자 증가율을 예측하였음

[표 5-8]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수 전망

(단위: 명)

예측 연도	총 종사자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2019년	3,535,328	986,444	1,269,762	702,964
2020년	3,499,266	971,476	1,351,344	729,100
2021년	3,546,509	967,079	1,395,480	719,311
2022년	3,624,912	989,944	1,438,083	745,217
2023년	3,628,576	1,014,698	1,449,780	734,331
2024년	3,553,804	1,031,728	1,469,811	760,683
2025년	3,501,825	1,023,086	1,480,092	748,848

주1) 2020년 실제치는 전년 6월 동기 대비 값임(총 종사자수는 무급가족 및 기타 그룹 포함)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0), 투어고 인사이트(데이터인사이트 4호), 재인용.



[그림 5-3]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수 전망(2019-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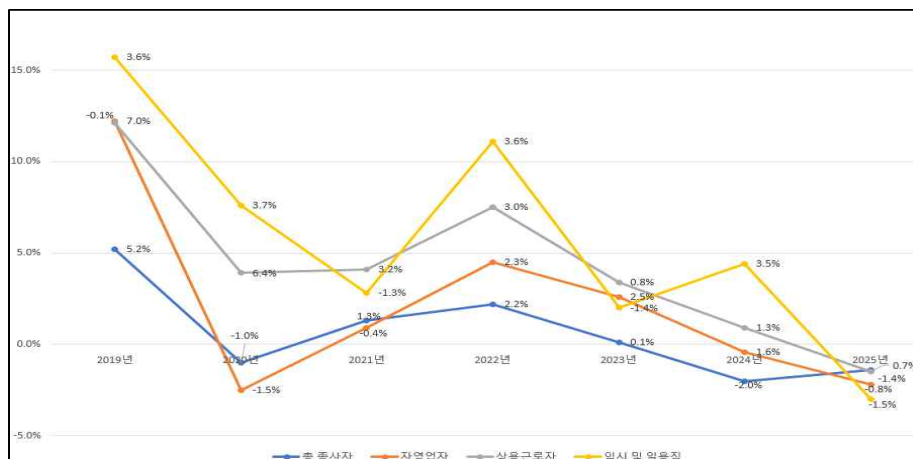
[표 5-9]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증가율 예측

(단위: %)

전망 연도	총 종사자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2019년	5.2	7.0	-0.1	3.6
2020년	-1.0	-1.5	6.4	3.7
2021년	1.3	-0.4	3.2	-1.3
2022년	2.2	2.3	3.0	3.6
2023년	0.1	2.5	0.8	-1.4
2024년	-2.0	1.6	1.3	3.5
2025년	-1.4	-0.8	0.7	-1.5
2020년 실제치	-8.3	-	-6.1	-21.1

주1) 2020년 실제치는 전년 6월 동기 대비 값임(총 종사자수는 무급가족 및 기타 그룹 포함)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0), 투어고 인사이드(데이터 인사이드 4호), 재인용.



[그림 5-4]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증가율 예측

-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종사자 수 전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 종사자 수는 2019년 3,535,328명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4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5년에는 3,501,825명으로 전망됨
 -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986,444명 → 2025년 1,023,086명 전망
 - 상용근로자는 2019년 1,269,762명 → 2025년 1,480,092명 전망
 -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는 2019년 702,964명 → 2025년 748,848명 전망
-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라 실제 전년대비 성장률과 비교해보기 위해 <표 5-9>와 같이 증감률을 정리하였음
 - 2020년 기준 총 근로자 수 1.0% 감소하였으며,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는 1.5% 감소하였음
 - 또한 상용근로자는 6.4% 증가하였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 역시 3.7% 증가한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인 2020년 6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고용감소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총 종사자 수는 8.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는 6.1%(↓),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수는 21.1%(↓)의 감소율을 보였음

다. 소 결

■ 관광·레저산업 상용근로자 비율 증대방안 모색

-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분석 시점인 2006년도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32.1%로 시작하여 종점인 2018년 37.8%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산업 평균 상용근로자 비율인 60%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여 고용안정화를 위한 개선이 요구됨
 - 임시 및 일용근로자(1년 미만 계약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고용 불안이 발생함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 다각적 지원방안 모색

■ 관광·레저분야 종사자 전이직 방안 모색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VAR·VEC 분석을 통한 종사자 수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듯하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실체치 -8.3%) 종사자의 실직 및 퇴직이 예상됨에 따라 전이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2. 관광·레저산업 취업자 수 전망⁹¹⁾

1) 관광·레저산업 소분류 기준 취업자 수 전망

-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고 있는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2018~2028)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광·레저분야의 직·간접 산업의 취업자 수를 전망하고자 함
- 먼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8~2028」은 KSIC(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의 소분류⁹²⁾의 관광·레저분야 산업에 직·간접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를 전망함
 - 관광·레저분야 산업 해당업종은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해상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업, 음식점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오락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분석함

■ 산업의 소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 철도운송업의 취업자 수는 2013년 25천 명을 시작으로 5년 후 2018년 28천 명, 2023년 29천 명, 2028년 28천 명으로 2018년부터 2028년 10년간 0.2%로 증가함
- 육상여객운송업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 10여년 간 0.1%(6천 명) 증가하였고, 해상운송업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 0.2% 증가하였으며, 항공여객운송업은 2018년~2028년 0.2% 증가함
-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2018년~2028년까지 1.0%로 증가하였고, 기타숙박업은 동기간(2018~2028) 0.8% 감소하였으며, 음식점업은 0.5% 증가하였음
-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은 2018년~2028년까지 1.5%(11명) 증가하였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은 동기간(2018~2028) 1.4% 증가함
- 또한 스포츠서비스업은 2018년~2028년까지 1.0% 증가하였고, 유원지 및 기타오락 관련 서비스업은 동기간(2018~2028) 0.7% 증가함

91) 한국고용정보원(201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18~2028)을 참고하여 재작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92) 관광·레저산업분야의 전반적인 취업자 수 전망결과 도출을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함

[표 5-10] 관광·레저산업 소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단위 : 천 명, %)

산업명	취업자 수				기간 증감				연평균 증가율			
	2013	2018	2023	2028	2013-2018	2018-2023	2023-2028	2018-2028	2013-2018	2018-2023	2023-2028	2018-2028
철도운송업	25	28	29	28	3	1	0	1	2.5	0.5	-0.2	0.2
육상여객운송업	577	501	512	507	-77	11	-5	6	-2.8	0.4	-0.2	0.1
해상운송업	24	23	23	23	-2	0	0	0	-1.3	0.4	0.0	0.2
항공여객운송업	32	36	37	37	4	1	0	1	2.6	0.4	0.0	0.2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113	122	136	135	10	14	-2	13	1.7	2.2	-0.2	1.0
기타숙박업	9	7	7	7	-2	0	-1	-1	-5.0	0.2	-1.8	-0.8
음식점업	1,563	1,700	1,782	1,781	137	82	-1	81	1.7	0.9	0.0	0.5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65	69	78	80	4	10	1	11	1.1	2.7	0.4	1.5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	51	60	66	69	9	7	3	9	3.2	2.1	0.7	1.4
스포츠서비스업	138	170	185	188	32	14	3	18	4.3	1.6	0.4	1.0
유원지 및 기타오락 관련 서비스업	130	129	139	138	0	9	1	10	0.0	1.3	0.1	0.7

주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18-2028), 재인용.

2) 관광·레저분야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고 있는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2018~2028)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광·레저분야의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 수를 전망하였음

- 관광·레저분야 직업 세분류 해당직업은 운송관련 관리자,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행사기획자, 번역가 및 통역가, 사서 및 기록물 관리자, 여행사무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원, 오락시설서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를 전망함

[표 5-11] 관광·레저분야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단위 : 천 명, %)

직업명	취업자 수				기간 증감				연평균 증가율			
	2013	2018	2023	2028	2013-2018	2018-2023	2023-2028	2018-2028	2013-2018	2018-2023	2023-2028	2018-2028
운송 관련 관리자	12	11	11	11	-1	0	0	0	-1.4	0.5	0.2	0.3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15	12	11	11	-3	-1	0	-1	-3.8	-1.9	-0.1	-1.0
행사기획자	14	7	18	19	3	2	1	2	3.9	1.9	0.7	1.3
번역가 및 통역가	21	27	29	30	6	2	0	2	4.9	1.4	0.3	0.9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8	18	19	19	0	1	0	1	0.4	0.8	0.2	0.5
여행 사무원	30	36	39	42	6	3	3	6	3.9	1.8	1.3	1.5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21	27	28	29	6	1	1	2	5.6	0.9	0.8	0.9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원	45	57	58	58	11	2	0	2	4.5	0.6	0.1	0.3
오락시설서비스 종사원	122	118	124	124	-4	6	0	6	-0.7	1.0	0	0.5

주1) 관광·레저분야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는 산업의 직·간접적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직접적 조리관련 직업(한식 조리사, 중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음료 조리사 등)은 제외하였음

주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18~2028), 재인용.

■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 운송관련 관리자의 취업자 수는 2013년 12천명으로 시작하여 5년 후 2018년 11천명, 2023년 11천명, 2028년 11천명으로 2018년부터 2028년까지 10여 년간 0.3%로 증가함
-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의 취업자 수는 2013년 15천 명을 시작으로 2018년 12천 명, 2023년 11천 명, 2028년 11천 명으로 2018년부터 2028년 10여 년간 0.1%로 감소함
- 행사기획자의 취업자 수는 2018년부터 2028년까지 10여 년간 1.3% 증가하였고, 번역가 및 통역가의 취업자 수는 2018년부터 2028년까지 10여 년간 0.9% 증가하였으며,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의 취업자 수는 2018년~2028년 0.5% 증가함
- 여행사무원은 2013년 30천 명을 시작으로 2018년 36천 명, 2023년 39천 명, 2028년 42천 명으로 2018년부터 2028년(10여 년간)까지 1.5% 증가하였음
-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의 취업자 수는 2013년 21천 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8년부터 2028년(10여 년간)까지 0.9%로 증가하였음
-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원의 취업자 수는 2013년 45천 명을 시작으로 2018년 57천 명, 2023년 58천 명, 2028년 58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2028년(10여 년간) 0.3%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오락시설서비스 종사원의 취업자 수는 2013년 122천명으로 시작으로 2018년 118천 명, 2023년 124천 명, 2028년 124천명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2028년(10여 년간) 0.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소 결

■ 직접적인 관광산업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

- 관광·레저산업의 소분류별 취업자 수의 경우 증가율은 여행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증가율(10여 년간 1.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 세분류 역시 여행사무원이 10여년 간 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가장 피해가 큰 업종으로 여행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두 유형의 취업자 수는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나 중소형의 기타숙박업(10여 년간 -0.8%)과 음식점 관련 직업(10여 년간 -1.0%)의 경우 감소추세가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함(코로나 상황 미적용 수치임)

3.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유망기술 및 직무

1) 업종별 유망기술 및 직무

-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유망기술 및 직무 도출 결과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사업(관광·MICE분야) 교육 수요조사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함⁹³⁾
- 교육수요조사는 관광숙박업, 여행업, MICE업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수요가 도출됨⁹⁴⁾

■ 여행업 분야 유망기술 및 직무

- 여행업 유망기술 및 직무: IT기획, 영상촬영/편집, 빅데이터 관리, ICT(AI, AR,VR)
- IT기획: 스마트 관광의 이해(필수), IT 전문용어의 이해)
- 영상촬영/편집: 영상제작 툴 및 제작법(필수), 관광크리에이터로 1인 창업하기
- 빅데이터 관리: R, 파이썬 등 통계 프로그래밍 입문
- AI, VR, AR: AI, VR, AR 이해

[표 5-12] 여행업 분야 유망기술 교육과정

분야	유망기술	교육과정	선택/필수
여행업 분야	IT기획	스마트 관광의 이해	필수
		IT 전문용어의 이해	선택
	영상촬영/편집	영상제작 툴 및 제작법	필수
		관광크리에이터로 1인 창업하기	선택
	빅데이터 관리	R, 파이썬 등 통계 프로그래밍 입문	필수
	AI,VR,AR	AI, VR, AR의 이해	선택

자료 : 2020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사업 교육수요조사 워크숍 도출 내용. 발체 인용.

■ 관광숙박업 분야 유망기술 및 직무

- 관광숙박업 유망기술 및 직무: 바이럴마케팅, IT시스템 관리, 인력관리(멀티테스킹 능력, 서비스 기술, 커뮤니케이션 스킬, 인력풀 관리 시스템 개발 등), 빅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강화, 딥러닝

93) 관광·MICE분야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 훈련사업의 경우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산업형 공동훈련센터)과 한국MICE협회(사업주 단체)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교육훈련 사업임

94) 분야별 교육수요 도출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여행업분야: 7명, 관광숙박업: 7명, MICE분야: 6명)가 참여하여 1박 2일의 워크숍을 통해 분야별 유망 기술 및 직무를 도출하였음

- 바이럴마케팅: SNS마케팅홍보
- IT 시스템 관리: 비대면 온라인 행사 전용 스튜디오 관리
- 인력관리(1): 타부서에 대한 이해(멀티테스킹 능력 강화)
- 인력관리(2): 온라인 교육 강화(서비스 기술, 각종 노무 교육 등)
- 인력관리(3): 커뮤니케이션스킬(유연성, 수용성 및 적응력)
- 인력관리(4): 인력풀 상시 관리 시스템 개발(이력서, 지원자 정보 등)
- 빅데이터: 고객정보 관리 & 활용
- 커뮤니케이션 강화: 온라인, 모바일 문서이해 및 작성능력
- 딥러닝: 서빙봇 등 AI분야

[표 5-13] 관광숙박업 분야 유망기술 교육과정

분야	유망기술	교육과정	선택/필수
관광숙박업 분야	바이러마케팅	SNS마케팅의 홍보	필수
	IT시스템 관리	비대면 온라인 행사 전용 스튜디오 관리	선택
	인력관리(1)	타부서에 대한 이해(멀티테스킹 능력강화)	필수
	인력관리(2)	온라인 교육강화(서비스 기술, 각종 노무 교육 등)	필수
	인력관리(3)	커뮤니케이션스킬(유연성, 수용성 및 적응력)	필수
	인력관리(4)	인력풀 상시 관리 시스템	선택
	빅데이터	고객정보 관리 & 활용	필수
	커뮤니케이션 강화	온라인, 모바일 문서이해 및 작성능력	필수
	딥러닝	서빙 봇 등 AI분야	선택

자료 : 2020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사업 교육수요조사 워크숍 도출 내용. 발췌 인용.

■ MICE분야 유망기술 및 직무

- MICE분야 유망기술 및 직무: 모바일 앱, 모바일 정중 응답시스템, 위치기반 서비스(LBS, 비콘), 증강현실(AR), 라이브 스트리밍, 빅데이터, 안면인식, 가이드 로봇, 챗봇, 홀로그램, IoT, 화상회의 시스템
- 모바일 앱: 온·오프라인 행사 운영 및 관리
- 모바일 정중 응답 시스템: 행사 질의응답 시스템 운영
- 위치기반 서비스(LBS, 비콘): 참가자 동선 및 빅데이터 파악
- 증강현실(AR): 가상 행사장 및 콘텐츠 구성
-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 온라인 행사 중계 및 참여
- 빅데이터: 행사 참가자 정보(선호도, 참석 세션 및 인원 수) 파악
- 안면인식: 비대면 등록

- 가이드 로봇: 행사안내
- 챗봇: 문의사항 응대
- 홀로그램: 행사 발표 및 안내 활용
- IoT: 행사장 온도 및 조명 조절
- 화상회의 시스템: 실시간 행사 진행

[표 5-14] MICE 분야 유망기술 교육과정

분야	유망기술	교육과정	선택/필수
MICE 분야	IT 분야 용어 이해	MICE에 이용되는 IT 기술 이해	필수
	모바일 앱	MICE에 이용되는 IT 기술 이해	필수
	모바일 청중 응답 시스템	Interactive MICE Strategy 강화	필수
	위치기반서비스(LBS, 비콘)	LBS 활용 가치 이해와 실제	필수
	실감콘텐츠(AR, VR)	가상 행사장 및 콘텐츠 구성 전략	선택
	라이브 스트리밍	MICE 라이브 스트리밍 혁신	필수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MICE 기획	필수
	안면인식	안면인식 기술의 이해와 MICE 활용	선택
	AI 챗봇	A.I. 챗봇 기술의 이해와 MICE 활용	선택
	홀로그램	홀로그램 기술과 MICE 연출 기법	선택
	화상 및 가상회의	하이브리드 MICE 기획의 핵심	필수
	뉴미디어	뉴미디어 활용 MICE 커뮤니케이션 전략	필수

자료 : 2020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사업 교육수요조사 워크숍 도출 내용. 발췌 인용.

2)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유망직종⁹⁵⁾

○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행사 등 기획자)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회의, 박람회 등)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언택트)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관광·레저분야 크리에이터(진행자, 리포터, 기획자 등)

- 현재 모바일 기반 각종 유튜버(크리에이터)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우리 산업 내에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인력의 수요가 예상됨(진행자, 리포터, 기획자, 콘티전문가, 촬영 관련자 등)

○ 관광·레저분야 렌탈업체 인력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행사(회의, 이벤트, 박람회 등)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 장비(시스템 등) 렌탈 수요가 높아지고, 온라인 플랫폼 업체, 레저(글램핑, 캠핑 등)용품 렌탈업체 인력 수요 예상

95)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유망직종에 대한 결과는 산업계 및 학계, 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적인 인적서비스 기반산업에 기술적 시스템이 도입된 직종의 수요가 도출됨

- Delivery Service 관련 인력(배달서비스, 플랫폼 운영 등)
 - 코로나로 인한 가정 내 배달률이 높아 집에 따라 관련 플랫폼(어플 등) 개발·운영 및 배달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가 예상됨
- 언택트 기술 인력(시스템 등)
 - 코로나로 인한 산업계 구조변화에 따라 비대면 즉, 언택트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로 인한 관련 기술지원이 가능한 IT인력의 수요가 예상됨
- 카지노 머신게임 관리 인력
 - 전통적인 인적서비스 기반의 카지노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면 서비스 제공의 제약에 따라 비대면 게임인 머신게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머신게임 관리 인력의 수요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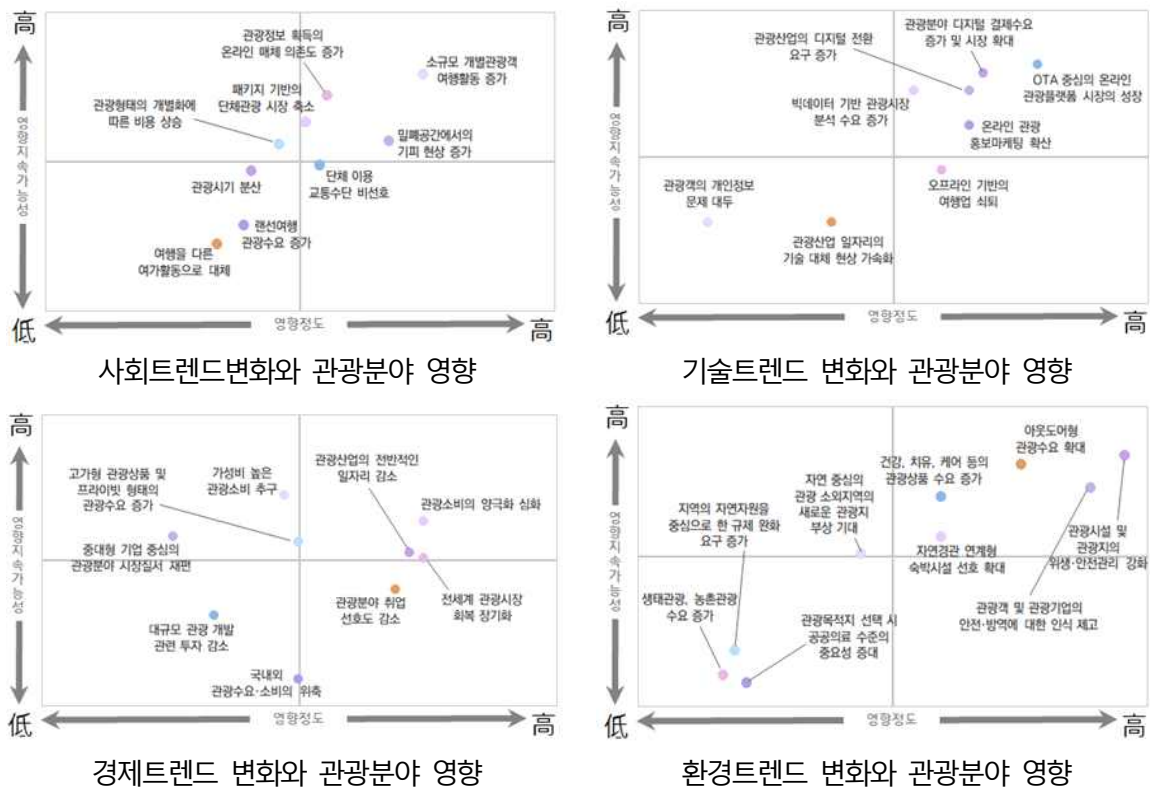
3) 코로나19 이후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유망직종⁹⁶⁾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레저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였음
- 총 4개 분야의 트렌드 변화를 토대로 향후 산업 내 유망직종(직무)에 대해 도출하였음

■ 산업의 거시 트렌드 변화와 관광분야 영향

- 코로나19 이후 사회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분야는 ‘소규모 개별관광객 여행활동 증가’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랜선여행 관광수요 증가’는 낮게 나타남
- 기술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분야는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요구 증가’, ‘관광분야 디지털 결제수요 증가 및 시장확대’, ‘OTA중심의 온라인 관광플랫폼 시장의 성장’, 온라인 관광 홍보마케팅 확산 ‘이 높게 나타남
- 경제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분야는 ‘관광소비의 양극화 심화’가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분야는 ‘아웃도어형 관광수요 확대’, ‘관광시설 및 관광지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관광객 및 관광기업의 안전·방역에 대한 인식제고’가 높게 나타남

96)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의 코로나19의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의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향후 유망직종을 도출하였음



[그림 5-5] 거시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분야 영향분석

■ 거시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레저분야 유망직종

- 온라인 관광홍보 마케팅 전문가
 - 최근 국민들의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활용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관광분야 홍보마케팅 전문가 수요 예상
- 관광플랫폼 개발 및 운영 인력
 - 관광·레저산업의 OTA 중심 플랫폼시장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인력 수요 증대 예상
- 아웃도어형 관광산업 인력
 - 코로나19로 인해 실내관광시설(관광지)이 아닌 야외, 즉 아웃도어형 관광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인력 수요 증대 예상(캠핑 전문가 등)
- 안전관리자
 - 코로나19로 인한 안전 및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광시설(관광지 등)에서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 관리 인력 수요 예상

3) 소 결

■ ICT기반 시스템 관련 직무(직종) 부각

- 산업 현장전문가 및 학계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된 관광·레저산업의 향후 유망직종(직무)의 경우 대부분 ICT기반 시스템 관련 직무가 도출되었음
- 이는 업종 구분없이 관광·레저산업 전반에 걸쳐 전통적인 인적서비스가 중시되던 산업에 기술적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인력의 수요가 도출됨
-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더욱더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업종별 ICT 인력의 채용이 진행되고 있음

■ 광의적 접근의 인적자원개발 필요

- 최근 모바일 기반 유튜버(크리에이터 등)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 플랫폼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가능해짐
 - 지자체 및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로 인한 아웃도어형 관광산업 즉, 캠핑산업이 부흥에 발맞춰 캠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자가자동차를 이용한 숙박, 일명 ‘차박’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서비스 산업이 아닌 시스템과 관련 인력 등 광의적 접근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 도모

■ 관광지 내 안전(방역시스템 등) 관리 인력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됨에 따라 관광지(관광시설 등) 내의 안전(방역시스템 등)을 담당하는 인력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분야 퇴직자를 활용한 전직 유도를 통한 인력확보
- 캠핑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내 필요한 인력 및 필요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안전과 관련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⁹⁷⁾

97)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0)의 3분기 이슈리포트의 내용에 의하면 캠핑장 교육과목 중요도에 캠핑장 안전관리 부분이 1순위로 도출되었음

제 6 장

결 론

1. 관광레저산업 종합 분석

1) 국내·외 관광동향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관광 급감

- 국제관광 환경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19년 기준 약 15억 명의 여행객 수와 1,478십억 달러의 관광수입이 창출되었지만 2020년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에 따라 국가별 이동제한 등으로 국제관광은 급감하에 따라 국내 관광·레저산업에도 심각한 경영난 초래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내수관광 불황

- 코로나19의 대확산에 따라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실내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행사개최가 제한됨에 따라 국내 관광·레저산업의 급격한 경영난이 초래됨에 따라 산업 내 신규 채용수요가 전문한 실정임
 - 관광·레저산업의 특별고용유지업종(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제외) 선정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 내 대량실직이 예상됨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관광트렌드의 변화

- 국내 관광트렌드는 코로나9 이후 기존의 관광트렌드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안전성, 소규모, 비대면, 청정지역 등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조사기관별 다양한 유형의 관광트렌드 도출)
 - 이러한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관광·레저산업 역시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상품 개발 및 시스템의 구축 필요
- 산업의 인적자원 역시 신규로 부상하는 업종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재직자 역시 새로운 시스템(비대면 등)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또한 이뤄져야 할 것임

2)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현황

-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수는 최근 5년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의 관광·레저분야 사업체 수는 33,452개로 전년 대비 1.1%가 증가함
- 업종별로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이 산업 전체의 63.2%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 또한 높은 비중(전체의 58.7%)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레저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신규채용률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높은 채용자 수가 높게 나타난 업종은 관광숙박업(14,419명)으로 나타났지만, 이직자 역시 관광숙박업(12,893명)으로 높게 나타나 종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직률 감소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 종사자 중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 수는 총 33,554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음
 - 업종별로 여행업, 카지노업 업종의 자격증 수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국제회의업과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종사자의 자격증 소지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2018년 기준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인력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0년의 관광·레저산업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다각적 지원 및 백신(치료제 등)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3) 관광·레저산업 인력 양성(향상) 기관 및 프로그램

- 관광·레저산업은 정부 부처 및 다양한 기관(협회 등)에서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성(신규채용) 및 향상(재직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력양성 및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 경우 대부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대한 인력양성·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광의적 접근을 통한 폭넓은 분야의 양성·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관광두레PD(청년 PD), 6차 산업, ICT관련 직종의 인력 양성 및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타 분야의 협업 또한 필요함
- 국내의 관광·레저산업 관련 정규교육기관의 관련 분야 취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기관(산업별 ISC 등)의 현장에 맞는 NCS의 추가개발 및 수정·보완을 통하여 정규교육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인력 미스매칭의 최소화가 요구됨
-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국가전문자격의 비중이 높고 국가기술자격은 컨벤션기획사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고, 현재의 국가전문자격 역시 자격취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관광·레저분야 업종별 국가기술자격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가기술자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취득에 따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격취득률 향상방안 모색 필요
- 또한 검정형 방식의 자격제도는 많은 이론적 지식을 요하는 비중이 높아 현장 근무자의 경우 자격취득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NCS를 기반으로 한 실무 위주의 자격체계의 전환이 필요함
 - 현재 컨벤션기획사의 경우 LEVEL별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업종별 자격제도의 NCS를 도입에 따른 자격 검정제도의 전환하여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자에게 자격수여 방안 모색이 필요함

4) 관광·레저산업 인력수급 전망

- 관광·레저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예측 결과(2019-2025)결과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4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퇴직자를 위한 전직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관광산업 특수분류 활용)
- 관광·레저산업 소분류 및 직업 세분류의 취업자 수 전망은 관광·레저사업의 직접산업(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공급 필요
- 전문가 집단의 의견조사를 통한 유망 직무(직종)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비대면) 및 ICT 기술적 시스템, 온라인 기반(플랫폼 등) 등과 관련한 직종의 인력이 요구됨
- 사무 종사자 중 여행 사무원은 실측기간에 매년 1.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 관광·레저산업의 현장 전문가 그룹 인터뷰(FGD)

- 관광·레저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산업 내 핵심 업종 7개 분야의 기업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FGD)를 시행하였음

■ 코로나19에 따른 업종별 피해현황 파악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레저산업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업종별 협·단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업종별 피해현황 파악이 요구됨
 - 업종별 현황 및 고용동향 등
- 또한 피해업체 방문을 통한 업종별 지원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ISC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모색 필요(교육 프로그램 등)

■ 코로나19에 따른 업종별 추가 지원방안 모색

- 코로나19 피해에 따라 정부부처(문체부, 고용부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혜택의 사각지대 업종을 비롯한 지원기간의 연장방안 모색 필요
- 또한 고용 잠재력이 높은 업종(유원시설업)과 사행산업 이미지가 높은 카지노업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제시 필요
- 각종 세금(전기세, 교통유발지원금, 임대료 등) 및 관리비 등의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의 혜택을 위한 정책 제한 또한 필요함(중앙정부, 지자체 협조)

■ 관광·레저ISC 역할 확대

- 전직시스템 구축: 캠핑산업으로의 필요인력에 대한 전직지원시스템 구축
 -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유망직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격체계 구축
 - 관광·레저산업에 ICT 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격체계 구축 등

2. 제언

■ 인력 양성기관 및 산업현장 연계 강화

- 관광·레저산업 분야 특성화고, 대학교(전문대 등) 등의 정규교육 기관과 업종별 산업현장 연계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직무위주의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을 통한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기업 및 취업자의 만족도 제고가 요구됨
- 정규 교육기관은 적극적인 산업현장과 연계(MOU)를 추진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교육기관과 산업현장 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현장맞춤형 교육기관의 확산을 유도해야 할 것임
 -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 훈련사업의 경우 이러한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사업주 단체와 산업형 공동훈련센터를 연계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ISC 참여기관인 한국MICE협회와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이 협업을 하고 있고, ISC는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산업 내 업종별 직무 및 직업분류체계 매칭

- 국내 산업에는 다양한 직무와 직업분류가 존재하고, NCS 분류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산업별 직무 및 직업분류가 상이하게 나타남(KSIC, KECO, KSCO, NCS 등)
- 또한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7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인력에 대한 통계수치가 상이하게 나타나 산업분류별 통합된 직무 및 직업분류 작업이 요구됨
- 이에 관련기관(문체부, 한국관광공사, ISC 등)과 산업 업종별 전문인력의 협업을 통해 각각 상이한 분류체계의 통합을 통한 산업의 정확한 인력수급 파악이 필요함

■ 관광·레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신규업종 및 직종 발굴

- 관광·레저산업의 지속적인 인력수요를 위하여 산업별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신규업종 및 직종을 발굴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산업의 업종별 증가추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또한 시대의 흐름(4차 산업 혁명 등)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기업현장 전문가 및 교육담당자의 유망직종(ICT 관련 직종, 아웃도어형 관광상품 개발자, 온라인 홍보마케팅 전문가, 관광플랫폼 개발 운영자, 크리에이터 등)의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역량강화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통해 현장 요구 부응이 필요함

■ 관광·레저산업의 대대적인 인력 수급실태 조사 실시

-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인력수급 실태 파악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현재 각종 통계자료의 경우 전수조사 수치가 아닌 표본조사 수치가 적용된 업종이 있으며, 교육기관별 학생들의 업종별 선호도 역시 표본조사 위주의 통계치로 전체를 대변할 수 없어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함(향후 추진과제)
- 업종별 산업현장의 필요 직무 및 인력수요조사를 비롯하여 인력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업종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교육기관 및 산업현장의 미스매칭의 최소화가 요구됨
- 이를 위해 관련 기관(문체부, 관광공사, 학회, 연구원, ISC, 협회 등)등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과 인력수급 균형성 확보
 - 현재 정부산하 기관의 통계자료의 경우 전반적인 산업내 업종별 현황자료 위주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산업 내 업종별 스킬(직무 기술) 기반의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요구도 반영이 필요함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 다양한 시대적 변화(4차 산업, 중장년층 등)에 따라 산업별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변화에 맞는 신규 직종의 개발과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필요함
- 이러한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업종별 신규 직종 및 인력의 양성을 비롯하여 기존 인력(조기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활용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 이와 발맞춰 관련기관(ISC 등)에서의 신규 직종에 따른 NCS개발 및 NCS기반 자격제도 구축을 통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공급이 필요함
-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업종별 필요한 정책 개발 및 제안이 필요함

■ 관광·레저산업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ISC의 역할 강화

- 관광·레저ISC는 산업계의 대표기관으로 본 산업인력현황 보고서 작성 등의 산업 내 업종별 인력현황조사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함
-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ISC의 일반적인 역할과 전략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됨

[표 6-1] 관광·레저ISC의 역할

구분	관광·레저ISC의 역할
일반적인 역할	• 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인재양성 가이드 역할
	• 산업 수요 중심 교육훈련 제도 정착을 위한 역할 강화
	•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 정기적으로 산업 인력 현황 분석 수행
	• 미래유망 신 성장산업 분야 NCS의 선도적 발굴·개발 등을 주도하여 NCS 기반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인력양성 정책사업 제안
	•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산업현장 핵심 이슈 및 실정 전달체계 구축
전략적인 역할	• NCS 개발·보완 및 확산
	• NCS기업활용 컨설팅 지원
	• 산업 내 업종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체계 구축
	• 지역별 인자위(RSC)와 협업을 통한 지역산업맞춤형 인재양성

- 통계자료 조사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들과 협업하여 조사대상 기업들의 수요(인력, 역량 등)와 인력양성기관의 의견, 교육생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기업과 교육기관(교육생)의 인력 미스매치의 최소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ISC는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지역인자위(RSC)와의 협업을 통한 관련사업(수요조사 등)의 수행이 필요함.
- 이와 같이 ISC는 산업현장과 정부기관의 중간조직으로써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가교역할의 충실한 이행이 요구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0), 2020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 참고 후 재구성
- 고용노동부, 『HRD-net, 2018』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 관광전문인력포털, <https://academy.visitkorea.or.kr>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0), 투어고 인사이트(데이터인사이트 4호)
- 교육부(2016).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 보도자료
- 교육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ttp://www.hifive.go.kr>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http://www.ncs.go.kr>)
- 기업일학습 포털, <http://www.bizhrd.net>
- 김명직·장국현(2011), 『금융시계열분석』, 제2판, 시우리 경문사
- 김용재(2015), VAR 모형을 통한 경제지표변화에 따른 관광수입 변동성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5(3), 39-51
- 김진수(2020), 패널VAR모형을 이용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택시장 예측요인 분석-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주택매매가격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14(2), 99-120
- 김현주(20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형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
- 김희수·김현주(2016).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나영선 외(2018),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정부 인적자원개발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ycoon1027&logNo=221825220078>)
- 동의과학대학교 크루즈 전문인력양성사업단(<http://cruise.dit.ac.kr/page/php/sub03.php>)
- 문화체육관광부(2009-2019).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관광두레 실적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20),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분야별 관광기업 지원 대책
-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s://www.pqi.or.kr>),
- 박상곤(2016), 2016년 관광수요 전망
- 법제처(2020).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 서울시 명동 및 동대문권 호텔마케팅 팀장 회의자료
-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2019), 2019년도 서울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 분석
- 야놀자 홈페이지(<https://yanolja.in/en/>)
- 이강욱(2011),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2009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시균 외(201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5~2025, 한국고용정보원
- 이원화박주영·조아라(2019),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0-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정아(2020), 노동시장 변동 추이와 코로나19 확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브리프
- 이훈영 (2008). 연구조사방법론. 청람.
- 정의산·유정정·조승현(2013). 중국 인바운드 관광수입의 수요예측: ARIMA 모형에 의한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2(1), 135-157.
-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https://kssc.kostat.go.kr>)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년도 원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6), 관광산업의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 한국고용정보원(201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18-2028)
- 한국고용정보원(2020), 제1차 산업지역고용세미나 자료(2020.05.08.)
- 한국관광공사(2018),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활용 국내관광 트렌드 분석 및 2019 트렌드 전망
- 한국관광공사(2019), 보도자료(2019.12.26.)
- 한국관광공사(2020), 보도자료(2020.06.11), 재인용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문화·관광인사이트(제143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투어고 인사이트(제23호),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위기, 해외 관광 분야 지원 정책 사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의 코로나19의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11). 2020년 9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https://www.kata.or.kr>)

Lewis, C. D.(1982). Industrial and business forecasting methods. London: Butterworth.

Makridakis, S.(1986). The art and science: An assessment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2(1), 15-39.

Makridakis, S., Wheelwright, S. C., & McGee, V. E.(1983). Forecasting: Methods and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Wiley.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Vol.18, July 2020)

부록: 1

관광·레저산업 핵심업종 FGI 분석 결과

1. 개요

1)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관광·레저산업 내 업종별 직무 및 인력수급실태의 파악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업종별 인적자원 개발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본 조사를 위해 관광·레저산업 중 업종별 특성을 분석하여 핵심업종을 선정하고 관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업종별 인력 수급 관련 현장의견을 반영하고자 시행하였음
 - 핵심업종은 관광·레저산업 중 사업체 수를 비롯한 종사자 수, 매출 등을 고려하여 산업 내 영향력이 있는 최종 7개 업종(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크루즈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선정하였음
 - 이외 교육기관 담당자(교수)를 대상으로 추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2) 현장 전문가 그룹 선정 및 일정

- 핵심 업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업(참여기관 및 전문가 풀 활용)의 현장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FGI를 시행하였음(기업: 3개, 교육기관: 2개, 협·단체: 5개)
 - 여행업: 모두투어
 - 관광숙박업(호텔업):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 국제회의업: 한국MICE협회
 - 카지노업: 한국카지노관광협회
 - 유원시설업: 서울랜드/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 관광객이용시설업(크루즈업): 팬스타라인닷컴
 - 교육기관(전문대학): 아세아항공전문학교, 부경대학교
- 업종별 FGI는 현장전문가의 일정에 따라 현장(기업)에 방문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하

였음.

- 현장전문가그룹 인터뷰(FGI)기간 : 2020.04.~2020.10

3) FGI 조사 내용

-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업종별 동향(업종 동향, 고용동향 등) 및 정부 지원정책, 향후 유망 직종 등의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함

2. FGI 분석 결과⁹⁸⁾

1) 여행업: 모두투어 담당자

가. 여행업의 업종동향

■ 코로나19 이전

○ 2019년 12월

- 하나투어 대규모(152명) 인사이동 발표 :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변경?
- 소비자심리 7개월 만에 낙관론 우세로 전환
- 롯데홈쇼핑 업계 최초 항공권 특가 판매
- 2020년 희망 여행지 1위 동남아시아, 2위 유럽 등 장거리 여행지도 인기
- 한진그룹 사업구조 개편 : 인건비 감축, 6년만 희망퇴직, 임원 20% 축소
- 위메프 여행 관련 MD 1,000명 신규채용 발표
- 하나투어 유상증자, IMM PE 사모펀드가 설립할 특수목적 회사가 해당주식 인수 : 최대주주가 기존 하나투어 대표이사에서 이 사모펀드로 변경
- 여행도 이제는 기술산업, CES 2020 최초 입성 : 여행&관광 마켓플레이스 신설

○ 2020년 01월

- 다양한 소스에서 2020년 이후 여행 트렌드 발표 : 공통적인 방향성은 1. 기술을 통한 여행 경험의 일원화, 2. 취향 다양화 및 개인화, 3. 경험 및 과정 중시, 4. 여행의 일상화 및 대중화
- 야놀자 등 스타트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공략

98) 핵심업종별 현장전문가 인터뷰(FGI)의 내용은 업종별 해당 업체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산업 내 업종 전체의 현황을 포함하지 않음

- 델타항공 IT혁신, 앱 하나로 여행스케줄 관리 : CES 2020 개막식 기조연설을 했던 델타항공의 CEO 발표
- 2020년 설 연휴, 여행객 절반이 '혼행족', 여행지는 '방콕'

■ 코로나19 이후

○ 2020년 02월

- 대형여행사 '코로나19' 자구책, '근무일수 단축' 가장 많아
- 여행업은 보통 유동성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유형자산(부동산 등)이나 무형자산(특허권 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실적 감소 혹은 기업 생존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 가장 쉽게 떠오를 수밖에 없음
- 모두/하나 합작 투자 전세기 전문 여행사 호텔앤에어닷컴 청산 돌입

○ 2020년 03월 이후(기사 내용)

- 모두투어 보통주 1주당 120원 현금으로 균등 배당, 총배당금 21억원
- “모두투어 보험대리점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통해 여행자보험 시장에 직접 뛰어든다.”, “하나투어 야심작 ‘하나허브’ 코로나 팬데믹 속 제 역할 할까?”
- 신개념 여행플랫폼 ‘하나허브’ 4/20일 출시 확정
- ‘국내 여행객 잡자’ 김포-제주 노선 확대 등 해외여행이 어려워 제주 등 국내선이 회복세를 보임

나.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고용현황

○ 코로나19 직격탄 여행/관광업, 고용 감소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평가,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어 ‘특별고용지원 업종’ 으로 지정

- 여행수요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행사는 총원은 생각도 못하며, 현 인원 유지 및 감원(특히 기간제근로자 등) 방향으로 지속 검토되고 있음
- 하나투어 전직원 22%(500명) 정리해고설 기사화
- 하나투어 자회사 지속적 청산/매각 및 SM면세점은 서울시내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오늘 9월 말 폐점 결정

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부처 지원정책 실효성

■ 정부부처 지원정책 실효성 및 개선방안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되나 실효성은 굉장히 낮음
 - 여행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기업 규모로 인한 지원 대상, 조건, 규모의 선정기준으로 인한 대규모 기업군의 역차별이 발생
 - 고용유지지원금은 낮은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 활용에는 부정적인 입장
 - 유급휴업은 유급휴직보다도 더 활용성이 떨어짐

■ 추가 필요 정책

- 고용유지를 위한 명목의 지원정책만으로는 현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임 (위기로 인한 폐업 및 구조조정을 감안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함)

2) 관광숙박업(호텔업): 한국호텔업협회

가. 호텔업의 업종동향

■ 코로나19 이전

- 앰버서더의 경우 구정 연휴 때 화재 발생으로 인해 휴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하던 몇 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
- 코로나19 이전 상황에서의 동계 시기의 고용현황은 평이한 상태였음
- 구정 이전과 구정 이후의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져 호텔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하고자 휴업, 휴직,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쉽게 결정하여 실행하지는 못하고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었음.

■ 코로나19 이후

- 현재 호텔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으며, 호텔업종에 오래도록 근무하셨던 분들 또한 지금 상황은 처음이라고 함(IMF 이상의 어려움 발생)

- 특급 호텔 및 소형 호텔 모두 휴업 또는 축소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명동 인근의 소형 호텔의 경우 외국인의 입국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휴업을 결정하고 있음
 - 프레지던트 호텔의 경우에는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 소독을 위해 인하여 며칠 간 휴업을 하기도 함
- 특별고용유지업종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호텔들이 이를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융자의 경우도 문체부 및 융자선정위원회를 통해 금액을 부여 받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본사 차원에서 호텔업에 대한 융자 대출금을 제한하였음
 - 이로 인해 호텔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음
- 반면 반얀트리외의 경우,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지 투숙객률이 주중엔 50~60%, 주말에는 만실로 운영되는 중임
- 문체부에 현재 코로나 관련 호텔 피해금액 관련하여 매주 담당자가 정리하여 송부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마다 대응하고 있음
- 협회는 현재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 호텔의 운영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호텔 의견을 수집하여 문체부에 제안함

나.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고용현황

- 현재 휴업으로 인하여 기존 정규 직원들은 유급휴직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시점의 직원들의 경우에는 인턴 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 전환을 10월로 시작하는 것으로 계약하기도 하였으며, 이론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 채용 또한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파라다이스호텔의 경우에는 임원들은 급여 삭감 진행)
- 현재는 고용유지부분이 시급한 상황이며, 특별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하여 고용 유지의 경우에는 다소 걱정은 없으나,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채용 연계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간간히 몇몇 호텔에서 과장 이상의 직급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을 진행 할 것으로 알고 있음.

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부처 지원정책 실효성

■ 정부부처 지원정책 실효성 및 개선방안

-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으로 선정되어 실효성 측면에선 아주 좋다고 고려됨
 - 반면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재산세 감면은 지자체별로 개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에게 권고형식이라 그 한계가 있어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됨
- 기업들이 고용 및 운영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더군다나 현재 코로나 19는 국내가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전 세계의 관광시장이 마비되었음
- 특히 우리나라 관광시장은 내국인의 국내관광은 한계가 있어 외국인의 국내관광에 의존하는 것이 큼. 하지만 당장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

■ 추가 필요 정책

- 정부차원으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방향이 필요함

3)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한국휴양콘도미니엄업경영협회

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업종동향

■ 코로나19 이전

- 20~30대 젊은 여행객 사이에서 강원도 양양 죽도해변이 스노클링과 서핑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큰 인기 증가
 - 하지만 캠핑과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어 콘도미니엄 운영에 큰 영향을 끼쳤고 동시에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 시장도 위축됨
- 그리고 국민들은 대부분이 국내 관광보다 국외 관광으로 눈을 돌렸고 국내 콘도미니엄 시장이 악순환으로 이어짐
- 업종별 고용 동향
 -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콘도미니엄업 같은 경우 채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이 어려워 일용직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 활용에 따라 서비스 질의 하락화가 불가피함

■ 코로나19 이후

- 리조트 휴장과 탄력적으로 부분 운영(부대업장 일부 휴업, 일부 객실만 운영 등) 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전 직원 단축 근무 시행하고 있음
 - 주요 집객 장소에 손소독제를 비치
 - 방역업체를 통한 특별방역
 - 전직원 마스크 착용
 - 자체방역통한 전 영업장 소독
 - 전직원 건강상태 상시 확인 등

나.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고용현황

- 현재 대부분 고용유지는 하고 있으나, 한달 70% 유급 휴가 또는 무급 휴가를 진행하는 리조트도 있음

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부처 지원정책 실효성

■ 정부부처 지원정책 실효성 및 개선방안

- 지난 3월 여행, 관광숙박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향후 6개월간 상향된 수준의 고용지원을 추가 연장이 필요함(1년 이상 지원 방안)

■ 추가 필요 정책

- 재산세 및 법인세 감면으로 추가 세제 혜택 필요
 - 코로나19 종식 이후 업계 정상화를 위해 '5대 소비쿠폰 및 구매환급'에 관광숙박업에 등재 필요

4) 관광객이용시설업(크루즈업): 팬스타라인닷컴

가. 여행업의 업종동향

■ 코로나19 이전

- 일본에서 발생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대량 확진사태로 크루즈선 내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 촉발
 - 확진환자가 발생한 각 크루즈선에 대한 전염공포심리로 인해 전세계 각국에서 크루즈선의 입항 거부사태 발생
 - 한국 역시 수차례 입항 거부 후, 최근에는 인력의 승하선이 없는 식자재 및 연료 공급 목적의 기술적 입항에 한해 허용 중
- 각 국제크루즈선사들은 바이러스의 선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월 이후 1개월 간 자발적 휴항 발표
 - 하지만,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추가적인 휴항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 각 선사별 2020년 2분기까지의 모든 운항 취소하였고, 하반기 운항재개 여부는 주요 발병국가들의 전파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
- 크루즈선사 전체적으로 1개월 휴항 시 \$1bn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긴급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의회에서는 선박들이 미국 국적선이 아닌 편의치적선박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
 - 이에 각 선사들을 지분매각(카니발), 차입(카니발, 로얄캐리비언, NCL 등), 전환사채 발행(카니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 (세부 자구노력 내용 별첨)

■ 코로나19 이후

- 크루즈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관광, 조선, 호텔, 항공, 유통업 등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될 정도의 수준임
 - 각 선사들은 직원 급여를 삭감하였으며, NCL의 경우엔 주4일 근무 시행 중임.
- 각 선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미연장을 통한 자연감소 외에도 현재 운항이 중단된 선박들의 승무원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미국 정부의 크루즈 하선객/승무원의 상업 교통수단 사용금지 조치에 따른 항공편 확보 어려움을 겪음
 - 결국 전체 승무원들을 국적별로 분류하여 자사의 크루즈선 활용,직접 운송 귀국 조치함

- 크루즈 운항의 중단 및 재정 악화의 영향으로 현재 조선소에 발주한 크루즈 선박들의 인도 시기가 늦춰질 것이 확실하며, 각 선사들은 조선소와 인도시기 및 자금일정을 조율 중임. 신규 크루즈선의 인도 지연은 신규 일자리의 확충 시기가 그만큼 늦춰진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올해 하반기에 안정화된 지역별로 크루즈 운항이 재개된다 할지라고 전체 선단 모두의 동시재개가 아닌 일부 선박의 단계별 재개가 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가 예상됨
-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의 크루즈 인력 수요는 북미나 유럽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음. 이는 중국이 가장 먼저 크루즈선의 운항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 6월 경), 이 경우 한국인 크루즈승무원 일부의 복귀도 예상할 수 있음

나.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고용현황

■ 대한민국 크루즈 (인바운드)

- 우리나라 인바운드 크루즈 시장은 2016년 이후 지속된 중국의 THAAD 제재로 인해 이미 활력을 많이 잃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큰 영향은 없음
- 오히려, 크루즈선사들의 요청과 중국 당국의 과감한 경제활성화 방침에 따라 중국발 크루즈관광이 가장 먼저 재개되고, 현재 추진 중인 후진타오 서기의 방한 성사와 사드조치의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지난 수년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이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리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인 컨센서스 없이 대규모 중국 관광객이 무리하게 입국할 경우 크루즈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우려도 있음

■ 대한민국 크루즈 (아웃바운드)

-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입은 분야가 바로 아웃바운드 크루즈 시장임
- 우리나라 크루즈 아웃바운드는 크게 ①한국 출도착 전세선 크루즈, ②한국 출도착 정규 준모항크루즈, 항공으로 크루즈 모항으로 이동하여 승선하는 ③동남아크루즈, ④지중해 크루즈, ⑤기타 지역 크루즈로 분류할 수 있음

① 한국 출도착 전세선 크루즈

- 당초 역사상 최대 호황을 보일 것이 확실시되었음(총 28,700명: 롯데관광 12,000명, 팬스타 9,000명, 롯데JTB 4,000명, 현대아산 1,500명, 크루즈랩 1,200명, 기타 1,000명)
- 하지만, 현재는 기존 예약된 전세선들이 대부분 취소되어 현재기준으로는 9,200명(롯데관광 5,000명, 팬스타 2,200명, 롯데JTB 2,000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함

② 한국 출도착 정규 준모항크루즈

- 당초 여름시즌(6-8월) 동안 한일구간에 14개 항차가 운항할 예정이었음
- 현재 일본의 상황을 고려할 때 6-7월 항차는 모두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큼. (총 취소 물량 규모 : 3,600명)

③ 동남아크루즈

- 동남아크루즈의 성수기는 겨울철이므로 현재까지는 타른 지역에 비해 직접적인 피해는 덜한 편이었음
- 올해 2사분기까지의 모든 일정 취소되었으며, 하반기 운항 재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함.
- 중국이 중국발 크루즈 운항 재개를 허용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기항지역이지만, 기항지를 보유한 각국이 항만을 개방할지 여부는 코로나19의 추세에 달려있음

④ 지중해크루즈

- 코로나사태 초기인 1월에 이탈리아 크루즈선에서의 의심환자 발생하며 예약 감소
- 현재는 지중해 연안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에서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고, 각 항만들이 폐쇄되었으며, 현지 랜드여행사 업체들이 장기 휴업상태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크루즈 여행 재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⑤ 기타 지역 크루즈

- 여름철에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알래스카 크루즈는 캐나다 측의 입항금지조치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2020년 영업은 끝난 것으로 봄

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부처 지원정책 실효성

■ 정부부처 지원정책 실효성 및 개선방안

- 크루즈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은 일반여행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의 특별고용유지금이 해고사태를 막는 실질적 보루가 되고 있음. 만약 특별고용유지금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대량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음

-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롯데JTB, 온라인투어, 현대아산 등의 주요 크루즈상품 판매 여행사들은 모두 특별고용유지금을 활용한 유급휴가를 시행 중이며, 선사를 함께 운영 중인 팬스타의 경우에는 별도로 활용하지 않고 정상근무 중임
- 긴급경영안전자금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은 해당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자금이 정말 필요한 업체보다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음
- 그나마, 대기, 상담, 입금까지 소요시간이 너무 길어 경영상태가 심각한 소규모 여행사 대표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추가 필요 정책

- 코로나19 사태로 장기 휴직 중인 크루즈 승무원들과 인솔자, 가이드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 크루즈관광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함.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크루즈관광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활동에 대한 추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

라. ISC 역할

■ 국외여행표준약관 개정

- 대규모 전염증(Epidemic, Pandemic)을 불가항력 요인으로 포함하고 이에 대한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크루즈관광 처럼 공급자가 해외 사업자이고 수요자가 내국인인 경우 해당 환불기준이 내국에 한해 적용된다면, 이 거래의 중개인인 크루즈 여행사들은 고객에게 환불은 해주고 크루즈선사로부터 환불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보완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실손보험 등의 예약취소 대응방안 마련

- 기존 예약 취소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적극 도입 검토 필요함

5) 국제회의업: 한국MICE협회

가. MICE의 업종동향

■ 코로나19 이전

- 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가 융복합된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정받아 2009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었음
- '18년 UIA 통계 기준 대한민국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음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최건수	891	997	1,297	890
순위	2	1	1	2

- MICE산업은 제도적으로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목적으로 함.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업육성 전략을 제시하며, 5년 단위 계획으로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업종별 고용 동향

- 국제회의업 업체 수는 18년 886개 사(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시설업)이며, 종사자 수는 9,100명으로 조사됨. 본 조사는 국제회의 18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진흥법 규정에 근거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로 분류된 사업체에 한하며, 국제회의산업과 연계된 기업과 종사자는 2만 여명 이상으로 추정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한국관광공사, 『2017 MICE산업통계 조사연구』, 2018)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체 수	700	890	886
종사자 수(명)	12,596	12,166	9,100
매출액	1조 8,376억원	1조 4,548억원	1조 3,033억원

- 관광산업 업종별 인력수요를 종합하면 향후 10년 내 365,26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현황보고서, 2019)

■ 코로나19 이후

- 전국 컨벤션센터 전시회/컨벤션/이벤트 취소 및 연기 건수 2월~4월 동안 약 700건 임(협회 자체조사)
 - 국내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 건수는 2017년 224,46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월~4월 개최 건수는 전체의 약 25%(54,387건)에 해당됨.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간 MICE행사가 대부분 취소 및 연기되었음을 감안하여 연간 매출이 1/4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행사 개최 또한 불분명한 상황임(*출처: 「2017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 상반기 매출액의 급감으로 인해 국제회의업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관련 서비스업(통역, 음향, 인쇄 등)까지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MICE업계 전체가 도산위기에 처해있음
 - MICE산업 전체 피해 규모는 컨벤션과 전시산업을 모두 포괄하여 2017년 업계 매출 통계 기준으로 약 7천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기금 용자를 확대 실시(4,450억원→5,250억원)하고 상환기간을 유예(1년간 원금 상환의무 유예 및 만기연장)하는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였음
 - 기업 경영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업종과 관계없이 확대 실시되고 있어 협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회원사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음

나.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고용현황

- 상반기 행사가 전무하여 매출이 제로인 상황에서 기업 차원에서는 조직 경영을 위해 휴업, 휴직, 감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협회에서는 업계의 휴업, 폐업, 무급휴가, 해고 등 고용 현황에 대해 조사 중에 있음
- 일부 기획사는 하반기 행사 입찰을 위한 제한서 준비로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적 요인들도 존재하여 이는 고스란히 업체의 경영부담이 되고 있음
-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상반기에 연기된 행사 대부분이 하반기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부처 지원정책 실효성

■ 정부부처 지원정책 실효성 및 개선방안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상향됨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액이 소폭 상승하였으

나, 이 또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닌 경우 피해액 매출액을 증빙해야 하는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휴직 수당을 먼저 지불한 후에 기업에 지급되어 자금순환이 안되는 사업주는 어려움이 있음
- 국제회의기획업은 관광산업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확대 적용해 줄 것을 고용부에 건의하여 협의 중에 있음
- 관광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은 담보를 필요로 하여,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기업의 경우 담보에 대한 부담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특히, 기존 대출금액 한도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관광업종 특례보증 지원제도가 필요함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부처 지원정책 개선방안
 - 관광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은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현재의 시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적으로 필요한 곳에 빠른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협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회원사에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포스트 코로나19 시기를 대비하여 ‘안전관광’에 대한 이슈를 확산하고 관광자와 관광기업이 모두 이를 준수하여 관광산업의 회복과 관광자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추가 필요 정책

- 기업 지원금보다는 실제 국내에서 MICE 행사가 개최되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가 무엇보다 시급함.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현 시점에, 온라인을 통한 회의 기술의 도입 등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기업에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함
- 국제회의기획업은 국내 개최되는 국제회의, 정부행사 등을 입찰을 통해 수주하는 형태의 구조임. 따라서 상반기 취소 및 연기된 행사의 경우 하반기에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함(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됨)
- 이전보다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입찰 준비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보완하여 심사 적격기업에 한해서는 일부 reject fee를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함

6) 유원시설업: 서울랜드

가. 유원시설업의 업종동향

■ 코로나19 이전

- 국민들에게 유원시설업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으로 놀이동산에 가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물놀이 유원시설의 경우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감염병이 확산하여 일찍 종료하였고, 실내 놀이시설의 경우 겨울이 성수기 시즌이지만 2월부터 현재까지 전년대비 30%, 다른 놀이시설도 전년 대비 30%정도 입장객이 감소함
 - 특히 3월 말 부터는 정부에서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은 가지말라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TV를 통해 계속 방송하고 있어서 4월 성수기 방문객은 전년대비 20%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경영의 어려움 때문 유원시설업체 중 약 120개사가 운영을 중단하였고, 계속 운영 중인 업체도 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업종별 고용 동향
 - 방문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현재의 고용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규채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의 인력도 무급휴가를 통해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 유원산업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 유원시설업 이용객의 방문이 전년대비 30%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최대 성수기인 4~5월 (실내 시설 2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또한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막대한 피해 발생
- 각 업체별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고객 이용시설 수시 소독 및 방역, 열화상카메라 설치, 직원 휴직제도 운영, 급여삭감 등 사업장 유지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코로나 종식을 위한 이용자제 요청, 언론에서 감염병을 퍼트릴 수 있는 위험한 시설이라는 악의적인 기사 등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문제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 될 때까지 장기적인 침체가 예상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시설 및 고용 유지의 어려움 예상

나.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고용현황

- 소규모 유원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면서 직원들을 휴직 또는 계약해지하였고, 대규모 유원시설도 일부 임시 휴장을 통해 직원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계속 영업중인 유원시설은 직원들 휴직제도 운영, 신규 채용 중단 등으로 버티고는 있으나 시설유지 및 인건비로 인한 적자폭이 커지고 있으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원이 불가피함

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부처 지원정책 실효성

■ 정부부처 지원정책 실효성

- 고용유지금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의 20%이상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원시설의 경우 임시 휴장을 하고 전체 직원을 휴직 시킬 경우 고용유지금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휴장을 하지 않는 유원시설은 고용유지를 하면서 공원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고용유지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유원시설업 특성상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놀이시설 절반만 이용하도록 할 수는 없는 특성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공원 시설 전체적인 가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해야 하고 정상시간까지의 영업 필요
- 또한 고용유지 지원 신청이 전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리 계획하여 휴직시키기에도 제조업과 달리 관광업계는 어려움 발생
- 이러한 제도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유원시설 및 관광업계에 적용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됨

■ 추가 필요 정책

- 특별 고용유지 지원금 유원시설업 추가 선정 필요

- 관광업계는 1개월 휴직, 근로시간 20% 기준을 폐지하고 휴직한 근로자가 있으면 무조건 지원대상으로 선정 필요(사후신청제 도입)
- 각종 세금 인하
- 직원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 및 전기요금 할인 :
 -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 전기요금 할인 등 각종 세금 할인 필요

라. ISC 역할

- 정부의 지원 기준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 노동부 등 각 정부 기관이 관광업계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조업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관광업계에 맞는 기준 제시 필요

7) 유원시설업: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가. 유원시설업 하반기 동향(산업, 고용변화 등)

- 현재 유원시설업의 경우 출입인원 제한(50%)에 따른 경영에 어려움 발생
 - 전국의 약 350개 업체 중 150개 업체 임시 휴장 중으로 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워터파크의 경우 전년대비 약 90% 손실 발생(소규모 실내 키즈카페 역시 전반적인 어려움 발생)
- 유원시설업의 2018년 연매출액은 약 2조원인데 반해 2020년도 10월 기준 약 9천 5백억 원 손실을 가져왔으며, 올 말까지 한다면 약 1조 5천억의 손실이 예상됨
 - 또한 재산세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업부진에 따른 임대료(지방세) 감면방안 필요
- 유원시설업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체열 기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이므로 지원방안 모색 필요(특고업종 제외/고용유지금 50%): 지방 소재 업체 사제출현 인건비 부담 중
- 유원시설업은 장치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주해야 할 최소 인력이 많아 인건비 부담

- 또한 산업 특성상 임금수준이 낮아 이직률 높아짐(시설관리의 경우 동 자격보유자 타산업에 비해 임금수준 현저히 낮음)
- 실내 대규모 유원시설업(롯데월드 등)의 경우 단기 근무자(서비스 분야) 활용 없음(안전사고에 따른 정규직 종사자 활용)
- 코로나19의 백신개발(치료제 등) 전 상황은 다소 어두운 전망이 예상됨에 따른 지원책 필요(현재 경사노위를 통한 유원시설업 활성화 방안 모색 중)
- 현재 업체별 임원기준 인원감축(임원진 80% 감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기업 계열 업체는 세제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원시설업 전망

- 코로나19에 따른 유원시설업 역시 비대면(언택트) 시스템 구축 필요(발열체크, 이력체크 기능 등)
- 법정 의무교육 및 장치에 대한 교육의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필요

다. ISC 역할

- 유원시설업 입장객의 실태분석 자료 필요(빅데이터 분석 등)
- 대기업 계열 기업 혜택 지원 확대방안 모색
- 지자체 임대료 감면방안(정부지원 등)
- 사업주 교육의무화(2021년도)에 따른 교육 현실성 반영 등

8) 카지노업: 한국카지노관광협회

가. 카지노업 하반기 동향(산업, 고용변화 등)

- 현재 카지노업의 경우 외국인 입국급감에 따라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어려움 발생(영업중지 등)
- 육지 카지노(제주도 외, 서울, 부산, 인천 등)의 경우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 8개의 카지노업의 경우 거의 영업이 이뤄지지 않아 업체 어려움 발생

- 일부 카지노 업체(파라다이스 등)의 경우 희망퇴직제를 시행하고 있음
- 국내 유일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최소 영업이 진행되고 있어 카지노업의 전반적인 어려움 발생
- 카지노업은 공기업인 세븐럭 카지노(GKL)와 강원랜드의 경우 자체 유보자금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사기업(파라다이스 등)의 경우 경영난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남
- 관광산업인데 반해 사행산업 이미지가 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혜택 역시 제한적임
- 현재 카지노 관련 교육기관에서 연 천명에 가까운 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나, 카지노업의 어려움에 따라 효율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는 카지노업종의 퇴직자가 적어 순환체계가 다소 제한적임
- 또한 카지노업종의 급여수준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됨에 따라 선호도 역시 감소함
 - 카지노업의 경우 격리기간(국가별 2주)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지노업 전망

- 관광산업에 전반적인 비대면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카지노업의 경우 전통적인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업종으로 시스템 도입이 다소 제한적임
- 이에 따라 머신게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켜봐야 할 듯함

다. ISC 역할

- 카지노업의 경우 게임종류의 추가/변경에 따른 관련 NCS의 개발/개선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학습모듈 역시 필요함
- 대표 허가산업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완화 정책 제언 필요

9) 교육기관: 아세아항공전문학교

가. 관광·레저산업 하반기 동향(산업, 고용변화 등)

- 관광 산업은 하반기 이후 2022년까지 비 성장세로 진행 예상
 - 영세사업체는 12월까지 지원되는 고용유지금이 끊기면 폐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여행업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이며, OTA 중심의 온라인 스마트 관광시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
- MICE산업은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로 사이버 국제회의, 디지털 컨퍼런스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
- 호텔업은 코로나 1단계 유지 시 유명 관광지 및 수도권 고급 호텔들의 영업이익은 향상되리라 기대
- 여행업 인력은 당분간 신규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 MICE 산업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호텔업도 1단계 유지 시 관광지 및 수도권의 호텔들은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MICE 및 호텔업은 10월~1월 초까지 성수기로 지금의 인력으로 충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레저분야 유망직업(직종)

- 관광관련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수요 증가 예상(기획자)
- 관광관련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관리자 증가 예상(관리자)
- 관광관련 유튜버 증가 예상(진행자, 리포터, 기획자, 콘티전문가, 촬영 관련자)
- VR체험 관광 관련 시장형성으로 인력 충원 예상(기획, 관리 등)
- 관광관련 렌탈업체 증가로 신규 채용 증가 예상(온라인 영상 장비 업체, 온라인 회의 플랫폼 제공 업체, 글램핑, 캠핑장, 카라반, 기타 장비 등)

다. ISC 역할

-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개발하여, 각 기업에서 바라는 온라인 기본인성교육과 기초문서작

성업무 60시간(인성 20, 문서작성 40, 시험 60점 이상 기준 적용) 수료 후 수료증 발급(교육적인 측면과 취업자, 기업 운영자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

- ISC 홈페이지에 각 분야 구인/구직정보 볼 수 있도록 카테고리 구축 필요

10) 교육기관: 부경대학교

가. 관광·레저산업 하반기 동향(산업, 고용변화 등)

-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종전에 비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19 유행기간은 예측이 어려우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종식되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
- 코로나19의 여파로 일반 대중관광보다는 아웃도어 중심의 레저 및 캠핑 위주의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관광 및 레저산업의 직접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은 현재 대학입시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실정(관광계열 학과의 신입생 지원율 하락)으로 코로나 종식과 산업이 안정화 될 때까지 숙련공들의 타 산업으로의 이직현상이 예상되며, 중장기적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준비된 사회 초년생(관광계열 졸업예정자)이 부족하게 될 우려도 예상됨
- 비대면 관광환경을 선호하는 관광객을 위한 언택트 관련 기술력을 지원할 수 있는 IT기술자가 관광계열에 더 많이 필요해 질 것임
- 온라인대면방식의 기술을 활용한 국제회의나 관광상품 홍보 등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호텔업은 코로나19 사태가 1단계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상반기 신규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레저분야 유망직업(직종)

- 레저 및 캠핑용품 관련 업체 증가 예상 (1인 또는 가족단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야외활동관련)
- 여행사나 MICE 관련 업체의 서버 증축 또는 인프라 구축 관련 인력 충원 또는 아웃소싱

업체 증가 예상

- 외식산업 관련하여 배달음식관련 외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 예상 (업체별 다양화로 질적 성장이 예상됨)
 - HMR 음식 관련 소비 증가에 따른 개발자 또는 공급업체 증가 예상
- 관광관련 콘텐츠 개발자 증가 예상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등 1인 콘텐츠의 수요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기획자의 필요가 예상됨)

다. ISC 역할

- 관광·레저 관련 사업의 구인/구직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구축
- 관광·레저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IT관련 기술교육이나 자격증 과정 수업개설 및 수료증 발급으로 취업 준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개발
- 관광·레저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이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취업준비생들에게 경력을 위한 준비단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3. 시사점

■ 코로나19에 따른 업종별 피해현황 파악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레저산업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업종별 협·단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업종별 피해현황 파악이 요구됨
 - 업종별 현황 및 고용동향 등
- 또한 피해업체 방문을 통한 업종별 지원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ISC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모색 필요(교육 프로그램 등)

■ 코로나19에 따른 업종별 추가 지원방안 모색

- 코로나19 피해에 따라 정부부처(문체부, 고용부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혜택의 사각지대 업종을 비롯한 지원기간의 연장방안 모색 필요

- 또한 고용 잠재력이 높은 업종(유원시설업)과 사행산업 이미지가 높은 카지노업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제시 필요
- 각종 세금(전기세, 교통유발지원금, 임대료 등) 및 관리비 등의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의 혜택을 위한 정책 제한 또한 필요함(중앙정부, 지자체 협조)

■ 관광·레저ISC 역할 확대

- 전직시스템 구축
 -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내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함에 따라 업종별 대량실직이 예상되어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관광·레저ISC는 산업 내 대표 인적자원개발기관으로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방안, 즉 전직 및 이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산업 내 인력 수요가 있는 업종(캠핑산업 등)을 발굴하여 업종으로의 효율적인 이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전·이직의 실효성 제고 및 기관의 위상확보 필요
- 유망직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격체계 구축
 -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인적서비스 기반의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ICT기반의 시스템 도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산업내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융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격체계 구축이 필요함(AI, VR, AR 등)
 - 또한 업종별 수요조사를 통해 ICT기반의 교육수요조사를 통해 업종별 필요한 교육분야를 도출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빅데이터, 언택트 시스템-장비 등)
 - 향후 관련 산업 ISC(정보기술, 전자, 방송통신 등)와의 협업을 통한 관광·레저산업의 ICT화 추진

2020년도 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현황 보고서

발행처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 화 : 02-569-6880

주 소 : 0613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20 역삼현대벤처빌 1505호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ourism & Leisure Industrial Skills Council